

역사 ②

I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324
II	민족 운동의 전개	358
III	대한민국의 발전	390
IV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420
V	아시아·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452
VI	현대 세계의 전개	480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19세기 중엽 흥선 대원군의 집권 시기부터 일제에 의해 대한 제국의 국권이 침탈되기까지를 다룬다.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과 개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파악하고, 일제의 침탈 과정과 이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이해한다.



▲ 황토현 전적지(전북 정읍)

01. 개항과 개화 정책의 추진에서는 흥선 대원군 집권기의 개혁 정책, 강화도 조약 체결의 대내외적 배경, 개항 이후 추진된 개화 정책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살펴본다.

02.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동학 농민 운동에서는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에서 지향했던 새로운 사회를 각각의 구체적 개혁안을 통해서 살펴본다.

03.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에서는 아관 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결성된 독립 협회의 활동과 고종의 환궁 이후 새롭게 출범한 대한 제국이 근대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실시한 개혁을 다룬다.

04.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에서는 개항 이후 신문물이 수용되는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며, 수용의 양상을 교육·언론·문예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05. 국권 수호 운동에서는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설명하고, 특히 일제에 의해 독도가 불법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2 단원의 목표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 후반에 자주적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열강의 침략에 대하여 위정척사 운동, 동학 농민 운동, 항일 의병 전쟁 등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외세의 침략과 위협 속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의 시기별 전개 양상과 특징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의 변화를 지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근대 문화 활동이 민족의 자주 독립 수호를 위한 노력과 연결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일 의병 전쟁, 의거 활동 등을 파악하며 순국선열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본받으려는 자세를 갖는다. •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에서 나타난 주체적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 민족의식의 고취와 자주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파악하며,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는 자세를 배운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1	01. 개항과 개화 정책의 추진	1. 흥선 대원군의 개혁과 통상 수교 거부 정책 ~ 2. 강화도 조약과 여러 나라와의 수교	삼정의 문란, 호포법, 서원 정리, 당백전, 병인양요, 신미양요, 척화비, 운요호 사건, 강화도 조약, “조선책략”, 불평등 조약
2		3. 개화 정책의 추진과 갈등	통리기무아문, 별기군, 조사 시찰단, 위정척사 운동, 임오군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3	02.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동학 농민 운동	1. 갑신정변	갑신 개화파, 개혁 정강, 텐진 조약, 거문도 사건
4		2. 동학 농민 운동	방곡령, 교조 신원 운동, 고부 봉기, 집강소, 전봉준
5		3. 갑오개혁	군국기무처, 흥범 14조, 삼국 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단발령
6	03.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1. 독립 협회	아관 파천, 독립신문, 독립문, 만민 공동회, 현의 6조
7		2.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대한국 국제, 황제권 강화, 광무개혁, 구본신참의 원칙, 지계
8	04.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1. 근대 문물의 수용	경인선, 광혜원, 서양 건축 양식, 생활 양식과 가치관 변화
9		2. 근대 문화의 형성	원산 학사, 육영 공원, 사립 학교, 한성순보, 대한매일신보, 주시경, 신채호, 박은식, 신소설과 신체시
10	05. 국권 수호 운동	1. 일제의 국권 침탈	러·일 전쟁, 제1차 한·일 협약, 독도, 간도 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 통감부, 헤이그 특사, 한·일 신협약
11		2. 의병 항쟁 ~ 3. 애국 계몽 운동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서울 진공 작전, 안중근, 헌정 연구회, 대한 자강회,新民회, 국제 보상 운동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19세기 후반 나라 안팎의 위기 상황, 개항 이후 개화와 보수의 갈등, 외세의 침략과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 민족사의 전개 과정을 이해시킨다.
- 19세기 이후 민족사적 과정은 근대화의 추진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려는 과정이었음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사료, 사진, 도표와 지도, 역사 부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들이 주요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흥미롭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서익식,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숲, 2003.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탐구당, 2003.
- 김육훈,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2006.
- 한국사연구회,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하)”, 지식산업사, 2008.
- 이승원, “세계로 떠난 조선의 지식인들”, 휴머니스트, 2009.
- 하영선, “네트워크 지식 국가”, 을유문화사, 2006.
- 전국 역사 교사 모임 <http://akht.eduhope.net/>

01

개항과 개화 정책의 추진

학습 목표

- 흥선 대원군이 추진한 개혁의 내용과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강화도 조약 체결의 대내외적 배경과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 개항 이후 추진된 개화 정책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	<p>1. 흥선 대원군의 개혁과 통상 수교 거부 정책 ~ 2. 강화도 조약과 여러 나라와의 수교</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 순조~철종 시기에 행해진 정치 형태를 무엇이라고 할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활용하여 대원군의 정책을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탐구하게 한다. • 병인양요, 신미양요에 대해 발표하게 한 후 원인, 전개 과정, 결과를 정리하게 한다.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배경과 내용을 살펴본다. • 조약의 불평등성을 모둠별로 탐구하게 하고, 이후 맺어진 각국과의 수교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화폐는? 2. 수신사로 일본에 간 김홍집이 가져와 미국과 수교를 맺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책은?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탐구식 발표식 강의식 발표식</p> <p>문답식</p>	<p>CD</p> <p>13쪽 자료 14쪽 자료 CD 15쪽 자료</p> <p>학습지</p>
2	<p>3. 개화 정책의 추진과 갈등</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정부가 설치한 기구는 무엇인가?</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화의 의미와 개화사상의 형성 과정, 개화 정책의 내용을 설명한다. • 개화 정책에 반발하여 일어난 위정척사 운동을 사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시기별로 특징을 구분하게 한다. • 최익현이 강화도 조약 체결을 반대한 이유를 탐구하게 한다. •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임오군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결과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 발표식</p>	<p>CD</p> <p>PPT CD</p> <p>18쪽 자료 동영상</p>

2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p>1. 영선사 파건을 계기로 설치된 근대 무기 공장은?</p> <p>2. 청 상인이 조선의 내륙에서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을 보장받은 조약은?</p>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문답식	학습지
---	--	-----	-----

● 학습 내용 정리

1. 흥선 대원군의 개혁과 통상 수교 거부 정책

(1) 나라 안팎의 정세

① 국내 상황

- 세도 정치 전개 → 왕권 약화, 삼정의 문란
- 사회의 동요 → 농민 봉기, 동학과 천주교의 확산

② 국외 상황: 이양선의 출몰, 중국과 일본의 개항, 러시아의 접근

(2) 흥선 대원군의 내정 개혁

① 목표: 왕권 강화와 재정 확보, 정치 질서 회복

② 주요 개혁 내용

- 세도 정치 타파: 안동 김씨 축출, 인재 고루 등용
- 비변사 폐지 → 의정부 기능 회복
- 삼정의 개혁: 호포법 및 사창제 실시
- 서원 정리, 양전 사업 실시 → 국가 재정 확충
- 경복궁 중건: 원납전 징수, 당백전 발행, 토목 공사 동원

③ 결과

- 왕권 강화, 백성 생활 안정에 기여
- 일부 양반의 반발과 경복궁 중건으로 백성의 불만 고조

(3)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

① 병인박해: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천주교 신도 처형

② 병인양요

- 발단: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강화도 침입
- 경과: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삼랑성)에서 격퇴

③ 신미양요

- 발단: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강화도 침입
- 경과: 어재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저항

④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

- 문제점: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 의의: 외세 침략에 맞선 자주적 성격

2. 강화도 조약과 여러 나라와의 수교

(1) 강화도 조약

① 배경: 일본의 통상 조약 강요(운요호 사건), 일부 관리들의 개항 주장

② 내용: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 세 항구 개항, 개항장에 일본인 거주 허용, 조선 해안 측량권 및 치외 법권 허용 등

③ 성격: 불평등 조약

④ 의의: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2) 서양 여러 나라와의 수교

① 미국: 서양 국가 중 최초로 조약 체결 → 최혜국 대우

②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 수호 통상 조약 체결

③ 평가: 불평등 조약, 세계사의 흐름에 합류

3. 개화 정책의 추진과 갈등

(1) 정부의 개화 정책

① 수신사·조사 시찰단 파견(일본, 영선사 파견(청), 보빙 사절단 파견(미국))

② 통리기무아문설치: 개화 정책 주관

③ 별기군 조직: 신식 군대, 일본 교관 초빙

(2) 위정척사 운동

① 목표: 일본과 서양을 배척하고 고유의 유교 질서 수호

② 경과: 개항, 개화정책 반대 → 의병 항쟁으로 계승

(3) 임오군란

① 배경: 개화론과 척사론의 대립, 민씨 세력과 대원군의 갈등, 일본에 대한 군중의 반발

② 경과: 구식 군인들이 봉기 → 정부 고관과 일본 군사 교관 살해 → 대원군 재집권, 개화 정책 중단 → 청의 대원군 납치 → 민씨 세력 재집권

③ 영향

- 청: 내정 간섭 강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 일본: 일본군의 서울 주둔(제물포 조약)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2쪽

강화도에 설치되어 있던 외규장각에는 1천 7종, 5천 67책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1866년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에 상륙한 프랑스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불태워 전각이 소실되었다. 그 결과로 5천여 권 이상의 책이 불에 타 사라졌으며, 의례를 비롯한 340여 책이 약탈되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3쪽

1. 호포법
2. 흥선 대원군이 전국의 서원 중 47개만을 남겨 놓고 철폐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4쪽

병인박해로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된 것에 대해 프랑스가 조선을 응징하겠다고 1866년 9월 세 척의 군함을 이끌고 양화진을 거쳐 서울 근교까지 침입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프랑스 선교사가 포교를 하면서 우리의 풍속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국법에 의해 그들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프랑스 함대의 퇴거를 요구하는 격문을 프랑스군에게 보냈다. 이에 프랑스 함대는 선교사 처형과 관련된 책임자 처벌과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을 요구하며 일단 퇴거하였다가, 10월에 다시 일곱 척의 군함을 보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5쪽

부산을 포함한 세 곳의 항구 개항, 조선과 일본의 통상 허용 등과 일본 항해자의 조선 해안 측량 허가, 일본인에 대한 치외 법권 인정 등 불평등한 내용이 담겨 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5쪽

제7항 일본 항해자의 조선 해안 측량권 허용, 제10항 일본인에 대한 치외 법권(영사 재판권) 인정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에 해당한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7쪽

“.....곳곳마다 화륜선, 화륜차를 만들고 또 사람을 시켜 먼 곳에서 상업을 경영케 했으니, 요는 온 힘을 다해 재화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김기수가 작성한 수신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수신사 일행은 증기선과 기차, 전보, 신문, 대포 등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이를 보고서에 작성하여 고종에게 올렸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고종과 조정 대신들의 근대화와 국제 정세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8쪽

예시 답안 실은 양적(洋賊, 서양 도적)입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선교사와 신자의 전수를 거쳐 사학이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포도청에서 살피고 검문하여 잡아다 베려고 하면, 저들의 사나운 노기가 또 한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강화로 맺은 맹세가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죄를 묻지 않는다면 얼마 안 가 집집마다 사학을 받들고 사람마다 사학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신하가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인간은 금수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9쪽

1. (1) 호포제, (2) 별기군, (3) 제물포 조약
2. (1) 경복궁, (2) 조사 시찰단, 영선사
3. ㉠-㉡-㉢-㉣

내용 더하기

대원군의 인재 등용

1차시

대원군이 집권한 후 어느 공회 석상에서 음성을 높여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 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제공들은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물었다. 대개 천리지척이라는 말은 종친을 높인다는 뜻이요, 남대문 3층이란 말은 남인을 천거하겠다는 뜻이요, 태산을 평지로 만들겠다는 말은 노론을 억압하겠다는 의사이다. - 황현, “매천야록”

세도 정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권을 장악한 흥선 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였다. 대원군은 외척의 세도로 권세를 누리던 안동 김씨 세력을 정계에서 몰아내고 당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였다.

호포제(戶布制)

1차시

양반, 상민을 막론하고 모든 호(戶)에 공평하게 군역(軍役)과 관련된 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원래 양반은 관직에 나아가 국가에 봉사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군역을 면제받고 있었는데, 이는 상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을 좀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양반에게 군역을 지우자는 호포제 개혁론이 제기되었지만,

양반 기득권층의 반발로 2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논의만 있었을 뿐 실현을 기대할 수 없었다. 흥선 대원군의 호포제 실시로 상민의 세 부담은 다소 가벼워졌고, 양반·상민 모두 군역세를 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평등 의식도 확산되었다.

● 병인박해

1차시

이때 나라 안을 살살이 뒤지니 포승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어느 길에서나 볼 수 있었다. 포도청 감옥은 넘쳐나 제때 재판받을 수 없었다. …… 교수형을 할 때마다 배교할 것인가를 물었다. 하지만 작은 어린아이도 부모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기를 바랐다. 대원군이 듣고 어린아이를 빼고 모두 죽여라 하였다. 시체를 수구문 밖에 버리니 산과 같았다.

- 이능화, “조선 기독교 및 외교사”

대원군은 초반에 천주교에 관대하였으며,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프랑스 선교사의 알선으로 프랑스와 교섭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사되지 못하였고, 청에서 천주교 탄압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생들이 천주교 금지를 주장함에 따라 프랑스 신부 9명과 신도 수천 명을 처형하였다.

● 병인양요 당시 대원군이 쓴 글

1차시

1.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화친을 허락한다면 이는 나라를 파는 것이다.
2. 해가 있음을 모르고 그들과 교역을 허락한다면 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3. 적이 서울로 쳐들어올 때 서울을 버리고 간다면 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4. 만약 귀신을 부르는 재주가 있어 적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다면 하더라도, 이후의 폐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 “용호한록(龍湖閑錄)”

프랑스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이끄는 군함 7척을 강화도로 보냈다. 이에 대원군은 강한 항전 의지를 보였고, 문수산성에서 한성군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양현수 부대가 활약하여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 조·일 수호 조규 부록(1876)

1차시

제7관 일본 인민은 일본의 여러 화폐로 조선 인민의 소유물과 교환할 수 있고, 조선 인민은 교환한 일본의 여러 화폐로 일본에서 나는 여러 화물을 살 수 있으니, 이로써 조

선이 지정한 여러 항구에서 일본 화폐를 인민 상호간에 통용할 수 있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은 ‘조·일 수호 조규’ 제11조에 통상 장정을 체결할 것과 ‘조·일 수호 조규’ 각 조항의 세목을 보완·첨가하기로 한 취지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 부록은 일본이 한반도에 정치적·경제적 침투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제7관에서 일본 화폐의 통용권을 부여하여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합법화시켜 주었고, 실질적 가치가 형식적 가치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엽전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 조·일 통상 장정(1883)

1차시

제6관 조선의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제7관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입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직후 통상 관계에 대하여 조·일 무역 규칙이 맺어졌다. 이 조약은 조선의 양곡을 일본으로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고, 일본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후 조선 정부는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여 새로운 통상 장정 체결을 모색하였으나 일본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관세 5%, 수출세 5%와 각 세율에 대하여 3개월 전에 통고하면 조선 정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되자, 조·일 통상 회담을 통해 새로운 통상 장정이 체결되었다.

새롭게 체결된 통상 장정에서는 방곡령(防穀令) 선포와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조선책략

1차시

조선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열강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도 위급해진다.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려 하고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親中國), 일본과 맺고(結日本), 미국과 이어짐(聯美國)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 조선은 마땅히 미국에 사절을 보내어 수교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그들이 사신을 잇달아 보내어 조선과 연결을 하려는 뜻이 있음에랴. 미국을 끌어들이 우방으로 삼으면 도움을 얻고 화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과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조선책략”은 청의 주일 공사관 관리 황준헌의 저서이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고자 조선과 청 사이의 외교 정책을 논한 것으로, 1880년에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가져와서 고종에게 바쳤다. “조선책략”이 유포되면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자, 유생들은 집단 상소를 올리며 책의 유포를 반대하였다.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차시

조선 정부는 미국과의 수교에 앞서 강화도 조약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조약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대신 청과 미국이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조약 내용이 결정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대표인 슈펠트의 직접 협상 대상은 이홍장을 비롯한 청 관리였는데, 이는 청이 조선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전문 14개조로 되어 있다. 거중 조정과 관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치외 법권 등이 담긴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강화도 조약에 없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개화사상의 변화

2차시

무릇 개화란 인간의 온갖 만물이 가장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데, 개화에는 인륜 개화, 학술 개화, 정치 개화, 법률 개화, 기계 개화, 물품 개화가 있다. 인륜 개화는 천하만국을 통하여 그 동일한 규모가 천만 년이 지나도 장구함이 변하지 않거니와, 정치 이하의 여러 개화는 시대에 따라서 변개(變改)하기도 하고 지방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그런 고로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으며, 저쪽에는 좋지만 이쪽에는 좋지 않은 것도 있어, 곧 고금의 형세를 살피고 피차 사정을 비교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이 개화의 대도(大道)이다.

- 유길준, “서유견문”

개화(開化)는 원래 “역경(易經)”의 ‘개물성무(開物成務)’와 “예기(禮記)”의 ‘화민성속(化民成俗)’의 머리글자를 따온 것으로, 유교로써 교화한다는 뜻이다. 우리 전통을 유지·보전하면서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이자는 동도서기론

(東道西器論)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개화 운동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적인 민족 국가를 확립하려고 했던 움직임이다. 그 바탕이 된 개화사상은 안으로는 북학파의 사상을 계승한 통상 개화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밖으로는 청의 양무운동과 일본의 문명 개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1860~1870년대에 형성된 개화사상에 영향을 준 것은 양무운동이다. 양무운동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원칙에 입각해 중국의 봉건적 통치 체제와 성리학적 신분 질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려 하였다.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화는 주로 서양의 ‘civilization’을 가리키는 문명 개화(文明開化)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갔다. 문명화 곧 서구화를 이루려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전통 질서를 깨뜨리고 서양의 법과 제도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훗날 김옥균, 박영효 등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이러한 이념을 받아들였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문명 개화론자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을 받은 급진 개화파에게는 개화가 급격한 서구화의 추진이라는 논리로 정착되었다.

● 통리기무아문

2차시

강화도 조약 이후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외국과의 교섭 및 통상 등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청의 총리기무아문을 모방하여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통리기무아문은 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12사를 두었다.

구분	기능
사대사	중국과의 외교
교린사	일본 및 각국과의 외교
군무사	중앙과 지방의 군사 통솔
변정사	국경 사무, 인근 국가의 동정 탐색
통상사	외국과의 통상
군물사	병기 제도
기계사	각종 기계 제조
함선사	각종 선박 제조
기연사	연안 포구를 왕래하는 선박 검사
어학사	각국 언어와 문학의 번역
전선사	관리 선발과 관용품 조달
이용사	재정 사무

● 위정척사 운동

2차시

위정척사(衛正斥邪)는 성리학과 이에 기반을 둔 전통 질서를 지키고 이외의 종교와 사상은 배격하자는 주장이다. 이항로, 기정진, 최익현, 유인석 등 보수적인 유생층이 중심이 되었으며, 1890년대 이후에는 항일 운동으로 계승되어 반외세·반침략의 자주적 민족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통치 체제, 양반 중심의 신분 제도, 성리학적 질서를 옹호하고 구체적인 근대화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측면도 지닌다.

시기	주요 인물	전개
1860년대	이항로, 기정진	통상 반대 운동
	최화주전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지지	
1870년대	최익현, 유인석	개항 반대 운동
	왜양일체론에 입각하여 개항 반대	
1880년대	이만손, 홍재학	개항 반대 운동
	개화 정책 추진과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 영남 만인소 사건	
1890년대	유인석, 이소응	항일 의병 운동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반발	

▲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

● 별기군과 구식 군인

2차시

별기군은 1880년 2차 수신사가 일본에 다녀온 후 1881년 설치된 신식 군대이다. 일본군 호리모토 중위를 초빙하여 교관으로 삼고, 소총으로 무장하여 신식 훈련을 받았다.

한편 구식 군인은 대부분 급료를 받아 생활하는 직업 군인으로, 주로 왕십리나 송례문 밖에 살고 있던 도시의 빈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거의 월급을 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악화된 재정 형편과 별기군 창설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상공업이나 채소 재배 등을 통해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정부가 별기군을 바탕으로 군대 편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정리 해고에 대한 강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결국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과 구식 군인의 불만이 폭발하여 임오군란이 일어나 호리모토 중위는 타살되었고, 별기군도 폐지되었다.

● 제물포 조약

2차시

제1조 범인 체포는 20일로 한정하고 기한 내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 일본 측에서 맡아서 처리한다.

제2조 일본 관리로서 조난을 당한 자를 후하게 장사지낸다.

제3조 일본인 조난자 및 그 유족에게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일본군의 출동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비로 50만원을 조선 측이 지불한다.

제5조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병영의 설치·수선 비용을 조선 측이 부담한다.

제6조 조선에서 대관(大官)을 특파하여 일본에 사과한다.

청군의 개입으로 임오군란이 수습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사과와 배상 요구 및 거류민 보호를 위한 군대출동 등을 결의하고 조선에 압력을 가하였다. 결국 1882년 7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 군대가 서울에 상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조선 침략의 발판을 놓았다. 한편 일본에 사죄 사절을 파견한다는 조항에 따라 박영효를 정사로 하는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는데, 이때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

● 임오군란의 결과

2차시

위안스카이는 차츰 차츰 조선 왕실과 정부에 손을 뻗치기 시작하더니 끝내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마침내 위안스카이의 간섭이 동전(銅錢)의 국호(國號)까지 이르렀다. “청나라는 큰 나라이고 조선은 작은 나라이다. 대조선(大朝鮮)이라는 칭호는 작은 나라로서 격에 맞지 않는다.” 하여 대(大)자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 이리하여 1892년에 만든 5냥은화, 5푼 동화에 새겨져 있는 대조선자는 위안스카이가 시비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대조선이라고 되어 있고, 1893년부터 만든 돈은 모두 대자를 빼고 조선 개국으로 만들게 되었다.
- 유자후, “조선 화폐고”

청은 임오군란을 진압한 이후 조선 내정에 적극 간섭하였다. 곧 위안스카이 등이 지휘하는 군대를 상주시켜 조선 군대를 훈련시키고, 마젠창과 뮐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 내정과 외교 문제에 관여하였다. 1882년 8월 조선과 청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장정의 핵심은 조선이 청의 속국이며, 청 상인이 내륙까지 진출하여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청의 간섭은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청이 패할 때까지 계속되어 조선의 자주권을 크게 손상시켰다.

학습 목표

- 갑신정변의 배경과 전개 과정 및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파악할 수 있다.
- 개항 이후 일제의 경제 침탈이 농촌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 갑오개혁의 추진 과정과 성과 및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에서 지향했던 새로운 사회를 개혁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	<p>1. 갑신정변</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가 모범으로 삼은 동아시아의 근대 운동은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운동을 비교하고,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의 차이를 설명한다. •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을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다. • 갑신정변 때의 개혁 정강을 분석한 후, 갑신정변으로 수립된 정부의 개혁 정책과 지향했던 정치 형태를 발표하게 한다. •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과 의의를 설명한다. • 갑신정변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을 정리하고,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를 거문도 사건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은? 2.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나라는?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발표식</p> <p>강의식</p> <p>탐구식</p> <p>문답식</p>	<p>CD</p> <p>PPT 동영상 21쪽 자료</p> <p>CD 21쪽 지도</p> <p>학습지</p>
4	<p>2. 동학 농민 운동</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최제우가 창시하였으며 인내천을 기본 사상으로 하는 종교는?</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 일 통상 장정 사료와 당시 곡물 유출 실태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활용하여 일본의 경제 침투 실상을 파악하게 한다. • 곡물 유출이 농촌 경제와 농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항하여 취해진 조 	<p>문답식</p> <p>탐구식</p> <p>발표식</p>	<p>CD</p> <p>역사 부도</p> <p>22쪽 지도</p>

4	<p>치를 발표하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과 1차 농민 봉기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 • 동학 농민군의 개혁안에 나타난 사회의 모습을 반봉건적인 측면과 반외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추론하게 한다. • 동학 농민 운동 2차 봉기의 배경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와 한계점을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곡물 유출의 금지를 선포한 명령은? 2.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은 후 전라도 각지에 설치하였던 지방 자치 민정 기관은?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강의식 탐구식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23쪽 지도 23쪽 자료 학습지
5	<p>3. 갑오개혁</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우리나라에서 신분 제도가 철폐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에서 제시된 개혁 내용을 상기하며 교정청과 군국기무처를 설명한다. • 모듈별로 갑오개혁의 주된 개혁 내용을 탐구하며 갑오개혁의 긍정적 · 부정적 의미를 각각 발표하게 한다. • 청 · 일 전쟁부터 삼국 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게 한다. • 갑오개혁의 성과와 의의를 설명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을 통한 부국강병을 강조하며 1895년 고종이 발표한 조칙은? 2.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에게 랴오둥 반도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 나라는?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문답식 강의식 발표식 탐구식 강의식 문답식	CD PPT 24쪽 삽화 CD 학습지

● 학습 내용 정리

1. 갑신정변

(1) 갑신정변의 발발

- ① 배경: 청의 내정 간섭 심화, 소극적인 개화 정책
- ② 개화파의 분화

구분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
중심인물	김홍집, 김윤식 등	김옥균, 박영효 등
개혁 방안	점진적 개혁 추구	급진적 개혁 추구
개혁 모델	청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

- ③ 중심인물: 급진 개화파(개화당, 독립당) 인사
- ④ 경과: 우정총국 개국 축하 연회를 이용하여 정변(1884) → 새 정부 구성, 개혁 정당 공포 → 청의 개입 → 개화당

정권 붕괴 → 김옥균, 박영효 등 일본 망명

(2) 개혁 정책의 실시

- ① 내용: 청에 대한 자주권 선언, 신분 제도 · 조세 제도 개혁, 입헌 군주제 도입 등
- ② 성격: 근대적 개혁을 통한 근대 국가 수립 도모
- ③ 실패 원인
 - 국민들의 개화사상에 대한 이해 부족
 - 일본군의 힘에 의존, 청군의 개입

(3) 갑신정변의 결과

- ① 청의 내정 간섭 심화
- ② 텐진 조약: 청 · 일 양국군 철수, 조선 파병 때 상호 고지 약속

(4) 갑신정변 이후 나라 안팎의 정세

① 거문도 사건(1885)

- 배경: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싼 청 · 일본 · 러시아 · 영국 등 열강 사이의 경쟁 심화

- 경과: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이 거문도 점령 → 영국, 2년 만에 철수

② 중립화론: 유길준, 독일 부영사 부들러 등이 조선 중립화론 제기

2. 동학 농민 운동

(1) 방곡령

- ① 배경: 일본으로 곡식 유출 심화, 흉년 → 곡물값 폭등
- ② 경과: 함경도 · 황해도 방곡령 발표 → 일본 정부 반발 →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 지불
- ③ 영향: 반일 감정, 정부에 대한 불신 고조

(2) 동학 농민 운동

① 교조 신원 운동

- 교조 최제우의 누명을 벗겨 줄 것과 동학 탄압 중지 요구
- 보은 집회: 교조 신원, 외세 배척, 탐관오리 숙청 요구 → 사회 개혁 운동으로 발전

② 고부 농민 봉기

- 배경: 고부 군수의 부정과 탐학

- 경과: 전봉준의 주도, 농민들이 관아 공격(1894) → 황토현 전투 등에서 관군 격파 → 전주성 점령

③ 전주 화약: 정부가 청에 지원 요청 → 텐진 조약을 구실로 청 · 일의 개입 → 정부와 화약 체결 → 집강소 설치 → 개혁 추진

④ 동학 농민군의 재봉기

- 원인: 일본의 경복궁 점령, 청 · 일 전쟁 발발
- 전개: 일본군 타도를 내세우며 다시 봉기
- 결과: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 → 전봉준 체포, 처형 → 동학 농민 운동 좌절

(3)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

- ① 반봉건, 반외세의 농민 운동
- ② 동학 농민군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일부 반영

3. 갑오개혁

(1) 갑오개혁

① 배경

- 동학 농민 운동을 계기로 정부는 교정청 설치
- 일본의 강요로 새로운 정부 구성

② 경과: 군국기무처 설치 → 개혁 추진(1894) → 일본의 내정 적극 간섭 → 김홍집 · 박영효 내각의 군국기무처 폐지, 개혁 추진 → 고종의 ‘홍범 14조’ 선포, ‘교육입국 조서’ 발표

③ 내용: 정치 · 경제 · 사회 제도의 근대적 개혁

- 정치 개혁: 과거제 폐지, 재판소 설치(사법권 독립)
- 사회 개혁: 신분제 폐지, 노비 해방, 과부 재가 허용
- 홍범 14조: 자주 독립, 문벌 타파 등

(2) 을미개혁

① 을미사변(1895)

- 배경: 삼국 간섭, 조선의 배일 정책 추진
- 전개: 위기를 느낀 일본이 명성 황후 시해

② 을미개혁: 태양력 채택, ‘건양’ 연호 사용, 단발령 실시

③ 을미의병: 을미사변과 단발령 실시에 분노한 양반 유생과 농민들이 의병 운동 전개

(3) 갑오개혁의 한계와 성과

- ① 한계: 일본의 간섭과 침략적 의도로 성급하게 진행, 군사제도 개혁 소홀, 토지 제도 개혁 외면
- ② 성과: 개항 이후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 운동의 개혁 요구 반영, 근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0쪽

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독립을 실현하고, 봉건적 신분 제도를 폐지하며 입헌 군주제에 바탕을 둔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1쪽

1. 인민 평등권

2. 대신들이 국정을 논의 · 결정하고 왕권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2쪽

동학 농민 운동

탐구 활동 ▶▶▶ 교과서 23쪽

예시 답안 탐관오리의 횡포, 전세의 과다 징수, 어염세 등 각종 세금, 과도한 노역, 환곡의 폐단 등으로 농민의 고통이 심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4쪽

개국 기원 사용, 문벌과 계급 타파, 능력에 따른 인재 선발, 연좌제 폐지, 조혼 금지, 과거제 폐지 등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5쪽

1. (1) X, (2) O, (3) O, (4) X
2. (1) 거문도, (2) 집강소
3. ㉠ - ㉢ - ㉡ - ㉣

● 내용 더하기

● 온건 개화파

3차시

저들(서양)의 종교는 사악하다. 마땅히 음탕한 소리나 치장한 여자를 멀리하듯이 해야 한다. 하지만 저들의 기술은 이롭다. 잘 이용하여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면 농업, 양잠, 의약, 병기, 배, 수레에 대한 기술을 꺼릴 이유가 없다. 종교는 배척하되 기술을 본받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 결코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 “고종실록”, ‘김윤식이 기초한 고종 조서’

온건 개화파는 청의 양무운동을 본보기로 삼아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사상과 정치는 유지하는 동도 서기론에 바탕을 두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 급진 개화파

3차시

그(김옥균)는 구미 문명이 하루저녁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열국이 서로 경쟁을 벌여 점진적으로 이룩해낸 것으로, 수세기나 필요했으나 일본은 일대 만에 속성하였다고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스스로 일본을 본보기 삼고자 백방분주하였다.

- 서재필, ‘회고 갑신정변’

급진 개화파는 서양의 기술, 기계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 종교까지 받아들이려 하였다. 이들은 일본을 가장 훌륭한 본보기이자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원군으로 인식하였다.

● 갑신정변 직전의 상황

3차시

개화 정책을 추진되면서 재정난이 심해지자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끌어들이려 하였다. 그러나 차관 교섭이 실패하면서 급진 개화파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좁아졌다.

급진 개화파는 이러한 난관을 무력으로 단번에 돌파하려 하였다. 이 무렵 1884년 베트남을 두고 청·프 전쟁이

일어나자 청은 조선에 주둔한 자국 군대의 절반을 철수하였다. 이에 급진 개화파는 일본을 등에 업고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였다. 일본도 급진 개화파를 도와 청의 세력과 민씨 정권을 내몰고 조선에서 우위를 차지할 속셈으로 군대 동원과 차관을 약속하였다.

● 우정총국

3차시

보빙 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홍영식이 건의하여 설치한 관청으로, 근대적 우편 업무를 담당하였다. 1884년 10월부터 우편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12월 9일 폐쇄되었다.

●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

3차시

갑신정변은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하여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또한 청군이 예상 외로 신속하게 군사 개입을 하였으며, 지원을 약속한 일본군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철수하였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개화파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지향하였음에도,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은 정치 변혁을 담당할 주체(시민 계층)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혁신 정강에 토지 제도의 개혁이 제외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중의 이해와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도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대다수의 민중은 갑신정변의 주역들을 매국노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홍영식 등은 청군에게 살해되고, 김옥균·박영효·서재필 등 9명은 일본으로 망명하여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였다.

● 텐진 조약(1885)

3차시

제1조 청국은 조선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한다. 일본국은 공사관 호위를 위해 조선에 주재한 병력을 철수한다.

제3조 앞으로 만약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청·일 두 나라나 어떤 한 국가가 파병을 하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며 잔류시키지 못한다.

갑신정변 이후 상황이 불리해진 일본은 조선에 주둔한 청·일 양국 군대의 공동 철수안을 제안하였다. 제안에 소극적이었던 청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일본의

교섭을 받아들였다.

헨진 조약은 조선에 관한 청·일 양국의 권리에 대한 첫 약정으로서, 양국 군대의 동시 철수, 제3국 교관의 파견, 동등한 출병권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는 일본이 조선에서의 권리를 청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0년 뒤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조약에 의거하여 양국 군대가 조선에 출병하였고, 결국 청·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 거문도 사건

3차시

대한 해협과 쓰시마 해협 입구에 있는 거문도는 열강들 사이에 ‘동양의 지브롤터’로 불렸는데, 특히 러시아는 이 섬을 기지로 삼아 태평양 진출을 꾀하고 있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러시아와 대립하던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1885).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며 내진 구실은 러시아의 선점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었으나, 실은 러시아의 극동 함대 모항인 블라디보스토크를 공격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다.

영국은 조선의 영토를 무단 점령하고, 그 사실을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조선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하였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러시아와의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영국은 조선의 어느 곳도 점유하지 않는다는 러시아의 약속을 받아들인 이듬해에 거문도에서 철수하였다.

● 유길준의 중립화론

3차시

불가리아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러시아를 막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고, 벨기에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자국을 보전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전하는 정략이 될 것이다. ……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계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 “유길준 전서”

조선 중립화론은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와 유길준에 의해 1885년경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부들러는 조선을 스위스와 같은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고 건의하였고, 유길준은 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강대국이 보장하는 중립론을 구상하였다.

●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 증가

4차시

구분	1885년	1896년
쌀	27.2(5.83)	2,852.0(56.37)
콩	53.5(11.46)	1,534.10(30.32)
합계	124.6(26.69)	4,585.1(90.63)

(단위: 천 엔, %)

▲ 일본으로 수출되는 음식료품의 구성비 변화

무자(1888년) 8월 21일. 올해 흉작은 일찍이 없었던 바이다. 도내 모든 군현이 흉작이어서 한 톨도 수확하지 못하고 있다. 길가에 쓰러져서 모두 거지가 되고 여염집 사람들 걱정이 태산 같으며 장차 열 집에 아홉 집은 텅 비게 되고 장시의 쌀값은 하늘 높은 줄 몰라 1석에 거의 1만 전이다. 지금 사정도 이처럼 심각한데 앞으로의 걱정은 한이 없다. 가만히 알아보니 도내에 쌀, 콩, 묵은 곡물 약간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 만일 이것을 일본 상인이 이전처럼 사서 가져가면 전 도가 굶을 형편이다. 가련한 우리 굶주린 백성은 더욱 의지할 데가 없다.

- “통리아문일기”, ‘경상도 감사 이호준의 보고’

● 방곡령 선포

4차시

만일 조선국이 자연재해나 변란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의 양곡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어서,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곡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지방관으로부터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또 일본 영사관은 그 시기보다 앞서 각 개항장의 일본 상인에게 알려 일률적으로 준수케 한다. - 조·일 통상 장정 제37관

1876년에 맺어진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일본 상인의 곡물 유출이 무제한 허용되었으나, 1883년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에서는 조선에서 식량이 부족할 경우 지방 장관의 방곡령으로 곡물 수출을 금지할 수 있었다.

1880년대 일본 상인들의 횡포로 미곡이 대량 유출되어 쌀값이 폭등하는 등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자 곳곳에서 방곡령이 시행되었다. 방곡령은 양곡 행정의 자주권 행사이기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권한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철차상의 사소한 문제에서 꼬투리를 잡아, 지방관 처벌을 요구하고 방곡령 취소를 강요하였다. 결국 조선은 이에 굴복하여 방곡령을 철회하고 이자까지 계산하여 110,000원을 배상하였다. 방곡령은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시행되다가 1894년 1월에 전면 해제되었다.

교조 신원 운동

4차시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強敵)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양반과 호강의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과 방백(方伯)과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이다.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리라.

- “동학사(東學史)”

1892년 동학의 교세가 확장되는 가운데 제2대 교주 최시형은 억울하게 처형당한 교조 최제우의 원한을 풀고 동학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동학교도는 12월에 삼례 집회를 열어 교조 신원,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 금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교조 신원은 관찰사의 권한 밖이라 하여 거절당하고 교도 탄압 금지만을 약속받았다. 또한 박광호 등 40여 명의 신도가 서울로 올라가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복합 상소를 올렸으나 실패로 끝났다. 최시형은 전국에 통문을 보내 1893년 보은 집회를 열었다. 2만여 명이 모인 이 집회에서는 단순한 교조 신원 운동 차원을 넘어 외세 배격 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집강소

4차시

집강소는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설치되었던 농민들의 개혁 기관이자 자치 기구이다. 본래 전통적으로 향촌에는 집강이 있어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했는데, 동학 농민 운동 당시에는 농민 출신의 집강이 수령이 하던 행정을 대신 맡아 농민들의 요구를 실현시켜 나갔다.

집강소는 양반 신분제를 타파하는 데 앞장서 신분,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서로를 모두 접장이라고 불렀다. 또한 경제적 수탈과 불평등 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노비 문서와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고리대도 모두 탕감했다. 신분적·경제적 평등을 지향한 집강소의 활동은 조선의 봉건적 질서를 해체시키는 것이었으며, 갑오개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파랑새 민요

4차시

새야새야파랑새야 /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 청포 장수 울고 간다.

동학 농민 운동 당시와 그 이후에 동학 농민 운동과 전봉준에 대한 많은 일화와 민요가 유행하였다. 위의 파랑새 민요에는 동학 농민 운동의 실패를 안타까워하고 당시의 정세를 은유적으로 비난하는 정서가 담겨 있다. 시에서 ‘파랑새’는 진압하러 온 청군, ‘녹두’는 키가 작았던 전봉준, ‘청포 장수’는 민중을 의미한다.

우금치 전투

4차시

충청남도 공주는 당시 일본군과 관군의 거점으로,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기도 했다. 농민군은 공주를 공략하여 서울로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주력 부대를 집결하여 공주를 포위하고 농민군의 운명을 건 일대 결전에 돌입하였다.

농민군은 추운 겨울 날씨에 변변한 무기는커녕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짚신을 신은 채 찬밥 덩어리를 먹고 찬바람에 동상을 입는 악조건 속에서 싸웠다. 결국 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에게 크게 패하였다.

교정청

4차시

고종 31년(1894년) 6월 24일, 우리 정부는 왕명을 받들어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였다. 당상관 15명을 두고 먼저 폐정 몇 가지를 개혁하니, 모두 동학당이 주장한 것이다. 우리 힘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일본인들이 끼어들을 막고자 하였다.

- 김윤식, “속음청사”

동학 농민 운동을 계기로 정부는 농민군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본의 내정 개혁 요구를 거부하고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곧이어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여기에는 농민군의 요구 사항과 매우 밀접한 세금 제도 개혁과 신분제 폐기 등이 포함되었다.

청·일 전쟁

4차시

조선 정부와 동학 농민군의 타협 노력에 불안을 느낀 일본이 경복궁에 난입해 신정권을 세우고, 풍도 앞바다의 청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다. 청은 양무운동으로 훈련시킨 회군과 북양함대를 동원하였으나 평양 전투에서 패하고 해군도 괴멸되었다. 결국 청·일 전쟁은 청의 패배로 끝이 났고, 청과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 청은 조선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여 조선에서의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였고, 막대한 배상금을 일본에 지불하였으며, 랴오둥반도·타이완을 할양하였다.

● 군국기무처

5차시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정 최고 기구로, 총재관인 김홍집과 박정양, 김윤식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다수결로 의결하여 흥선 대원군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국왕의 재가를 받아 국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은 청·일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 간섭이 쉽지 않았고, 김홍집·박영효 내각이 출범하기 전까지 군국기무처에서 주도권을 잡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1894년 7월에 설치되어 12월에 폐지될 때까지 208건에 이르는 개혁안을 의결하였다.

● 제1차 갑오개혁의 개혁 법령

5차시

1. 지금부터 국내외 공사 문서에 개국 기원을 사용할 것
2. 문벌과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뽑아 쓸 것
4. 죄인 자신 이외 일체의 연좌율을 폐지할 것
6. 남녀의 조혼을 엄금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하 비로소 결혼을 허락할 것
7. 과부의 재혼은 자유에 맡길 것
8.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 판매를 금할 것
9. 평민도 국가에 이익이 되고 백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군국기무처에 올려 토의에 부치게 할 것
10. 과거제로 실력 있는 인재를 뽑아 쓰기 어려우니 임금의 재가를 얻어 변통하되 따로 선용 조례를 제정할 것
20. 각 도의 부세·군보 등으로 상납하는 쌀·콩·면포는 금납제로 대체하도록 마련할 것

군국기무처가 주도권을 잡고 개혁을 추진할 때 의결된 안건은 무려 208건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주로 농민군이 요구한 사항과 1880년대 이래 정부가 추진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조세 제도 및 재정 제도의 개혁과 신분제 폐기, 관리 선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흥법 14조

5차시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고히 세울 것
2. 왕실 전범(典範)을 제정하여 대통의 계승과 종실, 외척의 구별을 밝힐 것
3. 대군주가 정전에서 일을 보되,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재결하며 왕후와 비빈, 종실, 외척이 관여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혼합하지 아니할 것
5. 의정부와 각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제정을 밝혀 행할 것
6. 인민이 부세를 냄을 다 법령으로 정하고 망령되게 명목을 더해 함부로 거두지 아니할 것
7. 조세 과징과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할 것
8. 왕실 비용을 술선 절감하여 각 아문 및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할 것
9. 왕실 비용 및 관부 비용은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세울 것
10. 지방 관제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 관리를 직권을 제한할 것
11. 나라 안의 총명한 자제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견습할 것
12. 장관을 교육하고 징병하는 법을 사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할 것
13.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제정하고 함부로 사람을 가두거나 징벌하지 말게 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것
14. 사람을 쓰는 데 문벌을 구애받지 아니하고 선비를 구함에 두루 조야에 미쳐 인재의 등용을 넓힐 것

- “관보”(1894. 12.)

1894년 12월 12일 고종은 세자와 대원군·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독립의 서고문을 고하고 이를 선포하였다. 다음 날에는 이를 전국민에게 반포하였는데, 이 서고문이 흥법 14조이다.

흥법 14조에는 자주독립의 확립, 종실과 외척의 정치 관여 금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광범위한 인재 등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삼국 간섭

5차시

청·일 전쟁 기간 중, 러시아는 “만약 러시아가 청을 돕는다면 영국은 일본을 도울 것이다.”라는 영국의 경고를 받고 청을 돕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랴오둥 반도를 얻게 되자, 랴오둥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다롄과 뤼순 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에 다음과 같이 압력을 가하였다.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소유하면 청국 수도를 위태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국 독립까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

고 영구적인 평화를 가로막을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에게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포기하기를 권고한다(1895. 4. 23.).”

삼국에 맞설 힘이 없었던 일본은 랴오둥 반도를 청에게 돌려준다고 세 나라에 통보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러시아와 미국의 힘을 빌려 일본 세력을 몰아내려 하였다.

● 을미사변

5차시

삼국 간섭 이후 반일 성향의 명성 황후가 재등장하였고, 친러 세력이 형성되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일본은 무인 출신인 미우라 공사를 새로 조선에 파견하였다. 그는 친러 세력의 배후로 지목된 명성 황후를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1895년 10월 경복궁을 습격하여 명성 황후를 시해하였다.

당시 시해 현장에는 미국인, 러시아 인, 그 외 많은 조선인이 있어 진상을 낱낱이 목격하여 국제적으로도 자세히 알려졌다. 국제 여론이 나빠지자 일본은 미우라 등 관계자 48명을 구속하고 문초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원 석방하였다.

● 을미개혁

5차시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한 1896년 2월 초순까지 김홍집 내각이 추진한 근대적 개혁의 시도이다.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 19개월 동안 3차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을 넓은 의미의 갑오개혁이라고 한다. 여기서 제3차 갑오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도 한다. 이 개혁이 추진된 기간은 1895년 8월 하순부터 1896년 2월 초순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명성 황후가 시해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전후로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었다.

삼국 간섭으로 랴오둥 반도를 반환하게 된 데 이어 조선에서도 실세할 위기에 처한 일본은 조선 정부가 러시아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비상수단을 취하였는데, 명성 황후 시해라는 극단적인 조치였다. 시해 사건 직후 일본 공사는 김홍집 내각을 등장시켜 조선을 조종하였다. 김홍집 내각은 내외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동안 중지되었던 개혁을 재개하였다.

을미개혁은 민중의 반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시기에 강행된 것이어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명성 황후의 시해에 이어 강제적으로 시행된 단발령(斷髮令)은 전국의 유림을 중심으로 전개된 반일·반개화 의병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 단발령

5차시

1895년 11월 15일, 고종은 비로소 머리를 깎고 내의 신민에게 모두 머리를 깎도록 하였다. 삭발한다는 말이 점차 일어나더니 10월 중에 일본 공사가 왕을 위협하여 빨리 머리를 깎게 하였다. 왕은 인산을 치룬 뒤로 미루었다. 마침내 그 때가 되자 유길준과 조희연 등이 일본군을 인도하여 궁성을 포위하고 대포를 설치한 후 머리를 깎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선언하였다. 고종은 긴 한숨을 들이쉬며 정병하에게 말하였다. “경이 짐의 머리를 깎는 것이 좋겠소.” 이에 정병하가 가위를 가지고 왕의 머리를 깎고 유길준은 왕태자의 머리를 깎았다. …… 서울에 손님으로 왔다가 상투를 잘리니 모두 상투를 집어서 주머니 속에 감추고 통곡을 하며 성을 내었다.

- 황현, “매천야록”

을미사변 이후 조직된 김홍집 내각은 태양력 사용, 새 연호 사용, 군제 개편, 종두법 시행 등 이전에 추진되었던 개혁을 시행하였다. 특히 단발령은 전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을미사변과 더불어 유생과 농민의 반일 감정을 폭발시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난 계기였다.

● 김홍집의 최후

5차시

김홍집은 단발령을 강행하며 임금과 태자의 머리를 강제로 깎은 자로 여겨져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아관 파천 직후 친일파로 몰려 체포령이 내려졌고 광화문 앞에서 군중에 의하여 타살되었다.

● 갑오개혁의 한계

5차시

갑오개혁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력 간섭과 반일·반침략을 내세운 민중의 반발에 부딪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부국강병을 위한 군사 제도 개혁과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03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학습 목표

-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의 설립 배경과 과정을 당시 국제 정세와 더불어 이해할 수 있다.
- 독립 협회의 주요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 대한 제국의 선포 의의와 광무개혁의 성과 및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6	<p>1. 독립 협회</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처소를 옮긴 곳은 어느 나라의 공사관인가?</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의 국제 정세에서 아관 파천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아관 파천 이후 전개된 열강의 이권 침탈 상황을 지도와 도표를 통해 확인한다. • 독립신문 창간사를 활용하여 당시 지식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독립 협회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 만민 공동회에서 나온 헌의 6조의 내용을 읽고 당시 민중과 독립 협회가 추구했던 사회 모습을 정리하게 한다. • 독립 협회가 정부에 의해 해산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에서 귀국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발간한 사람은? 2. 정부가 독립 협회를 강제로 해산할 때 동원한 조직은?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발표식</p> <p>탐구식</p> <p>강의식</p> <p>문답식</p>	<p>CD</p> <p>역사 부도</p> <p>27쪽 자료</p> <p>CD</p> <p>학습지</p>
7	<p>2.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물던 고종은 1년 만에 어느 궁으로 돌아왔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분위기 속에 고종이 환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 고종이 대한 제국을 선포하여 황제권을 강화하려 한 이유와 당시 국제 정세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대한 제국이라는 국호, 연호의 사용, 환구단과 황제 즉위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하게 한다. 	<p>문답식</p> <p>강의식</p> <p>발표식</p> <p>문답식</p>	<p>CD</p> <p>PPT</p> <p>28쪽 자료</p>

7	<p>• 광무개혁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 개혁이 지닌 한계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p>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p>1. 환궁한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장소는?</p> <p>2. 광무개혁 과정에서 발행된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의 명칭은?</p>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토론식 문답식	학습지
---	--	----------------	-----

● 학습 내용 정리

1. 독립 협회

(1) 아관 파천

- ① 내용: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사건(1896)
- ② 결과: 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

(2) 독립 협회

- ① 중심인물: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 지식인들
- ② 사상: 자주독립, 민권 신장, 개화 혁신
- ③ 활동
 - 독립문 · 독립관 건립, 독립신문 간행, 토론회 · 강연회 개최, 의회 설립 운동
 - 관료와 학생, 일반 시민의 적극 참여
- ④ 만민 공동회
 - 서울 종로에서 시민들이 정치 · 사회 등에 대해 토론

- 러시아의 내정 간섭 규탄, 열강의 이권 침탈 반대

⑤ 관민 공동회

- 독립 협회 중심으로 정부 대신이 참여
- 황제에게 올리는 ‘헌의 6조’ 채택 → 자주 국권 수호, 국가 재정의 국민 감시, 황제권 제한, 민권 보장 등

⑥ 해산

- 보수적 정치인들의 독립 협회 탄압
- 독립 협회의 간부 체포
- 황국 협회 소속의 보부상과 군대를 앞세워 강제 해산

(3) 독립 협회의 한계와 성과

① 한계

- 보통 선거에 의한 의회 구성과 의병 활동에 부정적
- 러시아를 제외한 열강에 대해 우호적 태도

② 성과: 자유 민권 사상 보급, 자주독립 · 자강 개혁 추구

2.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1) 대한 제국의 성립

- ① 대한 제국(1897): 국호를 대한 제국, 연호를 광무라 정함.
- ② 대한국 국제 반포(1899): 자주독립과 황제의 전제권 강조
- ③ 정책: 군내부와 황실 재정 확대, 황제 호위 부대 증강, 원수부 설치, 무관 학교 설립

(2) 광무개혁: 구분신참의 원칙 → 점진적 개혁 추구

- ① 상공업 진흥책
 - 근대적 공장과 회사 설립

- 실업 · 기술 교육 기관 설립, 유학생 파견

② 양전 사업 실시, 지계 발급

③ 전화 가설, 우편 · 전보망 확충, 전차와 기차 개통

(3) 평가

- ① 자주독립과 부국강병 실현 추구
- ② 상공업 진흥 및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 확립 등 근대 국가 지향
- ③ 전제 군주제 강화, 민권 운동 탄압, 열강의 간섭으로 성과 미흡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6쪽

예시 답안

- 부녀를 교육하는 것이 의리상, 도리상 마땅하다.
- 한문보다 국문을 더 쓰는 것이 인민 교육을 성하게 한다.
- 인민의 견문을 넓히려면 국내의 신문 반포가 중요하다.

- 나라를 부유하게 하려면 금, 동, 철 등 광산을 확장해야 한다.
- 우리 국토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 백성의 권리가 높아질수록 임금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라가 발전한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8쪽

고종

- (1) ㉠, (2) ㉡, (3) ㉢
- (1) 만민 공동회, (2) 아관 파천
- ㉠ - ㉢ - ㉠ - ㉡

● 내용 더하기

● 아관 파천

6차시

지난해 9월부터 반역 도배들이 나를 압박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단발령으로 일어난 전국적 시위의 혼란을 틈타 나와 내 아들을 살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러시아 공사관에서 보호받기를 바란다. 나를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다. 나는 두 공사가 나에게 피신처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 “러시아와 한국”, 러시아 공사관 이동을 요청하는 고종 친서

을미의병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주둔의 주력 부대가 지방으로 출동하자 서울의 경비는 매우 소홀하게 되었다. 을미사변 이래 친일 내각에 포위되어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고종은 이를 좋은 기회로 보고 계획을 세웠다.

드디어 서울 주둔 부대가 지방으로 출동하자, 공사관 경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에 정박 중인 군함으로부터 미국 해병대와 러시아 해병대가 입성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공사관의 수비병 수가 160명에 달하게 되자, 1896년 2월 11일 새벽, 예정대로 고종과 태자는 극비리에 경복궁을 빠져 나가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 아관 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

6차시



국왕이 궁성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했다는 것은 떳떳한 일이 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조선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계속 러시아의 간섭과 압력을 받게 되었다.

국왕 주변에는 역관, 내시, 그리고 협잡배들이 들끓고 있어서 열강은 이들을 통해 각종 이권을 얻어 냈다. 러시아는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파견하고 경원·종성·광산 채굴권, 압록강·울릉도의 삼림 채벌권, 미국은 운산 금광 채굴권, 영국은 은산 금광 채굴권, 일본은 직산 금광 채굴권을 독점하는 등 조선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가 아관 파천 이후였다.

● 독립문의 건립

6차시

..... 천운이 돌아 이제 대조선국이 독립국이 되어 세계만방으로 어깨를 겨누니 이는 우리 군주 폐하의 위덕(威德)이 떨침이요, 우리 대조선국의 유사 이래의 광명이요, 우리 동포 형제 2천만 인구의 행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념할 실적이 없으므로 이에 공공의 의견으로 독립 협회를 발기하여 전 영은문 유지에 독립문을 새로이 세우고 전 모화관을 새로 고쳐 독립관이라 하여 옛날의 치욕을 씻고 후인의 표준을 만들 고자 함이요, 그 부근의 땅에 독립 공원을 이루어 그 문과 관을 보관코자 하니 성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지라.

- “대한 조선 독립 협회 회보” 1호

독립 협회는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 건립을 추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둔 성금으로 1897년에 준공하였다.

● 독립 협회의 발전 과정

6차시

① 제1기(1896.7.~1897.8.)

진보적 지식인과 정부 관료들이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모였으나 친목 단체의 성격이 강하였다. 독립문, 독립공원, 독립관을 건립하였으며, 고급 관료의 사고 모임 성격도 띠었다.

② 제2기(1897.8.~1898.2.)

독립 협회가 정부의 외세 의존적 정책을 비판하면서 보수파 관료층이 점차 이탈하였다. 개혁파 관료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도하여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일반 민중을 적극 계몽하였다.

③ 제3기(1898.2.~1898.9.)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외세의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을 비판하고 민권의 신장과 의회 설립을 추구하였다.

④ 제4기(1898.9.~1898.12.)

윤치호, 이상재 등 소장층 지식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민중을 대변하는 압력 단체의 역할을 하였다. 박정양의 진보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언론 집회 자유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관민 공동회를 열어 헌의 6조를 수락하게 하는 등 민권 투쟁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 독립 협회의 국민 참정권 주장

6차시

육대주와 동등하여 만국과 나란히 하는 것은 폐하의 권리이고, 폐하의 백성이 되어 폐하의 강도를 지키고, 그 정치를 거슬리고 법률을 어지러이 하는 신하가 있어서 종사를 해롭게 하면 탄핵하여 성토하는 것은 저희들의 권리입니다. 어떤 자가 말하기를 민권이 성하면 군권(君權)이 반드시 줄 것이라 하니 그 무식함이 이보다 심함이 있겠습니까? 만일 오늘날 국민의 의논이 없으면 정치, 법률이 따라서 무너져 어떠한 화가 일어날지 모르니…… - 윤치호 등의 상소문(1898)

● 독립 협회의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

6차시

독립 협회는 적자생존과 우승열패를 절대시하는 사회 진화론적 시각으로 세계 질서를 파악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국력을 기르는 것일 뿐, 즉각적인 저항은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에 대한 저항은 개화에 거스르는 것이라고 여겼으며, 민중을 계몽하고 사회를 서구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지주와 자산가 계층을 주체로 설정하여 이들의 정치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민중을 교화 대상으로 여겨 그들의 정치 참여를 봉쇄하거나 심지어 의병을 비도(匪徒)로 보았다. 그래서 독립 협회가 말하는 ‘민권’은 지주와 자산가의 개화를 의미하였던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 독립 협회의 이권 수호 운동

6차시

국내에서 금·은·석탄광 등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채굴하여 그 이익을 얻음지니, 하필 외국에 양여하여 몰래 넘보게 하고 흘러나가게 하여, 점점 자기 나라는 날로 빈천(貧賤)케 하고 다른 나라로 하여금 부강케 하리요. 그러므로 국내의 철도·전선과 금·은·석탄광 등을 타국인에게 빌려주고 양여함은 곧 전국을 타국인에게 방매함이요,……

- 대조선 독립 협회 회보 제7호 논설

독립 협회는 국가의 자주독립은 자원과 산업의 자주적 개발을 통한 자립 경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고, 이권의 양도를 반대하였다. 또 이미 빼앗긴 이권도 조속히 돌려받아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면 매입해서라도 국가 이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립 협회와 국민의 요구로 러시아는 철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고, 일본도 철영도 석탄고 기지를 반환하였다.

● 중추원 관제

6차시

독립 협회는 박정양 내각과 협상하여 새로운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게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의회 설립안이었다. 중추원은 정부에서 추천하는 의관 25명과 독립 협회가 추천하는 민선 의관 25명으로 구성되었다.

● 독립 협회에 대한 비판

6차시

진사이법철이 글을 올렸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이른바 민회라는 것은 독립 협회와 같은 조항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표방하고 속으로는 사실 변란을 일으켜서 망명한 큰 역적을 벼슬에 임명하려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심보와 꾸며낸 계책을 규명해 보면 저들과 같은 패거리 의관들로 하여금 제 마음대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여 정부를 움직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 “고종실록”

● 황국 협회

6차시

황국 협회는 1898년 7월 7일에 발족한 보부상 단체였다. 독립 협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자, 이에 수구파 세력은 보부상을 중심으로 황국 협회를 조직하고 이에 대항하였다. 1898년 11월에는 만민 공동회를 습격하였으며, 이 때문에 치안이 어려워지자 1899년 12월에 정부는 독립 협회와 함께 황국 협회도 해산하였다.

● 독립 협회의 한계(민중관과 외세관)

6차시

● 민중관

- 하의원은 급하지 않다.

근일에 국사를 근심하는 사람들이 혹 말하되 국세를 부강하게 하려 하면 하의원을 설치하여야 하겠다 하니 조금 덜 생각한 일이라. 하의원이라 하는 것은 백성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다. 정권을 가지는 사람은 한 사람이든지 몇 만 명이든지 지식과 학문이 있어서 다만 내 권리만 알 뿐 아니라 남의 권리를 손상치 아니하며 사사(私事)를 잊어버리고 공무를 먼저 하

며 작은 혐의를 보지 않고 큰 의리를 숭상하여야 민족에 유익한 정치를 시행할지니, 무식하면 한 사람이 다스리나 여러 사람이 다스리나 국정이 그르기는 마찬가지요 무식한 세계에는 군주국이 도리어 민주국보다 견고함은 고금 사기와 구미 각국 정형을 보아도 알지라. - 독립신문(1898. 7. 27.)

독립 협회는 일반 시민의 정치적 역량을 과소평가하여 보통 선거에 의한 의회 구성이나 의병 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외세관

– 미국의 철도 부설 지지

정부에서 미국 사람과 서울~인천 사이에 철도를 약조하며 미국 돈 이백 만 원 가량이 나라에 들어올 터인즉, 이 일에 인연하여 벌어들일 살 사람이 조선 안에 여러 천 명 될 터이요, 철도가 된 후에는 농민과 상민들이 철도로 인연하여 직업들이 흥왕할 터이요. - 독립신문(1896. 7. 2.)

독립 협회는 자주독립을 추구하였으나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 고종의 환국

7차시

최근 3년간 내 조국은 무섭고 비참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은 궁궐을 떠나 귀국의 보호 아래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곳 공관에서 영광스러운 러시아 해군의 경호를 받으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베베르 공사도 자기 나라 황제를 대하듯이 모든 예를 갖추어 본인을 받들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러시아 교관들이 훈련시킨 조선 경비원이 지키는 새 궁전으로 옮깁니다.

- “러시아와 한국”

러시아의 견제로 일본의 간섭이 주춤해지자, 관료와 유생들 사이에 고종의 위상을 황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고종은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 아관 파천 1년 만인 1897년에 경운궁(덕수궁)으로 돌아왔다. 경복궁이나 창덕궁 대신 이곳을 고른 이유는 미국, 러시아 등 서양의 여러 나라 공사관이 가까이 있어 일본을 견제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대한 제국의 수립

7차시

고종 34년(1897) 10월 13일. 오직 내가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하늘이 도와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

다. …… 나라 이름을 대한(大韓)이라고 정한다. 이 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고, 종묘와 사직의 신위판(神位版)을 고쳐 쓰며, 왕후 민씨를 황후로 책봉하고,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한다. 이제 밝은 운명을 크게 가다듬어 의식을 성대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 “고종실록”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고치고, 10월에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 제국으로 바꾸어 이를 선포하였다. 이는 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더 이상 외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민족적 열망을 표현한 것이다.

대한 제국을 선포한 직후 정부는 서울 주재 각 대표에게 이를 알려 본국 정부의 승인 여부를 회답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각국은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대한 제국의 성립을 직·간접적으로 승인하였다.

● 환구단

7차시

원구단이라고도 불린다. 환구단은 천자(天子)가 하늘에 제를 드리는 둥근 단으로 된 제천단이다. 예로부터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하여 하늘에 제를 지내는 단은 둥글게, 땅에 제사 지내는 단은 모나게 쌓았다.

1897년 지금의 서울 소공동에 제단을 쌓게 하여 환구단에서 천지에 제를 드리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1913년 일제에 의하여 환구단이 헐리고 그 터에 조선 호텔이 지어졌다. 지금은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3층 팔각정의 황궁우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다.

● 대한민국 국제

7차시

제1조 대한민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되어 온 바 자주독립한 제국이니라.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이전에는 500년이 내려왔고 이후에는 만세불변할 전제 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민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지니나니 공법에 이른바 자립 정체이니라.

제6조 대한민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며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고 만국공법을 효방하사 국내 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명하나니 공법에 이른바 자정율레이니라.

제7조 대한민국 대황제께서는 행정 각 부부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각종 칙령을 발하나니 공법에 이른바 자행치리이니라.

대한국 국제는 대한 제국의 국가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헌법이다. 광무 정권의 주권의 소재와 집행 형식을 명백히 규정하였으며, 그 근거를 만국공법에서 구하였다.

● 광무개혁

7차시

대한 제국이 가지는 시대적 사명은 기본적으로 외세의 내정 개입과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고, 나아가 열강 간의 세력 균형이 깨질 때에 열강의 침략을 광범위한 국민 대중의 힘으로 방어할 수 있는 민족 자위 역량을 배양하도록 체제를 개혁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광무개혁은 갑오개혁에 비판적인 유생층의 보수 여론과 독립 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 여론을 절충하여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의정부 제도 부활 • 지방: 13도제로 개편 • 과거제 대신 추천식 인재 등용 방식 채택 • 의회제를 채택하여 중추원 설립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적 호적 제도를 채택 • 근대적인 학교 설립 추진 • 신문 발행 인가, 관보 발행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왕실 재정 분리 → 재정 일원화 • 중앙 집권적 조세 제도 수립 • 금본위제 채택, 중앙은행 설립 계획 • 철도 건설 투자인 회사, 공장 등 설립 장려 • 양전, 지계 사업 실시

▲ 광무개혁의 내용

광무개혁은 기술적, 경제적, 교육 제도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갑오개혁을 이어갔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국민 주권 체제와는 거리가 먼 왕권의 절대화를 지향하여 갑오개혁에서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

● 양전 사업 청의서

7차시

전국의 지방을 나누어 구역을 정하고 구역에 지질을 측량하여 조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큰 정치이다. 우리나라는 구역이 크지 않은 바가 없고 토지가 아름답지 아니한 바가 없다. 그러나 경계의 구분만 있고 토지의 측량이 상세하지 아니하다. …… 지금 정치를 유신할 때에 어찌 일대의 결함이 아니리오. 지금 토지 측량은 하루 빨리 해야 할 일이므로 이를 회의에 부쳐야 한다.

- '양전 사업 청의서'

대한 제국은 1898년부터 1904년에 걸쳐 양전 사업(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목적은 각종 국가사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근대법적 소유권을 추인하며, 토지 거래 상 발생하는 문제, 특히 일본인의 한국 내륙 토지 침탈을 저지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904년 러·일 전쟁의 발발과 일본의 압력으로 전국 331개 군 중 218개 군에 실시된 채 중단되었다.

● 양전·지계 사업의 의의

7차시

광무 연간 대한 제국 정부가 추진한 양전·지계 사업은 근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이었다. 양전 사업을 통해 개별 토지와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는 단계, 토지 소유자의 변동 유무를 서류 증빙을 통해 사정하는 단계, 나아가 토지 소유권자를 국가가 확정짓고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地契) 또는 관계(官契)를 발급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토지 소유권을 근대적인 법과 형식으로 공인하는 과정을 밟았다. 이에 한국의 농업 기반을 아래부터 장악하려는 일본에게 양전·지계 사업은 방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 제국의 양전·지계 사업은 한말의 토지 제도와 농촌 경제가 내포하는 모순과 폐단을 해소·조정하면서 농민 경제와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는 방안이었다. 또한 지주 자본을 근간으로 근대 국가 건설을 지향했던 광무 정권의 자주적인 근대 국가 건설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개혁 조치였다.

● 광무개혁에 대한 평가

7차시

• 긍정적 평가

광무개혁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했으며, 비교적 자주적으로 추진된 근대적 개혁이다. 특히 상공업 분야의 개혁 정책과 각종 근대 시설의 확충 및 회사와 교육 기관의 설립 등은 근대적 개혁의 큰 성과였으며, 양전·지계 사업은 '농업 개혁' 또는 '토지 개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부정적 평가

'구본신참'은 전제 군주권의 확립을 위한 것으로 개혁의 후퇴를 의미한다. 실제로 대한 제국은 자유 민권 운동과 의회 설립 운동을 방해하고 탄압하였다. 대한 제국이 추진한 각종 근대 시설 확충 역시 열강에 빼앗긴 이권이었고, 양전·지계 사업도 조세 증가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근대적 회사와 교육 기관의 설립을 주도한 것은 광무 정권이 아니라 독립 협회와 만민 공동회의 주도자들이었다.

04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학습 목표

- 개항 이후 근대 문물 도입의 배경, 과정, 이로 인한 사회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근대 교육의 형성 과정과 언론 활동, 국학 운동을 파악할 수 있다.
- 문학과 예술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8	<p>1. 근대 문물의 수용</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우리나라에 기차, 전등, 전화 등이 처음 설치된 시기는 언제인가?</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개항 이후 도입된 근대 시설을 소개하고, 의식주의 변화를 설명한다. • 철도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사료와 부정적인 사료를 탐구하며 근대 문물의 수용은 자주적인 면도 있지만 외세가 침략을 위하여 강요한 측면도 있었음을 이해하게 한다. • 서울에 남아 있는 근대 건축물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899년 서울과 인천 사이에 처음 개통된 철도는? 2. 1885년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서양 병원은?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p> <p>발표식</p> <p>문답식</p>	<p>CD</p> <p>PPT</p> <p>30쪽 자료</p> <p>32쪽 자료</p> <p>학습지</p>
9	<p>2. 근대 문화의 형성</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개항 후 최초로 간행된 신문은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 이후 설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대적 교육 기관에 대해 그 역사를 조사하고, 당시 설립자들의 정신을 발표하게 한다. •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의 기사 내용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신문의 성격을 모듬별로 탐구하게 한다. • 대한 제국 시기 국어와 역사 등 국학 연구가 활발했음을 이해하고, 특히 이는 애국 계몽 운동과 관련됨을 설명한다. • 문학의 신체시와 신소설, 음악의 창가, 영화, 미술 등 당시 새롭게 등장한 예술 분야를 파악하게 한다. 	<p>문답식</p> <p>발표식</p> <p>탐구식</p> <p>강의식</p>	<p>CD</p> <p>33쪽 자료</p> <p>인터넷</p> <p>CD, PPT</p>

9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p>1. “독사신문”에서 왕조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민족을 주체로 하는 역사를 서술한 사람은?</p> <p>2. 최남선이 발표하여 근대시의 새로운 형식을 개척한 신체시의 이름은?</p>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문답식	학습지
---	---	-----	-----

● 학습 내용 정리

1. 근대 문물의 수용

(1) 근대 시설의 도입

- ① 교통
 - 철도: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부설
 - 한성 전기 회사 설립, 전차 운행 시작(1899)
- ② 전기: 경복궁(1887), 발전소 건설(1890년대)
- ③ 전화: 서울 궁궐~인전(1896), 공중용 시외 전화 가설(1902)→ 봉수나 역참, 파발 등 폐지
- ④ 의료: 광혜원(1885), 대한 의원 설립

(2) 의식주의 변화

- ① 의복의 변화: 관복 간소화, 서양식 복제 도입
- ② 음식: 왕실과 고위 관리를 중심으로 커피, 홍차, 케이크, 양과자 등 유행
- ③ 건축: 서양 건축 양식 도입(독립문, 명동 성당, 덕수궁 석조전 등)

(3) 근대 문물 수용의 영향

- ① 편리해진 생활양식
- ② 전통적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갈등

2. 근대 문화의 형성

(1) 근대 교육의 성립

- ① 근대 교육의 시작(1880년대)
 - 원산학사(1883):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
 - 동문학(1883): 정부가 통역관 양성 목적으로 설립
 - 육영 공원(1886): 정부가 상류층 자제 대상으로 설립
- ② 근대적 교육 제도 마련: 각지에 소학교 설립
- ③ 사립 학교 설립: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 서양 선교사가 사립 학교 설립

(2) 신문 발행

- ① 한성순보(1883): 최초의 신문, 정부의 개화 정책 소개
- ② 독립신문(1896): 최초의 민간 신문, 순한글로 간행
- ③ 황성신문(1898): 유림층 대상, 항일 의식 고취
- ④ 제국신문(1898): 서민층·부녀자 대상, 자주 정신 고취
- ⑤ 대한매일신보(1904): 영국인 베델이 발행, 강렬한 항일 논조로 많은 독자층 확보

(3) 국학 연구

- ① 국어
 - 국·한문 혼용체 보급, 한글로 된 신문·서적·교과서 등 간행
 - 주시경의 국어 연구, 정부의 국문 연구소 설치
- ② 국사
 - 신채호, 박은식 등이 위인전 집필, 외국의 흥망사 소개
 - “독사신문”: 민족을 주체로 역사 서술

(4) 문학의 새 경향

- ① 신소설: “혈의 누”, “금수회의록” 등
- ②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 ③ 외국 문학 번역: “이솝 이야기”, “로빈슨 표류기”

(5) 예술의 변화

- ① 음악: 찬송가를 통해 서양 음악 소개, 창가 유행
- ② 신극: 원각사, 변사를 대동한 활동사진(영화) 인기
- ③ 미술: 서양식 화풍 소개, 서양식 유화 등장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30쪽

전화는 시간과 거리의 벽을 무너뜨리며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통적인 통신 수단이었던 봉수나 역참, 파발 등은 사라졌다.

탐구 활동 ▶▶▶ 교과서 30쪽

예시 답안

(가)는 철도의 빠름을 경탄하는 내용이다. 근대 문물의 도입은 우리 사회를 매우 편리하게 만들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는 전차의 건설로 농민이 논밭을 빼앗기고 가난해졌다는 내용이다. 근대 문물의 도입은 열강의 침략적 의도 아

래 이루어졌다. 특히 철도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수단이기도 하였다. 열강이 철도 건설 과정에서 토지와 노동력을 수탈하고 철도를 침략의 도구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민중은 철도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33쪽

1886년 5월 이화 학당은 약 1년의 기다림 끝에 1명의 입학 신청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것도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료와 같은 신분 보장 서약서를 써 주고서야 가능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35쪽

1. (1) ㉠, (2) ㉠, (3) ㉠
2. (1) 신체호, (2) 주시경
3. (1) ㉠, (2) ㉠, (3) ㉠

● 내용 더하기

● 근대 시설의 대륙 침략적 성격

8차시

● 교통 기관을 장악할 것

중요한 교통 및 통신 기관을 장악하는 것은 정치, 군사, 경제 여러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교통 기관인 철도 사업은 한국을 경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통신 기관을 장악할 것

통신 기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신선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편 사업도 우리 이익이 커짐에 앞으로 더욱 확장하지 않을 수 없다.

- “일본 외교 문서” 제37권, ‘일제의 대한 시설 강령’

교통과 통신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침략을 하기 위한 기간 산업망이었다. 열강들은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교통·통신 수단을 장악하려 했고, 교통·통신 수단은 그 자체가 커다란 이권이 되기도 했다.

특히 철도 부설은 도로 정비, 항만 수축, 전신·전화 가설 등과 더불어 교통·운수망을 정비하고 통신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근대화의 필수 요소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철도를 부설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으나, 자본 조달의 어려움과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 경인선

8차시

1896년 미국인 모스가 부설권을 얻어 1897년 기공하였으나 자금난, 시멘트와 폭약 부족, 기술적인 난제 등으로 건설을 중단하였다. 이에 일본이 미국에게서 부설권을 인수받

아 건설하였다. 1899년 9월 제물포~노량진 간의 철도가 완공되어 개통되었고, 1900년 7월에는 한강 철교를 준공하면서 서울역까지 3km를 더 연장하여 경인선 전 구간에서 운행되었다.

● 전화 예절

8차시

당시 전화 예절은 엄격하였다. 전화를 할 때는 상투를 단정히 세우고 전화기 앞에서 두 손을 맞잡아 머리 위에 쳐드는 읊(揖)을 하고서 전화를 돌렸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자신의 직함·품계·본관·성명을 말하고 상대 부서의 판서·참판·참의의 안부를 묻은 다음 전화를 받는 당사자의 부모 안부까지 묻고난 후 용건을 말하였다.

● 광혜원(제중원)

8차시

1884년 미국 공사관 부속 의사로 한국에 온 알렌은 갑신정변 때 상처를 입은 민영익을 수술로 살렸다. 이에 알렌은 정부에서 많은 사례금을 받고 국왕과 왕비의 주치의가 되었다.

나아가 그의 건의로 1885년 4월 최초의 서양식 왕립 병원인 광혜원(얼마 후 제중원으로 개칭)이 설립되고 알렌이 운영을 맡았다. 개원 첫째 입원 환자 265명, 외과 수술 환자 150명, 간단한 외과 치료 환자 395명, 부녀자 800명을 진료하였으며 병원 안에 의과 교실을 열어 소수의 한국인에게 서양식 의술도 가르쳤다.

● 커피와 고종

8차시

커피는 1882년(고종 19)부터 유럽·미국, 일본 등과 수교를 하면서 들어왔다. 고종은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관에 머물 때부터 커피를 즐기게 되었다. 이때 커피는 설탕 속에 커피 가루가 들어 있는 것이었다.

고종은 러시아 공관에 있을 때에 식사 시중을 들던 손탁 여사에게 호텔을 지어 주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이 생겨 커피를 팔게 되었다. 커피는 영어 발음을 따서 ‘가배차’ 또는 ‘가비차’라고 불렸으며, 서민 사이에서는 ‘양탕국’이라 불렸다.

● 한성순보 창간호

9차시

오늘날 풍기는 점차 열리고 인간의 지혜는 날로 발전하여 화륜선이 대양을 달리고 전선이 사방에 연결되고 있다. …… 그리고 이상한 모습을 한 외국인과 만나게 되었다. 사물의

변화와 문물제도의 발전에 대해 시무에 관심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조정에서는 박문국을 설치하고 직원을 두었다. …… 외국 소식을 번역하고 국내 소식을 실어 국내외에 반포하는 것이다. …… 독자는 근시안적이 되어 새 지식에 어둡고 낡은 것에만 얽매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말 것이다. 시세를 잘 살피고 취사선택을 잘 하며 공정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는 통리아문 박문국에서 월 3회 발행한 순보로, 매월 1일자로 간행되었다. 1882년 수신사의 자격으로 일본에 다녀온 박영효는 고종에게 신문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1883년 2월 28일 고종으로부터 신문을 간행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그해 4월 박영효가 갑자기 좌천되면서 신문 발간 작업은 일단 중지되었다.

이후 온건 개화파들의 추진으로 박문국이 설치되고 한성순보가 간행되었다. 이 신문은 발행 직후 각 관아에 배포되어 관리들이 주로 읽었으며, 일반인도 구독이 가능하였다. 현재 창간호부터 제36호(1884년 10월 9일자)까지만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국립 중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대한매일신보와 베델

9차시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7월 18일에 아일랜드계 영국인인 베델이 양기탁과 함께 이전에 발간되던 매일신보를 인수하여 창간하였다. 당시 일제 통감부는 매우 까다롭게 신문을 검열하였으나, 신문의 발행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에도 항일 사상을 고취하는 내용을 실을 수 있었다.

특히 신채호, 박은식 등은 논설을 통하여 일본의 침략 행위와 이완용, 일진회 등의 매국 행위를 날카롭게 공격하였다. 의병의 활동 상황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자신은 을사늑약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한 고종 황제의 친서를 신기도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신문이 큰 호응을 얻어 판매 부수가 늘어나자 통감부는 크게 당황하였다. 일제는 대한매일신보가 외교 고문 스티븐스 암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을 들어, ‘보호 정치’의 전복을 선동하였다며 신문을 압수하고 영국 정부에 베델의 추방을 요구하였다. 베델은 영국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상해에서 3주일 동안 연금 당하였다. 이후 서울로 돌아온 베델은 신문 경영을 영국인 비서 만함에게 인계하고, 1909년 5월 1일 별세하였다.

● 신채호의 역사 연구

9차시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쇠의 상태를 서술할지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을지며 역사를 빼어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지니 오호라, 역사가의 책임이 그 역시 무거울진저. …… 오호라, 과연 이와 같은진대 우리 몇 만 평방리의 토지가 모두 남만북적의 수라장이며 우리 사천 년의 산업이 모두 열국의 경매물이라 할지 과연 그러한가. 어찌 그러하리요.

- “독사신문”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문”을 발표하여 민족을 역사 서술의 주체로 설정하며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시경의 국어 연구

9차시

지금부터 이후로는 우리 국어와 국문을 업수이 여기지 말고 힘써 그 문법과 이치를 탐구하며 사전과 문법과 독본들을 잘 만들어 더 좋고 더 편리한 말과 글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온 나라 사람이 다 국어와 국문을 우리나라 근본의 주장 글로 숭상하고 사랑하여 쓰기를 바라노라. - “서우”(1907. 1.)

주시경은 독립 협회 조직에 참가하고 독립신문 교정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문 동식회를 만들어 한글 기사체의 통일과 연구에 힘썼다. 전 생애를 한글의 문법과 맞춤법 연구에 힘써 많은 후진을 양성하였다.

● 이인직의 “혈의 누”

9차시

…… 당초에 옥련이가 피난 갈 때에 모란봉 아래서 부모 간 곳 모르고 어머니를 부르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난데없는 총알을 맞아 왼편 다리에 박혀 넘어졌다. …… 군의관의 말에 따르면 청군의 총알을 맞았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 하룻밤 만에 죽었을 것이나 일본군의 총알에 맞았으니 다행히도 치료하기 무척 쉽다고 한다.

“혈의 누”는 이인직이 1906년 처음으로 연문일치 문장으로 쓴 신소설이다. 신소설답게 봉건 질서를 타파하여 남녀평등과 자주독립을 이루자는 계몽적인 주장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이 가지는 침략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일제를 문명 개화의 구원자로 부각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기도 한다.

05

국권 수호 운동

학습 목표

- 러·일 전쟁 이후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일제가 우리나라의 독도를 불법 편입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일제의 침략에 맞서 전개된 항일 의병 운동과 의거 활동을 정리할 수 있다.
- 애국 계몽 운동 단체의 활동과 국채 보상 운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0	<p>1. 일제의 국권 침탈</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아관 파천 이후 조선에서 세력 다툼을 벌인 국가는 어디인가?</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일 전쟁 중 우리나라에 강요한 조약을 설명한다. • 간도와 독도의 위치를 확인하고, 두 지역에 대한 쟁점을 자료를 통해 분석·탐구하여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일본이 열강의 동의를 얻어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 헤이그 특사 파견에 따른 고종의 강제 퇴위부터 한·일 병합 조약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게 한다. • 민영환의 유서, 장지연의 논설, 안중근 관련 동영상, 헤이그 특사 사진 등을 소개하며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글쓰기를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의 이름은? 2. 고종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헤이그에 파견한 세 사람은?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 탐구식</p> <p>강의식 탐구식</p> <p>발표식</p> <p>문답식</p>	<p>CD</p> <p>PPT 37쪽 자료</p> <p>CD</p> <p>학습지</p>
11	<p>2. 의병 항쟁 ~ 3. 애국 계몽 운동</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만약 내가 을사조약이 맺어진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무력’과 ‘실력 양성’ 중 어떤 방법으로 일본에 대응하였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사조약 이후 민족 운동의 흐름으로 직접적 항일 투쟁(의병 항쟁)과 간접적 항일 투쟁(애국 계몽 운동)이 있었음을 설명한다. 	<p>문답식</p> <p>강의식</p>	<p>CD</p> <p>PPT</p>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미·을사·정미 의병의 흐름을 의병장 신분의 변화, 발생 계기, 성격 등을 모듬별로 정리하게 한다. • 애국 계몽 운동 단체의 설립 취지문 등을 사료로 제시하고, 애국 계몽 운동의 주요 단체, 성격, 주요 주장 내용 등을 파악하게 한다. • 신민회와 다른 애국 계몽 단체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신민회의 활동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 국채 보상 운동 취지서를 함께 읽고, 국채 보상 운동의 성격과 전개 과정, 결과 등을 정리하게 한다. 	탐구식	39쪽 자료, 40쪽 지도
		강의식	관련 사료
		발표식	CD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p>1. 을사의병 때 태백산맥에서 활약한 의병장은?</p> <p>2. 1907년에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 단체는?</p>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탐구식	42쪽 자료
		문답식	
			학습지

● 학습 내용 정리

1. 일제의 국권 침탈

(1) 러·일 전쟁(1904)

- ① 배경: 삼국 간섭 이후 러시아의 세력 확장 →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의 대립 격화 → 러·일 전쟁 발발(1904)
- ② 일본의 침략
 - 한·일 의정서: 군사요지 사용, 경부선·경의선 부설
 - 제1차 한·일 협약: 일본 추천 고문 파견, 내정 간섭
 - 열강의 지원: 미국과 영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 인정
- ③ 결과: 일본의 승리 → 포츠머스 조약 체결 → 일본, 한반도에서 세력 확대
- ④ 을사조약(1905.11.):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2) 독도·간도

- ① 독도
 -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부터 독도가 우리 영토

임을 확인 받음.

- 대한 제국: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독도 관할
 - 러·일 전쟁 중: 일본이 시마네 현에 일방적으로 편입
- ② 간도 협약(1909): 일본이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

(3)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 ①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 1905): 통감부 설치, 외교권 강탈, 내정 간섭 → 민영환·조병세 자결, 을사의병, 5적 암살단 조직, 항일 언론 활동 등으로 적극 항거
- ② 헤이그 특사 파견(1907):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자 고종이 특사 파견 →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이 사건을 구실로 고종 강제 퇴위
- ③ 한·일 신협약(1907): 일본인 차관 등용, 군대 해산
- ④ 한·일 병합(1910): 국권 피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

2. 의병 항쟁

(1) 을미의병(1895)

- ① 계기: 을미사변과 단발령
- ② 주도 세력: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
- ③ 활동: 친일 관리와 일본인 공격
- ④ 해산: 고종의 단발령 철회와 해산 권고로 자진 해산

(2) 을사의병(1905)

- ① 계기: 을사조약 체결
- ② 주도 세력: 유생, 전직 관리 등 다양한 계층
- ③ 요구 사항: 조약 파기, 친일 내각 타도

- ④ 중심인물: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등

(3) 정미의병(1907)

- ① 계기: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 ② 특징: 해산 군인 가담 → 전투력 강화, 조직화
- ③ 서울 진공 작전: 13도 연합 의병 결성, 작전 실패
- ④ 일제의 대규모 군사 작전 → 간도, 연해주로 이동

(4) 의열 활동

- ① 나인영(나철), 오기호: 5적 암살단 조직
- ② 전명운, 장인환: 스티븐스 사살
- ③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처단

3. 애국 계몽 운동

(1) 애국 계몽 운동

- ① 성격: 민족의 실력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
- ② 형태: 교육 구국 운동, 언론 계몽 운동, 민족 산업 진흥 운동 등

(2) 경제적 구국 운동

- ① 일본의 경제 침탈: 화폐 정리 사업, 일본의 차관 제공 → 막대한 국채 발생
- ② 국채 보상 운동(1907)
 - 성격: 국민의 성금으로 나랏빚을 갚자는 운동

- 전개: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 확산 → 통감부의 탄압

(3) 애국 계몽 운동 단체

- ① 헌정 연구회: 의회 설립을 통한 입헌 운동 추구
- ② 대한 자강회: 월보 간행 → 대중적 기반 확대
- ③ 신민회: 비밀 단체

목표	국권 회복, 공화정에 바탕을 둔 국민 국가 수립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교육: 대성 학교, 오산 학교 설립 • 민족 산업 육성: 자기 회사, 태극 서관 운영 • 독립운동 기지 건설: 한인촌 조성, 신흥 강습소 설립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36쪽

을사조약에 항거하기 위해서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37쪽

예시 답안

일본의 주장	우리나라의 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근거로 내세우는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개인이 만든 지도로, 1779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표시되어 있다. • 한국은 독도가 1905년 시마네 현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로서 국제 사법 재판소 회부는 불필요하다.

▲ 참고 자료: 동북아 역사 재단 산하 독도 연구소 홈페이지,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생각 열기 ▶▶▶ 교과서 39쪽

양반 유생, 전직 관료, 해산 군인, 농민, 노동자, 소상공인, 지식인, 승려, 화적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39쪽

예시 답안

'국모의 원수', '임금께서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이라는 내용을 통해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41쪽

신문과 잡지 발행, 강연회 개최, 민족 교육 기관 설립 등

탐구 활동 ▶▶▶ 교과서 42쪽

예시 답안

- 성과: 국채 보상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내는 물론 일본 유학생까지 참여하는 범국민적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한계: 국채 보상 운동은 주로 일반민들이 호응하였을 뿐, 상층민, 명문가, 부호 등의 참여가 거의 없어 그 열기가 오래 가지 못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42쪽

- (1) ㉠, (2) ㉡, (3) ㉢
- (1) 서울 진공 작전, (2) 신민회

● 내용 더하기

● 러·일 전쟁(1904. 2. ~ 1905. 9.)

10차시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반도를 장악하려 했던 일본은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에 밀리자 영국과 동맹(제1차 영·일 동맹)을 맺어 러시아에 대항하였다.

영·일 동맹으로 강력한 후원자를 얻은 일본은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하는 한편,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독점적 우월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권과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이권을 상호 승인하자는 일본의 제안이 러시아에 의해 결렬되면서 일본은 러시아와의 외교를 단절하고 러시아의 함대를 기습 공격한 후 선전

포고를 하였다.

일본이 연승을 거두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피의 일요일’ 사건으로 인한 대내적 혼란으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어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 한·일 의정서(1904. 2.)

10차시

제1조 한일 양 제국은 영구불변의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신하여 제도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일 것
제3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 제국의 독립과 영토 안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대한 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이 용이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대한 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였다. 러·일 전쟁에서 한국을 확실한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제1차 한·일 협약(1904. 8.)

10차시

제1조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가 초청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에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제2조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외부에서 초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업무는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제3조 대한 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의 중요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 일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 미국과 영국의 일본 지원

10차시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

첫째,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떤 침략적 의도도 갖지 않는다.

셋째, 태프트 장관은 “..... 일본군은 일본의 동의 없이는 한국이 어떠한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종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이번 전쟁의 논리적 결과이며, 동양의 항구적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 “미국 역사의 기본 사료”

제2차 영·일 동맹(1905. 8.)

제3조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상·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감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집행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 대영 제국은 인도 국경의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특수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국은 위의 국경 부근에서 대영 제국이 인도 영지를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 “일본 외교 연표와 주요 문헌”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러·일 전쟁 직후 일본의 총리 대신 가쓰라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 태프트 육군 장관이 맺은 비밀 협약이다. 이 밀약은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침략 정책을 묵인·방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차 영·일 동맹은 1902년 영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저지하고자 체결한 군사 동맹에 이어(제1차 영·일 동맹) 1911년 독일에 대항하고자 다시 동맹을 강화한 것이다. 이 동맹에서 영국은 사실상 일본의 조선 침략을 인정하였다. 영·일 동맹은 아시아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압력으로 1921년에 폐기되었다.

●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과 우리의 대응

10차시

일본의 독도 편입

.....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한 형적이 없다.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 요자부로란 자가 해도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 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본방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 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없는 것이라 사고하여 청의대로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1905년 1월 일본은 비밀리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 현에 편입시킬 것을 결정한 뒤, 이것을 대한 제국 정부에 통고하지 않고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로 기록하

였다. 대한 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한편, 독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하였다.

● 을사조약

10차시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함이 가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함이 가함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에게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짐

1905년 11월 9일 일본 특명 전권 대사 이토 히로부미는 외교권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안 체결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본 헌병 수십 명의 옹위 아래 각각의 대신에게 가부의 결정을 강요했다.

이때 한규설만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였고, 이른바 이완용, 박제순 등 을사 5적은 책임을 고종에게 전가하면서 찬성을 표시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강제 통과된 협약안에 대한 고종의 재가를 강요했으나 고종은 끝내 재가하지 않았다. 이에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가 체결·조인하고, 11월 18일에 이를 발표하였다.

● 을사조약의 부당성

11차시

을사조약은 흔히 ‘을사 보호 조약’으로 부르지만, 대한 제국의 공식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조약의 첫머리에 명칭조차 쓰지 못하고 공란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을사조약 문서는 고종이 비준하지 않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1906년 프랑스 파리 법과 대학의 프란시스 레이 교수도 협상 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서 등 국제 조약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비어 있는 점을 문제로 들며 국제 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 민영환의 자결

11차시

당시 황제를 호위하는 시종 무관으로 있던 민영환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 5적 처형과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다.

이에 민영환은 죽음으로 항거하여 국민을 각성하게 할 것을 결심하고 자결하였다. 그는 3통의 유서를 썼는데, 1통은 국민에게 각성을 요망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1통은 재경 외국 사절들에게 일본의 침략을 바로 보고 한국을 구해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1통은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었다.

● 신민회

11차시

1907년 4월 조직된 신민회는 전국적으로 회원이 800여 명에 달하였다. 신민회의 목적과 이념은 국권을 회복하여 자주독립국을 세우고, 정치 체제는 공화정으로 하며, 실력 배양과 기회를 중시하였다.

신민회는 실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신문·잡지·서적의 간행, 강연회 개최, 학교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 민족 산업 자본의 진흥, 국외 무관 학교 설립, 국외 독립군 기지와 독립군 창건 등을 전개하였다.

● 국채 보상 운동 취지서

11차시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천 3백만 원은 우리 대한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 2천만 인민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천 3백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 액수가 다 차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 원, 십 원, 백 원, 천 원을 특별 출연하는 사람이 있어 채울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매일신보(1907. 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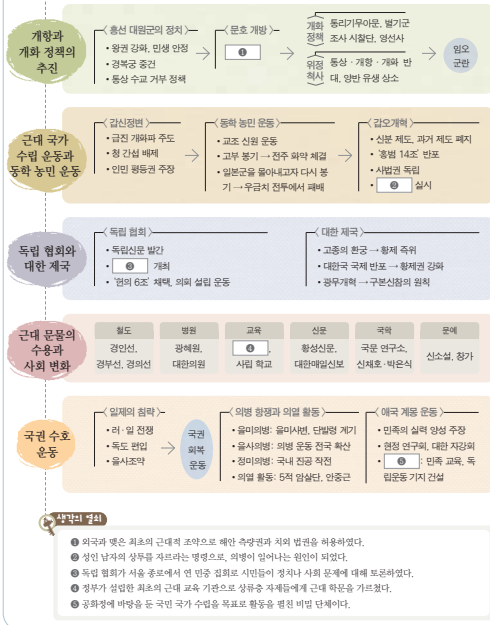
●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한 평가

11차시

애국 계몽 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 문명 개화론을 토대로 한 개화 자강 운동이 민족과 국민의 존재를 새롭게 부각시켰고 국권 회복 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다고 본다. 신민회가 독립 전쟁 노선을 택하고 독립군 기지 창설 운동으로까지 발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한다.

반면 애국 계몽 운동의 한계에 주목하는 경우, 대부분의 애국 계몽 운동가들이 당시 운동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정치 투쟁이나 무장 투쟁을 포기했으며, 특히 의병 전쟁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했던 데에 주목한다. 아울러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도움과 지도로 문명화할 수 있다는 등의 타협적 태도를 보였던 것도 애국 계몽 운동의 큰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과제 풀이

1 다음은 역사의 각동기를 살았던 인물들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최익현
(1833~1906)

1873년 홍선 대원군의 만동묘 및 서원 철폐를 비판하여 상소
1876년 강화도 조약 반대 상소 → 옥신도 유배
1895년 을사늑약을 항거하여 상소
1905년 을사 5적 처단을 주장하는 상소
1906년 의병을 일으켰으나 쓰시마 섬으로 유배되어 1909년 순국



김옥균
(1851~1894)

1870년대 공반정 박규수의 사량정에 서 개화사상 학습
1872년 문과 장원 급제
1883년 개화에 필요한 자금을 벌려 일본에 갔으나 실패
1884년 을사늑약 반대, 일본 망명
1894년 장악이로 망명, 피살



전봉준
(1855~1895)

가난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한의사, 서당 훈장 등을 하면서 생계유지
1890년 전주 동학 입교, 이후 고부 지방의 집주로 망명
1893년 고부 군수 조병갑에게 과중한 세금 등에 대한 전봉준의 격렬한 저항으로 전주 패배 후 피신, 순창에서 체포됨.
1895년 처형됨.



서재필
(1864~1951)

1882년 과거 급제
1883년 김옥균의 권유로 일본 유학
1884년 갑신정변 거두, 미국 망명
1889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 의과 대학 졸업
1895년 귀국
1896년 독립신문 창간, 조지
1898년 미국으로 돌아가 독립운동 전개

2 자신이 위 인물 중 한 명이라고 가정하고 빈칸에 사건의 있었던 시기의 가장 일기를 써 보자.

1894년	1895년	1896년	1897년	1898년	1899년	1900년	1901년	1902년	1903년	1904년	1905년	1906년	1907년	1908년	1909년	1910년	1911년	1912년	1913년	1914년	1915년	1916년	1917년	1918년	1919년	1920년	1921년	1922년	1923년	1924년	1925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1931년	1932년	1933년	1934년	1935년	1936년	1937년	1938년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1943년	1944년	1945년	1946년	1947년	1948년	1949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1961년	1962년	1963년	1964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1969년	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1974년	1975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36년	2037년	2038년	2039년	2040년	2041년	2042년	2043년	2044년	2045년	2046년	2047년	2048년	2049년	2050년	2051년	2052년	2053년	2054년	2055년	2056년	2057년	2058년	2059년	2060년	2061년	2062년	2063년	2064년	2065년	2066년	2067년	2068년	2069년	2070년	2071년	2072년	2073년	2074년	2075년	2076년	2077년	2078년	2079년	2080년	2081년	2082년	2083년	2084년	2085년	2086년	2087년	2088년	2089년	2090년	2091년	2092년	2093년	2094년	2095년	2096년	2097년	2098년	2099년	210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 확인하기

1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던 이 조약으로 인천, 부산, 원산을 개항하였다.

2 단발령

✚ 상투를 자르는 것은 조선의 전통을 무시하고 조선인의 혼을 없애려는 일본의 의도가 드러나는 일이었다. 이 명령은 전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을미사변과 함께 유생과 농민의 반일 감정을 폭발시켰다.

3 만민 공동회

✚ 이 회의에서 시민들은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규탄하고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였다.

4 육영 공원

✚ 1886년에 세워졌으며 미국인 교사들을 초빙하였다.

5 신민회

✚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에 힘쓰고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과제 풀이

지도 요령

개항을 전후한 시기부터 일제에 의해 대한 제국의 국권이 침탈되기까지의 주요 사건을 역사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한 인물에 해당하는 시기의 역사적 사실과 쟁점들의 요소가 들어간 가상 일기를 쓰도록 지도한다.

1. 최익현-단발령, 김옥균-갑신정변, 전봉준-동학 농민 운동, 서재필-독립 협회

2. 예시 답안 | 김옥균, 갑신정변

1884년 12월 4일

드디어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이 열리는 날이자, 우리가 꿈꾸던 이상 사회를 건설할 날이 밝았다. 우리는 청으로부터 자주적인 정부를 꾸릴 것이며, 왕권이 제한되고 대신들이 국정을 논의·결정하는 입헌 군주제를 수립할 것이다. 또한 신분제를 폐지하고, 토지를 개혁할 것이다. 우리의 계획이 무사히 성공하기를 기원해 본다.

대단원 짚고 가기

- 01** 다음은 흥선 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의 내용이다. 이 내용과 관련된 흥선 대원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 ① 비변사 폐지
- ② 호포법 시행
- ③ 경복궁 중건
- ④ 통상 수교 거부
- ⑤ “대전회통” 편찬

- 02** 다음은 강화도 조약의 내용 중 일부이다. 제시된 조항을 토대로 강화도 조약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7조 조선 연해의 섬과 암초는 매우 위험하므로 일본 항해자가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 10조 일본 국민이 조선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 국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 ① 자주적 성격을 지닌 조약이다.
- ② 통상 수교 거부를 분명히 밝혔다.
- ③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 ④ 일본에 의존해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⑤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 03**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운동의 명칭을 쓰시오.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양반 유생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양반 유생들은 1860년대부터 조선의 전통 질서를 수호하고 서양의 문물을 배척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 04** 다음 사건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차별을 받던 구식 군인들은 개화 정책을 추진한 고위 관료의 집을 공격하고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였다.

- ①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
- ② 일본군의 서울 주둔이 허용되었다.
- ③ 일본은 군대를 보내 군란을 진압했다.
- ④ 청은 군란의 책임을 물어 고종을 끌고 갔다.
- ⑤ 일본은 조선에 한성 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

- 05** 다음 <보기>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보기**
- | | |
|----------|----------|
| ㉠ 갑신정변 | ㉡ 임오군란 |
| ㉢ 거문도 사건 | ㉣ 제물포 조약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 06** 다음 지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일 전쟁을 유발하였다.
- ② 교조 신원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 ③ 정부가 추진한 갑오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 ④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외세를 몰아내려 했다.
- ⑤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 민족의 실력 양성에 힘썼다.

07 다음 <보기>에서 갑오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 | | |
|--------------|------------|
| ㉠ 현의 6조 | ㉡ 홍범 14조 |
| ㉢ 군국기무처 | ㉣ 태양력 채택 |
| ㉤ 도량형 통일 | ㉥ 통리기무아문 |
| ㉦ 신분제 폐지 | ㉧ 과거제 폐지 |
| ㉨ '건양' 연호 사용 | ㉩ 과부 재가 허용 |

08 다음 사진들과 관계 깊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토론회와 강연회를 자주 열었다.
- ③ 서울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를 열었다.
- ④ 정부 대신들이 참여한 관민 공동회를 열었다.
- ⑤ 신분제를 폐지하여 봉건 사회를 해체하려 하였다.

09 다음 내용의 밑줄 친 '개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 제국은 황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주독립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① 군사적 개혁을 등한시하였다.
- ② 교육입국 조서가 발표되었다.
- ③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였다.
- ④ 열강의 이권 침탈을 철저히 차단하였다.
- ⑤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전면적 개혁을 추구했다.

10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옳은 것은?

유생들은 격렬한 규탄 상소를 올렸고, 민영환과 조병세 등은 자결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 항쟁이 일어나고 5적 암살단이 조직되었다. 언론도 적극 대항하였다.

- ① 군대 해산
- ② 을사조약 강요
- ③ 간도 협약 체결
- ④ 고종의 강제 퇴위
- 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11 다음 <보기>는 항일 의병 항쟁에 대한 설명이다. 발생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 해산 군인이 가담하였다.
- ㉡ 의병장 신돌석이 활약하였다.
- ㉢ 유인석, 이소응 등 유생들이 주도하였다.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12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비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통감부의 탄압으로 공개적인 활동이 어려워지자,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어 비밀 단체를 조직하였다(1907).

- ① 헤이그 특사 파견을 주도하였다.
- ②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 ③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 ④ 의회 설립을 통한 입헌 운동을 추구하였다.
- ⑤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정답

01 ㉠ 02 ㉢ 03 위정척사 운동 04 ㉡ 05 ㉢ 06 ㉤ 07 ㉡, ㉢, ㉤, ㉦, ㉨ 08 ㉤ 09 ㉢ 10 ㉡ 11 ㉢ 12 ㉡

II

민족 운동의 전개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이후 전개한 식민 통치와 이에 저항하여 우리 민족이 줄기차게 전개한 독립운동을 다룬다. 시대별로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경제적 수탈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시기에 우리 민족이 국내외에서 전개한 다양한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알아본다.



▲ 용정의 일송정과 선구자 시비(중국 지린 성)

01.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에서는 일제의 무단 통치와 토지 조사 사업에 맞서 국내외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단체들의 활동 내용을 알아본다.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확산 과정, 의의를 살펴보고 그 결과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을 파악한다.

02. 192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전개에서는 일제의 기만적 문화 통치와 산미 증식 계획에 맞서 다양한 방향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을 파악한다.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실력 양성 운동의 내용을 알아보고, 노동자·농민·학생 등 사회의 여러 계층이 활발하게 민족 운동을 정리한다. 특히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함께 한 신간회의 활동을 파악하고, 청산리 대첩, 의열단의 활동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03. 전시 수탈의 강화와 광복을 향한 노력에서는 일제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고자 자행한 인적·물적 수탈에 저항하여 더욱 격렬하게 전개된 민족 운동의 내용을 알아본다. 1930년대 만주에서 전개된 독립군의 활동,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조선 의용대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충칭에 정착한 이후 전개한 독립운동의 내용도 살펴본다.

04.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전개에서는 황국 신민화 정책, 한국어 사용 금지 등과 같은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저항하여 우리말과 글, 그리고 역사를 지키기 위해 전개된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내용을 파악한다. 또한 문학과 예술, 종교계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의 내용을 알아본다.

2 단원의 목표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별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의 내용과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 국내외에서 전개된 다양한 민족 운동의 사례를 정리하여 말할 수 있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이 우리 민족의 삶에 미친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시대별·지역별로 정리하여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 외교론, 무장 투쟁론, 실력 양성론 등 독립운동 방법론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할 수 있다.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 일제의 식민 통치 상황 속에서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자들의 삶의 태도와 노력을 배운다. • 일제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해 이바지하였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할 수 있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12	01.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1.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무단 통치, 조선 총독부, 토지 조사 사업, 동양 척식 주식 회사, 회사령, 대한 광복회, 신흥 무관 학교
13		2. 3·1 운동의 전개	민족 자결주의, 2·8 독립 선언서, 3·1운동, 제암리 사건
14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민주 공화제, 연통제, 교통국, 애국 공채, 국민 대표 회의, 창조파와 개조파
15	02. 192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전개	1. 문화 통치와 식민지 수탈 정책의 전개 ~ 3. 사회 각 계층의 민족 운동	보통 경찰 제도, 산미 증식 계획, 물산 장려 운동, 민립 대학 설립 운동, 농촌 계몽 운동, 농민·노동 운동, 6·10 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6		4. 민족 협동 전선 운동 ~ 5.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	자치 운동, 신간회, 근우회,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3부 성립, 의열단
17	03. 전시 수탈의 강화와 광복을 향한 노력	1. 병참 기지화 정책	국가 총동원법, 징용령, 태평양 전쟁, 근로 정신대, 일본 군 위안부
18		2. 더욱 격렬해진 무장 투쟁 운동	조선 혁명군, 한국 독립군, 동북 항일 연군, 민족 혁명당, 조선 의용대, 조선 의용군
19		3. 광복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한인 애국단, 윤봉길, 대한민국 건국 강령, 한국광복군, 국내 진공 작전, 조선 건국 동맹
20	04.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전개	1.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	황국 신민화 정책, 신사 참배, 일본식 씨명 강요, 조선어 학회, 민족주의 사학, 사회 경제 사학
21		2. 문학과 예술 활동	저항 문학, 코리아 환상곡, 아리랑, 신사 참배 거부 운동, 천도교, 원불교, 중광단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제1, 2차 세계 대전, 러시아 혁명 등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식민지 근대화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공업 개발의 경제적 성과가 한국인의 고통과 희생을 바탕으로 일본 자본과 일본인에게 집중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여 온몸을 희생한 독립운동가가 있었는가 하면, 그에 적극 협력하여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인물이나 단체, 사건을 나열하기보다는 역사적 사건의 시대별·지역별 상호 연관성을 살펴 지도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비, 1994.
- 친일문제연구회, “일제침략사 65장면”, 가람기획, 1996.
- 김정동, “일본 속의 한국 근대사 현장”, 하늘재, 2003.
- 류승렬,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솔, 2003.
- 한중일삼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신문사, 2006.
-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008.
- 이종렬, “그림으로 읽는 한국 근대의 풍경”, 김영사, 2011.
-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

01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학습 목표

- 일제 무단 통치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세력의 활약상을 알 수 있다.
- 3·1 운동의 배경과 확산 과정,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2	<p>1.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빼앗은 후 설치한 최고 식민 통치 기구는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병 경찰 제도와 조선 태형령을 통해 무단 통치의 실상을 파악하게 한다. •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토지 조사령과 회사령을 통해 일제가 각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목적을 파악하게 한다. • 일제의 통치에 저항하여 일어난 비밀 결사들의 활동 내용을 국내외로 나누어 설명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빼앗은 땅을 관리하고자 만든 회사는? 2.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군대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비밀 결사는?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탐구식 발표식 탐구식 강의식</p> <p>문답식</p>	<p>CD</p> <p>PPT 인터넷 49쪽 자료 CD, PPT</p> <p>학습지</p>
13	<p>2. 3·1 운동의 전개</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강화 회의에서 월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음을 파악하게 한다. • 무오 독립 선언과 2·8 독립 선언 등을 중심으로 3·1 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한다. • 3·1 운동의 준비 및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전국에서 일어난 거족적인 민족 운동이었음을 파악하게 한다. • 3·1 운동이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국외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p>문답식</p> <p>탐구식 강의식 탐구식 발표식</p>	<p>CD</p> <p>PPT 52쪽 자료, 역사 부도 인터넷</p>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운동의 성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설명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것은? 2. 3·1 운동의 소식이 알려지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 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 시위를 펼친 단체는?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강의식 문답식	학습지
14	<p>3.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3·1 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서 구성된 정부는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주의 대한 국민 의회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내의 한성 정부가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대한민국 임시 현장을 이용하여 임시 정부의 정부 형태와 의미 등을 파악하게 한다. • 임시 정부의 활동 내용을 담은 동영상 보여 주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 임시 정부 내의 독립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국민 대표 회의의 전개 과정과 대표적인 인물(이승만과 이동휘)의 삶을 통해 알아본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19년 3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결성된 정부는? 2.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자 발행한 것은?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 발표식 강의식</p> <p>문답식</p>	<p>CD</p> <p>PPT</p> <p>53쪽 자료 동영상 55쪽 자료</p> <p>학습지</p>

● 학습 내용 정리

1.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1) 1910년대 무단 통치

- ① 조선 총독부 설치: 조선 총독은 입법·행정·사법 및 군대 통수권 등 막강한 권력 행사
- ② 헌병 경찰 제도: 군대식 통제, 일상생활 감시
- ③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 ④ 조선 교육령 공포: 민족 교육 원천 봉쇄

(2)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 ① 목적: 지세 수입 증대, 토지 약탈
- ② 방법: 기한부 신고제 실시 → 지정된 기간 안에 토지 소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지로 전환
- ③ 결과: 조선 총독부가 미신고 토지 및 왕실과 관청 소유의 토지 국유화 →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혈값에 판매

- ④ 회사령(1910): 조선 총독의 허가 없이 회사 설립 금지
- ⑤ 삼림령(1911): 삼림 지대의 국유화·일본인에게 양도

(3) 1910년대 민족 운동

- ① 국내: 비밀 결사 조직
 - 배경: '105인 사건' 등 일제의 독립운동 세력 탄압
 - 독립 의군부: 유럽 조직, 복고주의
 - 대한 광복회: 공화주의 표방, 군대식 운영
- ②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 삼원보: 신흥 강습소(신흥 무관 학교), 경학사 설립
 - 용정: 민족 교육 기관 설립, 독립군 양성
 - 그 외: 블라디보스토크(대한 광복군 정부), 상하이(신한 청년당), 미국(대한인 국민회)

2. 3·1 운동의 전개

(1) 배경

- ① 민족 자결주의: 파리 강화 회의에서 월슨이 제창
- ② 신한청년당: 김규식을 파리에 파견
- ③ 독립 선언: 무오 독립 선언(만주), 2·8 독립 선언(일본)

(2) 3·1 운동의 과정

- ① 준비: 학생과 종교계 인사들이 독립 선언서 작성
- ② 시작: 민족 대표와 학생 대표들이 태화관과 탑골 공원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 → 만세 시위 전개

- ③ 시위의 확산: 주요 도시 → 중소 도시 → 농촌 지역
- ④ 국외 확산: 용정, 블라디보스토크, 미국 등
- ⑤ 일제의 대응: 무자비한 탄압(유관순의 순국, 제암리 사건 등) → 무력 저항 발생

(3) 3·1 운동의 의의

- ① 우리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 운동
- ② 문화 통치로 식민 통치 방식 변화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계기
- ④ 국외 민족 운동에 영향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1) 수립

- ① 배경: 3·1 운동 → 단일 지도 조직의 필요성 제기
- ② 각지에 수립된 정부: 대한 국민 의회(연해주), 대한민국 임시 정부(상하이), 한성 정부(국내)
- ③ 통합 정부 출범: 외교 활동에 유리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1919. 9.)
- ④ 정부 체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

(2) 활동

- ① 연통제: 국내 정보 수집
- ② 교통국: 통신 담당

- ③ 애국 공채 발행: 독립운동 자금 모집

④ 외교 활동

- 김규식을 전권 대사로 임명하여 파리 강화 회의 파견 →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미국에 구미 위원부 설치

(3) 국민 대표 회의(1923)

- ① 배경: 독립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
- ②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 창조파: 임시 정부 해체, 새로운 정부 구성
 - 개조파: 임시 정부 조직을 부분적으로 개혁
- ③ 결과: 결렬 → 임시 정부의 활동 침체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48쪽

1910년대 조선 총독은 무단 통치를 실시하여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헌병 경찰을 배치하여 국내의 항일 움직임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50쪽

- 1. 신홍 무관 학교
- 2. 일제는 국내 비밀 결사 운동을 탄압하고, 한국인의 항일 의지를 꺾고자 105인 사건을 꾸몄다.

생각 열기 ▶▶▶ 교과서 51쪽

3·1 운동

생각 열기 ▶▶▶ 교과서 53쪽

광복 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체(政體)를 이어받아 공화제를 채택하였으며 전 국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정부를 구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53쪽

- 1. 공화정
- 2. 모든 국민이 주권인식을 지닐 때 나라를 찾겠다는 의지를 모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항일 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55쪽

- 1. (1) X, (2) X
- 2. (1) 조선 총독부, (2) 애국 공채, (3) 동양척식
- 3. ㉠-㉢-㉣-㉤-㉥

● 내용 더하기

※ 헌병 경찰의 임무

12차시

- 1. 의병 토벌, 첩보 수집
- 2. 신문지 및 출판물 단속, 집회·결사의 단속, 종교 단속, 기부금 단속
- 3. 범죄자 즉결 처분, 민사쟁송 조정, 검사 업무 대리
- 4. 학교 및 서당 사찰, 일어 보급

5. 납세 독촉, 국경 세관 업무, 농사·산림·광업 단속
6. 종두 보급, 전염병 예방, 도축 단속

일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자 군인인 헌병이 경찰 업무를 맡아보도록 하였다. 헌병 경찰은 독립운동가 색출 이외에 한국인의 일상생활 감시, 세금 징수 등을 맡았다.



▲ 함경북도 경무부와 헌병대 본부

함경북도 경무부(경찰서)와 경성 헌병대 본부의 현판이 나란히 붙어 있어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맡아본 것을 보여 준다.

● 조선 태형령(1912)

12차시

제2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1. 조선 내에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2. 무자산이라고 인정될 때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선 총독부 관보”, 1912.3.18.

● 제1차 조선 교육령(1911)

12차시

제1조 조선에 있어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총량한 국민을 기르는 본의로 한다.

제8조 보통학교는 국민 교육의 기초가 되는 보통 교육을 시키는 곳으로서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고 국어(일본어)를 가르치며 덕목을 베풀어 국민된 성격을 양성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제28조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 고등 보통학교, 여자 고등 보통학교, 실업 학교 및 전문학교의 설치 또는 폐지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보통학교, 고등 보통학교, 여자 고등 보통학교, 실업

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과목 및 그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료에 관한 규정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

제30조 본 장에 열거한 이외의 학교에 관하여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의 목표는 일본의 신민다운 자질과 품성을 지니며, 일제에 충성하는 인력을 육성하는 데 있었다. 이 법령은 우리 민족을 일제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도록 하고, 낮은 수준의 실업 교육만을 받도록 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근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대학 교육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12차시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 “조선 총독부 관보”, 1912.8.13

일제는 대한 제국 때 시행된 토지 조사의 결과를 그들의 요구와 목적에 맞게 재편하였다. 그리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농민의 토지에 대한 여러 권리를 완전히 부정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총독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상당수의 한국인이 토지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상실하였다. 또한 토지 조사 과정 중에 소유권 확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 중 2만여 건은 토지 경작을 보장받던 농민들의 패소로 끝났다.

● 회사령(1910)

12차시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밖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조선 총독부, “조선 법령 집람 제17집”

일제는 민족 자본의 성장을 차단하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막고자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회사령은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차별 적용되었다. 그 결과 한국인의 회사 설립과 경영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일본은 빠르게 공업화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자국 독점 자본의 한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1920년 회사령을 폐지하였다.

● 대한 광복회 강령

12차시

1. 부호의 의견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2. 만주에 사관 학교를 설치하여 독립 전사를 양성한다.
3. 중국·러시아 등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4. 무력이 준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달성한다.

1915년 7월 대구에서 결성된 대한 광복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제 실현을 목적으로 군자금을 모으고, 독립군 양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18년 초 전국의 조직망이 발각되어 주요 인물이 검거, 사형되면서 조직이 파괴되었다. 조직원 가운데 일부는 1920년대 만주에서 조직된 암살단·의열단에 가담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 신흥 무관 학교

12차시

1909년 신민회는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동녕, 이회영, 장유순 등을 만주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신흥 강습소는 통화현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흥 중학교로 개칭하였고, 1919년 유하현으로 옮긴 뒤 신흥 무관 학교로 개칭하였다. 폐교될 때까지 2,100여 명의 독립군을 배출하였는데 이들이 청산리 전투의 주력으로 활동하였다.



▲ 신민회가 건설한 독립운동 기지

● 민족 자결주의

13차시

제1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1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의식을 지닌 집단은 모두 그들이 바라는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것으로, 이 원칙에 따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 및 러시아의 영토였던 발트 해 연안의 국가들이 독립하였다.

민족 자결주의는 국내 민족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3·1 운동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약소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발표된 것이 아니었으며 패전국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에만 적용되었다. 이에 승전국이 보유한 식민지에는 이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 무오 독립 선언(1918)

13차시

우리 대한 동족 남매와 온 세계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우리들의 평화 복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체의 학대와 압박을 벗어나서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 꺾기하라, 독립군! 천지를 바르게 하라, 독립군! 한번 죽음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바이니 개, 돼지와도 같은 삶을 누가 구차히 바라겠는가? ……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라.

1919년 2월 중국 길림에서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독립 운동가 39명이 제1차 세계 대전 종전에 맞춰 발표한 독립 선언서이다. 음력으로 1918년 무오년에 선포되었다 하여 ‘무오 독립 선언서’라고 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 선언서이기도 하다.

대종교계 인사들이 다수 참가하였으며 외교론이 반영된 다른 선언과 달리 독립 전쟁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노선을 천명하였다.

● 2·8 독립 선언(1919. 2. 8.)

13차시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달성하기를 선언하노라. 4천 3백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 비록 다년간 전제 정치의 해독과 그로 인한 불행이 우리 민족의 현재를 있게 하였다 할지라도 신 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우리 민족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함이 있을 것으로 믿노라.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자결의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동을 취하여 독립을 얻기를 선언하노라.

제1차 세계 대전의 종결 후 파리 강화 회의에서 월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고, 1918년 12월 15일자 'The Japan Advertiser'에서 재미 한국인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보도 기사가 실리고, 12월 18일자에 파리 강화 회의 및 국제 연맹에서 한국을 비롯한 약소민족 대표들의 발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소식을 접한 동경 조선 유학생 학우회는 1919년 1월 동경 기독교 청년 회관에서 웅변 대회를 열어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실행 위원을 선출하였다. 실행 위원들은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하고 '민족 대회 소집 청원서'와 '독립 선언서'를 작성한 후 송계백을 국내로, 이광수를 상하이로 파견하였다.

조선 청년 독립단은 1919년 2월 8일 선언서와 청원서를 각국 대사관, 공사관 및 일본 정부, 일본 국회 등에 발송한 다음 기독교 청년 회관에서 유학생 대회를 열어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실행 위원을 포함한 27명의 유학생이 경찰에 검거되고 강제로 해산되었다. 2월 12일 유학생 100여 명이 히비야 공원에 다시 모여 독립 선언서를 재차 발표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해산되었다. 그러나 이 선언은 3·1 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3·1 운동, 3월 3일에서 3월 1일로 바뀐 이유

13차시

거사일이 3월 1일로 결정된 데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우선 3월 3일이 고종 황제의 장례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백성이 '고종 황제 독살설'로 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국장 당일에 폭동이 일어나면 독립운동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므로 그 이전에 거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른 주장으로는 국장일의 거사는 불경(不敬)이라 피하되, 국장 배례 차 상경한 지방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3일과 가까운 1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3월 3일 안이 3월 1일로 바뀐 데에는 '비밀 누설'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1919년 2월 하순의 어느 날 악명 높은 종로 경찰서 고등계 형사인 신철이 천도교에 소속된 인쇄소인 보성사를 급습해 인쇄 중인 '독립 선언서' 한 장을 챙겨 들고 말없이 인쇄소를 나갔다. 보성사 사장 이종일은 즉시 천도교 유력자인 최린에게 이 사태를 보고했고, 최린은 신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민족을 위해 며칠 동안만 입을 다물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신철은 비밀을 지키기로

했지만 지도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3일로 예정된 거사를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 기미 독립 선언(1919. 3. 1.)

13차시

오동(吾等)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표명함이며,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으로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기함이니, 이는 천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인류 공존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하물이든지 이를 저지 억제하지 못할지라.

1918년 말부터 독립운동의 3대 원칙, 즉 대중화·일원화·비폭력 등을 주장해 온 손병희, 최린 등 천도교 측 중진들은 독립운동의 실천 방법으로 독립 선언서와 독립 청원서·국권 반환 요구서 등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하고자 기독교·불교·유림 등 각종 종교 단체를 망라하는 동시에 저명인사들을 민족 대표로 내세우기로 합의하였다.

고종의 승하로 매일 감정이 절정에 다다르자 이들은 다시 종교 단체와 교섭을 벌여 기독교 측과 불교 측의 합류 승낙을 얻어냈다.

독립 선언서는 독립운동가로서 널리 알려지고 문장력이 뛰어난 최남선이 작성하였다. 독립 선언서는 천도교 측 15인, 기독교 측 16인, 불교 측 2인 등 33인이 민족 대표로 서명하였다. 독립 선언서의 원고는 오세창을 통해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사 인쇄소 사장 이종일에게 전달되었다. 이종일은 공장 감독 김홍규와 2만 1,000매를 인쇄하여 자기 집으로 운반하였다.

독립 선언서는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 자결에 의한 자주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시하였다.

● 3·1 운동의 확산

13차시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3·1 운동은 대도시에서 중소 도

시로, 농촌으로, 국외로 번져 나갔다. 민중들은 그들의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운동 격문을 제작하거나, 각종 운동가를 만들어 부르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3·1 운동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단계이며, 2단계는 학생과 도시의 노동자 및 상인의 주도로 전국 주요 도시로 운동이 확산된 단계이다. 3단계는 주요 도시에서 농촌 지방을 포함한 전국 방방곡곡과 국외 각지로 운동이 확산된 단계이다.

새로운 지식을 수용한 학생과 젊은 지식인들이 운동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여기에 일제의 수탈로 피해를 입은 도시 노동자층과 상인층이 호응하였다.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빼앗기고 소작농, 화전민으로 내몰리던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3·1 운동은 여러 달 동안 이어지면서 만주, 연해주, 중국, 일본, 하와이, 미국 등 세계 각지에 걸쳐 전개되었다.

일제는 헌병과 경찰, 군인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시위를 탄압하였다. 그리하여 운동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하였고, 15,84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6,306명이 감옥에 갇혔다.

일제의 탄압으로 3·1 운동은 독립을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전 민족이 참여한 최대의 항일 운동이었다. 그리고 만주에서 준비되던 무장 독립 전쟁을 본격화하였으며, 아시아의 다른 식민지 및 반식민지 상태에 있던 민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 3·1운동 때의 만세 시위 지역

전국 232개 부·군 가운데 229개 지역에서, 1491회에 걸쳐 만세 시위가 일어났으며 200여 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 제암리 학살 사건

13차시

“사령관 자신이 모르는 사이 서울 남쪽에서 일본군 병사가 조선인 30여 명을 교회 안에 가두고 학살·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을 사실대로 처분하면 가장 간단하지만 학살·방화를 인정하면 일본 제국의 입장이 불리해진다.”, “(1919) 4월 18일 간부들과의 협의에서 저항했기 때문에 살육했다며 학살·방화를 시인하지 않기로 결론 짓고 회의를 마쳤다.”

윗글은 2007년 2월 28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우쓰노미야 당시 조선군 사령관의 일기 중 일부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1919년 4월 현재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에서 일본 헌병들이 주민을 집단 학살하였고, 일본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음을 알 수 있다.

제암리는 주민의 대부분이 천도교와 기독교 신자였다. 당시 제암리의 천도교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단순한 포교 활동뿐만 아니라 국권 회복을 위한 비밀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3·1 운동을 계기로 더욱 촉발·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4월 15일 아리타 중위가 이끄는 일단의 일본 헌병이 제암리에 도착하여 15살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교회로 모이라며 위협했다. 주민들이 모이자 일본 헌병들은 이들을 교회에 가둔 후 불을 붙이고 교회 안을 향해 일제 사격을 시작하였다. 뒤이어 일본 헌병들은 온 마을에 불을 질러 제암리 33채의 집 가운데 외딴 집 2채만 남고 모두 불태웠다. 생지옥 같은 참화 속에서 천도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 등 모두 30여 명이 희생되었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1919.9.)

14차시

3·1 운동 이후 정부 수립 운동은 세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먼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교포 사회를 바탕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한족 중앙 총회가 대한 국민 의회로 개편되어 정부 형태를 갖추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3·1 운동 이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1천여 명이 모여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선포하고 선거를 거쳐 국무원을 구성하였다. 서울에서도 한성 정부가 수립되어 ‘13도 대표자’의 이름으로 국민 대회 취지서와 6개조의 양법이 명시된 선포문을 발표하였다.

임시 정부가 세 곳에 세워지자 자연스럽게 통합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한 국민 의회는 외교부와 교통부만 상하이에 두고 정부와 의정원은 간도나 연해주 지방으로 옮겨 통일 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반해 상하이 정부는 임시 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에 두되 정부의 의사나 거류민의 여론에 따라 자유로이 위치 변경을 할 수 있게 하며, '상하이 임시 의정원'과 '연해주 국민 의회'를 합해 의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한성 정부 집정관 총재 이승만이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한성 정부를 포함한 세 정부의 통일 교섭이 추진되었다.

교섭 과정에서 상하이와 연해주에 설립한 정부를 일체 해소하고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 정부를 계승할 것, 정부의 위치는 당분간 상하이에 둘 것, 상하이에 설립한 정부가 실시한 행정은 유효임을 인정할 것, 정부 명칭을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할 것 등이 제시되었고, 그것이 합의되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 대한민국 임시 헌장

14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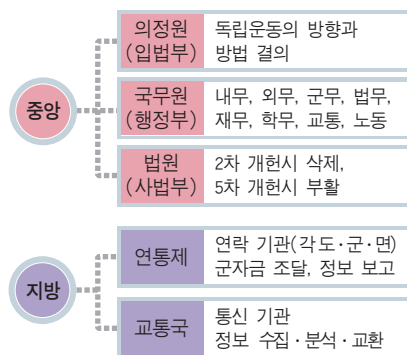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집회, 토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조직도(1919. 9.)

1919년 4월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임시 헌장 10개조를 발표하고 임시 정부를 조직·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민주 공화정을 채택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임시 의정원(입법부), 국무원(행정부), 법원(사법부)의 삼권 분립 체제로 1919년 9월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 연통제

14차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내외를 비밀리에 연결하고 통할하는 행정 단위 체제로서 연통제를 두었다. 연통제는 국내외 국민들의 독립 의지를 상호 보완·교류하고, 구국 사업의 완성을 기하며 민족적 역량을 수렴·교환하는 비밀 지하조직이었다. 연통제의 주요 업무로는 법령과 공문의 전달과 공포, 독립 투쟁의 지속적인 지휘 감독, 군수품의 징발 수송, 군자금 모집원의 격려 고무, 공채 발행 등이었다.

● 국민 대표 회의의 소집과 결과

14차시

임시 정부는 일제의 집요한 감시와 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붕괴되고, 국내에서의 지원이 줄어들어 자금난과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외교론과 무장 투쟁론, 실력 양성론 등 독립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1923년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가 소집되었다. 특히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1919)'가 밝혀지면서 소집의 필요성이 더욱 촉발되었다.

미국 대통령 각하, 대한인 국민회 위원회는 본 청원서에 서명한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공식 청원서를 각하에게 제출합니다. 열강이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 연맹의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빌며, 이렇게 될 경우 대한 반도는 만국의 통상지가 될 것입니다.

- 이승만, '위임 통치 청원서'

120여 개의 단체 및 지역에서 140여 명이 모인 회의에서 신숙, 문창범, 윤해 등 창조파 인사들은 무장 투쟁 노선을 주장한 반면, 여운형, 안창호, 김동삼 등 개조파 인사들은 운동 노선보다 '정부'라는 명분을 중시하였다. 결국 회의는 결렬되었고,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고 임시 정부를 고수하자는 이동녕, 이시영, 김구, 조완구 등의 고수파들만 남아 임시 정부를 지키게 되었다.

학습 목표

- 19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 내용과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 실력 양성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 사회 각 계층에서 전개한 민족 운동을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신간회의 설립 배경과 활동 내용을 알 수 있다.
- 1920년대 국외에서 이루어진 독립군의 활동과 애국지사의 의거 활동을 정리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5	<p>1. 문화 통치와 식민지 수탈 정책의 전개 ~ 3. 사회 각 계층의 민족 운동</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3·1 운동 이후 우리 민족을 회유하고자 일제가 실시하겠다고 선전한 통치 방식은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통치의 실시 배경과 내용, 그 실상을 파악하게 한다. • 일제가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한 이유와 산미 증식 계획으로 우리나라 농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탐구하게 한다. • 물산 장려 운동의 전개 과정과 더불어 성과 및 한계를 설명한다.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의 전개 과정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농민·노동 운동의 대표적 사례를 통해 그들의 주장과 성과를 알아본다. • 학생들의 주도로 일어난 6·10 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의미를 탐구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 살림은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만 살자'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국산품 애용을 주장한 운동은? 2.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한 대규모 시위는?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탐구식</p> <p>강의식 발표식 강의식 탐구식</p> <p>문답식</p>	<p>CD</p> <p>57쪽 자료</p> <p>PPT 59쪽 자료 60쪽 자료 동영상</p> <p>학습지</p>
16	<p>4. 민족 협동 전선 운동 ~ 5.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결성한 단체가 전개한 활동은 무엇일까?</p>	<p>문답식</p>	<p>CD</p>

16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간회의 설립 배경을 사료를 통해 알아보게 한다. • 신간회의 활동 방향과 내용을 탐구하고, 여성계의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의 결과인 근우회에 대해 설명한다. • 신간회가 해체된 이유를 파악하게 한다. •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의 승리와 일제의 보복, 러시아령 자유시에서의 무장해제를 정리하여 설명한다. • 자유시 참변 이후 설립된 3부와 3부 통합 운동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 의열단의 항일 의거 활동 사례를 찾아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여성 교육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했던 여성 단체는? 2. 북로 군정서와 대한 독립군 등의 연합 부대가 일본군에게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탐구식 강의식	62쪽 자료 PPT
		탐구식 강의식	CD 64쪽 지도
		발표식	65쪽 지도
		문답식	학습지

● 학습 내용 정리

1. 문화 통치와 식민지 수탈 정책의 전개

(1) 문화 통치

- ① 계기: 3·1 운동
- ② 내용
 - 문관도 총독 임명 가능 → 한 번도 임명된 적 없음.
 - 보통 경찰 제도 실시 → 경찰의 수는 이전보다 증가
 - 한국인의 신문 발간 허용 → 사전 검열 실시
 - 치안 유지법 제정(1925) → 민족 운동 탄압
 - 친일파 양성 → 자치 운동론자 등장

(2) 산미 증식 계획

- ① 배경: 일본의 산업 발전 → 식량 부족
- ② 방법: 수리 시설 확충, 농사법 개량 → 쌀 생산량 증가
- ③ 결과: 증산된 쌀보다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유출 → 국내 식량 사정 악화, 만주에서 잡곡 수입, 농민의 산미 증식 관련 경비 부담, 지주의 고율 소작료 책정 → 농민 생활 악화, 농민의 국외 이주 증가

(3) 회사령 철폐: 제1차 세계 대전 전후로 일본의 산업 발전 →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 증가

2. 실력 양성 운동의 전개

(1) 물산 장려 운동

- ① 전개: 조선 물산 장려회 조직 → 국산품 애용 운동 전개, 민족 자본 육성 움직임 → 전국으로 확산(근검 절약·금주 운동을 통한 저축 장려)
- ② 결과: 일제의 탄압,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는 비판 → 점차 악화

(2) 민립 대학 설립 운동

- ① 전개: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 조직 → 고등 교육 기관 설립을 위한 전국적인 모금 운동

- ② 결과: 일제의 탄압, 가뭄과 수해로 실패

(3) 농촌 계몽 운동

- ① 문자 보급 운동(조선일보, 브나로드 운동(동아일보))
- ②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1935)

3. 사회 각 계층의 민족 운동

(1) 농민·노동 운동

구분	농민 운동	노동 운동
배경	사회주의 사상 전파	
	• 농민의 부담 가중 • 소작료 인상	• 노동자 수 증가 • 열악한 노동 환경

전개	• 소작 쟁의 • 농민 조합 조직	• 노동 쟁의 • 노동 조합 조직
대표 사례	암태도 소작 쟁의	원산 총파업

(2) 학생 운동

- ① 6·10 만세 운동(1926): 국내 항일 운동 활성화
- ②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

4. 민족 협동 전선 운동

(1) 배경: 자치 운동 세력의 등장 → 일제와의 타협 주장

(2) 신간회

- ① 창립(1927):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연합
- ② 활동: 대중 계몽 운동 전개, 사회 운동 지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 민중 대회 개최 시도

③ 해체(1931): 일제의 탄압, 사회주의자들의 해체 주장

(3) 근우회: 신간회의 자매 단체

- ① 결성: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의 결과
- ② 활동: 여성 교육 확대,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 철폐 주장
- ③ 해체: 신간회가 해체를 전후로 해산

5.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

(1) 독립군의 활동

- ① 봉오동 전투: 대한 독립군이 여러 무장 투쟁 단체와 연합하여 일본군 대파
- ② 청산리 대첩: 북로 군정서군과 대한 독립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 부대의 큰 승리
- ③ 간도 참변: 일본군이 한국인 마을 습격, 학살
- ④ 자유시 참변: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 적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봄.

(2) 3부의 성립

- ① 참의부 · 정의부(남만주), 신민부(북만주)

② 민정 기구임과 동시에 군정 기구의 역할 수행

③ 1920년대 후반 통합 모색 → 국민부(남만주), 혁신 의회(북만주) 성립

(3) 의열단의 항일 의거 활동

- ① 조직: 1919년 김원봉이 조직
- ② 활동 지침: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1923)
- ③ 활동: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 처단, 관공서 파괴
- ④ 활동 인물: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김지섭 등
- ⑤ 활동 방향의 변경: 조직적 무장 투쟁 전개 노력
 - 황푸 군관 학교 입학 → 군사 훈련
 - 조선 혁명 간부 학교 설립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56쪽

한국인들의 저항을 무마하고 민족 운동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 서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57쪽

1.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 쌀의 증산량보다 일본으로 반출되는 양이 더 많아 국내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 농민들은 증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지주들이 소작료를 높게 책정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다.

생각 열기 >>> 교과서 58쪽

물산 장려 운동

생각 열기 >>> 교과서 60쪽

산미 증식 계획 실시 이후 벼 품종과 화학 비료 등을 비싼 값에 사게 되고, 소작료도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62쪽

신간회

탐구 활동 >>> 교과서 63쪽

1. 자치
2. 일제는 언론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본인 위주의 교육 · 산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64쪽

적극적인 무장 투쟁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65쪽

1. (1) ×, (2) ×, (3) ○, (4) ×
2. (1) 브나로드, (2) 광주 학생 항일 운동, (3) 자치 운동, (4) 신간회

● 내용 더하기

① 치안 유지법

15차시

천황제 질서를 축으로 하는 일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이다. 원래 일본 국내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조선에도 실시되어 항일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악명을 떨쳤다.

● 산미 증식 계획의 목적

15차시

당시 내지(일본)는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매년 300만 석 내지 500만 석의 외국미를 수입하였다. 1919년 외미 수입고가 464만 석, 금액으로 1억 6천2백만 원에 달하였다. 또한 1918년에는 도야마 현에서 쌀 소동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수요는 인구 증가에 상응하여 점차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식량 문제의 해결은 당시 우리 국민의 생활이 걸린 중요 안건이었다.

- 조선 총독부, “시정 25년사”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인구가 증가하여 식량이 부족해졌다. 이에 일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본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계획을 강행하여 한국 쌀을 한층 조직적으로 약탈함으로써 일본의 식량 위기와 그 밖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둘째, 한국 농촌에 막대한 국가 자본을 투입하여 국가는 물론 독점 자본과 지주들의 막대한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일본 농민을 대량으로 한국으로 이주시켜 한국에 대한 지배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였다.

● 회사령 폐지

15차시

1920년 일제는 조선인 지주 자본가의 기업 설립을 허용하여 반일 세력이 되는 것을 막고,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을 촉진하고자 회사령을 폐지하였다. 이에 지주들은 회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였다.

이 무렵 일제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세를 폐지하여 일본 상품이 다른 나라 상품보다 더 싼값에 팔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은 일본 기업의 투자처이자 일본 공산품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 물산 장려 운동

15차시

조선 물산 장려회는 국산품 장려, 자급자족, 근검절약, 금주, 금연 등의 강령을 채택하고 설이었던 2월 16일을 물산 장려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동아일보가 대중의 관심을 고취하고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표어 현상 모집을 전개하는 조선 청년 연합회의 계몽 활동을 비롯한 조선 물산 장려회의 활동을 적극 보도함으로써 사실상 물산 장려 운동의 주체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물산 장려 운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물산 장려 운동에 앞장섰던 신문이 일본 상품 광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 운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시사하였다. 게다가 중간 상인이 폭리를 취하여 시장 질서가 왜곡되면서 물산 장려 운동의 열기를 식게 만들었다. 물산 장려 운동 주도 세력은 민족적 명분을 민중에게 강요하고 ‘우리 것’을 ‘사라’고 외쳤으나 민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였다. 이에 사회주의자들은 물산 장려 운동이 ‘중산 계급의 이기적인 운동’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 민립 대학 기성회

15차시

1923년 3월 전국 각지에서 36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립 대학 설립을 위한 발기 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이상재 등 44명이 중앙부를 조직하는 한편, 각지에 지방부를 조직하여 선전과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금 운동에 참여하자 일제는 경성 제국 대학령을 발표하고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였다. 더불어 1923년 도쿄 대지진과 다음해 발생한 가뭄으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암태도 소작 쟁의

15차시

1923년 9월부터 1924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전라남도 무안군(현재의 신안군)의 암태도에서 소작인들과 지주 사이에 벌어진 소작 쟁의이다.

암태도의 농민들은 섬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농사를 짓고도 7할에서 8할에 이르는 고율의 소작료 때문에 항상 굶주려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소작인들은 소작회를 조직하고 그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1923년 지주 문재철을 상대로 소작료 인하 및 소작권 보호를 위한 쟁의를 시작하였다. 문재철은 일본 제국주의의 비호를 받던 대지주였으므로, 암태도 주민들의 투쟁은 자연스럽게 일제에 대항하는 항일 민중 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1923년 9월 소작회는 소작료를 4할로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지주 문재철이 이를 묵살하자 전국 노농 대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중앙 농민 조직과 연계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일본 경찰의 방해로 실패하자 문씨 문중의 송덕비를 무너뜨리는 등 문씨 측 사람들과 충돌하였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남녀 농민 6백여 명은 목포 경찰서와 재판소 앞에서

집단 농성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소작료 4할 인하, 지주의 소작인회 2천원 기부, 미납 소작료의 3년 무이자 상환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임태도 소작 쟁의는 섬에서 일어났지만 투쟁 기간이 1여 년에 이르는 큰 규모의 쟁의였으며, 부분적이거나 소작인들의 승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농민 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1924년 조선 노동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 원산 총파업

15차시

원산 총파업은 식민지 시기 한국 노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의 분수령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원산항에서 하물의 하역·운반에 종사하는 부두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원산 노동 연합회가 주도한 원산 총파업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극심한 탄압에도 90여 일이나 지속되어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인 민족 해방 운동으로 기록되었다.

파업은 일본인 감독 고타마가 조선인 노동자들을 모욕하고 구타한 데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들은 고타마의 해임을 포함한 최저 임금제 확립, 8시간 노동제 실시, 대우 개선, 단체 계약권의 확립 등 5개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원산의 일본인 기업주들은 밖에서 새로 노동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대응하였고, 파업이 지속되면서 파업 노동자 가족 1만여 명의 생계가 어려워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격려 편지와 전보, 성금, 물자가 몰려들었고, 파업은 항일 투쟁의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일제는 어용 노조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이간질하였고, 파업 지도부가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결국 총파업은 4월 6일 노동자들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원산 총파업은 1920년대 가장 큰 규모의 총파업이었으며, 대중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서 민족 운동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항일 운동이었다.

● 6·10 만세 운동

15차시

대한 독립 만세!
조선은 조선인의 것이다!
일제의 납세를 거부하자!
일본 물화를 배척하자!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말자!
일본인 교원에게는 배우지 말자!

일본인 상인과 관계를 단절하자!

언론·집회·출판의 자유를!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로!

보통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동양 적식 회사를 철폐하라!

- 6·10 만세 운동 당시의 구호(일부)

학생 단체와 사회주의 세력은 순종의 장례일인 6월 10일을 기하여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경찰에 발각되어 관련된 수많은 사람이 검거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에도 학생들은 예정대로 서울에서 대대적인 반일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6·10 만세 운동 당시 지도자들은 타도할 대상이 일본 제국주의임을 분명히 밝히고, 각 계급과 계층의 처지에 맞는 투쟁 구호를 내걸었다. 6·10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족 해방의 의지를 뚜렷이 나타냈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여 신간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당시 격문 중의 일부

15차시

검거자를 즉시 우리의 손으로 탈환하자.

교내에 경찰의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교우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하라.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1929년 10월 30일,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던 일본인 중학생 몇 명이 같은 기차 통학생이던 한국인 여고생을 희롱하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국인 학생이 분격하여 일본인 학생들에게 따졌고, 결국 난투극으로 발전하였다. 학생들끼리의 단순한 싸움은 일제 경찰의 일방적인 탄압 등을 계기로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운동 당시 거리 시위에서 뿌려진 격문에는 그들의 요구 사항이 잘 나타나 있다.

● 신간회

16차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으로 창립된 신간회는 전국에 141개 지회와 39,41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대중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광주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

제 경찰에 의해 민중 대회 개최가 실패하고, 집행부가 다수 구속되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한 집행부가 일제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대개 사회주의자들 위주로 이루어진 지방 지회들이 반발하였다. 결국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신간회의 활동은 사실상 정지되었고 해소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 청산리 대첩

16차시

전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굶주림, 그러나 이를 의식할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었다. 마을 아낙네들이 치마폭에 밥을 싸 가지고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산에 올라와 한 덩이 두 덩이 동지들의 입에 넣어 주었다.

- 이범석, “우등불”

1920년 10월 21일부터 시작된 전투에서 독립군은 26일 새벽까지 10여 차례 전투를 벌인 끝에 적의 연대장을 포함한 1,200여 명을 사살하였고, 독립군 측은 100여 명이 전사하였다.

전투에 참가한 주력 부대 중 하나인 북로 군정서군의 병력은 그해 사관 연성소를 졸업한 298명을 포함해 약 1,600명이었고, 소총 1,300정, 권총 150정, 기관총 7문의 무기를 갖추고 있었다. 또 다른 주력 부대인 홍범도 부대는 대한 독립군 · 국민회군 · 의군부 · 한민회 · 광복단 · 의민단 · 신민단 등이 홍범도의 지휘 아래 연합한 부대였으며, 그 병력은 약 1,400명이었다.

청산리 대첩은 일본군의 간도 출병 후 독립군이 그들과 대결한 전투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독립군이 최대의 전과를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

● 간도 참변

16차시

일제는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 행위로 독립군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고자 독립군의 모체인 간도 지역의 한인 사회와 항일 단체, 학교, 교회 등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실시하였다.

일제의 만행으로 19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간도 지역의 훈춘, 왕청, 화룡, 연길, 유하 등 8개 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해자 수는 사망자 3,693명, 체포된 인원 171명, 부녀 강간이 71명이었고, 재산 피해 건수는 가옥 소실 3,288채, 학교 소실 41개교, 교회 소실 16곳이었다.

● 의열 투쟁과 테러의 차이

16차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김익상의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 윤봉길의 상하이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 등 의열 투쟁은 의사와 열사들이 전개한 독립 투쟁으로 한국인의 주요한 독립운동 방법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개인이 폭탄, 총, 칼 등을 무기로 사용하여 일제의 요인을 살상하고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자살 폭탄 테러에 비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양자는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점을 가진다.

의열 투쟁은 그 대상을 일제의 군인이나 식민 통치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 데 반해 현재의 테러리즘은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와 같이 일반 민간인과 민간 시설까지도 테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독립운동가들의 의열 투쟁이 민족의 독립과 국제 평화의 실현을 위한다는 보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안중근이나 윤봉길 등 의열 투쟁을 전개했던 독립운동가들은 거사 이후 자결하거나 자폭하지 않고 감옥 생활과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자신들의 의열 투쟁이 한국의 독립과 국제 평화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 의열단원 김지섭의 일본 왕궁 폭탄 투척 사건

16차시

의열단 단원 김지섭(1885~1928)은 제국 의회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폭탄 투척의 장소를 왕궁으로 바꾸었다. 제국 의회 건물보다 상징성이 더 큰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 일제의 침략상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독립 의지를 만방에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924년 1월 5일 오후 7시경 김지섭은 궁성 정문을 향해 폭탄을 던졌으나 터지지 않았다. 습기 많은 화물선을 타고 도쿄로 오는 동안 폭탄의 화약이 모두 젖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받고 도쿄 이치가야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이후 무기 징역형을 받고 4년을 복역하던 중 1927년 20년 징역형으로 감형되었다. 그 후 치바 형무소로 이감되었다가 1928년 2월 20일 44세의 나이로 옥사하였다.

03

전시 수탈의 강화와 광복을 향한 노력

학습 목표

- 일제가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 인적·물적 수탈을 강화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
- 1930년대 국외 여러 지역에서 전개된 무장 항일 투쟁 운동을 정리하여 말할 수 있다.
- 한인 애국단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7	<p>1. 병참 기지화 정책</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빼앗아 가고자 실시한 법은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주 침략과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들었음을 파악하게 한다. • 일제가 우리나라에 국가 총동원법을 적용하여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수탈하였음을 설명한다. • 일제가 지원병, 징병으로 한국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음을 설명한다. • 일제가 수많은 한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했음을 동영상상을 활용하여 탐구하게 한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후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공황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이 1931년에 침략한 지역은? 2. 일제가 한국인들을 군수 공장이나 광산으로 끌고 가려고 공포한 법령은?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탐구식 강의식</p> <p>탐구식 발표식</p> <p>문답식</p>	<p>CD</p> <p>66쪽 사진 PPT</p> <p>역사 부도 동영상 신문 기사</p> <p>학습지</p>
18	<p>2. 더욱 격렬해진 무장 투쟁 운동</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합쳐 결성한 민족 혁명당에서 조직한 부대는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년대 만주에서 전개된 한중 연합 작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 • 1930년대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 유격대의 활동을 설명한다. • 민족 혁명당이 조직한 조선 의용대의 활동을 설명과 변화를 탐구하게 한다.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p>	<p>CD</p> <p>68쪽 지도</p> <p>PPT</p>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 평가 실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세봉의 지휘 아래 만주 영릉가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둔 부대는? 2.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 의용대원들이 합류한 부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발표식 문답식	69쪽 자료 학습지
19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광복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평가 실시: 한인 애국단 소속으로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사람은 누구일까?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 애국단 소속 이봉창과 윤봉길의 항일 의거 활동을 조사하고, 이 활동이 미친 영향을 발표하게 한다. •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김구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수립하고 한국 독립당을 결성했음을 설명한다. •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읽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구상했던 광복 후 국가의 모습을 탐구하게 한다. • 한국광복군의 활동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을 보여 주고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 국내에서 전개된 여운형의 건국 준비 활동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 평가 실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창설한 부대는? 2. 광복 이후 국가 건설에 대비하고자 국내에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발표식 강의식 탐구식 발표식 문답식	CD PPT, 인터넷 70쪽 자료 인터넷 학습지

● 학습 내용 정리

1. 병참 기지화 정책

- (1) 배경: 대공황 → 일본의 침략 전쟁 확대
- (2) 목적: 군수 물자와 인력 공급을 위한 병참 기지화
- (3) 내용
 - ① 군수 공장 설립 → 금속, 기계 등 생산
 - ② 철과 석탄의 생산 증가, 면화와 양재배 강요

(4) 인적 · 물적 자원의 수탈

- ① 국가 총동원법(1938): 전쟁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수탈
- ② 지원병 제도, 징병제: 수많은 청년을 전쟁터로 동원
- ③ 징용령: 노동력 강제 동원
- ④ 근로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여성 강제 동원

2. 더욱 격렬해진 무장 투쟁 운동

- (1) 조선 혁명군과 한국 독립군
 - ① 특징: 중국인 항일 무장 세력과 연합
 - ② 조선 혁명군: 영릉가, 흥경성 전투 등에서 승리
 - ③ 한국 독립군: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승리 → 한국광복군에 합류
- (2) 항일 유격대: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여 동북 항일 연군으로 재편 → 국내 진공 작전 시도

(3) 민족 혁명당과 조선 의용대

- ① 민족 혁명당: 중국 관내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합쳐 창당
- ② 조선 의용대
 - 창설: 민족 혁명당이 중국 측의 지원을 받아 조직
 - 활동: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 일본군 포로 심문, 기밀문서 번역
 - 분열: 일부 병력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 남은 세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

3. 광복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1) 한인 애국단

- ① 조직: 임시 정부의 난국을 해결하고 항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김구가 조직
- ② 활동
 - 이봉창: 일본 도쿄에서 일왕의 행차를 향해 폭탄 투척
 - 윤봉길: 상하이 홍콩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기념식장에 폭탄 투척 → 중국 정부가 임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

(2) 충칭 시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 ① 조직 정비: 김구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 수립

- ② 한국 독립당 결성: 임시 정부 뒷받침

- ③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제정: 우리 민족 해방의 염원과 건국의 기본 방침 → 해방 후 민주 공화국 건설

④ 한국광복군 창설

-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선전 포고
- 인도 ·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공동 작전 수행
- 미국 전략 정보국과 협력하여 국내 진공 작전 준비 → 일본의 항복으로 실현 좌절

(3) 조선 건국 동맹

- ① 결성: 국내에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
- ② 활동: 광복 이후의 국가 건설 준비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66쪽

일제의 강제 징용과 가혹한 노동 환경

생각 열기 ▶▶▶ 교과서 68쪽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에 기초를 둔 민주 공화국

생각 열기 ▶▶▶ 교과서 70쪽

한국광복군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71쪽

1. (1) ○, (2) ×
2. (1) ㉠, (2) ㉡, (3) ㉢
3. (1) 국가 총동원법, (2) 건국 강령
(3) 한인 애국단, (4) 한국광복군

● 내용 더하기

● 중 · 일 전쟁(1937)

17차시

1937년 7월 7일, 베이징 교외의 루거우차오 부근에서 연습 중이던 ‘지나 주둔군’의 한 중대가 총격을 받은 루거우차오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일본군은 피해가 없었음에도 이튿날 중국군을 공격하였다. 당시 일본 내각은 전쟁 확대를 요구하였지만, 육군 강경파는 내각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선을 확대하였다.

중국은 1937년 9월 제2차 국 · 공 합작을 성립하여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일본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12월 국민 정부의 수도 난징이 함락되고, 난징 대학살이 발생하였다.

● 국가 총동원법(1938)

17차시

제1조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 수리 · 배급 · 양도 및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조선 총독부, “조선 법령 집람 제13집”

중 · 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인적 ·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한국에도 적용되어 강제 징용, 징병, 공출 등이 이루어졌다. 패전 후 1946년에 폐지되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17차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70년대였지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에 분노한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증언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50년간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아왔던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통제하였다는 자료도 발견되자 일본 정부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제기구의 결의를 무시하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법적

배상이 아닌 위로금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맞서 아시아 여성 단체와 시민 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필리핀, 미국 등지에 냈다. 또 ILO와 UN 인권 위원회 등 국제 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고,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에서도 일왕 히로히토의 유죄를 확인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미국 하원의 만장일치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008년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도 “위안부 동원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사죄 및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수요 시위

17차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되어 최근 1,000차 수요 시위(2011.12.14.)가 열리기도 하였다. 수요 시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이행 등의 문제 해결 그리고 이를 통한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해 왔으며, 피해자와 시민들이 연대하는 장소,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 여성 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장, 국경과 이념 그리고 세대와 성별을 초월한 연대의 장으로 자리 잡아 왔다.



▲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수요 집회 기념 평화비에 시민들이 털모자, 목도리, 무릎 담요를 덮어놓은 모습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 1,000회를 맞이하여 2011년 12월 14일에 세워진 ‘평화비’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제에 끌려갈 당시의 나이인 10대 소녀가 한복을 입고 맨발로 일본 대사관을 쳐다보며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 조선 혁명군

18차시

1929년 3월 만주 지린 성 국민부 사무소에서 항일 투쟁의 지도자들은 남만주 일대의 유일 혁명군 정부인 국민부를 지지하고자 조선 혁명군을 조직하였다. 조선 혁명군의

사령관에는 이웅, 제1중대장에는 양세봉이 임명되었으며, 총 8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조선 혁명군은 1932년 3월에서 7월에 걸쳐 벌어진 영릉가 전투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 전선을 펼쳐 일본과 만주 연합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나 1934년 9월 일본군과 격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양세봉이 죽고 일본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전개되면서 세력이 점차 약해졌다.

● 민족 혁명당

18차시

1932년 상하이에서 김규식 등을 중심으로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이 결성되었다.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은 효과적인 항일 투쟁을 위하여 1935년 7월 5일 의열단, 한국 독립당, 신한 독립당, 조선 혁명당, 미주 대한인 독립단 등 5당 대표가 난징에서 민족 혁명당을 결성하면서 하나의 큰 정당이 되었다. 민족 혁명당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유지를 옹호하던 한국 독립당계 일부 인사가 불참하였으나, 당시 국외에서 활동하던 거의 모든 독립운동 정당 및 단체들을 포함하여 민족 연합 전선으로서 의미가 충분하였다. 민족 혁명당은 조선 민족 해방자 동맹 및 조선 혁명자 연맹 등 사회주의 계열 정당을 규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였으며, 1938년에는 그 산하 군사 조직으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지청천 등은 김원봉의 독주와 민족 혁명당의 좌경화에 불만을 품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편으로 돌아섰으며,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혁명당의 정체성에 불만을 품고 당을 떠나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 조선 의용대

18차시

중·일 전쟁에서 일본군에게 거듭 패한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김원봉에게 조선 의용대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에 김원봉은 1938년 10월 10일 최창익, 김성숙, 유자명 등과 함께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였다. 국민당 정부 군사 위원회 정치부 소속으로 편제된 조선 의용대는 한인 무장 부대로 중국 항일 전쟁을 지원하는 국제 부대였다.

중국은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조선인 부대가 일본에 대항하여 함께 싸운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한·중·일 3국 언어에 능통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로 선전전과 포로 심문에 활용하고자 했다. 실제로 조선 의용대의 선전 공작으로 강제 징집된 학병들이 탈주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의용대 내의 급진적인 청년들은 좀 더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우세한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조선 의용대가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자 민족 혁명당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 조선 의용대의 이동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세력은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

● 대조선 국민 군단

18차시

대조선 국민 군단은 1914년 6월 10일 하와이 오아후(Oahu) 섬에서 만들어진 군사 교육 단체이다. 국민 군단은 박용만이 1909년 6월에 시작한 한인 소년병 학교를 계승한 것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 항일 독립 전쟁론을 구현하고자 만든 단체였다.

국민 군단의 군사 교육 활동은 실제 무기가 아닌 목총으로 실시되었고 조를 편성하여 농장에 나가 노동을 하면서 훈련과 학습을 받았다.

군단과 사관 학교의 병력은 120~300여 명에 달하였고 군영 낙성식은 1914년 8월 29일에 이루어졌다. 국민 군단과 사관 학교는 1916년을 고비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여 1917년경에는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 군단의 정신은 박용만에 의해 대조선 독립단으로 계속 이어져 갔다.

● 이봉창의 의거

19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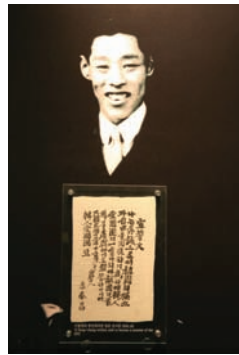
이봉창 의사는 1931년 12월 13일 안중근 의사의 막내 동생인 안공근의 집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선서문’을 가슴에 매단 채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김구 앞에서 선서식을 마쳤다. 그리고 상하이 병공창 병기 주임으로 있던 김홍일과 하남성의 김현이 만들어 준 수류탄 2개와 김구가 준비한 거사 자금 300원을 가지고 12월 17일 일본으로 떠났다.

1932년 1월 8일 11시 이봉창 의사는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히로히토에게 힘차게 수류탄을 던졌다. 그러나 궁내 대신이 탄 마차 옆에서 폭발해 일장기를 든 기수와 근위병이 탄 말 두 필이 쓰러지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이봉창은 태극기를 꺼내 들고 독립 만세를 외친 후 조용히 체포

되어 한인 애국단원의 한 사람으로 일본 천황을 폭살하려 했음을 설명하였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총리 대신 이누가이 이하 전 각료가 사퇴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상하이 사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의 신문은 이봉창 의사의 의거 소식을 전하며 “한국인 이봉창이 일황을 저격했으나 불행하게도 명중하지 못했다.” 라고 보도하여 모든 중국인의 간절한 의사를 대변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트집 잡아 일본 군대와 경찰이 국민일보사를 습격·파괴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에 엄중 항의하는 등 중·일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다. 게다가 일본은 중국인 자객을 사서 일본 일련종 승려 한 명을 암살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제1차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 이봉창

이봉창이 들고 선서문에는 “나는 참된 정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의 우두머리를 죽이기로 맹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 윤봉길의 의거

19차시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
- 의거 이틀 전 윤봉길이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는 이른바 천황의 탄생일인 천장절과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를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윤봉길은 이 행사장에 폭탄을 던졌고, 일제의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 제9사단장 우에다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쓰가 단 아래로 쓰러졌다. 이들 외에도 상해 거류 일본인 단장이 폭사하고, 상해 총영사, 주중공사, 거류민단 서기장, 취재 중인 일본 기자 여러 명이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윤봉길은 “만세”를 외치다 달려온 일본 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

윤봉길은 그해 5월 25일 상해 파견군 군법 회의에서 즉결 판결을 받고 일본으로 호송되어 11월 20일 오사카 육군 위수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9일 새벽 가네자와 육군 형무소로 이감되어, 그 이튿날 교외에 있는 삼소정 공병 작업장으로 옮겨져 11시 40분 26발의 탄환을 맞고 순국하였다. 당시 윤봉길의 나이는 25세였으며, 순국 직전 “남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으니 만족하게 여길 따름이다. 아무런 미련도 없다.”고 담담한 표정으로 유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장개석은 “중국의 백만 군대가 하지 못한 것을 한국의 한 의사가 능히 했으니 장하도다.”라고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때부터 임시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서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침체되었던 항일의 열기가 다시 솟아나고, 전 세계에 한국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한국광복군의 창설

19차시

일제 침략 이후 우리 독립군은 여러 형태의 무장 투쟁을 만주 일원과 연해주 일대를 근거지로 전개한 바 있으나, 이들은 통일된 임시 정부의 단일 군대 조직체가 아니었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는 정부 출범 당시부터 정부 조직법에 의한 창군을 염원해 왔었다. 이러한 염원의 결실은 한국광복군의 창설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창군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원을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참석한 당시의 상황을 조소앙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대한민국 22년 9월 17일 상오 여섯 시에 충칭 가능빈관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를 열다. 식장 문전에는 큰 국기를 교차하였고 식장에 들어가 대중양에 우리 국기를 달고 …… 근 여섯 시가 되는 가급 내빈과 우리 총사령부 장관 직원과 임시 정부 국무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근 200명에 달하다. 여섯 시 정각이 되는 사회가 개회를 선포하다.

- 조소앙 문서

●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

19차시

한국광복군은 창군되었지만, 응모자가 많지 않아 부대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도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한

국광복군은 중국 정부에게서 군사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원조는 ‘원조한국광복군판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안에는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항’이 들어가 있었다.

1. 한국광복군은 아군(중국)의 항일 작전 기간에 있어 본회에 직속하여 참모 총장이 장악 운영함.
2. 한국광복군은 본회에서 통할 지휘하되 아군이 계속 항전하는 기간과 …… 아국 최고 통수부의 유일한 군령을 접수할 뿐이요, 임시 정부와의 관계는 아국의 군령을 수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오직 공한 명의 관계를 보류함.
8. 중·일 전쟁이 결속되지 못한 이전에 있어서 한국 임시 정부가 만일 한국 경내에 진입했을 때에는 광복군과 임시 정부의 관계는 따로 논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준승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명목상으로 한국 광복군의 통수권을 갖게 되며, 한국광복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국에 진격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협정이 있기까지 계속 중국군의 군령을 받아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제약 속에서 받은 원조액은 불과 중국 화폐로 6만원 정도에 그쳤다. 결국 이 문제는 1945년 4월에 가서야 개정되었고, 그 때서야 독립 국가의 군사 조직 활동이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 대한민국 건국 강령과 삼균주의

19차시

대한민국 건국 강령

임시 정부는 13년(1931) 4월에 대외 선언을 발표하고 삼균 제도의 건국 원칙을 천명했으니, 이른바 ‘보통 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등히 하고, 국유 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등히 하고, 공비 교육으로써 학권을 균등히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 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불평등을 과감히 제거할지니, …… 정치와 경제와 교육 권리를 고르게 하여 높낮이를 없게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여 또한 이러하게 한다.’하였다.

삼균주의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 균등 생활을 실시하려는 주의’이다. 1920년대 말 기본적인 구상이 정립되고, 한국 독립당의 정강에 채택되었으며,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건국의 기본 이념으로 공포하였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 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 균등을 표방하였다.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이룩될 수 있다고 전제하였고, 보통 선거제·국유제·국비

의무학제를 실행하여 각각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 자결을 통해 이룩된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모든 민족에 적용하여 소수 민족과 약소민족이 피압박·피통치의 위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은 식민 정책과 자본 제국주의를 부정하고 침략 전쟁 행위를 금지하여 모든 국가들이 서로 간섭, 침탈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룩된다고 보았다.

● 태평양 전쟁 시기 한국광복군의 활동

19차시

한국광복군은 1942년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대의 일부를 흡수·통합하여 군사력의 증강을 꾀할 수 있었다. 한국광복군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다음과 같은 대일 선전 포고를 하였다.

본 정부는 3천만 한인을 대표하여 중·영·미·소·가(캐나다)·호(오스트레일리아) 및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을 삼가 축하하는 바이다. 일본을 격파함이 동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까닭에 이에 특히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1. 한국 인민은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일개 전투 단위가 되어 공동 항일할 것을 원한다.
2. 1910년 한일 합병 조약 및 기타 일체 불평등 조약의 무효와 반침략 국가인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권익을 거듭 선포한다.
3. 왜구를 중국과 한국 및 태평양 지역에서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의 보호 아래 조성된 동북 및 남경 괴뢰 정권을 승인치 않을 것을 서약한다.
5. 루스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 독립 실현에 적용되기를 전결히 주장한다.



▲ 한국광복군 대원들과 OSS 훈련 요원들

한국광복군은 OSS 지원 아래 시안과 푸양에서 특수 훈련을 실시하였다. 1945년 8월 29일 국내 진공 작전을 시행하려 했으나, 일본의 패망이 임박하자 8월 20일로 날짜를 앞당겼다. 그러나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광복군은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항하였고, 인도·미얀마 전선에서는 영국군과 공동 작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전략 정보국(OSS)과 연계하여 국내에 침투할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고, 특수 공작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작전은 일본이 먼저 항복함으로써 실행되지는 못했다.

● 조선 건국 동맹

19차시

1. 각인 각파는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본 제국주의 제 세력을 구축하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2. 반주축 제국(연합국)과 협력하여 대일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 반동 세력을 박멸할 것
3. 건설 부문에 있어서 일체의 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농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1944년 8월 서울 운니동에서 여운형과 조동호 등 독립 운동가들은 ‘해방 이후 조선 민족의 자력에 의해 세워질 조직’을 구상하여 건국 동맹이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었다. 당시 임원 한 명이라도 체포되었을 시 조직이 모두 밝혀질 가능성을 대비하여 이름을 정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건국 동맹이라 불렸다. 조직의 원칙은 3불(三不)이었는데, 즉 ‘말하지 않는다(不言)’,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不文)’,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不名)’였다.

건국 동맹은 비밀리에 활동하였으며, 최종적인 목표는 조선의 완전 독립, 민주 국가 건설을 강령으로 삼았다. 건국 동맹은 일제의 패망에 대비하여 한반도의 광복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를 준비하기 위해 결성된 지하 비밀 독립운동 단체였다. 또한 민족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까지 좌우익 세력을 망라한 독립운동 세력이 뭉친 비밀 조직으로, 국내외 각지에 흩어진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과 긴밀히 연락하고 연대를 추진하였다.

1945년 3월에는 건국 동맹의 산하에 군사 위원회를 조직하고 일본군의 후방 교란과 노농군 편성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건국 동맹은 1945년 8월 해방 직후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건국 준비 위원회로 발전하였다.

04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전개

학습 목표

- 일제가 우리글과 우리 역사를 말살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민족 말살 정책에 저항하여 전개된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정리할 수 있다.
-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민족 저항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종교계의 민족 운동이 전개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0	<p>1.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일제가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고자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였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가 추진한 민족 말살 정책의 사례를 찾아 발표하게 한다. • 황국 신민의 서사를 읽고,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한 이유를 탐구하게 한다. •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의 활동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음을 설명한다. • 일제의 한국사 왜곡(식민 사관)에 대항하여 우리 역사를 연구했던 역사학자들의 노력을 설명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한 단체는? 2.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지었으며, ‘훈’을 강조한 사람은?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발표식 탐구식 강의식</p> <p>문답식</p>	<p>CD</p> <p>인터넷 72쪽 자료 73쪽 자료</p> <p>PPT</p> <p>학습지</p>
21	<p>2. 문학과 예술 활동</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여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는 어떠한 활동이 나타났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했던 작가들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찾아 발표하게 한다. •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여러 종교 단체에서 주도한 민족 운동의 내용을 설명한다. 	<p>문답식</p> <p>발표식</p> <p>강의식</p>	<p>CD</p> <p>참고 도서 인터넷</p> <p>PPT</p>

21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p>1. 소를 소재로 민중의 힘을 표현한 화가는?</p> <p>2. 중광단을 결성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종교는?</p>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문답식	학습지
----	--	-----	-----

● 학습 내용 정리

1.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

(1) 민족 말살 정책

- ① 목적: 한국인의 민족의식 말살 →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
- ② 내용
 - 국민 정신 총동원 연맹 결성 → 일상생활 통제, 자금 모집
 - ‘황국 신민의 서사’ 암기, 신사참배 강요
 - 한국어 사용 금지, 일본어 사용 강요
 -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한글 신문 폐간
 - 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꿈.
 - 일본식 씨명 강요

(2)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

- ① 조선어 연구회(1921): ‘한글’ 간행, ‘가갸날’ 제정

- ② 조선어 학회(1931): 한글 맞춤법 통일안 · 표준어 제정,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 조선어 학회 사건

(3)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 노력

- ① 식민 사관: 한국사 왜곡, 일선동조론 주장 → 한국인의 저항 의식 말살 목적
- ② 민족주의 사학
 - 박은식: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저술, 민족 정신을 ‘훈’으로 파악
 - 신채호: “조선상고사” 저술, 민족의 고유한 문화 전통과 정신 강조 →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 마련
- ③ 조선학 운동: 민족 문화의 고유성 강조
- ④ 백남운: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음을 부각

2. 문학과 예술 활동

(1) 문학 활동을 통한 저항

19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남선: 근대 시 발전에 공헌 • 이광수: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 “무정” 발표
192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 문학: ‘백조’, ‘창조’ 잡지 중심 • 저항 문학: 이상화, 한용운, 김소월
중 · 일 전쟁 이후	친일 문학 강요 → 운동주, 이육사 등이 이에 끝까지 저항

(2) 예술 분야에서의 민족 운동

- ① 음악: 흥난파(‘봉선화’, ‘고향의 봄’), 안익태(‘코리아 환상곡’)

- ② 미술: 이중섭(‘소’ 그림), 나혜석(유화)
- ③ 연극: 근대 연극 시도 움직임, 토월회 등장
- ④ 영화: 나운규의 ‘아리랑’ 제작(1926)

(3) 여러 종교 단체의 민족 운동

- ① 개신교: 교육 운동, 신사참배 거부 운동
- ② 천도교: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잡지 발간
- ③ 불교: 민족 불교 수호 운동 전개
- ④ 천주교: 사회사업 추진, 사회 계몽 활동 전개
- ⑤ 원불교: 개간과 저축 강조, 허례허식 폐지, 남녀평등 주장
- ⑥ 대종교: 단군 숭배, 중광단을 결성하여 항일 무장 투쟁 전개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72쪽

일본식 씨명 강요

탐구 활동 ▶▶▶ 교과서 72쪽

한국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고,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74쪽

일제에게 강탈당한 나라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76쪽

1. (1) ㉠, (2) ㉡, (3) ㉢
2. (1) 황국 신민화, (2) 한글, 가갸날, (3) 이상화

개신교	신사 참배 거부 운동
천도교	3·1 운동 참여, 잡지 발행
천주교	사회사업 전개, 잡지 발행
불교	민족 불교 수호 운동
원불교	개간과 저축 강조, 허례허식 폐지, 남녀평등 주장
대종교	종광단 결성, 항일 무장 투쟁 전개

● 내용 더하기

● 황국 신민의 서사

20차시

황국 신민의 서사 - 아동용

1.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내선 일체, 황국 신민화를 위해 1937년 10월 제정된 황국 신민의 서사를 외울 것을 강요하였다. 황국 신민의 서사는 아동용과 중등학교 이상 학생 및 일반인용 두 종류가 있다. 이 서사는 학교를 비롯하여 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상점 등 모든 직장에서 조회, 기타 회합 등에서 제창되었다.

● 신사 참배

20차시



▲ 신사 참배를 하는 학생들

일제는 1919년 7월 그들의 최고신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메이지 일왕의 제사를 지내는 조선 신사를 남산에 설립한 뒤, ‘조선 신궁’이라 개칭하고 한국인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다. 1933년부터는 신사 중심의 황국 신민화를 위한 정신 운동이 강화되면서 신사의 설립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특히 1936년 총독부령으로 ‘신사 규칙’을 공포하여 산간벽지의 면에 이르기까지 신사를 세우고 참배를 강요하였

다. 1938년경 ‘신사 약 2,300개 조선 신궁 참배자 260만 명’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가 신사 참배에 얼마나 광분했는지 알 수 있다.

● 식민 사관

20차시

일제는 우리 역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열등감을 조장하고,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 의식을 약화시키고자 한국사를 왜곡하였다. 일제는 식민 사관을 날조하여 한국사의 자율적, 주체적인 발전을 부정하고, 자신의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체성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역사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는 정체되었다. • 한국 역사에는 중세 봉건 사회가 결여되어 있다. 이는 곧 스스로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타율성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스스로 발전할 수 없다. • 반도 국가인 한국은 항상 외세의 간섭에 이끌려 왔으며 대륙 세력이나 해양 세력의 도움이 없는 발전할 수 없다.
당파성론	조선 시대 정치사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충돌한 ‘당쟁의 역사’이다.

이와 같은 식민 사관은 ‘한국사 자체는 민족적 독자성도, 자체적 사회 발전성도 없으며, 한국 사회의 일본 지향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한·일 병합은 한국의 역사를 발전시킨 사건’이라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였다.



◀ 일제의 식민 사관을 유포했던 “조선사”

조선 총독부는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하여 “조선사”, “사료총서”, “사료복본”을 편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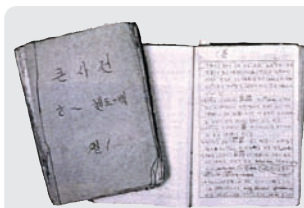
● 민족 문화 수호 운동

20차시

일제는 우리의 말과 글, 역사와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왜곡하여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하였다. 이에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말과 글, 역사 등을 지키는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운동이었다.

● 조선어 학회

20차시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학의 표상이다. 조선말은 우리 겨레가 반만년 역사적 생활에서 문화 활동의 말미암

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결과이다. 그 낱낱의 말은 다 우리의 무수한 조상들이 잇고 이어 보태고 다듬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거룩한 보배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은 곧 우리 겨레가 가진 정신적·물질적 재산의 총목록이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을 떠나서는 하루 한 때라도 살 수 없는 것이다.

- “우리말 큰사전” 머리말

1921년 12월 3일 주시경 등 10여 명이 휘문 의숙에서 한국 최초의 민간 학술 단체인 ‘조선어 연구회’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1931년 1월 10일 총회에서 학회의 이름을 ‘조선어 학회’로 고쳤고, 광복 후인 1949년 9월 5일 정기 총회에서 ‘한글 학회’로 개칭하여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선어 학회는 한글 연구에 힘을 기울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 표준말을 심사하여 표준말 모음을 만들었다. 1933년 확정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오늘날까지 국어 표기의 준거가 되고 있다.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편찬이 중단된 ‘우리말 큰 사전’은 한글 학회가 이어받아 1957년 완간하였다.

● 한국통사

20차시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 박은식, “한국통사” 서문

“한국통사”는 19세기 중엽부터 한·일 병합 직후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 과정을 서술한 책이다. 박은식은 이 책에서 “국가는 멸할 수 있어도 역사는 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혼을 강조하였다.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① 대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잔학성과 간교성을 폭로, 규탄하고, ② 대내적으로 국민들에게 ‘통(痛)’을 가르쳐 주어 민족적 통분의 격발에

기초한 독립운동의 정신적 원동력을 공급하며, ③ ‘국혼’과 ‘국백(國魄)’을 나누어 일제에게 빼앗긴 것은 ‘국백’ 뿐이고 ‘국혼’은 남아 있으니 ‘국혼’을 잘 유지, 강화하여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도록 교육하고, ④ 자손만대에 일제에게 침략당한 아픈 역사의 교훈을 새기고 반성을 촉구하려고 하였다.

“한국통사”는 간행 직후 중국·만주·미주의 한국인 동포들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비밀리에 대량 보급되어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주고 독립 투쟁 정신을 크게 고취하였다.

● 조선 상고사

20차시

단군 시대부터 백제의 멸망과 부흥 운동까지 서술하고 있다. 1931년에 조선일보 학예란에 연재되었고, 이후 1948년 종로서원에서 단행본으로 발행되었다. 원래 신채호의 “조선사” 서술의 일부분이었으나, 그 연재가 상고사 부분에서 끝나 “조선 상고사”로 불리게 되었다.

총론에는 신채호의 역사 이론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파악하여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사물의 모순·상극 관계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면 사료의 선택·수집·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실증주의를 강조한 역사학 연구의 방법론도 제시하였다.

신채호는 이러한 역사 이념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과거의 사대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서술한 유학자들과 당시 근대적인 역사학을 한다고 주장하는 식민주의 사학자들을 비판하였다.

● 조선학 운동

20차시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조선학 운동은 단산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은 1934년에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민족과 민중을 함께 중요시하면서 우리의 민족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정인보는 조선의 ‘얼’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문일평은 조선심(朝鮮心)에 기초한 조선어, 조선글로 구성된 조선사·조선 문학을 조선학의 정수로 내세웠다.

조선학 운동은 조선의 신구 문화에 대한 연구, 고유의 전설 탐구, 조선 문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제에 소극적이고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 백남운의 사회 경제 사학

20차시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선,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 법칙에 따라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 - “조선 사회 경제사”

사회 경제 사학의 대표적 인물인 백남운은 우리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식민 사관의 정체성론을 극복한 것이다.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21차시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답워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자육도 썼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마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때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어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꽃내를 피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1926년 잡지 “개벽”에 발표된 이상화의 작품이다. 김재홍은 “이 시에서 들(땅)이란 농민에게는 농토, 즉 생존권을 뜻하며 국민에게는 영토, 즉 주권을 의미한다.”며 “아울러 땅은 민족이 수천 년 살아온 역사의 표상이자 민족혼의 상징이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주권을 빼앗기고 생존권마저도 빼앗겨 가는 상황, 마침내는 봄으로 상징되는 자연까지도 완전히 박탈당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날카롭고 섬세하게 형상화하여 민중시 또는 저항시의 한 정점을 일구어 내었다.”라고 평가했다. 일제는 이 시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이 시가 실린 “개벽”을 압수하고 판매를 금지시켰다.

●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21차시

남아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 위해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리니
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나이였다면 나도 사나이였다면
귀한 부르심 입는 것을
갑옷 떨쳐입고 머리에 투구 쓰고
창검을 휘두르며 싸움터로 나감이
남아의 장쾌한 기상이어든
이제 아세아의 큰 운명을 걸고
우리의 숙원을 뿔으며
저 영미를 치는 마당에라
영문(營門)으로 들라는 우렁찬 나팔소리
오랜만에 이 강산 끝짜구니와 마을 구석구석을
흥분 속에 흔드네

노천명은 태평양 전쟁 중 ‘군신송’ 등 전쟁을 찬양하고, 전사자들을 칭송하는 선동적이고 정치적인 시들을 발표하였다. 특히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는 ‘남아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 위해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리니 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나이였다면 귀한 부르심을 입었을 것을’이라며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일제의 인적 수탈(강제 징병)을 찬양하였다.



◀ 김기창의 삽화

노천명의 시와 함께 실린 삽화이다.

● 이육사의 ‘광야’ 21차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답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 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랴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시적 구성은 과거(1~3연) · 현재(4연) · 미래(5연)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먼저 과거는 1~3연까지 차례로 광야의 형성 과정을 태초로부터 발전 단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흰 눈으로 덮인 암담한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었고, 먼 뒷날 반드시 이 광야에 초인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노래하였다.

이 시는 일제하의 절망적인 현실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

로운 광명의 세계를 염원하는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기교의 극치를 보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코리아 환상곡’

21차시

연주 시간 약 30분 정도로 편성된 웅장한 규모의 코리아 환상곡은 합창단, 관현악과 관악기를 위한 대 환상곡이다. 특히 후반부 합창 부분은 <애국가>의 가락이 중심을 이루며 ‘만세 만세’의 가사로 격앙과 고조를 이루면서 끝난다.

이 작품은 교향시적인 문학적 서술을 바탕으로 작곡되었다고 작곡자는 해설하였다. 태고의 민족 탄생과 유구한 역사, 그리고 외적 침략에 항거하며 광복을 이룬다는 줄거리로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담겨 있다.

● 나운규의 ‘아리랑’

21차시

‘아리랑’의 영웅 영진은 정신 이상자로 설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검열 때문에 일제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영화에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변사의 역할도 저항의 표현에 ‘신축성’을 제공했다. 변사는 관객의 기대와 반응, 극장의 상황에 따라 설명을 즉흥적으로 바꿀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적으로 영화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기도 했다.

예를 들어 단성사에서 ‘아리랑’을 해설한 적이 있는 변사 성동호는 임검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고려해 두 가지 버전으로 ‘아리랑’을 해설했다고 한다. 경찰이 있을 땐 “재학 중 철학을 연구하다가 미친 김영진”이라고 하지만, 경찰이 없을 땐 “3·1 운동의 고문으로 미치광이가 된 김영진”으로 해설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작자가 일본인인 데다가 감독까지 나운규 대신 일본 사람 스모리 히데카즈 명의로 내세운 것도 ‘아리랑’이 상영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었다.

● 개벽

21차시

잡지 “개벽”은 1920년 6월 25일 천도교의 재정 지원으로 창간되었으며, 1926년 8월 발행이 금지될 때까지 7년간 통권 72호까지 발간되었다. “개벽”은 폐간 시까지 발매 금지 40회 이상, 정간 1회, 벌금 1회 등의 탄압을 받았는데, 약 148개의 기사가 완전 삭제 또는 부분 삭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 통권 72호를 간행하는 동안 독립 정신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다음과 같은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가 행한 식민 통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

- ① '황국 신민의 서사' 암송을 강요하였다.
- ②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
- ③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신문 발간을 허용하였다.
- ④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 ⑤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수행하며 일상생활을 통제하였다.

02 다음 상황에서 일제가 추진한 경제 수탈 정책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일본의 쌀 소비는 연간 6,500만 석인데, 생산량은 5,800만 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의 인구는 매년 70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 생활이 향상되면서 매년 쌀 소비량도 늘어날 것이다.

- 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두 배 늘어났다.
- ② 쌀 생산이 늘어나 자작농이 증가하였다.
- ③ 회사 설립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 ④ 농민들은 만주에서 들어온 잡곡으로 연명하였다.
- 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땅을 국유지로 만들었다.

03 다음 사진과 관계 깊은 민족 운동은?



- ① 3·1 운동 ② 6·10 만세 운동
- ③ 물산 장려 운동 ④ 실력 양성 운동
- 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04 다음 포스터와 관계 깊은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회사령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③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표어를 내세웠다.
- ④ 일부 지식인들은 이 운동이 소수의 자본가만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 ⑤ 우리 손으로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5 다음은 1920년대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들이다.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북로 군정서와 대한 독립군 등 연합 부대는 10여 차례 전투 끝에 일본군을 물리쳤다.
- (나) 남만주에서는 참의부와 정의부, 북만주에서는 신민부가 조직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 (다)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 적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06 다음과 같은 강령을 제시한 독립운동 단체는?

- 1. 우리는 정치·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 2.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 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

07 다음 ㉠에 들어갈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 ① 애국 공채 발행
- ② 연통제, 교통국 운영
- ③ 국민 대표 회의 개최
- ④ 구미 위원부 설치를 통한 외교 활동
- ⑤ 신흥 무관 학교 설립을 통한 독립군 양성

08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친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20년 박재현, 부산경찰서에 폭탄 투척
최수봉, 밀양경찰서에 폭탄 투척
1921년 김익상, 조선 총독부에 폭탄 투척
1922년 김익상, 오성윤의 상하이 황푸탄 의거
1923년 김상옥, 종로 경찰서에 폭탄 투척
김지섭, 일본왕궁 침입 시도
1926년 나석주, 조선 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 투척

- ①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김구가 조직하였다.
- ③ 독립운동 세력 간의 통합을 목적으로 민족 혁명당을 결성하였다.
- ④ 조선 총독부 고위 관리 처단과 식민 통치 기관 파괴를 목적으로 하였다.
- ⑤ 신채호가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여 투쟁 노선과 행동 강령을 제시하였다.

09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인물을 쓰시오.

- 민족의 고유한 문화 전통과 정신을 강조하였다.
- 고대사 연구에 힘썼으며,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였다.

10 (가)~(마)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1910	1919	1931	1937	1941	1945
(가)	(나)	(다)	(라)	(마)	
한·일 강제 병합	3·1 운동	만주 사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광복

- ① (가) - 문관이 조선 총독에 임명되었다.
- ② (나) - 우리글과 역사 교육을 금지하였다.
- ③ (다) -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이 크게 활약하였다.
- ④ (라) -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해 토지를 약탈하였다.
- ⑤ (마) - 순종의 인산일에 6·10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11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최현배는 한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많은 공을 쌓은 대표적인 한글 학자이다. 그는 1910년부터 3년간 주시경의 조선어 강습원에서 한글과 문법을 배웠으며, 일본 유학 후 1926년 연희 전문 교수로 부임하였다. 1931년에는 이 단체의 창립에 참여하였으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942년 체포되어 광복이 될 때까지 3년간 복역하였으며, 광복 이후에도 한글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 보기

- ㉠ ‘한글’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다.
- ㉡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 ㉢ 한글 기법일인 ‘가갸날’을 정하였다.
- ㉣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 01 ⑤ 02 ④ 03 ① 04 ④ 05 ② 06 신간회 07 ⑤ 08 ②
09 신채호 10 ③ 11 ④

III

대한민국의 발전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광복 이후 냉전 체제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6·25 전쟁과 독재 정권의 억압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역사를 다룬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과 같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분단의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본다.



▲ 부산 항만

0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서는 광복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과 미·소의 냉전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한편, 정부 수립 이후 전개된 친일파 청산 노력을 알아보고, 6·25 전쟁이 일어난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남북한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02.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에서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독재 권력의 횡포와 억압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6월 민주 항쟁 이후의 정치 변화를 파악한다.

03. 경제의 성장과 문화의 발전에서는 광복 직후 극심한 식량난과 실업난, 6·25 전쟁으로 대부분의 생산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도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알아본다. 또한 정치, 경제의 성장과 함께 대중문화가 발전하였으며, 국제 교류와 협력이 증진됨에 따라 한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음을 파악한다.

04. 통일을 위한 노력에서는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남북 간에 진행된 대화와 통일 정책을 파악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함을 이해한다.

05.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에서는 중국의 동북 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역사를 둘러싼 왜곡 문제와 갈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고 동북아시아 3국이 바람직한 국제 관계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이해한다.

2 단원의 목표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 냉전과 좌·우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 독재 권력의 횡포와 억압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항하고 발전해 온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정부별 독재 정치에 저항하여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내용을 파악하여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일 방안을 생각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발표할 수 있다.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고, 통일은 반드시 이룩해야만 하는 민족의 과제임을 인식한다. •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만 중요시하지 말고, 경제 민주화 등 다양한 가치를 존중한다. •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제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갖는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22	0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광복과 선택 통치 문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선택 통치
23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 5·10 총선거, 남북 협상, 제주 4·3 사건,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24		3. 6·25 전쟁	북한의 남침, 유엔군의 참전, 인천 상륙 작전, 중국군의 개입, 휴전 협정 체결
25	02.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1. 자유 민주주의의 성장	3·15 부정 선거, 4·19 혁명, 장면 내각 수립, 5·16 군사 정변, 유신 체제, 부·마 민주 항쟁
26		2.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12·12 사태,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6·29 민주화 선언, 평화적인 정권 교체, 제 1·2차 남북 정상 회담
27	03. 경제의 성장과 문화의 발전	1. 경제의 성장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3저 호황, 외환 위기, G20 정상 회의 개최, 전태일, 시민운동 단체
28		2. 문화 발전과 국제 교류	대중 매체 보급, 한류, 스포츠 대회 개최, 국제화 시대
29	04. 통일을 위한 노력	1. 북한 사회의 변화	주체사상, 3대에 걸친 세습, 천리마 운동, 합영법, 탈북자 문제, 우리식 사회주의
30		2.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한 국제 연합 공동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31	05.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1. 중국과의 역사 논란	동북 공정, 고구려·발해의 역사, 동북아 역사 재단
32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다케시마의 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광복이 전적으로 연합국의 승리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소중한 성과였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미·소 냉전 체제의 변화가 한반도에 끼친 영향 등 현대의 역사를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독재 정권의 시련 속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을 지도한다.
- 통일은 꼭 이루어야만 하는 우리 민족의 과제를 인식하도록 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박현채 엮음,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소나무, 1992.
-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1, 2", 들녘, 1998.
- 류승렬,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7", 솔, 2003.
-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004.
- 박태균, "한국 전쟁", 책과함께, 2005.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 이해", 2012.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통일 문제 이해", 2012.
-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사료로 보는 민주화 운동
<http://contents.kdemocracy.or.kr/>
- 독도 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0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학습 목표

- 우리 민족이 일제와 끊임없이 투쟁한 끝에 광복을 맞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과가 한반도에 끼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 6·25 전쟁의 원인, 과정, 영향을 종합하여 전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2	<p>1. 광복과 신탁 통치 문제</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광복 직후 국내에서 여운형 등이 조직한 단체는 무엇인가?</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에 따른 결과만이 아니라 국내외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끊임없이 항일 투쟁을 전개한 성과임을 이해하게 한다. •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활동을 설명한다. • 다양한 정치 세력의 등장과 활동을 인물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한다.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토론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두 나라는? 2.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좌익과 우익 사이에 격렬한 대립을 불러 일으킨 것은?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 토론식</p> <p>문답식</p>	<p>CD</p> <p>동영상</p> <p>CD PPT 83쪽 자료</p> <p>학습지</p>
23	<p>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서울에서 열렸으나 참여국의 의견 차이로 성과 없이 끝난 회의는?</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 이후 한반도 문제가 국제 연합에 상정되었고, 그 결과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안이 결정되었음을 설명한다. • 좌우 합작 운동, 남북 협상 등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 5·10 총선거 실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p>문답식</p> <p>강의식</p> <p>발표식 강의식</p>	<p>CD</p> <p>CD</p> <p>인터넷 PPT</p>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일파 청산을 위해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내용과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 결과 등을 탐구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헌 국회를 구성하고자 남한에서 실시된 선거는? 2.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탐구식</p> <p>문답식</p>	<p>85쪽 자료</p> <p>학습지</p>
24	<p>3. 6·25 전쟁</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낙동강 이남까지 후퇴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시킨 작전은?</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국제 정세의 변화, 남북한의 상황 변화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 6·25 전쟁의 주요 전개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 준다. • 군사 경계선 설정 문제, 포로 교환 문제 등을 중심으로 휴전 협정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게 한다. • 6·25 전쟁이 향후 남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토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 연합 총회의 군사 개입 결의로 편성되어 6·25 전쟁에 참여한 군대는? 2. 유엔군, 북한, 중국 대표가 휴전 협정에 서명한 해는?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p> <p>발표식</p> <p>문답식</p>	<p>CD</p> <p>PPT</p> <p>동영상 CD</p> <p>인터넷</p> <p>학습지</p>

● 학습 내용 정리

1. 광복과 신탁 통치 문제

(1) 광복과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 ① 8·15 광복: 연합국의 승리에 따른 결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실
-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 조직: 여운형, 안재홍 등 좌·우익 세력 참여
 - 활동: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 담당, 생활필수품 확보 노력
 - 해체: 우익 세력이 좌익 세력의 주도에 반발하여 탈퇴

(2) 다양한 정치 세력의 등장

- ① 38도선 분할: 남북한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 주둔
- ② 국외 독립운동가의 귀국: 이승만, 김구, 김일성

(3)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과와 영향

- ① 내용: 미·영·중·소가 최고 5년간 신탁 통치 결정
- ② 결과
 - 우익: 김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탁 운동 전개
 - 좌익: 반탁 운동 지지 → 결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변경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와 좌·우 합작 운동

- ①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 소련: 임시 정부 수립에서 반탁 세력 배제 주장
 - 미국: 모든 정당·사회단체 포함 주장
 - 결과: 양측의 입장 차이로 결렬

② 좌·우 합작 운동

- 주도 인물: 여운형, 김규식 → 통일 정부 수립 주장
- 결과: 별다른 성과 거두지 못함.

(2) 남북 협상

- ① 내용: 김구가 북한에 통일 정부 수립 회의 제안
- ② 결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3) 북한 정권의 수립

- ①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토지 개혁 실시
- ②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1948. 9. 9.)

(4)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① 과정: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 → 미국, 한반도 문제를 국제 연합(유엔)에 상정 → 국제 연합이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파견 결정 → 북한, 위원단 입북과 총선거 실시 거부 → 유엔 소총회,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실시 결정 → 5·10 총선거 실시 → 제헌 국회 구성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15.)

- ② 제주 4·3 사건: 총선거 실시에 반대하는 무장봉기 발생 →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 학살

③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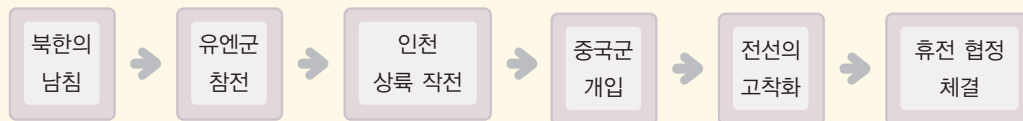
- 목적: 친일파 처단
- 활동: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 구성
- 결과: 친일 세력 방해, 이승만 정부 비협조로 성과 미약

3. 6·25 전쟁

(1) 배경

- ① 국제 정세의 변화: 중국의 공산화, 미·소 양군의 철수
- ② 북한의 전쟁 준비: 조선 의용군 부대 흡수,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지원

(2) 전개 과정



(3) 영향

- ① 인명 피해, 산업 시설 파괴, 국민의 생활 궁핍화
- ② 남북 사이의 원한과 불신의 벽 높아짐.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82쪽

‘이날’은 우리 민족이 광복한 날을 뜻한다.

탐구 활동 ▶▶▶ 교과서 83쪽

예시 답안

- 찬성: 민주적인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일단 신탁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 반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약속했던 국제 회담의 결정 내용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생각 열기 ▶▶▶ 교과서 84쪽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탐구 활동 ▶▶▶ 교과서 85쪽

1. 좌·우의 대립,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친일 세력의 방해

2. 예시 답안

제헌 국회는 1948년 제헌 헌법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가 구성되어 친일파 청산 작업에 나섰다. 2005년 12월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친일파의 재산 일부가 국가로 귀속되기도 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86쪽

6·25 전쟁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87쪽

1. (1) 신탁 통치, (2) 반민특위
2. ㉠ - ㉡ - ㉢ - ㉣

● 내용 더하기

● 광복에 대한 견해

22차시

8월 15일은 광복절, 즉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날이다. 하지만 이날의 광복과 해방이 한국인의 노력이 아닌 연합국의 승리에 따른 것이고, 독립운동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낮춰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연합국에게 정식 교전 단체로 인정받지 못

하고, 그 결과 전후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석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먼저 연합국은 전후 처리 문제에 있어 한국을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장차 독립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 바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선언이다. 비록 즉각적인 독립 약속은 아니지만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것이다.

이는 연합국이 비록 한국을 정식 교전 단체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연합국에 속해 있던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식과 독립 의지를 확인했고, 이러한 차원에서 카이로 선언과 같은 한국 독립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광복과 해방은 한국인의 끊임없는 독립운동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❶ 좌익과 우익의 유래와 쓰임새

22차시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혁명 직후 구성된 프랑스 제1공화국의 의회에서 유래하였다. 혁명을 주도한 공화파는 루이 16세를 몰아내고 공화국을 세웠는데 과거 지배 세력의 청산과 공화정 수립을 주장하는 급진파인 자코뱅파와 과거 지배 세력의 수용과 입헌 군주제를 선호하는 보수파인 프이앙파로 나뉘어졌다.

국회가 열리자 급진파인 자코뱅파는 자연스럽게 의장석을 중심으로 국회의 왼쪽에 자리 잡았으며, 보수파인 프이앙파는 오른쪽에 앉았다. 이때부터 급진파는 좌파, 보수파는 우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좌파 또는 좌익이 노동자와 농민 계급을 정치 세력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지주와 자본가 계급이 정치 세력의 중심이 되는 정치 사회의 건설과 기존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세력을 말한다.

그러나 좌익은 공산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명칭으로 일반화되었으며, 특히 남북으로 나뉘어져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해 왔던 우리 사회에서의 좌익은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민주화의 요구가 분출됐던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

세력을 ‘급진 좌경 세력’으로 몰아 탄압하기도 했다.

좌익과 우익을 아주 단순하게 구별하자면 서로 대립하는 두 세력의 성향을 보아 점진적인 변화를 주장하거나 보수적 뜻을 피력하면 우익, 급진적인 변화나 개혁을 주장하면 좌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❷ 북위 38도선

22차시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의 전력을 과대평가하여 미국의 피해를 줄이고자 소련의 참전을 원하였다. 8월 6일 결국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 함께 만주 일대에서 강력한 남진을 개시하고,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투하되면서 10일 일본은 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항복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연합국에 통보하였다.

오키나와에 있던 미국은 소련의 한반도 점령이 향후 군사적으로 일본과 동아시아 전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깨달았다. 8월 10일경 일본이 항복 의사를 밝히자 미국은 즉시 항복 준비 작업에 들어가 한반도의 38도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군에, 이남은 미국에 항복한다는 지침을 결정하였다. 이 안을 제시한 것은 찰스 본스틸 대령과 딘 러스크 대령이었다. 이 안은 8월 15일 ‘일반 명령 1호’로 필리핀에 있던 맥아더 사령부로 전달되었고, 영국과 소련에게도 통고되었다.

❸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22차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선언·강령〉

새 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완전한 독립 국가 조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 정권을 수립하는 임무를 다하려는 의도에서 아래와 같은 강령을 내세운다.

1. 우리는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을 기함.
2.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함.
3.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 생활의 확보를 기함.

광복을 맞이하자 여운형 등은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건국 준비 위원회는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지역·직장별로 건국 치안대를 조직하고, 식량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다.

건국 준비 위원회에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제외한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언론인, 지식인, 지방 유지, 지주 등이 참여하여 민족 연합 전선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9월 6일 미군 진주가 가까워오자 건국 준비 위원회는 인민 대표자 대회를 열어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조선 인민 공화국은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여운형을 선출하였는데 좌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과 민족주의 세력도 소수 참여하였다. 그러나 미 군정이 조선 인민 공화국의 실체를 부인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이로써 미군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않고 자주적인 통일 정부를 세우려던 노력은 일부 우익 세력의 반대와 미국의 부인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22차시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국 외상 회의가 열렸다. 이때 미국은 소련에 한반도 문제의 처리와 관련한 비망록을 사전에 전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통신·체신·교역·산업 등 일체의 현안을 취급할 남북한 통일 행정부의 조속한 수립, 한국에 대한 4개국 신탁 통치 등 두 가지였다.

신탁 통치안의 주요 내용은 “4개국이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수행하여 한국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그것은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신탁 통치하에서 행정을 담당할 국제 민간 행정 기구로 1명의 고등 판무관과 4개국을 대표하는 4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집행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소련은 통일 행정부의 설치를 거부하고, ‘선 정부 수립, 후 신탁 통치’를 대안으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한국의 독립에 대한 양국의 접근 방법 차이와 광복 이후 한반도 내부에 조성된 정치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결국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타결된 한국에 대한 결정은 소련 측 제안을 원안으로 하고, 여기에 사소한 내용 등을 수정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 신탁 통치와 좌·우익의 대립

22차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서에는 먼저 조선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고, 신탁 통치 방안은 미·소 공동 위원회가 조선 임시 민주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조선 임시 민주 정부가 강력히 반대했다면 신탁 통치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서가 공식 발표되기 전인 12월 27일에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도선 분할 점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반탁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좌익과 우익 세력은 공동으로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28일 신탁 통치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좌익은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후 남한 내에서는 반탁과 찬탁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이 일어나는 가운데 결국 반탁 세력은 김구와 이승만을 중심으로 우파 세력을 결집하였고, 찬탁 세력은 조선 공산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민족 전선을 결성하였다.

● 미·소 공동 위원회

23차시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한국 내 협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이후 장기간의 교섭 끝에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협의 대상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안을 포기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켰다. 이에 소련은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은 미·소 간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이 국제 연합 총회 운영 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국의 임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2년간에 걸쳐 개최되었던 미·소 공동 위원회는 아무런 결실 없이 막을 내렸다.

● 좌우 합작 운동

23차시

1946년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중도 우파의 김규식과 중도 좌파의 여운형은 미 군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였다.

좌우 양 진영 모두 일단 합작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946년 7월 좌우 합작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하지만 양측은 신탁 통치 문제, 토지 개혁 문제, 반민족 행위자(친일파) 처리 문제 등을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규식과 여운형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으나 양측은 모두 불만을 표시하였다.

1947년 중반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이 심화되자 강경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 운동 지원 방침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23차시

제2차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설치하였다. 미국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포기하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다. 그리고 유엔에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만들어 그 감시 아래 1948년 3월 말까지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국회 및 정부를 수립한 후 미군과 소련군은 철수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이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위반된다고 적극 반대하였다.

당시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유엔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설치, 신탁 통치를 거치지 않은 독립,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가결하였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 조직된 위원단은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소련 측은 38도선 이북 지역 입국을 거부하였다. 이에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 ‘가능한 지역에서만의 총선거’를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남북 협상

23차시

남한만의 선거가 결의되고 분단이 거의 굳어지자, 김구·김규식 등은 북한 지도부와 협상으로 통일된 민족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김구는 1948년 3월 8일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고, 곧이어 남한만의 총선거를 반대·불참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에 북한 측은 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김구 일행은 38도선을 넘어 평양에 도착하였다.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50여 개의 정당과 사회단체 700여 명이 참여한 연석 회의에서는 단독 선거 실시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미군과 소련군의 동시 철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단독 정부 수립 세력의 방해와 정권 수립 움직임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제주 4·3 사건

23차시

총선거 당시 제주도에서는 생필품 부족 및 극심한 흉년이 겹친 데다 일본군이 철수하고 미 군정하의 관리들의 부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1947년 3·1절 기념 집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일반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은 경찰 발포에 항의하며 일어났고, 미 군정은 경찰과 우익 단체인 서북 청년단을 동원하여 남로당의 주민 선동을 진압하려 하였다.

경찰과 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

선거·단독 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를 하였고,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강경한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에서의 5·10 총선거는 3개 선거구 중 두 곳이 무효화되었고, 3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에 불에 타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제주도 의회에 ‘4·3 특별 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등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2000년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2003년 진상 규명위는 정부 차원의 ‘진상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4·3 사건에 대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있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주민들이 희생됐다.”라고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사과와 희생자 지원을 건의하였다.

● 제헌 헌법 전문

23차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섰은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 “대한민국관보” 제1호, 1948. 9. 1.

● 유엔 총회,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다

23차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남한 지역에서 효과적인 통제력 및 사법권을 보유한 합법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 이 정부는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 …… 한국 임시 위원단은 한국 국민의 자유로 표현된 의사에 기초하여 앞으로 대의 정부 발전에 유용한 감시와 협의를 수행할 것이며 …… 한국 전역에서 여행, 협의 및 감시의 권한이 부여될 것이다.

- 제3차 유엔 총회 결의문, 1948. 12.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과 그 결과

23차시

제1장 죄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헌 헌법 101조의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1948년 9월 22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고, 194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해 처벌된 친일파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반민특위 출발 당시에는 반민족 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해 놓고 있었지만 조사 건수는 총 68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이 가운데 체포 305건, 미체포 17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 송치가 559건이었다. 이중 특별 검찰부가 기소한 것은 221건이었고, 특별 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에 지나지 않았다. 불기소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죄로 풀려났으며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 처벌된 사람은 체형 14건, 공민권 정지 18건, 형 면제 2건, 면제 6건에 불과했다. 이 조차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 반민특위의 와해와 친일파 청산 노력의 좌절

23차시

1949년 5월 20일 반민특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소장파 의원인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등이 체포되었다. 이들이 남로당과 연결되어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이어 경찰과 정부 내 친일 세력들은 6월 6일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특별 경찰 대원을 비롯해 반민특위 요원 35명을 체포하였다. 이들은 무기는 물론이고 피의자를 심문한 내용이 담긴 서류 등을 모두 압수하였다.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은 지방에서도 이어졌다.

반민특위의 와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국회 프락치 사건이었다. 6월 20일부터 노일환, 김옥주, 강옥중, 박윤원, 황운호, 김약수 등의 국회 의원들이 체포되었는데 이들 역시 남로당과 연결되어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결국 이승만 정부와 친일 세력은 1950년 6월 20일로 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공소 시효를 1949년 8월 31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 노력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23차시

1946년 2월에 발족한 북한 최초의 중앙 권력 기구로,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강령으로는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 전 민족의 기본 요구를 실현할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 생활을 확보할 것 등을 내걸었다.

당면 과제로 지방 정권 기관의 강화, 무상 분배의 토지 개혁 실시 준비, 생산 기업소 발전 도모,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 처단 등 11개조를 제시하였고, 3월 23일 20개 정강을 발표하였다. 20개 정강은 친일 잔재 숙청, 언론·출판·집회·신앙의 자유 보장, 일반적·직접적·평등적 비밀 투표에 의한 인민 위원회 결성, 대기업소·운수 기관·은행·광산·산림의 국유화, 지주의 토지 몰수와 소작제 철폐, 생활 필수품에 대한 시장 가격 제정, 노동자와 사무원의 8시간 노동제 실시, 의무 교육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 정강에 의거하여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고, 개혁이 완수되자 북조선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면서 해체되었다.

● 왜 1950년 6월 25일이었을까?

24차시

북한 지도부가 개전 시점을 잡을 때 전투 태세를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과 함께 '장마'라고 하는 계절적 요인을 깊이 고려한 것 같다. 물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낸 시점이 5월이라는 점이었다. 중국의 동의를 얻은 뒤 서둘러 전쟁 준비를 했지만 6월은 넘길 수밖에 없었고, 계절적 요인 때문에 7월까지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남한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1950년 봄이 되자 좌익 세력은 대부분 검거되고 빨치산 활동도 꺾일 직전에 이르렀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며, 군사적으로도 1949년 여수·순천 10·19 사건 이후 숙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점차 정비되어 가고 있었다. 또 1950년 1월 26일 한·미 상호 군사 원조 협정이 체결되어 미국의 군사 원조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시간을 끌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북한 지도부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만이 유일한 수단이며 시간을 늦출수록 북한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예상하지 않았을까? - 박태균, "한국 전쟁"

● 6·25 전쟁의 전개 과정

24차시

(1) 제1단계(1950. 6. 25.~1950. 9. 15.)

전쟁 발발 당시 국군의 병력 수는 북한군의 절반 정도였고, 대공포·전차·전투기가 전혀 없었으며 기타 장비들도 북한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그리하여 전쟁이 시작되자 국군은 계속 퇴각해야 했다.

서울이 점령당하고, 북한군이 한강 이남으로 진격하자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긴급히 부대를 파견하여 남하를 막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W.F. 딘 소장이 이끄는 미국 제24사단과 W.H. 위커 중장의 미국 제8군 휘하 부대가 계속 투입되어 북한군의 남진 속도를 둔화시켰고, 1950년 8월경 낙동강을 경계로 하는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2) 제2단계(1950. 9. 15.~중국군 개입 전)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국군과 유엔군이 경인 지역을 장악하면서, 북으로 후퇴하지 못한 북

한군은 국군에 투항하거나 산악 지대로 도피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20일 평양을 탈환하고 10월 26일 일부 부대가 압록강변에 도달하였다.

(3) 제3단계(중국군 개입~휴전 회담 전)

중국 인민 지원군이 대규모 개입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였고,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북한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에게 점령당하였다. 유엔군은 서울 남쪽 약 50km 지점의 평택과 원주를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4) 제4단계(휴전 회담~휴전 협정 체결)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으로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 이르렀을 때 전쟁을 종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결국 1950년 7월 10일부터 휴전 회담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매우 달라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양측의 경계선으로 북한은 전쟁 발발 이전인 38도선으로의 복귀를 주장한 반면 유엔 측은 현 전선의 유지를 주장하였고, 북한은 모든 포로의 무조건 송환을 주장한 반면에 유엔군 측은 희망자만 송환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휴전 회담은 포로 송환 문제로 결렬 직전까지 갔으며 8개월간 중단되기도 하였다.

1953년 1월 D.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회담이 재개되고 합의에 도달하였다. 양측은 현재의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각각 2km씩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조약에 서명하였다.

● 전쟁이 남긴 것

24차시

6·25 전쟁으로 5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민간인의 피해가 유독 많았다. 또한 어느 전쟁보다도 많은 인구 이동과 재배치를 가져와 사회의 전통적 구조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전통적인 반상의 차별과 구조, 의식이 붕괴되었고, 농촌 사회의 전통적 촌락 공동체가 급속하게 와해되었다.

이 전쟁으로 남북한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전쟁 중에 깊어진 적대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02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학습 목표

-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5·16 군사 정변으로 성립된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의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민간 정부가 성립된 이후 자유 민주주의 정치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5	<p>1. 자유 민주주의의 성장</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새롭게 성립된 내각은?</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자행했던 여러 사례를 찾아보고, 그 과정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 4·19 혁명에 관한 동영상 자료를 보여 주고, 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 결과, 역사적 의의를 탐구하게 한다. • 4·19 혁명의 결과 수립된 장면 내각의 활동과 한계에 대해 설명한다. •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군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과정과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설명한다. • 유신 체제의 성립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과 박정희 정권의 붕괴 과정을 설명한다. • 박정희 정부의 최대 성과인 경제 발전에 대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토론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저지른 대대적인 선거 부정을 가리키는 말은? 2.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일본과 맺은 조약은?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발표식</p> <p>탐구식</p> <p>강의식</p> <p>토론식</p> <p>문답식</p>	<p>CD</p> <p>인터넷</p> <p>동영상</p> <p>PPT CD</p> <p>학습지</p>
26	<p>2.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광주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이 계엄 해제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규모 시위는?</p>	<p>문답식</p>	<p>CD</p>

26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 민주화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전두환 정부의 성립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전두환 정부 시기의 강압적인 독재 정치와 유화 정치를 정리하게 한다. 6월 민주 항쟁의 의미와 결실을 사료를 활용하여 탐구하게 한다.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대표적인 정책들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이루어진 평화적 정권 교체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p>1. 신군부 세력이 병력을 동원하여 권력을 장악한 사건은?</p> <p>2.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한 선언은?</p>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강의식	동영상
		탐구식 발표식 강의식	PPT 92쪽 자료 CD
		문답식	
			학습지

● 학습 내용 정리

1. 자유 민주주의의 성장

(1)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노력

- ① 헌법 개정
 - 발췌 개헌(1952):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단행
 -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금지' 조항 철폐 통과
- ② 국가 보안법 강화, 언론 탄압

(2) 4·19 혁명(1960. 4.)

- ① 전개: 3·15 부정 선거 → 선거 직후 시위 전개 → 시위의 전국적 확산 → 계엄 선포, 군대 동원 → 이승만 정부 붕괴
- ② 의의: 학생과 시민을 중심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 혁명

(3) 장면 내각

- ① 수립: 과도 정부 수립 → 헌법 개정 → 장면 내각 수립
- ② 활동: 독재 정치 청산, 남북 관계 개선, 민주주의 발전 등을 위해 노력

③ 한계: 민주당의 분열, 다양한 민주화 요구 수용 못함.

(4) 박정희 정부

- ① 5·16 군사 정변: 박정희가 이끄는 군부 세력이 권력 장악 → 국회 해산,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설치 → 군정 실시
- ② 한·일 국교 정상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일 기본 조약 체결
- ③ 베트남 파병: 군 장비 현대화, 외화 확보, 수많은 젊은이들 희생
- ④ 3선 개헌: 대통령의 3회 연임 허용 → 3선 성공
- ⑤ 유신 체제
 - 배경: 냉전 완화, 주한 미군 감축 결정,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만 → 유신 선포, 헌법 개정
 - 저항: 재야인사, 종교계, 학생 등을 중심으로 유신 철폐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민주화 운동 전개
 - 붕괴: 부·마 민주 항쟁 진압, 정부 내 권력 갈등으로 박정희 피살(10·26 사태)

2.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1) 5·18 민주화 운동(1980. 5.)

- ① 배경: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12·12 사태) → 대규모 민주화 시위 → 계엄 확대, 정치 활동 금지
- ② 전개: 광주 시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 →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 →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 → 무력 진압

(2) 전두환 정부

- ① 헌법 개정: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 ② 강압 통치: 언론 통제, 학생 운동 감시 등
- ③ 유화 통치: 외국 여행 자유화, 교복 자율화 등

(3) 6월 민주 항쟁(1987. 6.)

- ① 배경: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대통령 간접 선거 유지 조치 발표
- ② 전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범국민 대회 개최 → 전국으로 확산
- ③ 결과: 6·29 민주화 선언 발표(대통령 직선제 개헌)

(4) 노태우 정부

- ① 제24회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
- ②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
- ③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9.)

(5) 김영삼 정부

- ① 지방 자치제의 전면 실시, 금융 실명제
-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1996), 외환 위기(IMF 구제 금융)

(6) 김대중 정부

- ① 평화적인 정권 교체

② 외환 위기 극복, 남북 정상 회담

(7) 노무현 정부

- ① 권위주의 청산, 과거사 진상 규명 노력
- ②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8) 이명박 정부: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등을 국정 지표로 제시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88쪽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부정 선거에 항의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독재 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91쪽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탄압 등 내란 및 반란죄로 구속 수감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92쪽

1.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자 전두환 정부가 개헌을 거부하고 기존의 대통령 간접 선거제의 헌법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2. 1987년 6월 전개된 6월 민주 항쟁으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93쪽

1. (1) 이승만, (2) 박정희, (3) 전두환
2. (1) ○, (2) ×, (3) ×

내용 더하기

농지 개혁법

25차시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 (나) 소유권의 명目が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및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 농지 개혁법 중 일부

농지 개혁법의 골자는 3정보를 상한으로 하여 그 이상 지주가 소유한 농지는 국가가 유상 매입하고 이를 소작농에게 유상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가난한 농민들이 자신의 농토를 가질 수 있었다. 또 6·25 전쟁 때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지주제를 철폐하고 소작인과 지주 사이의 소작 쟁의를 불식시켜 사회 경제적인 안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와 국유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논밭을 제외한 과수원, 임야 등은 개혁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농민들의 유상 매수 부담이 매우 컸다는 점, 지주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발췌 개헌

25차시

5·10 총선거는 좌익 세력뿐만 아니라 우익 진영의 남북 협상파도 참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그리고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여기에는 초대 선거에 불참했던 남북 협상파와 중도파가 참여하였다. 선거 결과 무소속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선거 1개월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중 발생한 국민 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었는데, 이승만 정부는 비리 관련 인사들을 1년 만에 복직시켰다. 이에 분개한 이시영 부통령은 이승만의 독재와

정국의 비민주화를 규탄하면서 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 행해진 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이갑성이 떨어지고 김성수가 선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이승만은 간선제로는 자신이 대통령에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신과 개헌을 지지할 정당으로 1951년 12월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그리고 1952년 7월 부산에서 열린 피난 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강행하였다.

● 3·15 부정 선거 지시 비밀 지령(요약)

25차시

1. 4할 사전 투표

선거 당일의 자연 기권표와 선거인 명부에 허위 기재한 유령 유권자표,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기권표 등을 그 지역 유권자의 4할 정도씩 만들어 투표 시작 전에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2. 3인조, 5인조 투표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미리 공작한 유권자로 하여금 3인조 또는 5인조의 팀을 편성하여 그 조장이 조원의 기표 상황을 파악한 후 다시 각 조원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자유당 측 선거 위원에게 제시하고 그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3. 완장 부대 활용

자유당 측 유권자에게 ‘자유당’이라는 완장을 착용시켜 투표소 부근 일대의 분위기를 자유당 일색으로 만들어야 당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유당에게 투표하게 할 것.

4. 야당 참관인 축출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하여 투표 참관을 포기하게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구실을 만들어 축출할 것.

● 4·19 혁명

25차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 선거에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4월 19일 시위 중 숨진 한성 여중 2학년 진영숙의 글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꺾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3.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가한 없이 남용하여 공전의 참극을 지어낸 경찰은 ...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이다.
4. 3·15 선거는 부정 선거이다. 공명 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을 재선거하라.

-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문(일부)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었다. 4월 19일에는 서울 주요 대학과 고등학생들이 대거 시위에 참가하였고, 4월 25일에는 대학 교수단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에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하야하였다.

● 한·일 협정 반대 운동

25차시

1. 일본에의 예속으로 직행하는 매국의 한·일 굴욕 회담을 전면 중지하라.
 1. 농민, 노동자, 소시민의 피눈물을 밟고 서서 홀로 살찌가는 매판성 악덕 재벌을 처형하고 몰수하라.
 1. 5·16 이래의 온갖 부정부패 사건을 자진 폭로하고 그 원흉을 조사 처단하라.
-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한일 굴욕 회담 반대 학생총연합회, 1964. 5. 20.)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문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문제와 일본의 사죄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얹혀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박정희 정부까지 넘어왔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미국이 의도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반공산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자 한·일 국교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종필-오히라 각서가 비밀리에 작성되었다.

각서에는 한·일 회담 체결 조건으로 일본이 한국에게 제공할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으나, 자금 제공의 명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쌍방이 각자 그 명목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청구권’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은 그 돈을 ‘독립 축하금’으로 해석하였다. 청구권

또는 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일제 강점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없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축하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학생과 시민들은 1964년 5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루고, 6월 3일에는 ‘한·일 회담 반대, 독재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지만 박정희 정부는 1965년 전국 14개 대학과 서울 58개 고등학교를 조기 방학 시키고, 6월 22일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였다.

● 99.99%의 지지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

25차시

1972년 12월 23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장충 체육관에서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는 유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선거에서는 전체 대의원 2,359명 가운데 2,357명(99.99%)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이 선거를 ‘체육관 선거’라고 희화화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 5·18 민주화 운동

26차시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 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너 도나도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엄 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 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까지 자행하였으니! ……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 5·18 민주화 운동 총서 중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정의롭지 못한 국가 권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저항권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5·18 민주화 운동 진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을 혈맹국이라는 우호적 입장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반미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6차시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 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 폭행으로 사망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이를 은폐하고자 언론을 통제하고 진실을 왜곡하였다. 그러나 박종철이 고문으로 숨진 사실이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에 의해 알려지면서 각종 추모

집회와 규탄 대회가 개최되었다.

● 6월 민주 항쟁

26차시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아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 6·10 국민 대회 선언문

6월 민주 항쟁이 있었던 1987년은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국민과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며 강력한 개헌 요구를 했고, 이에 정부는 더 이상의 개헌 논의를 금한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 거리에서는 연일 ‘직선제 개헌 쟁취하자’, ‘고문 살인 정권 물러가라.’를 외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 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날 민주 정의당은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이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 역사상 최대의 평화적 민주화 운동인 6월 민주 항쟁이 시작되었다.

이 같은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군부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수용, 대통령 선거법 개정, 김대중 사면 복권 및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 관련 사법 석방, 국민 기본권 신장, 언론 자유 창달, 지방 자치제 실시와 대학 자율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 금융 실명제

26차시

금융 기관과 거래할 때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제 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이다.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명령’에 의거하여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 거래에 도입되었다.

실제 명의의 확인 방법은 개인의 경우 주민 등록증·운전 면허증·공무원증 등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장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납세 번호증 또는 사업자 증명원으로 확인받도록 하였다.

03

경제의 성장과 문화의 발전

학습 목표

-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경제 성장과 함께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 국제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자세를 갖도록 노력한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7	<p>1. 경제의 성장</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한 우리나라가 1996년에 가입한 국제기구는?</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 직후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6·25 전쟁 직후의 황폐화된 상황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과정을 시기 순으로 설명한다. •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가 되는 과정을 정리하게 하고, 2000년대 이후의 산업 발전을 설명한다. • 경제 성장에 따라 함께 발전한 복지 정책을 탐구하게 한다. • 전태일의 분신 자살,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농촌의 고령화 문제 등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찾아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경제 개발 정책은? 2.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사회 보장 제도는?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 발표식</p> <p>문답식</p>	<p>CD</p> <p>동영상 PPT</p> <p>인터넷 CD</p> <p>학습지</p>
28	<p>2. 문화 발전과 국제 교류</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2002년에 개최한 스포츠 대회는?</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문화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최근 세계 문화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구체적 사례를 찾아 발표하게 한다. •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국가 및 민간 차원의 교류 · 협력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음을 설명한다. • 국제화 시대에 따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자세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p>문답식</p> <p>발표식</p> <p>강의식</p> <p>탐구식</p>	<p>CD</p> <p>PPT, 신문 기사 CD</p>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 1990년대 후반부터 드라마·가요 등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는?
- 우리나라가 동티모르, 이라크 등 국제적인 분쟁 지역에 파견한 군대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 학습 내용 정리

1. 경제의 성장

- (1) 광복 직후: 극심한 식량난과 실업난, 산업 시설 미비
- (2) 박정희 정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1960년대: 경공업 중심, 사회 간접 자본 확충
 -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중심, 새마을 운동 전개
- (3) 1980년대: 경제 안정화 정책, 3저 호황, 산업의 다양화
- (4) 1990년대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1996)
 - 외환 위기 발생 →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
- (5) 2000년대
 - 외환 위기 극복: 정보 통신 기술, 반도체 생산 등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재도약
 - G20 참여: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이룩

(6) 복지 정책의 확대

- 건강 보험 도입(1970년대 후반)
- 장애인 복지, 국민 연금제,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
- 중학교 의무 교육 시행,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 지원

(7)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점

- 노동 운동
 - 배경: 저임금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 전태일 분신(1970) →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노동 운동 활성화 → 노사정 위원회 설치(1998) 등 자율적 노사관계 정립 노력
 - 최근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문제가 새롭게 등장
- 도·농 간 소득 격차,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

2. 문화 발전과 국제 교류

(1) 대중문화의 발달

- 배경: 경제 성장에 따른 대중들의 생활 수준 향상, 대중 매체의 발달과 보급 확대
- 시대별 특징

1950년대	국산 라디오 보급
1960년대	텔레비전 방송국 설립, 텔레비전 방송 시작
1970년대	통기타, 청바지 등 청년 문화 발전
1980년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대중 음악 등장
1990년대	신세대가 대중문화 주도
2000년대	'한류' 등장

③ 스포츠 발달

- 프로 스포츠 성장: 프로 야구, 프로 축구 등
- 국제 대회 개최: 서울 올림픽(1988), 한·일 월드컵(2002), 평창 동계 올림픽(2018)

(2) 국제 교류와 협력 확대

- 근로자의 외국 파견: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중동 산유국에 파견된 건설 노동자 등
- 국제적인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 파견
- 국가 및 민간 차원의 국제 교류 강화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상승
- 국제화 시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다문화 가정의 증가 →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자세 필요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94쪽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은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인 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컴퓨터, 반도체, 휴대폰 등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97쪽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프로 야구, 축구 등이 인기를 끌며 발전하였다. 그 결과 선수들의 기량도 크게 높아져 국제 무

대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99쪽

1. (1) 중화화, (2) 3저 호황,
(3) 경제 협력 개발 기구, (4) 대중문화
2. (1) 전태일, (2) 서독
3.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공존의 자세가 필요하다.

● 내용 더하기

● 경부 고속 국도

27차시

429km의 경부 고속 국도 건설에는 총 429억 원이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초 1971년 6월 30일로 예정된 개통 시기를 1년 앞당겨 1970년 7월 7일에 개통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건설 중 77명이 사망하였으며, ‘선 개통 후 보완’이란 원칙 아래 서둘러 완공하여 원래 건설비의 4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다.

● 3저 호황

27차시

1980년대 들어 제2차 석유 파동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이에 따른 세계적 불황과 선진국의 보호 무역주의, 국제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으로 국내 경제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라는 상황에 힘입어 국제 수지가 흑자로 반전되고 GNP 성장률이 연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27차시

1999년 9월 7일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

이 법의 보호 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 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 1970년대의 노동 현실(전태일 분신 사건)

27차시

1개월에 첫 주일과 셋째 주일, 2일은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

는 아무리 강철 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 시간 1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 다공들은 1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대부분 6년 전후의 경력자들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해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 전태일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중

영세한 봉제 공장이 1천여 개나 밀집되어 있는 평화 시 장에는 2만 7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개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23세의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부르짖으며 분신 자살하였다. 전태일의 죽음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이후 본격적인 노동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 노사정 위원회

27차시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에 관한 노동 정책 및 관련된 산업·경제·사회 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 1998년 1월 15일에 발족하였다.

● 1988년 서울 올림픽

28차시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 총회장에서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되었다.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LA 올림픽은 각각 서방 국가와 동유럽의 보이콧으로 반쪽 대회로 치러진 반면에, 서울 올림픽은 12년 만에 모든 국가가 참여한 통합 올림픽으로 치러졌다.

● 국제 연합(UN) 사무총장

28차시

유엔의 실질적 수장으로, 19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유엔을 관리하면서 국제 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맡는다. 업무 수행 시 어떤 정부나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16,000여 유엔 직원의 인사권 및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반기문으로, 2011년 연임에 성공하여 2017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04

통일을 위한 노력

학습 목표

- 6·25 전쟁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오늘날 북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
- 1970년대 이후 남북 간에 진행된 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9	<p>1. 북한 사회의 변화</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북한의 정치와 국방의 자주화를 내세운 것으로, 김일성이 반대파 숙청 방편으로 이용한 사상은?</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사상, 사회주의 헌법, 3대 혁명 소조 운동, '신군 혁명',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독재 체제 구축과 권력 세습 과정을 설명한다. • 북한 경제의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외국 자본과 기술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영법을 제정하였음을 설명한다. •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 공단 건설 등 남한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시켜 나간 과정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북한의 경제적 위기와 관련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 인원 현황 그래프를 탐구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상, 문화, 기술의 3대 부문을 혁신하자는 운동으로 김정일이 지도한 것은? 2. 하루에 천 리를 달린다는 말의 기세처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운동으로, 북한이 대중 동원을 위해 활용한 것은?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발표식</p> <p>탐구식</p> <p>문답식</p>	<p>CD</p> <p>PPT</p> <p>CD</p> <p>인터넷, 뉴스</p> <p>101쪽 자료</p> <p>학습지</p>
30	<p>2.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밝힌 성명은?</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 남북 공동 선언의 배경과 내용, 의의를 설명한다. 	<p>문답식</p> <p>강의식</p>	<p>CD</p>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6·15 남북 공동 선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이해시키고, 그 결과 이루어진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 내용을 설명한다. '분단 비용과 통일 편익', 그리고 '통일 비용'을 비교하여 통일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탐구식	PPT
		강의식	CD
		발표식	103쪽 자료
		문답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한 국제기구? 2.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 발표된 선언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 학습 내용 정리

1. 북한 사회의 변화

(1) 부자 세습 체제의 확립

- ① 김일성 독재 체제의 확립
 - 6·25 전쟁 이후: 1인 독재 체제 확립
 - 1960년대: 주체사상 확립
 - 1970년대: 사회주의 헌법 제정
- ② 김정일 후계 체제의 확립
 - 1970년대: 3대 혁명 소조 운동 지도
 - 1980년대: 후계 체제 공식화
 - 1990년대: 1993년 국방 위원장 선출 → 1994년 김일성 사후 권력 승계 → 1인 독재 체제 형성
 - 2000년대: 권력 기반 강화, 핵 개발 천명
- ③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 권력 세습

(2) 북한 경제 체제의 한계와 변화 노력

- ① 6·25 전쟁 이후: 소련과 중국의 원조, 천리마 운동 → 중공업 육성 성과, 경공업과 농업 부진
- ② 1960~1970년대: 계획 경제, 폐쇄적인 경제 체제,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경제 침체
- ③ 1980년대
 - 합영법 공포: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
 - 사회주의 국가 붕괴, 연속적인 자연재해 → 식량, 에너지, 생필품 부족 → 탈북자 증가
- ④ 1990~2000년대
 - 남한과의 경제 교류 확대: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 공단 건설 등
 -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여 경제 위기 지속

2.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

(1) 1950~1960년대: 6·25 전쟁 이후 대립과 갈등 심화

(2)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① 배경: 냉전 체제 완화
- ② 과정: 남북 적십자사 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상 →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③ 내용: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원칙 제시

(3) 전두환 정부: 북한의 수해 원조 물자 수용

(4) 노태우 정부: 남북 기본 합의서 발표

- ① 배경: 독일 통일과 소련 해체,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 ② 북방 외교: 러시아, 중국과 수교 및 동유럽 국가와 외교 관계 수립

(5)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발표

(5) 김영삼 정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북한 수재 때 쌀 지원,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6) 김대중 정부

- ①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확대 노력
- ② 남북 정상 회담(2000):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 ③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확대: 개성 공단 건설, 경의선 복구, 이산가족 방문 재개 등

(7) 노무현 정부: 남북 정상 회담 개최(2007.10) →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00쪽

김일성 우상화를 통해 김일성에 대한 주민의 충성심을 강화하고 주민을 통제하여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거대 동상을 세워 참배를 유도하고 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01쪽

2000년대에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급증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02쪽

1971년부터 남북한 적십자사 간에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상봉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 교환 행사로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때부터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1월 현재 제17차 상봉까지 이루어졌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03쪽

- 분단 비용: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한 장병들의 희생, 대륙 이동로가 차단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 비용과 항공 비용, 군 병력 투입으로 인한 산업 인력 활용의 어려움 등
- 통일 편익: 북한 지하자원과 관광 자원의 본격적인 개발 효과, 철도 등이 북한을 통과하여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어 시간과 물류비 절약, 북한 지역 주민의 인권·자유 신장·기회 향상 등에 이바지, 민족의 동질성 확보 및 증대 등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03쪽

- (1) 주체사상, (2) 천리마 운동, (3) 합영법
- ㉠-㉡-㉢
- 2000년과 2007년에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고, 개성 공단이 건설되어 경제 교류가 활발해졌다.

● 내용 더하기

● 천리마 운동

29차시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천리마와 같은 속도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노력을 다하자는 노동 강화 운동으로 1956년 12월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다. 좋은 성과를 올린 사람에게는 ‘천리마 기수’ 등의 칭호를 부여해 경쟁심을 유도하였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대중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점차 한계를 드러냈다.

● 북한의 경제 위기와 변화

29차시

개인 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 텃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

- 1998년 개정된 헌법 내용 중 일부

북한은 폐쇄적인 경제 체제와 과도한 국방비 지출, 국제수지의 악화와 외채 문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등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고자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국외 동포의 북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서방 국가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실패하였다.

또한 1991년 12월 함경북도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 무역 지대’로 설정하고 외자 유치를 도모했으나 이마저도 실적이 미미했다. 이에 1994년 신탁합영법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 헌법을 수정하여 개인의 사유를 일정 부분 인정하였고, 금강산 관광 사업(1998)을 추진하는 등 남한과의 경제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 북한 주민의 하루 생활

29차시

북한 주민은 통상 6시를 전후하여 일어난다. 아침 식사는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일반 주민은 잡곡밥이나 강냉이밥을 주식으로 먹는다. 나물국, 배추김치, 무생채가 일반적인 반찬이며 계란 프라이나 소시지를 곁들이는 주민은 생활 형편이 나은 경우에 속한다.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시에서 7시 30분까지 출근하며, 평양 등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이나 무궤도 전차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지방에서는 30~40분씩 걸어서 출근하는 주민도 많다. 정규 작업은 8시부터 12시, 14시부터 18시까지 모두 8시간이다. 작업은 일반 노동자의 경우 50분 노동에 10분 휴식을, 농민의 경우 100분 노동에 2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12시에 오전 작업이 끝나면 점심시간이다. 점심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상당수 여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가서 떡, 두부 밥, 빵, 파배기, 밀주 등 장마당에 내다 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13시부터 14시까지 사무직 등 정신노동자를 중심으로 오침 시간을 갖기도 한다. 농촌의 경우에는 특성상 규정된 시간에 퇴근하기보다는 하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퇴근한다.

오후 작업이 끝나면 작업 종화 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 생

활 총화를 한다. 생활 총화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아 비판’과 동료의 과오를 지적하는 ‘호상 비판(상호 비판)’을 의미하는데, 비판의 기준으로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의 ‘말 씬’을 인용해야 한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질적인 일과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장 가동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특별한 노동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오전에 퇴근해 장사를 하기도 한다.

퇴근하면 개인 시간을 갖는데, 전기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저녁을 먹으려 한다. 저녁 식사는 주로 국수, 감자, 고구마 등으로 해결한다. 식사 이후에는 주로 남자의 경우 집 수선을 하거나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자의 경우 빨래와 집안 청소를 한 후 장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 농장원들의 경우에는 텃밭에 나가 김을 매거나 산에 가서 딸감을 마련하기도 한다.

- 통일부 통일 교육원, 2012 북한 이해 중에서

● 우리식 사회주의

29차시

1980년대 말에 동유럽 공산 정권이 몰락하고, 소련까지 해체되자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에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우리식으로 살자.’는 구호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면서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창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역설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과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 나갈 것 등을 교육하고 있다.

● 1950~1960년대의 남북 관계

29차시

멸공 의식 함양을 위한 우리의 맹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 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성하자.
- “민족 공동생활과 도의”

이승만 대통령은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내세웠다. 이 때는 북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남북 간의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평화 통일론을 내세운 진보당의 조봉암이 큰 지지를 받자 이승만 정부는 평화 통일론이 반공에 어긋난다는 구실로 정당 등록을 취소하고,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몰아 사형을 선고하였다.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장면 내각은 북진 통일론을 폐기하고 유엔 감시 아래 북한 총선거론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민간을 통한 북한과의 교류와 협상 주장을 일절 거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시 보수 세력은 ‘선 건설 후 통일론’을 주장한 반면에, 혁신 세력은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 협상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일 논의는 5·16 군사 정변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 7·4 남북 공동 성명(1972)

30차시

1.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긴장 상태 완화, 상대방 중상 비방 중지, 무장 도발 중지,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고 방지 합의
3.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 제반 교류 실시
4. 적십자 회담 성사 적극 협조
5.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 전화 개설
6. 이후락 부장과 김여주 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운영
7.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

197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 정세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 4월 7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석한 미국 탁구 대표팀을 마오쩌둥이 중국에 공식 초청하였고 미국 대표단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를 계기로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하던 미국과 중국은 회담을 가졌고, 1972년 2월 닉슨의 베이징 방문이 실현되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8월 12일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북한에 제의하고, 8·15 경축사에서 평화 통일을 강조하였다. 북한도 이에 응해 8월 20일 남북한 적십자 관계자의 판문점 회담이 열렸고, 1972년 2월 17일까지 19회에 걸쳐 회동하였다. 박정희와 김일성은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남북 적십자 회담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접촉에 나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이 성명은 국민적 합의 없이 비밀 회담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정치적 대화 통로를 마련하고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 1991) 30차시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자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1990년 9월 제1차 고위급 회담을 시작한 이후 15개월 만에 채택된 합의서로, 서문과 4장 25조로 이루어져 있다.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으로 교환하고, 9월 제8차 고위급 회담에서 3개 부속 회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동 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1992) 30차시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 통제 공동 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 남북 정상 회담 30차시

남북 정상 회담은 제5공화국 때 처음으로 제안되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취임사와 1994년 취임 1주년 기자 회견에서 김일성 주석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북한은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또한 남북 정상 간의 대화가 필요함을 몇 차례나 강조하였고, 특히 2000년 3월 독일 방문 중 “한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은 회담의 개최 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따라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첫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이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평양에 도착하였으며, 6·15 남북 공동 선언문에 기초하여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30차시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 30차시

한국에서 이산가족이 생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원인은 6·25 전쟁이다. 6·25 전쟁 직전까지 북한의 공산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은 350만 명에 달하고, 이 시기에 월북한 사람들도 많았다. 게다가 중국군의 참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할 때 함께 남하한 북한 주민도 거의 백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외에도 1953년 6월 반공 포로로 석방된

27,000여 명과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19,000여 명의 미송환 국군 포로, 8만 4천여 명에 이르는 남북 인사 등도 전쟁이 낳은 이산가족들이다.

이러한 이산가족들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64년 도쿄 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10월 9일 당시 북한 육상 선수로 출전한 신금단 씨가 서울에서 온 아버지와 상봉한 일이다. 비록 7분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나라 이산가족 상봉사의 첫 페이지를 열었다.

이산가족의 교류는 크게 두 갈래로 추진되어 왔다. 하나는 남북 정부 간 또는 적십자사 간의 접촉을 통한 공식 교류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제3국에서의 비공식 교류이다.

1971년 정치적 이유로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은 1984년 여름, 북한이 수재 물자 제공을 제의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1985년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남북한에서 각각 50명의 고향 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했는데, 모두 75명의 이산가족이 92명의 가족 및 친척과 감격적인 만남을 나눌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산가족 교환 방문의 공식 교류가 시작된 계기는 2000년의 남북 정상 회담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17차 이산가족 상봉까지 이루어졌다.

● 개성 공단 조성

30차시

2000년 8월 현대 아산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2년 11월 개성 공업 지구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이듬해 6월 개성 공단 착공식이 열렸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4년 12월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남북 합작품 1호가 생산되었다.

2011년 12월 현재 123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업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49,866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2011년 12월 말까지 총 15억 649만 달러의 제품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2억 달러에 이르는 제품이 수출되었다.

● 금강산 및 개성 관광

30차시

개성 관광은 2005년에 현대 아산과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가 개성 시범 관광에 합의하여 세 차례에 걸친 시범 관광이 시작되었다. 2007년 11월 3일 현대 아산과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 간에 '남북 관광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제

결하여 2007년 1월 5일부터 개성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성은 서울에서 70여 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당일 관광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볼 수 있어 새로운 북한 관광 수요를 창출하였다. 2008년 11월 28일까지 누적 관광객 11만여 명에 달하였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로 2008년 11월 29일 중단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통일부 통일 교육원, 2012 통일 문제 이해 중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동해항에서 금강호가 북한의 장전항을 향하여 출항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에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2003년 9월 육로 관광이 시작되고, 현대 아산이 관광 상품의 다양화, 관광 코스 개발 및 프로그램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진행하여 다시 정상화되었다. 이후 2006년에는 외금강 호텔이 개장되고, 2007년에는 내금강 관광이 시행되는 등 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우리 측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7월 12일부터 금강산 관광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은 2010년 4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측 자산을 몰수·동결하였고, 2011년 4월 현대 아산의 관광 사업 독점권을 취소하였다. 2011년 5월에는 우리 측 재산을 침해하는 '금강산 국제 관광 특구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2007)

30차시

1. 남과 북은 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4. 현재의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 회담을 추진한다.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자 회담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간다.
5.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하여 경제 협력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이를 위하여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치하고, 경제 특구를 건설하며 한강 하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6.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하여 역사·언어·교육·과학 기술·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

05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학습 목표

-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사태를 통해 역사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임을 파악할 수 있다.
-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사례를 찾아보고, 정부와 학자, 학생 입장에서의 대처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
-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 바람직한 국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갖는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1	<p>1. 중국과의 역사 논란</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중국이 2002년부터 동북 3성에 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 공정의 추진 과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교과서의 도움말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역사 왜곡의 사례를 찾아 발표하게 한다. • 국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역사 왜곡의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 중국의 역사 왜곡을 통해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 고대사 체계를 바로 세우고 역사 갈등을 학문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설립한 단체는?</p>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발표식</p> <p>강의식 토론식</p> <p>문답식</p>	<p>CD</p> <p>역사 부도, PPT</p> <p>105쪽 자료</p> <p>학습지</p>
32	<p>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문제</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러 · 일 전쟁 중에 일본이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 섬은?</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영토에 편입시켰음을 설명한다. •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사법 재판소에 넘기려는 의도를 파악하게 한다. • “삼국사기”의 기록, 안용복의 활동,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의 내용을 찾아보게 한다. •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와 가수 김장훈 씨의 독도 광고 등의 활동을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 일본의 역사 왜곡을 통해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p> <p>발표식</p>	<p>CD</p> <p>신문 기사</p> <p>CD, PPT</p>

32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는?</p>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문답식	학습지
----	---	-----	-----

● 학습 내용 정리

1. 중국과의 역사 논란

(1)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 ① 배경: 한족 이외에 50여 개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
- ② 내용: 소수 민족을 통합하고자 오늘날의 중국 영토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역사관 강조

(2) 동북 공정

- ① 동북 3성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된 문제 연구

- ②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
- ③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

(3) 우리의 대응

- ① 동북아 역사 재단 설립: 한국과 중국 간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학문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
- ② 중국에 고구려와 발해사 공동 연구와 유적에 대한 공동 조사 요구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문제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① 러·일 전쟁 중 일본이 독도 불법 편입
- ②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2005)
- ③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넘겨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함.

(2) 우리의 대응

- ① 독도에 대한 영토 수호 조치 강화
- ②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홍보하는 활동 전개

(3)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 ① 역사 교과서 왜곡
 -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 정당화 등 한·일 관계의 고대사와 근현대사 왜곡
 -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
- ② 역사 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
 - 한·중·일 시민 단체와 학자의 역사 공동 연구, 집필
 - 제4회 역사 NGO 세계 대회 개최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04쪽

중국 변방에서 전개된 중국 지방 정권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06쪽

정치 상황(일본에 대한 충성과 통합), 다른 국가와의 영토 분쟁(중국과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 쿠릴 열도 4개 섬), 독도의 경제적 가치(해저 광물, 어업 자원) 등 여러 가지 배경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07쪽

1. (1) 대한 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로 울릉도를 울도라 부르고 관할 구역으로 울릉 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명기하고 지배하였다.
- (2)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국제법상의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다.

2. 동북아 역사 재단 독도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dokdohistory.com>

외교 통상부 독도 홈페이지: <http://dokdo.mofat.go.kr>

경상북도 독도 홈페이지: <http://www.dokdo.go.kr>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07쪽

1. 동북 공정
2. 예시 답안 지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으며, 또 과거 돛토리 현 답변서(1695)나 태정관 지령(1877) 등에서 일본과 한국의 정부가 교섭하면서 울릉도와 그 부속 섬인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인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이전까지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였다. 이에 반해 대한 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군 관할 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1905년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한국 주권 강탈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며 국제법상 무효이다. 무

엇보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에서 독도를 일본 통치 행정 범위에서 제외시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확인하였고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 내용 더하기

● 동북 공정

31차시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 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이라고 보아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견해를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동북 공정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로서, 고구려사 뿐만 아니라 고조선사와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동북 공정의 목적은 사전에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 공언해 둌으로써 북한의 붕괴나 남북 통일 등 향후의 상황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 한국의 만주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더 나아가 과도기 한반도에 대한 개입 여지를 확보해 두려는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

● 태정관 지령문(1877)

32차시

일본해 내 죽도 외 1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품서

죽도(울릉도) 소속 관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시마네 현으로부터 별지의 질품이 와서 조사한 바, 해당 섬의 건은 원록 5년(1692)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별지 서류에 적시한 바와 같이……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들었지만,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품의하나이다.

태정관은 이를 조사하여 1877년 3월 20일자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 외 일도(一島)의 건에 대하여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일본 메이지 정권 수립 후 일본 정부는 체제 정비를 위해 전 국토의 정밀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마네 현은 일본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 지도에 포함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를 결정해 달라는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내부대신이 5개월 반의 조사 끝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니 이것을 관리들에게 주지시키라는 결정과 지령문을 작성하여 내려보냈다.

● 대한 제국 칙령 제 41호(일부, 1900)

32차시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은 군수로 개칭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할 것.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1951)

32차시

연합국 총사령부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 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취급하였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946. 1. 29.)를 적용하였다.

● 일본이 알아야 할 100가지 진실 일부

32차시

일본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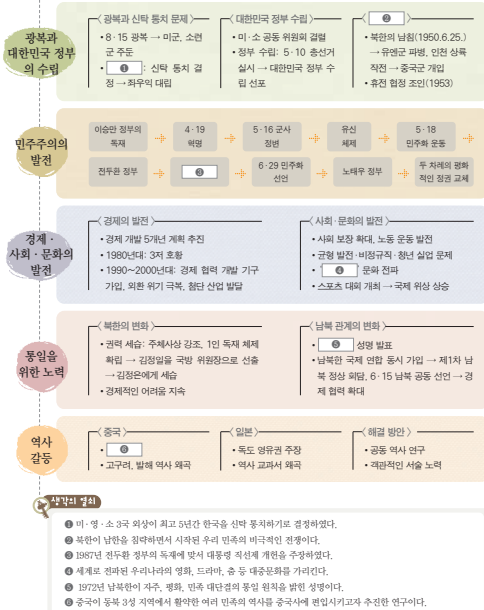
1.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 측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제하지 않는 섬이다.
3. 일본은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즉 당시 주민들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 등에 헌상했다.
4.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자신의 불법 도일에 대한 취조 시에 행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기록에 없는 내용도 있다.

우리의 견해

1. 일본이 근거로 내세우는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는 개인이 만든 사찬 지도로, 1779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2. 한국의 수많은 관찬 문서에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3. 도해 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4. 안용복의 도일 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동북아 역사 재단

대단원 마무리 풀이



과제 풀이

-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전개된 시기에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자.

<과제 작성 요령>

- 194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중요 사건과 우리 가족사의 중요 사실을 조사한다.
-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 주변 어른에게 당시 사건이 일어날 무렵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물어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한다.
-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교과서 서술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가족이 겪어 온 이야기를 사실 등의 자료와 함께 쓴다.

1 연표 작성 예시

시대	한국사	우리 가족사
1945~1950	1945 8·15 광복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1953 6·25 전쟁 1960 4·19 혁명	1951 할아버지 가족이 평안도에서 남하
1961~1970	1961 5·16 군사 정변 1962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1963 박정희 정부 수립 1964 베트남 파병 1970 새마을 운동 시작	1961 작은할아버지 대학 진급 1967 아버지 태어남 1970 어머니 태어남
1971~1980	중간 생략	중간 생략
1981~1990	중간 생략	중간 생략
1991~2000	1991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7 외환 위기 2000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1995 부모님 결혼 1999 내가 둘째 아들로 태어남
2001~현재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2010 G20 회담 개최	2011 중학교 입학

2 현대사 속의 우리 가족 이야기 작성 예시

역사적 사건	교과서에서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1997 외환 위기	95쪽 "1997년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원도 받지 못한 어려움에 처하였다."	1997년 아버지와 어머니는 형을 낳은 기쁨도 잠시 큰 고민에 빠졌다. 실업이 온 나라를 휩쓸고.....

내용 확인하기

1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1945년 말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고자 열린 회의이다.

2 6·25 전쟁

- 1950년에 일어나 1953년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막을 내린 전쟁이다.

3 6월 민주 항쟁

- 전두환 정부가 박종철이 고문을 받아 사망한 사건을 은폐하고, 대통령 간접 선거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어났다.

4 한류

- '겨울 연가', '배용준' 등이 대표적 예이며,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 현상까지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5 7·4 남북 공동

- 냉전 체제의 완화가 주요 배경이었으며,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6 동북 공정

-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과제 풀이하기

| 지도 요령 |

교과서를 활용하여 주요 사건을 찾아 정리하고, 해당 시기에 일어난 가족의 일을 찾아 발표하게 한다. 교과서에 나타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가족의 일을 포함시켜 보도록 한다.

| 예시 답안 |

역사적 사건	교과서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6·25 전쟁	86쪽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7월 말에는 낙동강까지 진출하였다."	할머니께서는 전쟁이 일어나자 급하게 짐을 꾸려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6월 민주 항쟁	92쪽 "이후 전국에서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에 참여한 큰아버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한·일 월드컵	98쪽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나는 친구들과 응원 도구를 들고 시청 앞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하였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 ㉠ 한반도에서의 미·소 양군 철수
- ㉡ 조선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
- ㉢ 최고 5년 간의 신탁 통치 결정
- ㉣ 한국 문제의 국제 연합 상정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02 다음의 활동 내용과 관계 깊은 인물은?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어 치안과 행정 및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확보에 노력하였다.
-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모든 민족 구성원이 단결하여 통일 정부를 세우자며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① 김구 ② 이승만 ③ 여운형
- ④ 박헌영 ⑤ 김규식

03 다음은 6·25 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다. 이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 유엔군의 참전 ㉡ 중국군의 개입
- ㉢ 반공 포로의 석방 ㉣ 인천 상륙 작전 실시

- ① ㉠-㉡-㉢-㉣ ② ㉠-㉣-㉡-㉢
- ③ ㉡-㉠-㉢-㉣ ④ ㉡-㉢-㉣-㉠
- ⑤ ㉣-㉠-㉡-㉢

04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6·25 전쟁 직전에 치러진 국회 의원 총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국회 의원 간접 선거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강행하였다.

05 다음 가상 신문의 내용과 관계 깊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문

시위에 돌입한 대학생들의 총결기

부정 선거를 규탄하며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오늘 정오경 경무대 못 미처 중앙청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였다. 경찰 측에서는 공포와 최루탄을 발사하는 한편 소방차까지 동원하여 붉은 물을 데모 학생에게 뿌렸고, 학생들은 투석으로 대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 ②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 ③ 계엄군의 폭력 진압에 의해 결국 해산되었다.
- ④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독재 정권이 무너졌다.
- ⑤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06 다음 글의 밑줄 친 ‘헌법 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1970년대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부는 냉전 체제의 완화, 야당 세력의 성장 등 대내외적인 정세 변화에 대비하여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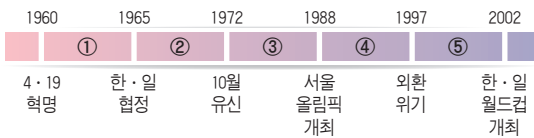
보기

- ㉠ 대통령의 연임을 제한한다.
- ㉡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 ㉢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한다.
- ㉣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07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면?

- 시민 1: 자네, 그 소식 들었나? 대통령이 금융 실명제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네.
- 시민 2: 나도 뉴스에서 봤다네. 이제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려는가 보네.



08 각 정부와 해당 시기의 경제 상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박정희 정부-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② 전두환 정부-수출액 100억 달러의 달성
- ③ 김영삼 정부-G20 세계 정상 회의 개최
- ④ 김대중 정부-3저 호황에 따른 고도 성장 달성
- ⑤ 노무현 정부-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09 다음 글의 (가)에 들어갈 정책으로 옳은 것은?

북한은 계획 경제와 폐쇄적인 경제 체제, 과도한 국방비 지출 등으로 경제 침체에 빠졌다. 특히 1970년대에는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외채 문제도 심각해졌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가) .

- ①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추진하였다.
- ③ 외국 자본 도입을 위해 합영법을 공포하였다.
- ④ 주체사상을 내세워 경제 자주화를 추진하였다.
- ⑤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해 주식제를 실시하였다.

10 다음과 관계 깊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옳은 것은?

-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 집권
- 외환 위기 극복
- 한·일 월드컵 개최

- ① 남북 기본 합의서 발표
- ②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③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 ④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발표
- ⑤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발표

11 다음은 수업시간에 정리한 노트의 일부이다. ㉠~㉡의 내용 중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 1) 중국과의 역사 갈등
 - (1) 내용: ㉠ 중국의 동북 공정 추진
 - (2) 대응: ㉡ 동북아 역사 재단 설립, ㉢ 고구려사와 발해사의 공동 연구 제안
- 2) 일본과의 역사 갈등
 -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다케시마의 날' 제정(2005)
 - (2) 대응: ㉤ 국제 사법 재판소에 소송 제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 01 ③ 02 ③ 03 ② 04 대통령 직선제 05 ④ 06 ⑤ 07 ④
- 08 ① 09 ③ 10 ③ 11 ⑤

IV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산업 혁명과 시민 혁명으로 일어난 서양 근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다룬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산업 사회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파악하고,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국민 국가를 성립시켰음을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국민 국가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 증기 기관의 사용

01. 산업 혁명의 전개와 자본주의의 확립에서는 영국 혁명을 통해 입헌 군주정이 확립되는 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산업 혁명이 공장제 기계 공업의 발달을 촉진하고 근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였음을 파악한다. 또한 산업 혁명이 다른 여러 국가들로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산업 혁명으로 나타난 결과를 이해한다.

02.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에서는 신분제 사회의 갈등과 불만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의 진행 과정 및 특징을 파악한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체제가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고, 빈 체제의 수립으로 변화된 유럽의 국제 질서를 파악한다.

03.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에서는 세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의 성립으로 귀결된 미국 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한편 유럽의 지배를 받던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독립 양상과 그 변화를 살펴본다.

04. 근대 국민 국가 체제의 성립에서는 19세기 이후 유럽 각국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전개 양상과 러시아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난 19세기 유럽 문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05.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 분할에서는 산업 혁명을 거쳐 독점 자본주의를 확립한 서구 열강이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을 확보하고, 국내에 축적된 자본을 투자하고자 세계 여러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음을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열강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립하였음을 살펴본다.

2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혁명의 전개 과정과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 프랑스 혁명의 정치 · 사회적 배경과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유럽의 지배에서 독립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한 국민 국가와 이전의 절대 왕정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 제국주의 국가의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침략 과정을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로 인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기른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33	01. 산업 혁명의 전개와 자본주의의 확립	1. 영국 혁명	권리 청원, 청교도 혁명, 항해법, 명예혁명, 권리 장전, 내각 책임제
34		2. 산업 혁명의 전개	산업 혁명, 공장제 기계 공업, 인클로저 운동, 증기 기관
		3.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	산업 사회, 근대 자본주의, 노동 문제, 도시 문제, 사회주의 사상
35	02.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	1. 프랑스 혁명	구제도의 모순, 삼부회 소집, 프랑스 혁명, 국민 의회, 인권 선언, 국민 공화, 공포 정치, 통령 정부
36		2. 나폴레옹 시대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 전쟁, 대륙 봉쇄령, 빈 체제, 4국 동맹
37	03.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발전	1. 미국의 독립 ~ 2.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보스턴 차 사건, 독립 선언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크리요요, 이달고, 먼로주의, 볼리바르, 산마르틴
38		2.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3. 남북 전쟁과 미국의 발전	서부 개척, 남부와 북부의 대립, 남북 전쟁, 노예 해방, 대륙 횡단 철도
39	04. 근대 국민 국가 체제의 성립	1. 자유주의의 발전	7월 혁명, 2월 혁명, 차티스트 운동, 자유 무역 정책
40		2. 민족주의의 발전과 19세기 문화	카보우르, 가리발디, 관세 동맹,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알렉산드르 2세, 다윈의 진화론, 낭만주의, 사실주의
41	05.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 분할	1. 제국주의의 등장	독점 자본주의, 제국주의, 사회 진화론, 인종주의
42		2.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 분할	동인도 회사, 아편 전쟁, 미국 · 에스파냐 전쟁, 리빙스턴과 스탠리, 종단 정책, 횡단 정책, 벨기에의 콩고 점령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산업 혁명의 배경과 전개의 흐름을 잡아 주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음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 나폴레옹의 몰락 과정보다는 그 체제의 유산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한다.
- 미국 독립 전쟁은 성문 헌법의 제정, 정교 분리의 실현, 노예제 폐지 등의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 라틴아메리카가 독립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서구 제국주의에 종속되었으며, 원주민과 유럽 인의 혼혈이 식민 지배 지속에 기여하였음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제국주의는 독점 자본주의, 인종주의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케네스 O. 모건, "옥스퍼드 영국사", 한울, 2009.
- 에릭 홉스봄, "혁명의 시대", 한길사, 1998.
- 노명식,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1789 ~ 1871", 책과함께, 2011.
- 하워드 진, "살아 있는 미국 역사", 추수밭, 2008.
- 존 찰스 채스틴, "아메리카노: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투쟁", 길, 2012.
- 강미현, "비스마르크 평전", 에코리브르, 2010.
-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루츠 판 다이크, "처음 읽는 아프리카의 역사", 웅진 지식하우스, 2005.
- 한국 서양사학회 <http://www.westernhistory.or.kr/>

01

산업 혁명의 전개와 자본주의의 확립

학습 목표

- 청교도 혁명의 전개 과정과 명예혁명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산업 혁명이 영국에서 먼저 일어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 각국에서 전개된 산업 혁명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할 수 있다.
- 산업 혁명으로 근대 자본주의가 확립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산업 혁명이 가져온 사회 변화상을 정리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3	<p>1. 영국 혁명</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찰스 1세의 처형 이후 영국의 정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세기 초 성립한 스튜어트 왕조가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의회를 탄압했음을 설명한다. • 청교도 혁명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크롬웰의 정책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명예혁명의 과정을 설명하고 권리 장전의 내용을 통해 영국의 입헌적 전통을 탐구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 의회군을 지휘하여 청교도 혁명을 승리로 이끈 인물은?</p>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 발표식 탐구식</p> <p>문답식</p>	<p>CD</p> <p>113쪽 자료</p> <p>학습지</p>
34	<p>2. 산업 혁명의 전개 ~ 3.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방적기의 개량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배경과 그 진행 및 확산 과정을 설명한다. • 산업 혁명에 따른 여러 변화를 탐구하게 하고, 이를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 배경과 연결하여 파악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 면방직 기계의 동력으로 사용되었으며, 공장제 기계 공업의 발달을 촉진한 것은?</p>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 탐구식</p> <p>문답식</p>	<p>CD</p> <p>115쪽 자료 117쪽 자료</p> <p>학습지</p>

● 학습 내용 정리

1. 영국 혁명

(1) 청교도 혁명과 공화정 수립

① 혁명 전의 영국 사회

- 신흥 세력 등장: 지주층과 자영 농민층, 도시 상공 시민 계층
- 청교도 세력의 확대: 의회의 다수 의석 차지

② 청교도 혁명(1649)

- 배경: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전제 정치 → 의회의 권리 청원 제출 → 찰스 1세의 의회 해산
- 과정: 국왕파와 의회파의 군사적 충돌 → 크롬웰의 의회군 승리

- 결과: 찰스 1세 처형, 공화정 수립

③ 크롬웰의 독재 정치: 항해법 제정, 의회 해산, 엄격한 생활 강요 → 크롬웰 사후 왕정 복고(찰스 2세 즉위)

(2) 명예혁명

① 배경: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 가톨릭 교회 부활 시도

② 전개: 의회의 제임스 2세 폐위 → 왕녀 메리와 남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1688), 권리 장전 승인

③ 결과: 권리 장전 승인(입헌 군주정의 토대)

④ 입헌 정치의 발전: 18세기 초, 조지 1세의 취임(하노버 왕조) → 내각 책임제 수립(의회 중심의 입헌 정치 발전)

2. 산업 혁명의 전개

(1) 영국 산업 혁명

① 의미: 기계의 발명과 기술 혁신으로 공장제 기계 공업이 진행되면서 일어난 산업상의 큰 변화

② 배경

- 영국 국내: 모직물 공업 발달
- 광대한 해외 시장: 식민지 정탈전 승리로 세계 무역 주도 → 해외의 원료 공급지와 시장 확보, 자본 축적
-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 인클로저 운동 이후 농민의 도시 이동으로 노동력 확보, 석탄·철 등 공업 원료 풍부
- 정치적 안정: 시민 혁명으로 정치와 사회 안정, 경제 활

동의 자유 보장

(2) 산업 혁명의 확산

① 면직물 공업: 방적기와 방직기의 발달 → 공장제 기계 공업 발달

② 산업의 확대: 기계·제철·석탄 산업의 급속한 발전 → 교통(철도, 증기선), 통신(유선 전신, 전화) 수단 발달

③ 산업화의 확산

- 19세기 초반: 프랑스(섬유 공업 중심), 미국(면직물·제철·기계 공업)
- 19세기 중엽: 독일(정부 주도, 제철·기계·화학 공업)
- 19세기 후반: 일본, 러시아(정부 주도)

3.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

(1) 근대 자본주의의 확립

- ① 도시화: 새로운 도시 출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 → 도시 중심의 산업 사회로 변화
- ② 생활의 변화: 대량 생산, 교통수단 발달 → 풍부하고 편리해진 인간 생활
- ③ 산업 구조의 변화: 산업 자본가 성장 → 근대 자본주의 확립

(2) 여러 사회 문제의 발생

- ① 노동 문제: 빈부 격차,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여성과 미성년자의 고용 등
- ② 사회 문제: 도시화에 따른 주택 부족, 위생 불량
- ③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 공상적 사회주의(공동 생산과 공동 소비에 바탕을 둔 이상 사회 건설 주장, 오언·생시몽 등) → 과학적 사회주의(노동자의 투쟁을 통한 공산주의 사회 건설 주장, 마르크스·엔겔스 등)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12쪽

크롬웰이 이끌었던 의회군은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13쪽

1. '권리 청원'과 '권리 장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영국 혁

명은 국왕 세력과 시민의 대표인 의회 세력 간의 대립 과정이었다.

2. 입법권, 과세권, 의원 선거의 자유, 의원의 면책권 등

3. '권리 장전'의 승인으로 입헌 군주정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입헌 군주제이란 전제 군주제과는 달리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 체제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14쪽

방직기의 개량은 증기 기관의 사용과 함께 공장제 기계 공업의 발달을 가져와 산업 혁명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16쪽

영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 모습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하여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17쪽

1. 장시간 노동, 미성년자 고용, 낮은 임금 등 노동 문제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 문제, 위생 문제 등
2. • 긍정적인 면: 공장제 기계 공업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철도를 비롯한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인간 생활이 풍부해지고 편리해졌다.
• 부정적인 면: 장시간의 노동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 계층과 자본가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하였고, 여성과 미성년자 고용 등의 노동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위생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17쪽

1. (1) ×, (2) ○, (3) ○, (4) ×
2. (1) 입헌 군주정, (2) 자본주의
3. (1) ㉠, (2) ㉡

● 내용 더하기

● 청교도 혁명(1642~1649)

33차시

1603년에 스튜어트 왕조를 연 제임스 1세와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영국 의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였다. 찰스 1세는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고 모든 이에게 국교(영국 국교회)를 강요하였으며,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는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이에 의회가 국왕에게 무력으로 저항하면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다.

왕을 지지하는 국왕파와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의회파가 충돌하였고 의회파가 승리하여 정권을 잡고 1642년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청교도 혁명’이라는 명칭은 의회파 중 청교도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의회파가 젤트리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교도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왕파와 의회파 모두 유산층이었으며, 상인·법률가·귀족·젤트리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혁명의 계급적인 성격보다는 종교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크롬웰의 독재 정치

33차시

크롬웰은 젤트리 출신의 경건한 청교도이자 의회의 의원이었다. 국왕파와 의회파의 충돌이 일어나자 크롬웰은 철기군을 지휘하여 의회군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그는 입헌 군주정을 주장하는 장로파를 몰아내고, 찰스 1세를 처형한 다음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크롬웰은 스스로 ‘호국경’에 올라 풍기 단속법을 만들고, 이를 위해 각 지방에 소장(小將)을 배치함으로써 5년 동안 독재 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는 청교도적 정치를 펼쳐 도박을 금지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며,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 극장을 없애 버렸다. 이를 어기면 가혹한 조치가 뒤따랐다.

이러한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독재 정치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크롬웰이 사망하자 찰스 2세가 다시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당시의 청교도 문화의 전통은 현재까지 영국과 미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 요소로 남아 있다.

● 인클로저 운동

34차시

• 제1차 인클로저 운동(15세기 말~17세기 전반)

15세기 말 영국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양모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주들은 목양업을 위한 목장을 만들고자 농민을 추방하여 경지를 목장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소농과 빈농이 토지로부터 추방되어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반면,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여 대규모 경작지를 경영하는 자본가적 차지농이 출현하고 지주층이 분화되는 등 농촌 공동체가 해체·재편성되었다.

• 제2차 인클로저 운동(17세기 후반~18세기)

산업 혁명으로 곡물의 가격이 오르자 지주들은 파종기와 제초기 사용 등의 기술 개량에 힘입어 개방 경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유지를 사유지화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18세기 중엽 이후에 두드러졌다. 또한 자본가가 소농민의 토지를 흡수하여 대농장을 경영함으로써 농업의 자본주의 경영이 이루어졌다.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의 결과, 영국 농촌 공동체에는 근대적인 사적 소유권 개념이 확립되어 갔고, 가난한 농민들은 토지에서 쫓겨나 임금을 받고 일하는 농업 노동자가 되거나 도시로 흘러 들어갔다. 이 때문에 산업 혁명에 필요한 노동력은 풍부해졌다.

● 증기 기관 개량

34차시

기계가 널리 사용되면서 수력을 이용한 기계들은 곧 한계에 부딪혔다. 이때 등장한 것이 증기 기관이다. 초기의 증기 기관은 광산에서 석탄을 퍼 올리거나 물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었는데, 제임스 와트는 1769년에 이를 개량하여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그는 볼턴이라는 사업가와 동업하여 자신이 설계한 효율적인 증기 기관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와트는 자신이 발명한 모든 기관에 대해 특허를 얻었고, 볼턴과 함께 영국 전역에 로터리 증기 기관을 500대 이상 설치하였다.

증기 기관이 새로운 동력으로 등장하면서 방직 공업뿐만 아니라 제철·석탄 공업에도 널리 사용되어 산업 혁명을 뒷받침하였다.

기계 명칭	발명가	연대	특징
나는 북	존 케이	1733	1명의 직공이 방직공 10명분의 면사를 생산함.
제니 방직기	하그리브스	1764	1명의 직공이 8가닥의 면사를 동시에 뽑음. 실이 거침.
수력 방직기	아크라이트	1769	수력을 이용하여 면사를 대량 생산, 실이 굵음.
물 방직기	크럼프턴	1779	제니 방직기와 수력 방직기의 장점을 합침.
직조기	카트라이트	1785	증기 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함.
조면기	휘트니	1792	면화에서 씨를 분리하는 기계로, 종래 50명이 하던 일을 1명이 감당함.

● 증기 기관차와 증기선

34차시

1808년, 트레비식은 런던에 작은 원형 궤도를 만들고 레일 위로 달리는 증기 기관차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이 기관차는 최고 시속 16km로 달렸다. 사람들이 이 기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서로 내기를 걸었기 때문에 “나 잡아봐라 (Catch me who can)”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 이후 스티븐슨이 발명한 증기 기관차는 1830년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시속 약 46km로 달리는 데 성공하였다. 증기 기관차의 운행으로 많은 화물을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었으며, 석탄 산지와 면직물 공업 단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811년부터 미시시피 강을 따라 증기선

이 운행되었고, 1840년에는 증기선을 이용한 대서양 정기항로가 열렸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원료와 상품의 장거리 수송과 신속한 수송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전 세계의 시장을 연결하여 산업 및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스티븐슨이 제작한 증기 기관차, 로켓호(런던 과학 박물관)

● 통신 혁명

34차시

교통수단과 더불어 통신 수단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1840년 영국에서는 값싸고 빠른 ‘페니 우편 제도’가 시행되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어서 모스의 유선 전신(1844), 벨의 전화(1876),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1896) 등이 발명되면서 통신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전화는 발명된 이후 빠르게 보급되었는데, 당시에는 교환원이 통화를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다. 전신은 1851년에 도버 해협, 1866년에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해저 케이블이 최초로 부설됨으로써 전 세계의 통신 거리가 크게 단축되었다.

●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 영국

34차시

19세기 영국은 세계 최대의 해양 국가이자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지닌 국가였다. 1851년 런던의 수정궁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는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행사였다. 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수정궁은 영국의 높은 건축 기술을 보여 주었고, 이곳에 전시된 각종 새로운 기계들은 각국의 참관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 영국은 전 세계 석탄의 3분의 2, 철과 면직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였으며, 유럽 대륙은 물론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자유롭게 무역 활동을 펴고 있었다.

● 산업 혁명기의 도시 생활

34차시

1800년경 약 90만 명이던 런던의 인구는 1900년에는 47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탄광 지대나 철강 생산지 같은 공업 지역의 인구도 급증하였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였다. 당시 런던의 노동자 거주 지역에서는 한 방에 보통 6~8명이 살았으며,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길거리에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뒤섞여 넘쳐 흘렀다. 그러나 1840년대부터 행정 당국이 공중위생법을 제정하고 배수 체계와 하수도 시설을 마련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다.

● 산업 혁명기의 노동 문제

34차시

산업 혁명 이후 여성과 어린이들은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하였다. 빈곤한 여성들은 출산 2~3일 전까지 일하였으며, 아이를 낳고 나면 곧바로 공장으로 되돌아갔다. 또한 비위생적 노동 환경 때문에 폐 질환이나 신경통 등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다.

공장제 아래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은 나이 어린 노동자들이었다. 어린이들은 저항이 어려웠기 때문에 채찍질 같은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밤새 일하도록 강요당하였다. 당시 어린이 노동자의 평균 수명이 17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은 이들에 대한 착취가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어린이에 대한 노동 착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1833년에는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9세 이하 어린이의 노동을 금하였으며, 9~13세 어린이는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다. 또한 1842년에 제정된 광산법은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여성이 광산의 지하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사회주의의 등장

34차시

산업 혁명 이후부터 자본가와 노동자 간 빈부 격차가 한층 벌어졌다. 이에 따른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심해지는 등 노동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회주의가 등장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평등이나 협동 같은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며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 사회의 건설을 꿈꿨다. 그들은

모든 공장, 광산, 철도, 증기선, 은행, 보험 회사 등을 국가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초기 사회주의

34차시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산업주의의 악폐를 해결하여 이상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 프랑스의 생시몽은 평화적 방법으로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의 공유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최초의 사회주의자였다.

이상적 모범 사회 건설을 직접 실천에 옮긴 사람은 기업가 오언이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면방직 공장을 운영하면서 노동 조건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면 더 많은 이윤이 창출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 로버트 오언이 꿈꾼 이상적 공동체(베이트, 1838)

오웬은 협력을 통해 지주, 자본가, 노동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

34차시



▲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동상(독일 베를린)

무엇 때문에 가난한지,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소망을 지녔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려면 혁명이 필요한데, 노동자들이 계급 투쟁을 통해 정권을 획득하고 단결함으로써 이상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카를 마르크스는 1848년 2월 혁명 직전에 엥겔스와 공동으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소책자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02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

학습 목표

-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파악할 수 있다.
- 나폴레옹의 정복 활동이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5	<p>1. 프랑스 혁명</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p> <p>1. 제3 신분에 속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p> <p>2. 인권 선언에 담긴 프랑스 혁명의 혁명 정신은 무엇인가?</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 전 구체제의 모순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혁명의 정치적 · 경제적 배경을 파악하게 한다. •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인권 선언문이 혁명의 기본 정신인 자유, 평등, 우애를 천명하였음을 설명한다. • 혁명 전쟁을 거치면서 프랑스 혁명이 과격화하고, 공포 정치가 실시되었음을 설명한다. • 국민 의회, 입법 의회, 국민 공회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 프랑스 혁명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프랑스 혁명의 의의를 파악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p>1. 루이 16세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집한 신분제 의회는?</p> <p>2. 프랑스 혁명 시기에 공포 정치를 주도한 인물은?</p>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발표식</p> <p>강의식</p> <p>탐구식</p> <p>문답식</p>	<p>CD</p> <p>118쪽 그림, 도표</p> <p>119, 120쪽 자료</p> <p>학습지</p>
36	<p>2. 나폴레옹 시대</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나폴레옹은 어떤 과정을 거쳐 황제가 되었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폴레옹이 실시한 내정 개혁의 내용과 “나폴레옹 법전”의 의의를 설명한다. 	<p>문답식</p> <p>강의식</p>	<p>CD</p>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을 석권한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과 러시아 원정의 실패로 몰락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 나폴레옹 몰락 후 수립된 빈 체제가 유럽의 질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려 했음을 파악하게 한다. • 나폴레옹 전쟁의 전개와 붕괴 과정을 파악하고,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을 발표하게 한다. 	강의식	123쪽 자료
	[정리]	발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 평가 실시: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정신을 반영하여 편찬한 법전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 학습 내용 정리

1. 프랑스 혁명

(1) 혁명의 배경

① 구체제의 모순

- 제1 신분(성직자), 제2 신분(귀족): 부유층, 면세 특권
- 제3 신분(시민 계급, 농민, 노동자): 참정권 행사 불가, 중과세 부담

② 계몽사상 확산: 시민 계층의 자유와 권리 추구

③ 국가 재정의 위기: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사치가 원인

(2) 혁명의 전개

- ① 혁명 발생: 삼부회 소집(1789) → 국민 의회 결성 → 국왕의 탄압 → 바스티유 감옥 습격 → 혁명의 전국 확산

- ② 국민 의회: 인권 선언문 발표(자유, 평등, 우애 등 혁명의 기본 정신 천명), 입헌 군주제 헌법 제정

- ③ 입법 의회(1791):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의 프랑스 압박 → 혁명 전쟁 시작 → 혁명의 과격화

(3) 혁명의 과격화

- ① 국민 공화: 공화정 선포, 루이 16세 처형(1793) → 반프랑스 동맹군(영국, 오스트리아 등)의 프랑스 공격

- ② 공포 정치: 로베스피에르의 혁명 정부 조직 → 물가 억제, 징병제 실시, 혁명 재판소 설치(수많은 사람들 처형)

- ③ 혁명의 변천: 로베스피에르 몰락, 총재 정부 수립(1795) → 나폴레옹의 쿠데타,통령 정부 수립(1799)

2. 나폴레옹 시대

(1)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① 나폴레옹의 등장

- 집권: 통령 정부 수립(독재 정치) → 국민 투표로 황제 즉위(1804)
- 내정 개혁: “나폴레옹 법전” 편찬, 프랑스 은행 설립 등

② 나폴레옹 전쟁

- 지상전: 오스트리아 격파, 신성 로마 제국 해체, 프로이센과 러시아에 승리
- 트라팔가르 해전: 영국에 패배 → 대륙 봉쇄령 선포(영국 고립 목적)

- 몰락: 대륙 봉쇄령에 대한 유럽 각국의 반발, 러시아 원정 실패 → 유럽 국가들의 반프랑스 동맹 결성 → 워털루 전투 패배로 나폴레옹 실각

- 의의: 유럽 각지에 프랑스 혁명의 정신 전파 →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 촉진

(2) 빈 체제의 성립

- ① 빈 회의의 개최: 나폴레옹 몰락 후 전후 처리 문제 논의 →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 주도, 유럽을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되돌림.

- ② 빈 체제 등장: 자유주의 · 민족주의 운동 탄압, 체제 유지를 위해 4국 동맹 체결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18쪽

고위 성직자와 귀족을 제외한 시민 계급, 농민, 노동자들이 제3신분에 속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19쪽

1.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에는 자유, 평등, 국민 주권, 천부 인권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 압제에 대한 저항, 사상과 언론의 자유, 소유권의 신성불가침 등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프랑스 국기의 파란색은 자유, 흰색은 평등, 붉은색은 우애를 의미한다.

깊이 있는 역사 ▶▶ 교과서 121쪽

인권 선언 채택, 공화정 선포, 공포 정치

생각 열기 ▶▶ 교과서 122쪽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통해 통령 정부를 수립한 후 내정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투표를 거쳐 황제에 즉위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23쪽

1. (1) ㉠, (2) ㉡, (3) ㉢
2. (1) 자유, 평등, 우애 (2) 대륙 봉쇄령
3. (1) ×, (2) ○, (3) ○
4. 4국 동맹

● 내용 더하기

● 구제도의 모순(Ancien Régime)

35차시

혁명 이전 프랑스 신분 체제는 제1 신분인 성직자, 제2 신분인 귀족, 제3 신분인 평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구제도, 즉 앙시앵 레짐이라고 불린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 구조는 전 인구의 2%에 불과한 성직자와 귀족들이 광대한 토지와 관직을 차지하고, 세금을 면제받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제3 신분은 부유한 금융업자에서 일용 노동자, 빈농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층이 다양하였으나, 모두 정치적 권리가 없었고 특권 신분을 부양하기 위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제3 신분 중에서도 세력이 큰 시민 계급은 길드, 경제 통제, 국내 관세와 통행세 등의 철폐와 도량형의 통일 등을 희망하였다. 공증인, 변호사, 대변인, 문필가, 작가, 의사, 학자 등의 지식인 계급은 계몽사상을 열렬히 지지하여 혁명 초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농민은 봉건적 부담과 국가에 대한 세금 등으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이었다.

● 제3 신분

35차시

첫째, 제3 신분이란 무엇인가? 전부이다. 둘째, 오늘날까지 그들의 정치적 지위는 어떠하였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3 신분의 의회와 두 특권 신분의 의회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앞의 것은 2,500만 명을 대표하여 국민의 이익에 관해 토의하는 데 반해, 뒤의 것 둘은 소집될 필요가 있기는 해도 기껏해야 2만 명의 권한을 갖는 데 불과하며, 자기의 특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결국 제3 신분은 국민 의회를 구성할 것이다.

-시에에스, “제3 신분이란 무엇인가?”

시에에스는 삼부회 선거에서 제3 신분의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삼부회의 소집이 다가오던 1789년에 “제3 신분이란 무엇인가?”를 발표하여 제3 신분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민 의회’의 명칭도 그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 삼부회 소집

35차시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미국 독립 전쟁을 지원하느라 재정 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 또한 1780년대 후반의 연이은 흉작과 대규모 실업 사태로 경제적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루이 16세는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인 튀르고를 재정 총감으로 기용하여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튀르고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려 하였으나, 귀족 세력을 대변하는 고등 법원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고등 법원은 새로운 세금의 부과는 오직 ‘삼부회(전국 신분회)’의 권한이라며, 삼부회의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귀족들은 국가의 재정 위기를 이용하여 과거에 상실하였던 정치 권력을 회복하고, 절대 왕권을 제약하여 귀족 정치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결국 파산에 직면한 루이 16세는 1614년 이래 소집되지 않았던 삼부회를 소집하였다. 삼부회가 1789년 5월에 소집되자, 제3 신분에 속한 프랑스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를 계기로 사회 개혁을 요구하였다. 당시 삼부회는 성직자 298명, 귀족 270명, 평민 대표 59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귀족과 성직자 대표들은 신분별 표결을 주장하였으나, 제3 신분은 머릿수에 따른 표결을 요구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다.

● 테니스 코트의 서약

35차시

삼부회는 활동 범위와 표결 방식(신분별 표결 대 머릿수 표결)을 둘러싸고 초기부터 어렵게 진행되었다. 논란이 거

습되자 제3 신분의 대표들은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를 부정하고 독자적으로 국민 의회를 구성하였다.

1789년 6월 17일 국왕이 회의장을 폐쇄하자 국민 의회에 찬동하는 의원들은 6월 20일에 테니스 코트에 모여 “제3 신분이 곧 국민이며, 국민 의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를 재조직할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천문학자 J. S. 바이이를 초대 의장으로 선출하고, “국민 의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사회의 질서를 회복시킬 때까지 결코 해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 제3 신분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결국 6월 27일 국왕은 성직자, 귀족들의 국민 의회 합류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왕권에 공공연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최초의 사건이며 프랑스 혁명의 발단이 되었다.

●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35차시

테니스 코트의 서약 이후에도 왕과 귀족이 국민 의회에 협조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베르사유에 군대를 집결시킨 국왕의 조치는 무력 탄압의 전조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파리 시민들은 자치 위원회를 조직하여 시 행정을 접수하고 국민 방위군(민병대)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무기와 탄약을 찾아 바스티유로 향하였다(1789. 7. 14.). 17세기 전반부터 정치범의 감옥으로 이용되어 온 바스티유 감옥은 전제 정치의 상징이었다.

바스티유에 도착한 군중들이 사령관에게 무기를 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령관은 발포 명령을 내려 98명의 군중이 사살당하였다. 그러자 군중들은 보복 공격에 나서 바스티유를 함락시킨 뒤, 파리에 임시 혁명 정부를 수립하였다.

파리 시민들의 바스티유 공격을 계기로 혁명이 본격화되었다. 그 후 다른 지방 도시에서도 시민 계급이 중심이 되어 자치 위원회와 국민 방위군을 조직하는 등 혁명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농민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져서 귀족의 성이나 영주의 저택을 공격하고, 봉건적 권리가 적힌 문서를 불사르는 일이 빈발하였다.

● 여성의 행진(빵의 행진)

35차시

봉건제의 폐지와 인권 선언의 발표에도 여전히 식량은 부족하였다. 결국 파리의 여성들은 빵을 요구하며 파리로 왕을 데려오고자 베르사유로 행진하였다. 쇠스랑, 꼬챙이 등으로 무장하여 집단적으로 정치 행동을 하는 여성들의

행렬 뒤로 국민 방위대와 남성들이 뒤따랐으며 왕은 인민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여성들의 정치 의식이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 봉건적 특권의 폐지

35차시

프랑스 농민은 농노 신분이 아니면서도 장원의 영주에게 세금을 내는 등 각종 봉건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다. 생산물 지대, 부역, 영주가 독점하고 있는 물방앗간·제빵기·포도 압착기 등의 사용료, 토지를 상속받거나 양도할 때 내는 이전세, 교회에 내는 십일세 등이 대표적인 예였다.

바스티유 감옥 사건 이후 지방에서 농민들이 영주의 저택을 습격하여 봉건적 부담의 폐지를 요구하자, 국민 의회는 1789년 8월 4일에 봉건제 폐지를 결의하였다. 위에 열거한 농민의 부담 외에도 신분적 차별, 면세 특권, 영주의 수렴권, 길드제 등 구제도의 모순과 관련된 각종 봉건적 특권들이 폐지되었다. 생산물 지대와 같은 봉건적 공납만은 보상금을 받고 폐지하기로 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샀으나, 1793년에 이를 무상으로 폐지함으로써 농민은 모든 봉건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 선언)

35차시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로우며 평등하게 태어나고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일반적인 선에 기초하여 마련된다.

제2조 모든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권리란 자유, 재산권, 안전 및 억압에 대한 저항을 뜻한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유래하지 않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도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오직 법에 의해서만 정해진다.

제5조 법은 오직 사회에 해로운 행위만을 금지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으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제9조 모든 사람들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체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필수적이 아닌 한 모든 가혹한

대우는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제17조 재산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므로, 누구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또한 소유자가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고는 빼앗기지 않는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8. 26.) 중 일부

1789년 8월 26일 국민 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였다. 흔히 ‘인권 선언’이라고 약칭되는 이 선언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국민 주권, 언론·출판·신앙의 자유와 법적 평등, 재산의 불가침 등을 선언한 것으로 새로운 시민 사회의 기본 원리를 밝힌 민주주의 역사상 귀중한 문헌 중 하나이다.

제1조에서 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한 ‘인권 선언’은 언론, 출판 및 신앙의 자유와 법적 평등 및 과세의 평등을 규정하고, 국민 주권과 재산권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가 성립의 목적이 이러한 자연권의 보존에 있다 하여 압제에 대한 저항권도 자연권에 포함하였다.

● 프랑스 의용군의 출정

35차시

프랑스 국가 -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

나가자, 조국의 아들들이여, 영광의 날이 왔도다.
폭군의 압제에 맞서 피 묻은 깃발을 올렸다. 피 묻은 깃발을 올렸다.
들판에서도 들리는가. 저 포악한 군사들의 외침이
그들은 이곳까지 닥쳐와
그대들의 아내와 아들들을 죽이려 하고 있도다.
(후렴)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무리를 지어라.
진격하라, 진격하라!
적들의 더러운 피가
우리의 발을 적실 때까지!

프랑스 혁명이 격화되자 주변 여러 나라의 전제 군주들은 혁명의 파급을 두려워하였다. 국외로 망명한 프랑스 귀족들은 국경 지대에서 반혁명 운동을 부추기고 외국에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프랑스 국내에서도 반혁명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와 프로이센·오스트리아 동맹군

사이에 혁명 전쟁이 발발하였다. 동맹군 사령관은 프랑스의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왕권을 재확립할 것을 천명하고, 반역 행동을 하면 프랑스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프랑스는 패전을 거듭하였다. 이에 입법 의회가 “조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호소하자 전국 각지의 의용군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이때 의용군들이 불렀던 진군가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였다. ‘라 마르세예즈’는 ‘마르세유 군단의 노래’라는 뜻으로, 당시 전국에서 모여든 의용군 중 마르세유에서 온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진군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이 곡은 1792년 4월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장교 루제 드 릴(Rouget de Lisle)이 만든 곡으로, 1879년에 정식으로 프랑스 국가(國歌)가 되었다.

● 단두대(기요틴, Guillotine)

35차시

1789년 국민 의회에서 의사 기요탱(J. I. Guillotin)의 제안으로 기요틴이 사용되었다. 프랑스 혁명이 계속되던 공포 정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처형되었으므로, 인민 재판이 지니는 공포의 상징물이 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전인 16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는 ‘메이든(Maiden)’이라 불리는 단두대가 사용되었고, 이탈리아에서도 13세기부터 단두대가 사용되었다.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수많은 지롱드파 인물들은 물론 공포 정치를 단행했던 로베스피에르도 기요틴으로 처형되었다.

●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François Marie Isidore Robespierre)

35차시

삼부회 소집이 선포되었을 때 로베스피에르(1758~1794)는 32세의 나이로 아라스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로베스피에르는 국민 공회에서 지롱드파를 제거하고 1793년 여름부터 자코뱅파를 이끌면서 민주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는 봉건적 공납을 무상으로 폐지하였으며, 능동 시민(직접세를 납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과 수동 시민(투표권이 없는 시민)의 구분을 폐지하고 보통 선거를 규정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다. 로베스피에르의 이상은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소생산자의 수를 늘리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생산하고 교환할 수 있는 소생산자 사회를 이루는 것이었다.

혁명이 점차 과격해지면서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

등은 반 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여 프랑스로 쳐들어왔고, 프랑스 국내에서도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코뱅파는 반 프랑스 동맹과 혁명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내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공포 정치를 실시하였다. 혁명 정부는 공안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혁명 재판소를 두어 수천 명의 반대파(주로 왕당파) 세력을 약식 재판을 거쳐 처형하였다. 하지만 테르미도르의 반동(1794. 7. 27.)이 일어나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

● 루이 16세

36차시

루이 16세는 소박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호평을 받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수선했던 프랑스의 새로운 희망으로 기대와 축복을 받으며 즉위하였다.

당시 절대 왕정과 경제 발전은 중세의 봉건 질서를 많은 부분 무력화했고, 새롭게 부르주아 계급을 등장시켰다. 하지만 부르주아는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농민들은 개혁으로 토지를 잃고 도시의 빈민으로 내몰렸고, 루소 등의 계몽사상가들은 귀족의 특권과 왕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루이 16세는 튀르고를 앞세워 백성을 위하는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국민 의회를 해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루이 16세는 1791년 발효된 헌법에 따라 입헌 군주국인 프랑스의 국가 원수가 되었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791년 6월, 왕실 가족과 국경을 비밀리에 넘다가 발각되었다. 루이 16세는 탕플 탑에 유폐되었고, 12월에 재판을 받으려 끌려나올 때까지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옥살이를 하였다. 1793년 1월 21일 오전 10시 “국민이여, 나는 죄 없이 죽는다.”고 외쳤으나 그의 목소리는 북소리에 파묻혔고 기요틴에서 목이 떨어졌다.

● 나폴레옹 법전

36차시

1804년 3월, 뒷날 “나폴레옹 법전”이라 불리게 되는 “민법전”이 공포되었다. 3장 2,281조로 이루어진 이 법전은 프랑스 인권 선언의 정신을 비롯하여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구상되었던 것들을 성문화하였다. 이 법전은 법 앞의 평등, 사상과 신앙의 자유, 취업의 자유, 사유 재산의 존중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혁명의 이념과 맞지 않는 부

분도 있었으며, 노동자와 고용주, 남자와 여자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였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업적 중에서 법전의 편찬을 가장 중요시하여, “나의 영광을 영원히 기리며 없앨 수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제정한 법일 것이다.”라고 자신하였다. 그의 말처럼 나폴레옹 법전은 근대 유럽 법전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까지 큰 수정 없이 실시되었다.

● 대륙 봉쇄령과 러시아 원정

36차시

반 프랑스 동맹을 주도해 온 영국을 굴복시키려던 나폴레옹의 계획이 트라팔가르 해전의 패배로 좌절되자, 나폴레옹은 1806년에 베를린 칙령을 공포하여 영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였다.

이는 영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동시에 프랑스의 국외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① 영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단행, ② 영국과의 통상 및 통신 금지, ③ 영국 선박의 대륙 출입 금지와 위반 선박의 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과 그 식민지의 교역까지 봉쇄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영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던 대륙의 국가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었다. 결국 대륙 봉쇄령은 대륙 내의 반 프랑스 감정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가운데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어긴 러시아를 침략하였다. 나폴레옹 군대는 모스크바로 진격하였으나, 러시아는 계획적으로 모스크바를 불태우고 후방으로 깊숙이 퇴각하였다. 군대 보급이 끊기고 혹한이 닥쳐오자 나폴레옹 군대는 후퇴하였다. 후퇴하는 프랑스군은 러시아 군과 러시아 농민의 끊임없는 게릴라전에 휘말려 원래 병력의 5분의 1 정도만이 프랑스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각지에서는 해방 전쟁이 벌어졌고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독립하였다. 1814년 봄, 반 프랑스 동맹군이 파리에 입성하고 나폴레옹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결국 나폴레옹은 엘바 섬에 귀양을 가게 되고,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파리로 돌아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 베토벤의 교향곡, ‘영웅’

36차시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 그의 용맹을 떨치고 있던 시기에 베토벤은 교향곡 ‘영웅’을 구상하였다. 당시 청각을 상실하는 비극적 운명에 놓인 베토벤은 빈 주재 프랑스 대사로부터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영웅으로 여겼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불굴의 의지로 폭군을 물리치고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공화주의자라고 생각하고, 나폴레옹을 위해 교향곡을 작곡하였다.

그러나 베토벤의 제자였던 리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도 역시 속물이었군. 그도 결국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민중의 권리를 짓밟고 그 누구보다도 더 지독한 폭군이 되겠지!” 라고 부르짖으면서 나폴레옹에게 바치는 헌사 부분을 찢어 버렸다고 한다.

● 빈 회의

36차시

나폴레옹을 엘바 섬으로 귀양 보낸 후 유럽 각국의 황제와 저명한 정치가들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빈 회의는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가 주도하였으며, 크고 작은 90개 왕국과 53개 공국의 군주, 정치가들이 참가하였다. 빈 회의는 역사상 가장 많은 황제와 왕들이 참가한 강화 회의였으나, 오스트리아·영국·러시아·프로이센 등 4대국과 프랑스로 구성된 5개국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빈 회의는 이처럼 외형적으로 화려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참가국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전체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4대국 사이의 이해관계 때문에 의사 진행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조금의 진전도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던 중 1815년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의는 급속도로 진척되어 각국 대표는 121개 조약에 서명하였다.

● 메테르니히

36차시

빈 회의를 주도한 메테르니히(1773~1859)는 오스트리아가 여러 약소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막지 않고서는 정치적 통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는 “자유는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이며, 출발점은 질서이다. 질서라는 개념 위에서 자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여 질서를 강조하고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태도를 보였다.

메테르니히는 프랑스 혁명으로 고조된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정통주의와 복고주의를 내걸고,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유럽의 질서를 되

돌릴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독일 대학생들이 전개한 학생조합(부르셴샤프트) 운동을 탄압하고, 에스파냐·포르투갈·시칠리아에서 발생한 자유주의 혁명의 진압에 앞장섰다.

● 빈 체제의 유럽

36차시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개최된 빈 회의에서는 ‘정통성의 원칙’에 따라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바르샤바 대공국의 대부분을 병합하여 폴란드 왕국을 재건하고 러시아 황제가 왕위를 겸하였다.

오스트리아는 네덜란드를 포기하는 대신 북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를 얻었으며, 프로이센은 작센 왕국의 북반부와 라인 강 중류 지방을 얻었다.

영국은 전쟁 중에 획득한 식민지의 영유를 확인받았으며, 네덜란드는 벨기에를 합병하였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 되었고,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이 성립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혁명 이전의 여러 나라들이 부활하였고, 북부는 오스트리아의 세력 아래 놓였다. 나폴리, 프랑스, 에스파냐 등에서는 옛 왕실이 복귀하였다.

● 나폴레옹이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36차시

- 헤겔: 인간의 역사는 각 민족이 자유롭고 이성적인 ‘세계 정신’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다. 나는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 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고 ‘살아 있는 세계 정신’이라며 감격한 바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 베토벤: 나는 유럽의 낡은 절대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자유를 노래한 프랑스 혁명의 수호자인 나폴레옹에게 바칠 생각으로 교향곡 ‘영웅’을 작곡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의 기대를 배신하고 전제적인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나는 악보의 첫 장을 찢어 버렸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권력을 쫓는 소인배에 불과하다.
- 피히테: 지금 우리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빠져 있다. 나폴레옹은 그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나라 국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
- 고야: 나는 나폴레옹이 보낸 병사들이 에스파냐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저항하는 시민들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광경을 보았다.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03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발전

학습 목표

- 미국 혁명의 원인과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과정과 그 이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미국 남북 전쟁의 원인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남북 전쟁을 전후하여 미국의 산업화가 촉진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7	<p>1. 미국의 독립 ~ 2. 라틴아메리카의 독립(1)</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항에서 차를 바다에 던진 이유는 무엇 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 전반기에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에 식민지가 건설된 과정과, 식민지의 운영 방식을 설명한다. •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경제적 배경과 이 사건으로 초래된 결과를 파악하게 한다. • 지도를 통해 미국의 독립 전쟁 과정을 파악하게 한다. • 미국 독립 선언서에 반영된 사상과 독립 후 수립된 미국 국가 체제의 특징을 탐구하게 한다.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을 크리올요가 주도한 이유를 파악하게 한다. • 멕시코의 이달고 신부가 주도하여 멕시코 독립의 신호탄이 된 ‘돌로레스의 함성’에 대하여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영웅인 볼리바르와 산마르틴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독립 운동을 설명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 근대 역사상 최초의 민주 공화국의 성립을 가져온 혁명은?</p>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p> <p>강의식 발표식</p> <p>강의식</p> <p>문답식</p>	<p>CD</p> <p>124쪽 지도 125쪽 자료 126쪽 자료 127쪽 자료 학습지</p>
38	<p>2. 라틴아메리카의 독립(2) ~ 3. 남북 전쟁과 미국의 발전</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미국은 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치열하게 싸웠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독립 이후 나타난 갈등을 국내적인 측면과 국제적인 측면으로 나누 	<p>문답식</p> <p>강의식</p>	<p>CD</p>

38	어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독립 이후 서부로 영토를 확장해 간 과정을 지도를 통해 파악한다. • 미국의 북부와 남부가 대립하게 된 원인을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남북 전쟁의 전개 과정을 탐구하게 한다. • 남북 전쟁 이후 미국이 국가적 단합을 공고히 하고, 산업화를 이룩하여 강대국으로 성장해 갔음을 이해시킨다. 	강의식 탐구식	128쪽 지도 129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견되어 서부 개척을 촉진한 광물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강의식	128쪽 도표
		문답식	학습지

● 학습 내용 정리

1. 미국의 독립

(1) 식민지의 자치적 운영

① 아메리카 식민지 성립

- 17세기 초 영국의 청교도와 상인의 동부 연안 정착
- 18세기 전반에 13개 식민지 성립

② 식민지의 운영: 각각 의회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운영

(2) 미국 혁명

① 혁명의 배경

-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 강화: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재정 악화 → 식민지에 각종 세금 부과
- 식민지 주민의 반발: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 보스턴 차 사건 발생

② 혁명의 전개

- 미국의 독립 선언: 식민지 대표들의 필라델피아 대륙 회의 개최 →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 독립 선언서 발표(1776)
- 독립 전쟁 전개: 프랑스·에스파냐 등 유럽 각국의 지원
→ 요크타운 전투의 승리
- 결과: 파리 조약 → 13개 식민지의 독립 승인(1783)

③ 아메리카 합중국 성립(1789)

- 근대 역사상 최초의 민주 공화국 탄생(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 헌법 제정: 삼권 분립, 각 주의 자치권 인정 등
- 의의: 프랑스 혁명과 라틴아메리카 독립에 영향

2.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1)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운동

① 독립의 배경

- 에스파냐의 통치력 약화: 크리요를 중심으로 독립 운동 전개
- 미국의 먼로 선언: 유럽 각국의 간섭 배제, 영국의 지지(시장 개발 목적)

② 각 지역의 독립

- 아이티: 프랑스군과 싸워 독립(1804)
- 브라질: 포르투갈 왕실 출신 황제의 독립 선언

③ 독립 운동 지도자들: 에스파냐의 지배에 저항

- 이달고: 민중 봉기 선언 → 멕시코의 독립(1821)

-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해방

- 산마르틴: 아르헨티나, 칠레 등 독립

(2) 라틴아메리카 독립의 한계

① 국내의 갈등: 군벌 통치로 정세가 불안정, 크리요와 비백인계 간의 갈등

② 열강의 경제 침투

- 국내 산업 기반 취약: 농산물·광물 수출, 서유럽과 미국에 경제 의존
- 미국의 영향력 강화: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 → 쿠바 보호국화, 푸에르토리코 획득

3. 남북 전쟁과 미국의 발전

(1) 남부와 북부의 갈등

① 미국의 영토 확장

- 영토 확대: 독립 이후 태평양 연안 진출
- 서부 개척: 캘리포니아 금광 발견(1848) 이후 개척 활발

② 남북 전쟁의 배경: 남부와 북부의 대립

남부	구분	북부
대농장 발달	산업 구조	상공업 발달
노예제 찬성	노예 제도	노예제 반대
자유 무역 지지	무역 정책	보호 무역 지지
분권주의 지지	정치 체제	연방주의 지지

③ 남북 전쟁(1861~1865)

- 발단: 북부 출신 링컨의 대통령 당선 → 남부, 연방에서 탈퇴 → 전쟁 발발
- 결과: 링컨, 노예 해방 선언(1863) → 북부 승리

(2) 미국의 산업화

① 국가적 단합 공고화: 남북 전쟁 이후 대륙 횡단 철도 완성 → 서부 개척 촉진, 광대한 시장 확보

② 산업 발전

- 배경: 노동력 확보(유럽과 아시아의 이민자 급증), 자원 풍부(철과 석탄 등)
- 산업화 이륙: 기술 발전(통신과 전기 분야) → 산업 혁명 진전으로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24쪽

아메리카 식민지의 주민들이 영국 본국으로부터의 차 수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으켰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25쪽

- 천부 인권: 모든 사람은 권리를 부여받았다.
 - 주권 재민: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생겨난 것이다.
 - 저항권: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진정한 국민의 권리이다.
-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의 특징은 연방주의, 삼권 분립, 각 주의 자치권 인정 등이다. 이 헌법에 따라 근대적인 민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26쪽

볼리바르는 남아메리카 북부에서, 산마르틴은 남아메리카 남부에서 독립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 지역 국가들의 화폐에 두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 넣은 것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28쪽

남부와 북부는 정부의 역할 문제, 노예 문제, 무역 문제 등으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29쪽

- 북부: (공장주 · 상공업자), (보호 무역), (연방주의)
남부: (대농장 발달), (찬성)
- 남북 전쟁은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이 발달한 남부와

자유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상공업이 발달한 북부 간의 대립으로 발생하였다. 북부는 연방주의와 보호 무역을 주장한 반면, 남부는 분권주의와 자유 무역을 원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29쪽

- (1) 민주 공화국, (2) 크리오요, (3) 남북 전쟁
- (1) ㉠, (2) ㉡, (3) ㉢

내용 더하기

● 아메리카 13개 식민지 건설

37차시

17세기 이후 영국의 청교도들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전제 정치와 종교적 탄압을 피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였다. 한편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왕으로부터 특허장을 얻어 식민지 경영에 나서는 상인들도 있었다. 이리하여 18세기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에는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13개 식민지는 주(州)마다 독립된 식민지 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광범위한 자유와 자치를 누렸다. 식민지 의회는 토지 소유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라는 규제가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구성되었다.

● 7년 전쟁(1756~1763)

37차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1740~1748)에서 프로이센에게 패배하여 쉴레지엔을 빼앗긴 오스트리아가 그곳을 되찾기 위해 프로이센과 벌인 전쟁이다. 이 전쟁에는 유럽의 거의 모든 열강이 참여하여 유럽뿐 아니라 그들의 식민지

였던 아메리카와 인도까지 전쟁터가 되었다. 주로 오스트리아·프랑스·작센·스웨덴·러시아의 동맹과 프로이센·하노버·영국의 연합이 맞서 싸웠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 성격이 강하였다.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은 포메라니안 전쟁이라고도 불리며,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전쟁은 프랑스가 인디언과 협력하여 영국과 맞섰기 때문에 프렌치·인디언 전쟁(French and Indian War)이라 불린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지원을 받은 프로이센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슐레지엔의 영유권을 확보했으며, 식민지 전쟁에서는 퀘벡 전투에서 승리한 영국이 미시시피 강 동쪽과 캐나다, 플로리다를 획득하였다. 영국은 인도에서도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어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닦았다.

● 보스턴 차 사건

37차시

바다 건너 한 노부인이 살았지.
그녀는 어느 섬의 여왕이었어.
그 딸은 멀리 새 나라에 살았지.
큰 대양을 사이에 두고서
노부인의 주머니에는 금이 가득하였지만
그녀는 만족할 줄 몰랐어.
그래서 딸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였지.
차 1파운드 마시면 3펜스씩
그 차는 딸의 집으로 실려와 바닷가에 내려졌어.
팔팔한 딸은 차를 남김없이 부어 버렸지.
시퍼렇게 들끓는 파도 속으로
그리고 섬나라 여왕한테 소리쳤어.
“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차가 잘 우리나라면 어머니나
실컷 드세요. 저한테서는 한 톨의 세금도 못 가져가요!”

- 당시에 널리 유했던 시, '보스턴 차 사건'

7년 전쟁 이후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된 영국은 이를 해결하고자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여 아메리카 식민지에 인지세, 차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였다.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영국(본국) 정부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여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라는 원칙을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영국은 식민지인들의 반발로 차(茶) 이외의 세금은 폐지하였다. 그런데 1773년 영국이 파산의 위기에 처한 동인도 회사에게 차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고 관세를 면제해 주자, 분개한 식민지인들이 불매 운동을 시작하였다. 1773

년 12월 16일 아메리카 인디언 복장을 한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항에 정박한 동인도 회사 선박 세 척을 습격하였다. 그들은 부둣가에 모인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배에 실렸던 수백 상자의 차를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것이 독립 전쟁의 직접적 발단이 된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이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인들은 홍차를 의식적으로 멀리하게 되었다.

● 토머스 페인의 상식

37차시

내가 말하는 것은 단지 상식에 지나지 않는다. …… “아메리카는 지금까지 영국과 결합해서 번영해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결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주장만 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인류 전체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려면 이 제휴를 중지해야 한다.

1775년 4월 미국 독립 전쟁의 첫 전투가 시작되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메리카 식민지의 지도자들은 영국과의 완전한 결별에 대해 주저하고 있었다. 영국의 막강한 호위 아래 정치적 자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은 “상식(Common Sense)”이라는 소책자를 출간하여 식민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776년 1월에 출간된 이 책은 미국의 독립이 지극히 상식적인 역사적 순리임을 주장하며 일반 대중으로부터 식민지 지도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독립에 대한 미국인들의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순식간에 “상식”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이 책에서 토머스 페인은 확신에 찬 어조로 본국과의 화해를 거부하였으며 독립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과 식민지 해군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식민지가 독립하여 공화국이 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였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식민지의 여론은 독립 쪽으로 기울었다.

●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37차시

제1조 ① 이 헌법에 의해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연방 의회에 속하며,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①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

는 4년으로 한다.

제3조 ① 미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 대법원과, 연방 의회가 수시로 만들어 설치하는 하급 법원에 속한다.

독립 전쟁이 시작되면서 각 식민지는 저마다 헌법을 가진 독립 국가가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륙 회의가 조직되었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연방 규약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각 주는 과세권, 통상권, 화폐 발행권 등에 독립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1783년 전쟁이 끝나고 연방 규약을 둘러싸고 각 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자, 1787년 헌법 제정 의회가 꾸려졌고, 1788년에 연방 헌법이 제정되었다. 연방 헌법은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성문 헌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 주권(주권 재민)을 규정하였다. 둘째, 미국은 주를 단위로 하는 연방 국가로서, 각 주는 독립된 의회를 구성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등 넓은 범위의 자치권을 가지며, 중앙 정부(연방 정부)는 외교, 국방, 화폐 등 국가 전반에 공통되는 부문에 관한 통제 및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셋째, 중앙 통치 기구의 한 부분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채용하였다.

● 아이티의 독립

37차시

16세기 초 중앙아메리카 아이티의 원주민들이 에스파냐의 정복자들에게 전멸을 당한 뒤, 식민 정복자들은 이 섬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들여왔다.

1697년 프랑스는 에스파냐를 완전히 몰아내고 아이티를 자국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18세기 말 5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목화, 사탕수수, 커피 등의 재배에 혹사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티는 프랑스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왔던 아이티 인들은 1791년 8월 22일 투생 루베르튀르, 장 자크 데살린 등의 지휘에 따라 프랑스에 반기를 들었다. 아이티 인들은 영국군과 프랑스 군을 연이어 물리치고, 1801년 7월 1일 “노예제를 영원히 폐지하며,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원칙을 천명한 세계 최초의 흑인 헌법을 선포하였다. 아이티를 포기하지 못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2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아이티군을 진압하였으나, 아이티 인들은 격렬한 저항 끝에 독립을 이룩하여 1804년 1월 1일에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 돌로레스의 함성(Grito de Dolores)

37차시

‘돌로레스의 함성’은 멕시코가 에스파냐를 상대로 독립 전쟁을 시작하면서 질렸던 함성으로, 1810년 9월 16일 돌로레스 교구 사제인 미겔 이달고(1753~1811) 신부가 처음으로 만들어 냈다.

이달고 신부는 에스파냐 식민 정부에 대항한 비밀 계획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탄로 나자 즉각 행동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무장시킨 뒤 정부에 저항하자고 연설하며, “과달루페의 성모(인디언 신앙의 상징)여, 영원하라. 나쁜 정부와 가추피네스(‘말에 박차를 가하는 놈들’이라는 에스파냐 어)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쳤다.

멕시코는 독립 투쟁이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난 1821년 9월 27일 마침내 독립을 달성하여 300여 년에 걸친 에스파냐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났다. 멕시코는 독립을 이룩한 날이 아닌 독립 투쟁을 처음으로 선언한 날을 독립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즉 이달고 신부가 돌로레스에서 독립 선언을 했던 9월 16일이 멕시코의 독립 기념일이 된 것이다.

● 먼로주의

37차시

유럽 여러 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나 속령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간섭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미 독립을 선언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그럴 만하다고 판단하여 그 독립을 승인한 정부에 대해서 유럽 열강이 이를 억압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그 운명을 지배하려고 간섭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두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 미국의 먼로 대통령이 연방 의회에 제출한 교서(1823)

먼로 선언(Monroe Doctrine)은 1823년 12월 미국의 제 5대 대통령 먼로가 의회에 제출한 연두 교서에서 밝힌 외교 방침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과 라틴아메리카 신생 독립국들에 대한 유럽의 간섭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표되었다.

먼로주의의 근원은 워싱턴 대통령 이래의 고립주의 외교이지만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 ①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② 유럽의 아메리카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③ 유럽의 아메리카 식민지 건설 배경의 원칙 등 3개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먼로주의는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 정책 선언에 지나지 않아 국제법으로서 강제력을 가지지는 못하였지만, 각종 국제적 사건에서 사실상 이를 승인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 시몬 볼리바르

37차시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태어난 시몬 볼리바르(1783~1830)는 일찍부터 루소의 자유와 정의, 기본권 사상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볼리바르는 16세가 되던 1799년부터 1802년까지 멕시코와 유럽을 여행하면서 아메리카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었고,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을 경험하였다. 그는 “나 자신의 명예와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 조국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에스파냐의 권력을 무너뜨릴 때까지 나의 몸과 마음은 한시도 쉬지 않을 것이다.”라며 독립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그 후 독립군을 이끈 볼리바르는 1811년 베네수엘라, 1819년 콜롬비아, 1822년 에콰도르를 에스파냐로부터 해방시키고, 세 나라를 합쳐 대(大) 콜롬비아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볼리바르는 독립 전쟁을 계속하여 1821년 페루를 해방시키고, 남부의 알토 페루 지역을 독립시켰다. 알토 페루는 시몬 볼리바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나라 이름을 ‘볼리비아’라고 정하였다.

● 미국의 영토 확장

38차시

1803년 미국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루이지애나를 매입함으로써 영토 확장의 길을 열었다. 루이지애나는 주요 교통로였던 미시시피 강을 포함한 중요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 자금이 필요하였던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그 후 미국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를 사들였으며 텍사스, 오리건 등을 병합하였다.

미국이 북아메리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후에도 인구의 대부분은 미시시피 강 동쪽과 대서양 연안에 몰려 있었다. 그러다가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큰 금광이 발견되어 골드러시(Gold Rush)가 시작되고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1869)되면서 서부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척되었다.

●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38차시

미국에 대한 반란 중에 있는 주, 혹은 주 안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 신분에 놓여 있는 사람은 모두 1863년 1월 1일 이후로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 아칸소,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 앞에서 말한 권한과 목적에 따라 나는 위에 적힌 주 및 주 안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 신분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을, 또 육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선언한다.

- 링컨, ‘노예 해방 선언(1863)’

1861년 노예 해방론자인 링컨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 탈퇴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국가를 세웠다.

링컨은 이를 반역으로 간주하였고, 미국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군사적 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1863년 1월 1일, 링컨은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어떤 주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로 예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라며 ‘노예 해방 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으로 북부는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여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

● 게티즈버그 전투

38차시

미국 남북 전쟁 중 1863년 5월에 북군과 싸워 승리한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2개 군단을 3개로 재편한 뒤 게티즈버그 인근으로 진군하였다. 북군은 조지 미드 장군의 지휘 아래 7월 1일, 게티즈버그 구릉지에서 남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남군은 3일간 거세게 공격하였으나, 북군의 수비에 가로막혀 7월 4일 버지니아로 후퇴하였다. 7월 1일부터 3일 동안 벌여졌던 이 전투를 ‘게티즈버그 전투’라고 부른다.

게티즈버그 전투는 남북 전쟁 중에 벌어진 가장 치열했던 전투이며, 전쟁의 향방을 가른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남군에 밀렸던 북군은 이 전투를 계기로 남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1863년 11월 19일, 링컨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명연설을 남겼다.

우리의 조상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믿음으로 새 나라를 건국하였다.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전사자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링컨, 게티즈버그 연설

04

근대 국민 국가 체제의 성립

학습 목표

-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나타난 각국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다.
- 유럽 각국의 국민 국가 형성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9	<p>1. 자유주의의 발전</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빈 체제를 이끌던 메테르니히는 왜 쫓겨났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림을 통해 프랑스에서 일어난 7월 혁명에 대해 설명한다. •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혁명인 7월 혁명과 2월 혁명의 성격을 비교하여 파악하게 한다. • 영국에서 일어난 차티스트 운동과 선거법 개정 과정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 영국에서 노동자, 농민들이 선거권을 요구한 운동은?</p>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발표식</p> <p>문답식</p>	<p>CD</p> <p>130쪽 그림</p> <p>131쪽 자료</p> <p>학습지</p>
40	<p>2. 민족주의의 발전과 19세기 문화</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독일의 빌헬름 1세는 왜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 즉위식을 했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을 알아보고, 그 통일 과정을 지도를 통해 설명한다. • 비스마르크가 실시한 철혈 정책의 개념과 내용을 탐구하고, 독일의 통일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게 한다. • 러시아의 영토 확장 과정을 지도를 통해 알아보고,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내용과 한계를 설명한다. • 19세기에 낭만주의와 사실주의가 유행한 배경을 파악하고, 그 사조에 해당하는 작품을 찾아 감상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 프로이센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독일 통일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은?</p>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p> <p>강의식</p> <p>문답식</p>	<p>CD</p> <p>132쪽 지도</p> <p>133쪽 자료</p> <p>134쪽 지도</p> <p>135쪽 그림</p> <p>학습지</p>

● 학습 내용 정리

1. 자유주의의 발전

(1)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

① 7월 혁명(1830)

- 원인: 부르봉 왕조의 전제 정치(의회 해산, 선거권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 억압 등)
- 전개: 파리 시민의 봉기 → 샤를 10세 추방 → 루이 필리프 즉위(‘시민의 왕’) → 7월 왕정 수립
- 영향: 네덜란드로부터 벨기에 독립, 폴란드 독립 운동(실패)

② 2월 혁명(1848)

- 배경: 산업 혁명 진행으로 산업 자본가 성장, 노동자층의 증가, 7월 왕정의 보수화(선거권 제한)
- 경과: 중소 시민, 노동자의 선거법 개정 요구 → 정부의 탄압 → 루이 필리프 축출(7월 왕정 붕괴) → 제2 공화정 수립(루이 나폴레옹의 대통령 당선)

- ③ 영향: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으로 메테르니히 추방 → 빈 체제 붕괴, 유럽 각국에서 자유주의·민족주의 운동 전개

(2)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 ① 영국의 발전: 19세기 이후 의회를 통한 점진적 개혁 →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번영

② 선거법 개정

- 배경: 산업 혁명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 산업 자본가의 성장
- 제1차 선거법 개정: 도시의 신흥 상공업자까지 선거권 확대, 부패 선거구 폐지
- 차티스트 운동(1838): 노동자들의 참정권 요구 운동, ‘인민 헌장’(보통 선거, 비밀 투표 등)

- ③ 자유 무역 정책: 곡물법, 항해법 폐지

2. 민족주의의 발전과 19세기 문화

(1) 이탈리아의 통일

- ① 카보우르: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 통일 운동 주도, 국내 산업 육성, 군대 개편 → 오스트리아와 통일 전쟁 → 중 북부 지방 통합
- ② 가리발디: 시칠리아와 나폴리 왕국 점령 → 사르데냐 왕에게 헌납 → 이탈리아 왕국 성립(1861)
- ③ 통일의 완성: 베네치아 병합, 로마 교황령 통합

(2) 독일의 통일

- ① 프로이센의 통일 운동: 관세 동맹의 결성(1834, 독일 통일의 경제적 기반 마련),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의 통일 논의(1848, 실패)
- ②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승리(북독일 연방 결성) →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승리 → 독일 제국 수립(1871)

(3) 러시아의 발전

- ① 러시아의 영토 확장: 시베리아 차지, 폴란드 분할 점령, 크림 전쟁(1853, 발칸 반도 진출 시도)
- ② 러시아의 근대적 개혁
 - 정부: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1861) → 황제 암살 → 전제 정치 강화, 자유주의 운동 탄압
 - 러시아 지식인: 농민 계몽을 통한 사회 개혁 주장

(4) 19세기 사회·문화의 발전

- ① 자연 과학의 발달: 생물학(다윈의 진화론, 멘델의 유전 법칙), 물리학(뢴트겐의 X선, 퀴리 부부의 라듐 발견), 기술(벨의 전화, 에디슨의 전구 발명)
- ② 낭만주의: 계몽사상 비판, 인간의 감정·상상력 중시
- ③ 사실주의: 사회 문제 비판, 인간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묘사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30쪽

프랑스의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발생하여, 빈 체제를 주도하며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던 메테르니히가 추방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32쪽

프랑스와 독일은 이웃국이자 오랜 대립국으로 당시 나폴레옹 전

쟁을 거치며 강대해진 프랑스에 대항해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이기게 되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즉위식을 한 것은 프랑스를 이긴 것에 대한 독일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33쪽

1. 알자스·로렌 지역
2. 비스마르크는 군비를 확장하고 무력을 통한 독일 통일을 추진하였다. 철은 무기, 피는 군사력을 뜻한다.
3. 관세 동맹,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1. (1) 2월 혁명, (2) 차티스트, (3) 농노 해방
2. (1) ㉠, (2) ㉡, (3) ㉢
3. 진화론

● 내용 더하기

● 7월 혁명(1830)

39차시

빈 회의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왕정 복고가 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는 루이 18세가 죽자 그의 동생이며 극우 왕당파의 지도자였던 샤를 10세가 즉위하였다. 샤를 10세는 즉위 초부터 토지를 몰수당한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보상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채를 소유한 자본가나 중산층 시민은 수입의 5분의 1을 몰수당하는 셈이 되었다. 또한 샤를 10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출판의 자유를 금하였으며, 부유한 토지 소유층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여기에 국왕만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등 철저한 보수 반동 정책을 폈다.

자유주의자와 부르주아 계층은 샤를 10세의 정책에 반발하였다. 1830년 7월, 파리 시민들은 사흘 동안 거센 시가전을 벌인 끝에 왕정을 무너뜨렸고 샤를 10세는 영국으로 망명하였는데, 이를 7월 혁명이라 한다. 이로써 부르봉 왕조는 막을 내리고,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었다.

7월 혁명의 결과 7월 왕정이 성립되었으나 이 역시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정치를 실시하여 18년 뒤에 다시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 2월 혁명(1848)

39차시

7월 왕정은 산업 혁명으로 증가한 공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한편, 소극적인 외교 정책으로 국외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산업 자본가들의 불만을 사 결국 2월 혁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혁명 후 조직된 임시 정부는 사회주의자들의 참여 속에 노동권 보장, 노동자 결사의 자유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여 제헌 의회 선거에서 온건한 공화파가 승리하였다.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켰으나 곧 진압되었다. 이어서 새로운 공화제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 헌법에 따라 1848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당선되었다. 루이 나폴레옹은 임기가 끝나 갈 무렵 쿠데타를 일으켜 공화파

를 추방하고,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39차시

산업 혁명을 이룩한 영국은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자유주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1828년에 심사법이 폐지되어 비국교도인 신교도들의 공직 진출이 가능해졌고, 1829년에는 가톨릭교도 해방법이 제정되어 가톨릭교도에게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부여되었다.

한편 산업 혁명 이후에 형성된 산업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였다. 이에 1832년에 선거법을 개혁하여 부패 선거구를 없애고 신흥 상공인 계층에게 선거권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노동자 계층은 여전히 선거권을 갖지 못하였는데, 이들은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여 스스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였다.

● 차티스트 운동

39차시

1832년 영국의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나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보통 선거, 비밀 선거의 실시와 재산에 의한 선거권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는 ‘인민 헌장(People's Charter)’을 만들고 국민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면서 각지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이 운동은 1838년에 시작되어 약 10년 동안 계속되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1848년 전국 노동조합 대회를 끝으로 해산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몇 차례에 걸친 선거법 개정을 통해 거의 대부분 수용되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차티스트(인민 헌장을 지지하는 자)’라 부른다.

● 이탈리아 통일의 세 주역

40차시

● 마치니(1805~1872)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조직된 카르보나리당에서 활동하였던 마치니는 1831년에 자유·독립·통일을 표방하며 ‘청년 이탈리아당’을 결성하였다. 민주 공화정을 바탕으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자 했던 마치니의 운동은 오스트리아의 탄압으로 실패하였으나, 각국의 민족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 카보우르(1810~1861)

1852년에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에 등용된 카보우르는 외교 수완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크림 전쟁에 파병되어 사르데냐 왕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1859년에는 프

랑스 나폴레옹 3세의 지원을 약속받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사르데냐 왕국이 승리하였으나, 사르데냐 왕국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꺼린 프랑스는 약속을 어기고 오스트리아와 단독으로 휴전하였다. 이에 분노한 이탈리아의 애국자들은 사르데냐 왕국 편으로 모여들게 되었으며, 카보우르는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를 통합할 수 있었다.

● 가리발디(1807~1882)

가리발디는 청년 이탈리아당원이었으나, 마치니의 혁명운동이 실패하자 국외로 망명하였다. 그 후 가리발디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독립 전쟁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1848년 이탈리아에서 통일 운동이 다시 전개되자 귀국하였다. 1860년 그는 1,000여 명의 의용군으로 조직된 ‘붉은 셔츠 부대’를 이끌고 시칠리아를 점령하였다. 가리발디의 부대는 토지의 재분배, 교회 재산의 국유화, 공화국 건설을 제시하여 민중의 선풍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마침내 이탈리아 남부를 모두 점령하였다.

가리발디의 이탈리아 남부 해방은 사르데냐 왕국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 기세가 지속될 경우 북부에도 민중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는 이것을 염려하여 국왕 에마누엘레 2세에게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도록 권유하였다. 가리발디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열망한 공화주의자였으나 양측 군대가 충돌할 경우 다시 외세가 개입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해방된 남부를 사르데냐 왕국에 병합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로써 로마와 베네치아를 제외한 반도 전체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에마누엘레 2세는 공식적으로 이탈리아 왕국의 출범을 선언하였다(1861).

● 관세 동맹

40차시

3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었던 독일 지역은 빈 체제 이후 35개의 군주국과 4개의 자유시로 정리되었는데, 그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가장 강대하였다. 1834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 국가들 간에 관세 동맹이 체결되어 독일 통일의 서막이 열렸다.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일 국가들이 관세 동맹에 가담함으로써 독일 내의 통상과 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던 각종 관세가 폐지되어 자유 통상이 가능해졌고, 화폐·어음·도량형·교통 제도 등도 통일되었다. 이로써 독일 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1848)

40차시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는 독일의 3월 혁명 과정에서 성립된 최초의 민주적 통일 의회이다. 1848년 6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독일 각 지역에서 소집된 830명의 대표자들이 독일의 민주적 통일을 위한 헌법 초안 심의에 들어갔는데,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을 통일하려는 소(小) 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 전체를 통일하려는 대(大) 독일주의가 대립되어 심의가 지연되었다. 그 사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반혁명 세력이 대두하여 의회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849년 3월 28일 의회는 가파스로 연방제에 입각한 독일국 헌법을 공포하는 동시에 프로이센 국왕을 독일 황제로 선출하였으나, 프로이센 국왕은 아래에서 올라온 제위를 ‘돼지의 관’이라며 거부하였다. 이어 프로이센은 군대를 보내 헌법 옹호를 위해 독일 남서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였고, 온건파 의원은 의회를 떠났다. 최후까지 남은 좌익 의원들도 6월에 프로이센군의 무력으로 해산되어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는 사라졌다.

● 비스마르크

40차시

프로이센의 용커(지주 귀족) 출신인 비스마르크(1815~1898)는 자유주의 사상에 반대하고 왕정을 지지한 보수 정치인이었다. 그는 1858년 러시아 대사로 부임하였고, 국왕 빌헬름 1세가 군비 확장 문제로 의회와 대립하던 시기에 프로이센의 재상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현재의 큰 문제는 언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과 피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선언하며 이른바 ‘철혈 정책(鐵血政策)’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비 확장을 강행하여 ‘철의 수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1866년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마인 강 북쪽 지역을 병합하였다. 이어 북독일 연방이 구성되고 연방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비스마르크가 북독일 연방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로써 프로이센은 독일 지방 영토의 3분의 2,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큰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1870년에는 프로이센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50억 프랑의 전쟁 배상금과 더불어 산업 지역인 알자스·로렌 지방을 양도받았다. 1871년 1월 18일,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성립이 선포되고 빌헬름 1세가 황

제로 추대되었다. 비스마르크는 1871년 독일 제국 총리가 되어 1890년까지 이 지위를 독점하였다.

● 크림 전쟁(Crimean War, 1853~1856) 40차시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재위 1825~1855)는 오스만 제국의 약화를 틈타 크림 전쟁을 일으켰다. 크림 전쟁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끼리 처음 벌인 전쟁으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야전 병원에서 활동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크림 전쟁은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사이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대한 관리권 다툼으로 일어났다.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성지 관리권을 얻자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가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였으며,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1854년 9월 영국·프랑스·오스만 제국의 동맹군은 약 6만의 대군을 크림 반도에 상륙시키고, 세바스토폴을 포위하였다. 러시아는 세바스토폴 요새를 지키기 위해 11개월이나 사력을 다했으나, 결국 동맹군에 패하여 북방으로 퇴각하였다. 러시아는 크림 전쟁 패전을 계기로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861년의 농노 해방을 비롯한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40차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재위 1855~1881)는 니콜라이 1세의 맏아들로 1861년 농노제를 폐지하여 ‘해방 황제’로 불린다. 크림 전쟁 중에 즉위한 알렉산드르 2세는 1861년 농노 해방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약 2천만 명에 이르는 농노가 토지를 얻고 자유민이 되었지만 무거운 특별 상환세를 물어야 했다.

알렉산드르 2세는 지방 의회(제스트보) 창설, 사법 제도 개혁, 공립 학교 설립, 국민 징병제를 바탕으로 한 군대 개혁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개혁에 착수하였다. 또한 청과 아이훈 조약(1858)과 베이징 조약(1860)을 맺어 우수리 강 동쪽의 연해주를 차지하였으며,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고 일본과 거래하여 쿠릴 열도를 사할린과 교환하였다. 1881년 나로드니키의 일파인 ‘인민의 의지당’의 폭탄 테러로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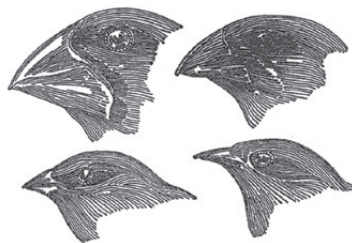
● 다윈의 진화론 40차시

1831년 박물학자 찰스 다윈(1809~1882)은 라틴아메리카 측량 등을 목적으로 출항한 영국 군함 비글호에 승선하

였다. 1835년 비글호가 찾아간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다윈은 26종의 육지 새를 채집하였다. 다윈은 ‘핀치’라는 새의 부리가 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생물의 진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1859년 다윈은 진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의 기원”을 간행하였다.

다윈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 선택설’이다. 자연 선택설은 생물의 어떤 종(種)의 개체 간에 변이가 생겼을 경우에, 그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만이 살아남고, 부적합한 것은 도태된다는 견해이다. 즉 개체 간에는 항상 경쟁이 일어나는데, 자연의 힘으로 선택이 반복되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나중에 다윈은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 대신 사회학자 스펜서가 말한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였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와 스펜서의 사회 진보에 대한 믿음이 연결된 것이다. 다윈의 생물학은 사회 진보를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로 사용되었다.



▲ 먹이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른 갈라파고스핀치

●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 40차시

귀족적 취향의 그림과 고대 그리스·로마의 이상적 화풍이 주류를 이루던 19세기 중엽에 귀스타브 쿠르베(1819~1877)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살아 있는 예술을 만든다(Faire de l'art vivant)!”는 신념에 따라 회화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술적 진실을 추구하였다.

당시에는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층이 출현하면서 부르주아와 노동자인 빈민층의 경제적인 차이가 심해졌는데, 쿠르베는 그러한 사회 현실을 그림에 옮겼다.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1849)’ 속에 나오는 두 인물은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노동자, 구체적으로는 채석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년과 노인이다. 쿠르베는 중노동을 감당하기에 힘겨워 보이고, 낡고 헤진 셔츠와 조끼를 입은 소년과 노인을 모델로 하여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서민들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05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 분할

학습 목표

- 제국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제국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아프리카 침략 과정을 지도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41	<p>1. 제국주의의 등장</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교과서 136쪽 그림에 등장한 세 사람의 직업은 각각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국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산업 혁명 이후 독점 자본주의를 이룩한 제국주의 열강이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 자본의 투자처로 삼고자 식민지를 확대해 갔음을 파악하게 한다. • 제국주의가 민족주의를 명분으로 삼았음을 설명한다. •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가 제국주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고, 제국주의의 성격을 탐구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 다윈의 이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스펜서의 이론은?</p>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p> <p>문답식</p>	<p>CD</p> <p>137쪽 자료</p> <p>학습지</p>
42	<p>2.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 분할</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교과서 138쪽 그림에서 분할 직전의 피자는 어느 나라의 영토를 상징하고 있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과 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 각 지역을 침략하였음을 파악하게 한다. •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침략과 태평양 분할 과정을 지도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 영국과 프랑스의 아프리카 분할 정책을 지도를 통해 이해하고, 파쇼다 사건의 배경과 결과를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 남아프리카와 이집트를 연결하고자 한 영국의 식민 정책은?</p>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발표식</p> <p>문답식</p>	<p>CD</p> <p>138쪽 지도 139쪽 지도</p> <p>학습지</p>

● 학습 내용 정리

1. 제국주의의 등장

(1) 독점 자본주의의 출현

①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

- 산업 구조의 고도화: 산업 혁명 이후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 → 19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에서 중화학 공업 발전
- 독점 자본주의의 등장: 소수의 대기업이 자본을 집중시켜 국내 시장 독점

② 제국주의의 침략: 새로운 공업 원료와 상품 시장을 확보하고, 국내의 잉여 자본을 투자하고자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을 식민지화

(2)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①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결합: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 격화 → 침략적 민족주의 고조

② 제국주의 열강의 활동: 초기, 영국과 프랑스 중심 →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 → 국제적 긴장 고조

(3) 사회 진화론과 제국주의

① 사회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에 기초, 적자생존의 원칙 주장(우월한 국가의 열등한 국가 지배를 합리화)

② 인종주의: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

2.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 분할

(1) 아시아의 분할

- ① 네덜란드: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자와 섬 중심의 향료 무역 독점, 인도네시아 지역 식민지화
- ② 영국: 동인도 회사 설립, 프랑스를 물리치고 인도를 식민지화, 말레이 연방 수립, 아편 전쟁으로 중국 침략 확대
- ③ 프랑스: 동인도 회사 설립, 청·프 전쟁에서 승리한 후 베트남과 캄보디아 차지

(2) 태평양의 분할

- ①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식민지화
- ② 독일·프랑스: 남태평양의 섬들 차지
- ③ 미국: 필리핀과 괌 차지, 하와이 병합

(3) 아프리카의 분할

① 선교사 활동: 리빙스턴, 스탠리 등의 탐험으로 유럽에 아프리카 소개 → 유럽 열강의 침략 본격화

②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

- 영국: 종단 정책(이집트와 케이프 식민지 연결 시도)
- 프랑스: 횡단 정책(알제리에서 동쪽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진출 시도)
- 파쇼다 사건(1898):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의 충돌 → 프랑스의 양보

③ 아프리카 분할

- 벨기에: 콩고 소유 선언 → 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경쟁 촉진
- 20세기 초의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식민지화(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제외)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36쪽

그림에서 풍자하고 있는 세 사람의 직업은 각각 자본가, 군인, 선교사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37쪽

1. 영국은 독점 자본주의 발달로 발생한 사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상품을 팔고 자본을 투자할 넓은 시장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침략하고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다.
2. 서구 제국주의를 우월하고 착한 존재로, 식민지 주민을 열등하고 악한 존재로 구분하여, 우열 관계에 따른 '사회 진화론'의 논리로써 제국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38쪽

제국주의 열강에게 시달리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39쪽

1. ① 민족, ② 독점, ③ 사회, ④ 식민지
2. (1) ㉠, (2) ㉡, (3) ㉢
3. (1) 타이, (2)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 내용 더하기

● 제국주의

41차시

제국주의(imperialism)는 '황제(emperor)'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정치적 의미에서는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하려는 침략주의적 경향을 뜻한다.

서양 역사에서는 열강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국가들을 식민지로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던 1870년경부터 1914년까지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유례 없는 현상에 주목하였고,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지배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식민지에서 착취하려 하였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존 홉슨의 “제국주의 연구”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불황과 실업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식민지 시장 개척, 즉 제국주의라는 것이다. 존 홉슨은 제국주의의 배후에는 과잉 자본을 가진 금융가 계급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존 홉슨의 설명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 사회 진화론

41차시

사회 진화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널리 유행했던 이론으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개인, 집단, 인종에 적용시킨 이론이다. 사회 진화론자들은 인간 사회의 생활을 ‘생존 경쟁’이라 생각하였고, 그 투쟁은 영국의 사회학자 스펜서(H. Spencer, 1820~1903)가 제창한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진화론자들은 사회도 생물계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동질적인 것에서 복잡하고 이질적인 것으로 발전해 간다고 보았으며 사회의 진보를 낙관하였다. 사회 진화론은 인간에 의한 진보의 개념을 역사 발전에서 명백하게 하였으나, 19세기 제국주의 팽창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불경기를 맞아 사회 진화론은 퇴조하였다.

● 원주민 전시

41차시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파리에 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식민지관이 따로 있었는데, 실제 살아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울타리 안에 가둬 놓고 한 달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당시 학자들은 원주민을, 국가를 갖지 않고 사회 조직이 친족 중심이며 교환 경제가 발달하지 않고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는 점을 들어 미개한 야만인, 즉 인간 이하라고 평가하였다.

● 세실 로즈

41차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라는 선전 문구로 유명한 드비어스(De Beers) 사를 창립한 세실 로즈(1853~1902)는 다이아몬드 열풍에 편승해 아프리카로 왔다. 그는 본래 일확천금을 노리고 소광구를 채굴하는 일개 광산업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곧 다이아몬드 광산업에 성공하고 독점권까지 가지게 되었다.

세실 로즈는 이에 그치지 않고, 트란스발 공화국에서 발견된 금광에도 진출하여 금 채굴 사업까지 독점하였다. 그는 케이프 주 식민지의 수상을 맡으며 트란스발 공화국을 침입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였고 수상직도 사임해야 했다. 그러나 세실 로즈가 창립한 드비어스 사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말에서 세실 로즈의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영국은 국토가 좁아 3,6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600만 명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우리 영국의 생산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지구 상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장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영국이 세계 제1의 인종이며, 우리 영국인이 지배하는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인류가 행복해지며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 키플링, ‘백인의 짐’

41차시

‘백인의 짐(The White Man’s Burden)’은 “정글북”의 저자로도 유명한 영국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1865~1936)이 1899년 2월에 발표한 시이다. 키플링은 이 시에서 미개한 인종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백인이 져야 할 짐, 백인의 의무라고 역설한다.

1899년 2월 미국이 에스파냐가 물러난 필리핀을 침략하자, 키플링은 이에 호응하여 ‘백인의 짐·미국과 필리핀 제도’를 발표한다. 여기서 그는 ‘반은 악마, 반은 어린아이’인 필리핀 인을 미국이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시는 모두 일곱 연이며, 각 연은 “백인의 짐을 져라(Take up the White Man’s burden)”로 시작한다.

이 시에서 키플링은 백인이자 영국인인 자신의 인종적 편견과 우월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야만을 개화시키는 것이 힘들고 고되며 그들에게서 보답은커녕 원망과 비난을 받을지라도, 고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동인도 회사

42차시

네덜란드 무역상들이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가진 것은 16세기 중반부터였다. 1600년 영국이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무역 독점권을 동인도 회사에 부여한 것을 보고 자극을 받은 네덜란드도 2년 뒤 동인도 지역에 난립해 있던 무역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세웠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체면치레나마 기독교 전파나 문화화 사업 같은 최소한의 문화적 의무감을 표방했던 데 반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철저하게 이윤 중심으로 움직였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동인도의 여러 섬을 정복하고 특산품을 강제로 재배하게 한 뒤 이를 헐값에 사들이는 등 사실상 제국주의적 수탈을 자행하였다. 인도네시아 자와 섬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원주민들을 값싼 임금으로 착취했고 약탈에 가까운 가격으로 향료 등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들였다.

1652년 영국 크롬웰 정부가 네덜란드 중개 무역상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항해 조례를 발표하면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1차 전쟁이 시작되었다. 네덜란드는 이 전쟁에서 패했고 이후 3차까지 이어진 전쟁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후 네덜란드는 아시아 무역의 주도권을 영국에 넘겨줬다. 또 본거지였던 자와 섬 주민의 저항과 회사 경영진의 부패 등으로 회사의 세력이 점차 축소되었다. 18세기 후반 주력이었던 향료 무역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799년 해산되었다.

◆ 리빙스턴과 스탠리

42차시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리빙스턴(1813~1873)은 1840년에 의료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에 파견되었으나 점차 전도 사업보다는 탐험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는 1852년에 케이프타운을 출발하여 5년 만에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데 성공하였다.

리빙스턴은 1866년에 나일 강의 수원을 찾기 위한 탐험에 나서 온갖 어려움 끝에 콩고 강 지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중 그를 찾아 나선 스탠리를 만나 목숨을 건졌다. 리빙스턴은 그 후에도 조사를 계속하다가 1873년에 이질로 사망하였다.

영국 출신인 스탠리(1841~1904)는 뉴욕 헤럴드지의 기자로 근무하다, 소식이 끊긴 리빙스턴을 찾으라는 회사의 명령을 받고 1871년 아프리카로 건너가 탕가니카 호 부근

에서 병에 걸린 리빙스턴을 구조하였다. 1874년에 다시 행방불명된 리빙스턴을 찾아 아프리카로 간 스탠리는 그곳에서 리빙스턴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다. 스탠리는 탐험을 계속하여 나일 강의 원천인 빅토리아 호를 발견하고, 콩고 강 유역을 답사하여 탐험기를 발간하였다. 그의 탐험기로 콩고에 대한 서구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876년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가 콩고 협회를 창설하고 스탠리를 후원하여 콩고의 400여 개 부족과 주권 이양 조약을 체결하였다.

◆ 벨기에의 콩고 점령

42차시

1878년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가 본국의 78배나 되는 콩고를 사유지로 선언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반발하였다. 아프리카 진출을 둘러싸고 외교적 절충의 필요를 느낀 유럽 열강은 1884년 비스마르크가 소집한 베를린 회의에서 아프리카 문제를 논의하였다. 베를린 회의에서는 ‘먼저 점령하여 지배권을 획득한 나라’에 대한 선점권이 인정되었다. 벨기에의 콩고 점령을 인정한 이 결정을 계기로 유럽 열강은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분할에 나서게 되었다.

레오폴드 2세는 식민지(콩고 자유국)에서 콩고 주민을 동원하여 고무를 채취하였고, 상아를 얻기 위해 코끼리를 죽였으며, 수출용 도로를 내기 위해 토목 공사를 벌였다. 레오폴드 2세의 공포 정치는 노예 무역의 충격 이후 아프리카 최악의 인구 재앙을 가져와 총 1,000만 명에 달하는 콩고 인이 살해되었다.

◆ 3C 정책

42차시

영국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Cape Town), 이집트의 카이로(Cairo), 인도의 캘커타(Calcutta)를 연결하려던 정책이다. 세 도시 이름의 앞글자가 모두 C여서, 3C 정책이라고 부른다. 이 정책은 세 도시를 연결하여 정치적·경제적 세력을 확대하려는 영국 제국주의의 기본 노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케이프타운과 카이로를 연결하는 영국의 종단 정책은 프랑스의 횡단 정책과 충돌하였고, 결국 1898년 파샤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카이로와 캘커타를 연결하는 영국의 정책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 및 독일의 3B 정책과 대립하였다.

이러한 영국과 독일·프랑스 간의 대립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다음은 시민 혁명 과정에서 나온 문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 국민이 국왕에게 청원을 했다고 구금하거나 박해를 받는 것은 위법이다.
- 의회 내에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은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 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 ②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았다.
- ③ 입헌 군주정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 ④ 절대 왕정과 신분 제도가 무너졌다.
- ⑤ 국민 주권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다.

02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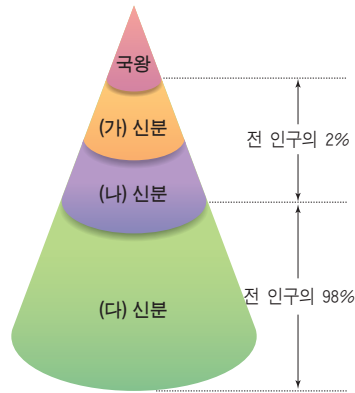
- ① 시민 혁명 이후 정치와 사회 안정
- ② 넓은 식민지 확보를 통한 자본 축적
- ③ 농민들의 도시 이주로 인한 노동력 확보 용이
- ④ 국가 주도의 보호 무역으로 자본가 계층 성장
- ⑤ 석탄과 철 등 공업 발전에 필요한 지하자원 풍부

03 산업 혁명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 소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 ㉡ 공장제 기계 공업이 발달하였다.
 - ㉢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생겼다.
 - ㉣ 산업 사회에서 농업 사회로 전환되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4~5] 다음 도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04 위 표의 (가), (다)에 해당하는 신분을 쓰시오.

05 위 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제도의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나)는 프랑스 혁명의 주체가 되었다.
- ③ (다)는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였다.
- ④ (가), (나)는 오랜 세월 특권을 누렸던 계층이다.
- ⑤ (가), (나), (다)의 세 신분이 모여 구성한 의회가 삼부회이다.

06 다음 사실과 관련이 깊은 인물은?

- 혁명 정부 조직
- 물가 억제, 징병제 실시
- 혁명 재판소를 통해 공포 정치 실시

- ① 크롬웰
- ② 워싱턴
- ③ 나폴레옹
- ④ 마르크스
- ⑤ 로베스피에르

07 나폴레옹 집권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 투표를 거쳐 황제에 즉위하였다.
- ②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승리하여 유럽을 제패하였다.
- ③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였다.
- ④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담은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였다.
- ⑤ 프랑스 은행 설립, 국민 교육 실시 등 내정 개혁을 추진하였다.

08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운동과 관련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인: 오랫동안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
- ② 현구: 아이티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먼저 독립했어.
- ③ 예주: 크리요를 중심으로 독립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
- ④ 은혁: 멕시코에서는 산마르틴이 에스파냐에 대항하여 민중 봉기를 선언하였어.
- ⑤ 효민: 볼리바르는 에스파냐군과 싸워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을 해방시켰어.

09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남부와 북부를 비교한 표이다. 옳은 것은?

	구분	남부	북부
①	산업 구조	상공업 발달	대농장 발달
②	중심 세력	산업 자본가	대농장주
③	무역 형태	보호 무역	자유 무역
④	노예제	찬성	반대
⑤	정치 형태	연방주의	분권주의

10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것은?

- 21세 이상 남자의 보통 선거권 인정
- 인구 비례에 따른 평등 선거구 설정
- 의원 출마자의 재산 자격 제한 폐지
- 비밀 투표 보장

- ① 노동자들이 주도한 차티스트 운동이다.
- ②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선출하였다.
- ③ 루이 필리프를 쫓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 ④ 메테르니히가 추방되면서 빈 체제가 무너졌다.
- ⑤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 카보우르가 주도하였다.

11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세계의 상황을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19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 ②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 나타났다.
- ③ 자본을 투자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 하였다.
- ④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였다.
- ⑤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당이,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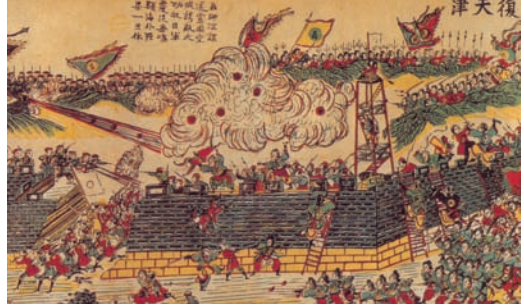
정답

01 ③ 02 ④ 03 ④ 04 (가) 성직자, (다) 평민(시민 계급, 농민, 노동자) 05 ② 06 ⑤ 07 ② 08 ④ 09 ④ 10 ① 11 ⑤

아시아·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19세기 제국주의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이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을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아프리카 인들이 제국주의 수탈과 억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성장하고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이 지역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이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20세기 이후 민족적 발전의 토대가 되었음을 이해한다.



▲ 중국의 의화단 운동

01. 중국의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에서는 아편 전쟁으로 개항한 중국에서 전개된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의 내용과 주도 세력을 살펴본다. 한편 근대화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의 주장을 비교하여 중국 근대화 과정의 특징을 알아본다.

02. 일본의 근대적 국가 체제 형성에서는 에도 막부가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한 후 근대적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제국주의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화의 토대가 되었던 메이지 유신의 내용과 한계·의의를 파악하고, 일본과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비교해 본다.

03.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에서는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인도를 침탈해 가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을 세우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시기 영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인도인들의 노력을 세포이 항쟁과 인도 국민 회의의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한편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선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과 근대화 운동을 알아본다.

04. 서아시아의 개혁 운동과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에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영토가 축소되는 등 위기에 처한 오스만 제국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과 그 내용을 알아보고, 유럽 열강에 맞서 민족의식을 키워 가는 아랍 세계의 모습을 통해 서아시아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을 파악한다. 또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수탈에 대항하는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을 살펴본다.

2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일본의 개항 및 근대화 운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인도의 반영 민족주의 운동의 내용과 특징을 알 수 있다. •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인들이 전개한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을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 중국의 근대화 과정이 지닌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이 실패한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 •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저항하여 일어난 동남아시아 민족 운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 갖는 한계를 깨닫는다. •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여 전개된 아시아·아프리카 인들의 민족 운동이 20세기 이후 아시아·아프리카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춘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43	01. 중국의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	1. 아편 전쟁과 중국의 문호 개방	삼각 무역, 아편 전쟁, 난징 조약, 중국의 개항, 애로호 사건,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불평등 조약
44		2.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1)	태평천국 운동, 홍수전, 양무운동, 청·일 전쟁, 변법자강 운동, Kangyuei
45		2.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2)	의화단 운동, 신해혁명, 쑨원, 중화민국, 위안스카이
46	02. 일본의 근대적 국가 체제 형성	1.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	미·일 화친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메이지 유신, 입헌 군주제
47		2. 일본의 제국주의화	강화도 조약, 청·일 전쟁, 시모노세키 조약, 삼국 간섭, 러·일 전쟁, 포츠머스 조약
48	03.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1. 인도의 민족 운동	동인도 회사, 플라시 전투, 인도 면직업 몰락, 세포이의 항쟁, 영국령 인도 제국, 인도 국민 회의, 벵골 분할령
49		2.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판보이쩌우, 베트남 유신회, 이슬람 동맹, 필리핀 동맹, 호세 리살, 타이의 독립 유지, 라마 5세
50	04. 서아시아의 개혁 운동과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1. 서아시아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	탄지마트, 청년 튀르크당, 와하브 운동, 아랍 문화 부흥 운동, 이란의 담배 불매 운동과 입헌 혁명
51		2.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무함마드 알리의 개혁, 수에즈 운하, 아라비 파샤의 항쟁, 줄루 왕국, 에티오피아와 이탈리아의 전쟁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앞서가던 아시아가 왜 서양의 침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도 필요함을 유의한다.
- 중국의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실들의 나열과 암기에 치우치지 않고 흐름과 특성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 아시아·아프리카 인들이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근대 국민 국가'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이해하게 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신성곤 외,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문집, 2004.
- 김성한, "교실 밖 세계사 여행", 사계절, 1999.
- 교육 과학 기술부, "자료로 보는 세계사", 2012.
- 우경윤,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동양편]", 두리미디어, 2004.
- 이희수 옮김, "중동의 역사", 까치글방, 1998.
- 세계사 신문 편찬 위원회 편, "세계사 신문 2·3", 사계절, 1999.
- 교수 학습 개발 센터 <http://classroom.re.kr/201109/>

01

중국의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

학습 목표

- 중국이 아편 전쟁으로 개항하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 중국이 개항 때 맺은 조약이 불평등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개항 이후 중국에서 근대 국가 체제를 수립하고자 진행한 노력을 파악할 수 있다.
- 신해혁명으로 공화정이 수립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43	<p>1. 아편 전쟁과 중국의 문호 개방</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중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였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영국의 무역 구조를 파악하여 아편의 중국 유입 배경을 설명한다. •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발표하게 한다. • 아편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조약의 내용을 통해 불평등 조약에 대하여 파악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영국이 행한 무역 형태는? 2. 아편 전쟁에서 패한 청이 문호를 개방한 조약은?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 발표식 탐구식</p> <p>문답식</p>	<p>CD</p> <p>144쪽 도표 PPT 145쪽 자료</p> <p>학습지</p>
44	<p>2.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1)</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청 타도를 주장하고 크리스티교와 유교 사상을 융합한 이상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운동은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 운동에서 주장한 내용의 특징을 설명한다. • 중국의 체제는 유지한 채 서양의 과학 기술만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시도했던 양무운동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게 한다. • 청 · 일 전쟁의 패배에서 교훈을 얻은 청이 새로이 추진한 변법자강 운동의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 양무운동과 변법자강 운동의 차이점을 정리하게 한다. 	<p>문답식</p> <p>강의식 탐구식 발표식 자기 주도식</p>	<p>CD</p> <p>146쪽 자료 PPT 147쪽 자료</p>

44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p>1. 양무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p> <p>2. 변법자강 운동에서 모범으로 삼은 일본의 개혁은?</p>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문답식	학습지
45	<p>2.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2)</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자 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였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고자 했던 의화단 운동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그 결과가 지닌 의미를 설명한다. •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붕괴되는 과정과 새롭게 수립된 정부가 지닌 과제를 탐구하게 한다. • 중국 근대화 운동의 각 단계에서 나타난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 우창 봉기로 시작되어 청조의 멸망을 가져온 사건은?</p>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 발표식</p> <p>문답식</p>	<p>CD</p> <p>PPT</p> <p>149쪽 자료</p> <p>학습지</p>

● 학습 내용 정리

1. 아편 전쟁과 중국의 문호 개방

(1) 청 말의 사회 혼란과 삼각 무역

- ① 청 말의 혼란: 사회·경제적 모순, 관리 부패 → 백련교의 난, 농민 봉기 발생
- ② 영국의 삼각 무역
 - 배경: 영국의 중국산 차 대량 수입으로 무역 불균형 심화 → 영국이 중국에 인도산 아편 수출
 - 결과: 청의 아편 중독자 증가와 은의 대량 유출 → 무역 적자 확대로 재정 위기

(2) 아편 전쟁

- ① 아편 전쟁(1840)
 - 배경: 임칙서의 아편 몰수 및 폐기
 - 결과: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 체결 → 청의 문호 개방
- ② 제2차 아편 전쟁
 - 배경: 애로호 사건
 - 과정: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베이징 점령
 - 결과: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체결 → 추가 개항, 크리스토포 포교 허용

2.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

(1) 태평천국 운동

- ① 배경: 청의 권위 손상, 세금 증가와 물가 폭등으로 민중 생활 궁핍
- ② 전개
 - 중심 세력: 홍수전이 조직한 종교 집단
 - 목표: 청조 타도, 크리스토포교와 유교 사상을 융합한 이상 국가 건설
 - 개혁 운동: 남녀평등, 토지 균분, 약속 철폐 → 농민의 호응, 세력 확장
- ③ 결과: 한인 의용군과 외국 군대에 진압

(2) 양무운동

- ① 배경: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 운동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 확인
- ② 전개
 - 중심인물: 중국변, 이홍장 등 한인 관료
 - 목표: 서양 근대 기술 수용을 통한 산업과 군사의 개선
- ③ 한계
 - 기존 체제는 유지한 상태로 서양의 기술만 수용
 - 일관성 없는 개혁 추진과 보수 세력의 반발로 성과 제한
- (3) 변법자강 운동
 - ① 배경: 청·일 전쟁으로 양무운동의 한계 노출

② 전개: 일본 메이지 유신 모델

- 중심인물: Kangyuei, Rangichao 등 지식인
- 개혁 내용: 정치 제도의 개혁(변법) 주장 → 과거제 폐지, 신교육 실시, 상공업 진흥 등을 통한 부국강병 추진
- 결과: 서 태후 등 보수파의 탄압으로 실패

(4) 의화단 운동

- ① 주장: 청을 도와 서양 세력 축출
- ② 전개: 크리스티교 교회 습격, 철도 시설 파괴, 외국 공사

관 공격 → 제국주의 연합군의 무력 진압

③ 결과: 청의 배상금 지불, 베이징에 외국 군대 주둔 허용

(5) 신해혁명

- ① 배경: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본격화, 개혁의 실패
- ② 쑨원: 중국 동맹회 결성, 삼민주의 제창
- ③ 신해혁명(1911): 청의 민간 철도 국유화 조치 반대 운동 → 우창에서 반청 봉기 → 전국으로 확산 → 청조 멸망, 중화민국 수립(1912)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44쪽

1793년 영국의 특명 전권 대사로 중국에 간 매카트니는 건륭제를 알현하고자 하였는데, 중국에서는 그를 조공국의 사신 정도로 대우하여 세 번 무릎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의 예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매카트니는 자신은 청속국의 신하가 아니라며 이 요구를 거절하였다. 결국 건륭제(乾隆帝)의 재량에 따라 영국 국왕 알현 때와 같은 예를 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46쪽

중국의 기존 체제를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만 도입하는 양무운동은 제한된 성과만을 거두었고,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한계가 드러났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49쪽

1. 예시 답안

- ① 이홍장: 중국의 자강을 위하여 외국(서양)의 기술을 도입 하자는 것인데, 이 경우 중국 전통 체제에 대한 개혁은 고려되지 않았다.
 - ② Kangyuei: 서양의 의회 제도를 도입하여 중국의 제도를 바꾸려 하였으나 청조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 ③ 쑨원: 청조를 타도하고 공화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2. ① 이홍장: 황제 지배 체제, ② Kangyuei: 입헌 군주제, ③ 쑨원: 공화정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49쪽

- 1. (1) ×, (2) ×, (3) ○, (4) ○
- 2. (1) ㉠, (2) ㉡, (3) ㉢
- 3. (1) 태평천국, (2) 신해혁명

● 내용 더하기

● 신항로 발견 이후 유럽의 대 아시아 무역

43차시

1486년 포르투갈 인 바스쿠 다 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 서해안의 캘리컷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유럽 인들이 열망하던 아시아로 가는 직항로가 열렸다. 유럽 인들이 처음에 눈독을 들인 것은 후추, 정향, 육두구 등의 향료였다. 향료는 유럽인들의 육류 소비와 관련되어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인들은 인도의 고아에 기지를 두고 그들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교역망을 이용하여 플라가 해협에서 생산되는 향료를 샀다. 1580년 포르투갈이 에스파냐 왕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후 향료 무역의 주도권은 네덜란드로 넘어갔다. 네덜란드 인들은 향료가 생산되는 동남아시아 섬 내부까지 진출하여 이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유럽 국가들은 향료 못지않게 중국과의 무역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미 16세기 초반 포르투갈 인들은 플라가 해협에 진출한 광둥 상인들을 따라 중국 동남해안에 도착하여 비단과 도자기를 구입하였다. 또한 이들은 명 정부로부터 마카오를 얻어서 중국의 비단실과 일본의 은, 구리 등을 중계 무역하여 크게 이익을 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단, 도자기, 차 등의 물품이 아시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향료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어 갔다. 17세기 전반까지 유럽인들의 아시아 무역에서 중요한 상품이었던 향료의 무역액은 17세기 말에 20% 정도로 하락하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5%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 이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중국 무역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유럽 국가 중 최종적으로 아시아 무역의 패권을 장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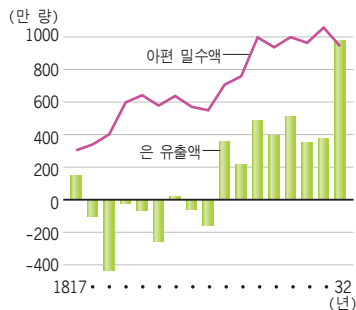
고 중국에 접근한 것은 영국이었다. 특히 18세기에 들어 중국에서 수입하는 차는 영국인들의 대표적인 기호품이 되었다. 당시 런던의 노동자는 자기 수입의 5%를 차를 구입하는 데 쓰기도 하였다. 또한 산업 혁명 이후 ‘광대한 상품 시장’ 개척이 절실히 필요해진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그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약간의 환상이 가미된 것이었지만 “4억 중국인의 셔츠가 1인치씩만 늘어도 영국 공장이 30년 동안 가동된다.” 라는 말을 통해 중국 시장을 개방하려는 영국인들의 집요한 노력을 알 수 있다.

● 아편의 상품화와 중국의 상황

43차시

중국과의 무역이 급증하면서 영국에서는 무역 역조가 발생하였다. 영국은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동인도 회사와 상인들을 앞세워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판매하였다. 이전에도 중국인들이 아편을 피우는 습관이 있었지만, 영국이 아편을 수출하게 된 이후에 아편 흡연은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1801년 4천 상자 수준이던 영국의 아편 수출은 1823년에 1만 상자를 초과하였고, 10년 뒤에는 2만 상자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전 인구의 약 10% 정도가 아편 흡연자가 되었고, 아편 대금으로 대량의 은이 중국에서 빠져나갔다.

아편 흡연으로 국민의 건강 문제와 함께 은의 유출에 따른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자 청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아편 금지령을 내렸으나, 영국 상인들의 이익 추구 욕구와 만연한 아편 흡연 풍조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영국 정부도 아편 무역의 이익금으로 국내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편 무역을 금지시키는 데 소극적이었다. 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게 하였다.



◀ 청의 아편 수입과 은의 유출
아편의 밀수액이 증가할수록 은의 유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은의 가격도 상승하였다.

● 청의 아편 금지 조치

43차시

청 정부는 1839년 임칙서를 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아편 문제 해결을 위한 전권을 위임하였다. 임칙서는 중국인 범

법자를 체포·처벌하였으며 약 2만 상자의 아편을 몰수·파기하고, 외국 상인에 대해 아편 무역 포기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칙서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편지를 써 영국이 청에 아편을 팔아 중국인이 이를 피도록 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청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 아편 전쟁을 반대한 글래드스톤의 의회 발언(1840)

43차시

중국은 아편을 금지시킬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편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국의 외무 장관은 이 불공정한 무역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놓고 볼 때 이 전쟁보다 더 의롭지 못한 전쟁이나 이 전쟁보다 더 우리나라를 영원히 치욕스럽게 만든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하고 또 읽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저 건너편의 존경스러운 신사 분께서는 광저우에서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는 영국 국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파렴치한 밀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게양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국기가 지금 중국 연해에서와 같은 식으로 휘날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기만 해도 공포감을 느끼고 전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 자유당 소속의 하원 의원인 글래드스톤은 의회의 전쟁 결의에 앞서 위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중국 정부가 영국의 아편을 단속하자, 영국은 중국이 자유 무역을 가로막는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였다. 글래드스톤은 이를 부도덕한 전쟁이라며 비판하였다.

● 난징 조약

43차시

제3조 청국 황제 폐하는, 영국 여황제 폐하에게 홍콩을 넘겨 주어 영국 여황제 폐하께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률로써 통치한다.
제5조 앞으로는 그런 관행(공행하고만 거래하는 것)을 폐지하고 누구와도 자유롭게 통상할 것을 허용하기로 약속한다.

1842년 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으로 청이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열강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광저우 등 5개의 항구를 개방하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였으며, 공행 제도를 폐지하고, 2,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원인이 된 아편 무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듬해 난징 조약의 보충 조약으로 호문 추가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때부터 영국은 중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이후 1844년 미국과 프랑스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은 열강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

● 제2차 아편 전쟁의 배경과 결과

43차시

아편 전쟁의 결과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청과 영국은 모두 이 조약에 불만족하여 양국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청은 아편 무역의 증대, 전통 질서를 위협하는 크리스티교 포교 등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한편 영국은 생각한 것처럼 자국의 상품 수출이 증대되지 않았고, 베이징에 외교 공관을 개설하지 못한다다가 선교 활동의 자유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영국은 조약 개정의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홍콩에 등록된 중국인 소유의 애로호에 게양된 영국기가 그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 이 배에 아편과 해적을 은닉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은 중국 관헌이 애로호를 수색하자, 영국은 자국 국기가 모욕당했다는 것을 구실로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던 프랑스와 연합하여 광저우를 공격하였다(1856).

다시 벌어진 영국·프랑스 연합군과 중국 간의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군은 텐진을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고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조약의 비준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공격을 계속하여 베이징을 점령한 뒤 텐진 조약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몇 가지 조항을 덧붙인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였다(1860). 베이징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양 외교 사절이 베이징에 상주할 수 있게 할 것.
- 난징 조약 때의 5개항 외 양쯔 강(창장 강)과 북부 지방, 기타 등지에서 텐진을 포함한 10여 개 항구를 추가 개항할 것.
- 외국인의 중국 내륙 지역 여행 권리를 인정할 것.
- 크리스티교의 선교의 자유를 인정할 것.
- 홍콩 옆의 주룽 반도를 영국에 할양할 것.
- 영국과 프랑스에게 각각 800만 냥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

베이징 조약의 결과 중국의 항구뿐만 아니라 내륙 지방에서도 외국인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서양 자본주의가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중국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 홍수전과 배상제회

44차시

홍수전은 과거 시험에 여러 차례 낙방하고 실망과 좌절

감, 그리고 주변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한 죄책감 등으로 괴로워하면서 방황하였다. 1837년 또 다시 과거에 낙방한 홍수전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며 삶과 죽음 사이를 오락가락하였다. 그는 열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신기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떤 노인에게서 ‘악마와 요괴들을 무찌르고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해 내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는 꿈의 내용이 몇 년 전에 서양 선교사로부터 우연히 받았던 “권세양언”이라는 크리스티교 포교를 위한 책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고 그 꿈속의 노인을 상제, 즉 여호와라 생각하고 배상제회를 조직하였다. 그 후 청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된 배상제회는 1851년 광시 성에서 가난한 농민들과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모아 봉기하였다.

● 태평천국 운동

44차시

태평천국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을 지배해 왔던 유교에 입각한 사회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크리스티교의 하나님을 숭배한 점에서 이전에 등장했던 중국의 다른 왕조들과 구별된다. 천왕 홍수전을 비롯한 여섯 왕은 하나님(상제)의 뜻을 집행하는 지상 대리인이다. 태평천국은 원시 공산 사회를 연상시킬 정도의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였다. 난징을 점령한 이후 실시된 사회 편제를 보면 25인 단위로 사회를 조직하고, 토지를 비롯한 가옥과 재산을 처분하여 공동 재산으로 만든 뒤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표방하였다. 또한 여성을 차별하던 대표적 악습인 전족을 금지하는 등 남녀평등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일상생활에도 종교적 금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술, 담배, 아편을 금지하고 남녀의 접촉도 규제하였다.

무력해진 청의 팔기군은 태평천국군을 진압할 능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태평천국이 유교적 사회 질서를 부정하고 토지의 균등 분배를 내세우자, 신사층이 강하게 반발하였다. 태평천국이 “만주족을 쫓아내고 한족 국가를 건설하자.”라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중국변, 이홍장 등 유명한 한인 학자들은 의용병(향용)을 조직하여 이들을 진압하였다.

한편, 크리스티교 국가를 선언한 태평천국에 대하여 정세를 관망하던 서양 세력도 태평천국의 정책이 자신들의 세력 확대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는 상송군을 조직하여 태평천국의 진압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홍수전이 지나치게 종교에 몰입하고 여타 지도층 사이에 분열이 생기면서 태평천국 운동은 활력을 잃고 진압되었다.

● 여성 차별의 대표적 악습, 전족

44차시

전족은 당 말 5대 무렵에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는데, 무희들이 예술적 효과를 위해 발을 묶은 것을 궁중 여인들이나 상류층 부인들이 흉내 낸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 후 원, 명, 청을 지나면서 전족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되었고, 전족을 하지 않은 큰 발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인위적으로 발을 작게 만드는 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다. 처음 전족을 하는 어린아이들은 고통을 참지 못하여 발을 만지며 울부짖었으며, 피가 나고 살갗이 벗겨지며 고름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넘기기도 어려워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전족은 여성을 남성에게 예속시키고, 집안에 묶어 두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유교적 남존여비 사상에 바탕을 둔 악습이었다.

● 이홍장과 양무운동

44차시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의 총포나 기선의 뛰어난 성능을 믿고 중국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무기로는 도저히 그들과 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놀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라는 외침이 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꿈에 불과합니다. 외국과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을 지키려면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작은 나라이지만 최근 서양과 통상을 하며 제철소를 세워 기선을 만들고 서양의 무기를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 저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국가의 모든 경비를 절약해야 하나, 병사를 기르고 총포나 군함을 제조하는 데 드는 비용만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홍장의 상소문

이홍장은 창장 강 유역인 안후이 성의 지주 출신이다. 유학자로 널리 알려진 중국번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중국번과 함께 향용(의용병)을 조직하여 이를 진압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이때 조직된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계속되는 농민 봉기를 진압하고, 청의 조정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직예(허베이 성) 총독과 북양 대신을 겸하면서 군수 공업을 비롯한 근대 산업의 육성을 주도하였으며, 근대적 군대를 편성하였다.

그는 청 말의 주요 외교 문제를 거의 혼자서 장악하였는데,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전통적 수단으로써 열강들을 서로 견제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양보와 타협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 양무운동의 결과

44차시

청은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생각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는데, 막상 청·일 전쟁이 일어나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 육성했던 이홍장의 북양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청·일 전쟁은 이홍장이 추진한 양무운동이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 이전에 좌종당이 이끈 남양 해군도 인도차이나 반도로 침투하는 프랑스에 맞서 청·프 전쟁을 벌였으나 패한 바 있었다.

양무운동 추진 과정에서 서양 열강은 양무파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기술자를 파견하고 기계를 수출하였으며, 차관을 주어 경제적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서구의 실용적 과학 기술을 도입하여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했던 중국의 노력은 주권의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한 셈이었다.

●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의 충돌, 청·일 전쟁

44차시

청과 일본은 각각 영국과 미국의 무력에 굴복하여 세계 무역 체제에 편입된 이후 유럽 문화를 수용하고자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다른 만큼 개혁의 방향도 달랐다.

오랜 기간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은 유럽 세력의 우월함을 인정할 수 없었다. 중국은 유럽 문명의 우수성이 무기를 중심으로 한 기술 문명에 국한된 것이라 여기고, 사회 체제와 사상적 전통은 여전히 중국에 뒤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유럽 문명 수용은 무기를 비롯한 군사력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반면 동아시아 세계의 주변이었던 일본은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수립한 뒤 군비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사민평등을 선언하고 국민의 보통 교육에 힘썼으며 입헌 군주정을 지향하는 등 사회 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개혁 노선의 차이는 1894년 청·일 전쟁으로 그 성패가 드러났다. 일본 해군은 청의 북양 함대를 황해에서 격파하고, 육군은 평양에서 청에게 대승을 거두었다. 일본 육군은 내친 김에 랴오둥 반도로 진격하여 중국 본토까지 위협하였다. 청·일 전쟁이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요인을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지만, 청이 황실 행사 등에 예산을 낭비하여 군비 투자에 전념할 수 없었던 점이 직접적인 것이었다. 이는 전통적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군비 강화의 한계였다.

청·일 전쟁의 결과는 양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청에게서 막대한 배상금을 받은 일본은 본격적으로 산업 혁명에 돌입하며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해 간 반면, 허약한 실상을 드러낸 중국은 한층 거세어진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고, 각 세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 변법자강 운동

44차시

중국에서는 애로 전쟁·태평천국의 난 이래 중국번·이홍장·좌종당 등이 앞서서 이러한 서양 근대의 물질문화를 받아들였으나, 부강을 이루지 못했음은 프랑스와 일본에 계속 패한 것으로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째서 패하였는가? 그 가장 큰 원인은 일반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하여 그저 국가를 위해 조세만 납부하며, 국가는 치안을 유지해 주면 충분하다고 여겨 왔기 때문이다. …… 이런 까닭에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제도를 배워야 한다. - 캉유웨이의 연설문

양무운동이 실패한 후 중국의 지배층 사이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인물이 캉유웨이, 량치차오와 같은 이른바 ‘변법파’였다. 캉유웨이는 공자의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여 자신의 개혁 사상을 합리화하였다. 즉 “옛것에 비추어 오늘의 제도를 고친다.”라는 말을 빌어 온 것이다. 캉유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변법 개혁파들은 자본주의 체제 도입, 입헌 정치 실시, 유럽의 학술과 교육 도입, 과거제 개혁, 신문·잡지 발행, 우편 사업, 육·해군의 근대화 등을 주장하였다. 변법자강 운동은 젊은 황제 광서제의 지지를 받았으나, 서 태후가 중심이 된 수구파들과 이들과 연합한 위안스카이 등의 무력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 의화단 운동, “서양 귀신을 몰아내고 청조를 지키자!”

45차시

크리스티교는 서양의 침략과 함께 중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이 크리스티교를 침략자의 종교로 인식하고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반감은 크리스티교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운동으로 이어져 ‘구교 운동(仇教運動)’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유교 질서의 유지를 원하는 보수적 관

료와 지방의 실력자인 향신층이 이 운동을 주도하였다.

크리스티교에 대항하는 비밀 결사도 조직되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화단이었다. 이들은 상당 기간 동안 의화권이라는 권법을 수련했으며, 무술이 깊어지면 총알도 피할 수 있고 하늘을 날 수도 있다고 믿었다. 의화단은 예수에 대항하고자 옥황상제에서 손오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통 신앙에서 여러 숭배 대상을 찾았다. 1900년 5월 의화단 세력은 텐진과 베이징에 들어가 모든 외국 세력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면서 외국 공사관이 모여 있는 지역을 포위하였다. 당시 의화단 세력은 약 20만 정도였다고 한다. 서 태후는 의화단의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후에는 오히려 이들을 이용하여 열강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이에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미국, 러시아 등 8개국 연합군이 텐진과 베이징을 공격하여 진압하였다.

●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45차시

우리 중국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미친 듯이 입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입헌이란 즉,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인민을 사지(死地)로 내보내는 정책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어찌 말하지 않는 것일까?

철도 이권의 회수는 민간의 것이며 이래저래 전보로 협의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도 우전부(郵傳部)는 대체 어떠한 권한이 있어서 인민이 전신을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새로운 내각은 전횡하며 야만스럽고 조정을 경시하고, 인민으로부터 약탈하고, 선조를 배신하고, 황제 폐하를 기만하고 있다. 단 한 사람의 방자함으로 불공평한 말을 인정하고, 전 중국을 사냥감으로 여기며, 조정을 많은 민중이 한탄하는 곳으로 만들며, 거칠면서 전혀 심사숙고하지 않고, 상민(商民)이 피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출자한 수천만금을 빼앗아 감으로써 상민이 소리 지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새로운 내각이 야만스러우며 전횡하고 있는 것이 동서고금에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내각과 싸우지 않는다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며 영원히 입헌이라는 두 글자를 문제로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만일 아직도 헌법의 수십조 조문에 의거해 우리나라를 소생시키고 우리 인민을 구한다고 하면 전력을 다해 싸우는 방법 외에는 없다.

……

정부의 철도 차관 계약은 실은 인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계약이다. 600만 파운드의 후광(湖廣) 철도 차관 계약은 전부 25조인데 사실 3개의 성에 걸치는 전체 길이 3600리(약 1800km)의 철도 행정의 전권을 완전히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내용이다. 40년 사이 쇠뿔 한 개를 구입하면서도, 하인 한 명을 쓰는 데도 중국인이 의견을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고(우전부 대신인) 성취안화(盛宣懷)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 자정원과 자의국 혹은 주주가 논의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외국인은 많은 은량을 은행과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40년간 인정된 것은 전적으로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 것일까?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대로라면) 전면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청 정부는 1911년 5월 통일적인 철도 운영 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민영 철도를 일단 국유화한다고 하였다. 철도 국유화 방침에 후난 성, 후베이 성, 쓰촨 성, 광둥 성에서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의 중심 조직은 쓰촨 보로 동지회[四川保路同志會]였다. 철도 국유화 반대 투쟁은 청조에 대한 납세 거부나 각 기관에 대한 공격으로 격화되면서 성 당국의 탄압을 받았으나, 운동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어 신해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 쑨원(孫文, 1866~1925) 과 신해혁명

45차시

…… 소수의 만주인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 혁명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군주 한 사람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혁명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소수의 부자가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혁명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

쑨원은 혁명의 이념으로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내세웠다. 민족주의는 청조를 타도하고 한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민권주의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민생주의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개혁의 실시를 의미한다.

쑨원은 광둥 성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14세 때 하와이로 건너갔다가 18세 때 귀국하여 의사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의학고 재학 당시부터 반청(反淸) 활동을 하였으며, 만주족의 청을 물리치고 사회 혁명을 이룩해야만 중

국의 민족적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다.

쑨원은 청·일 전쟁 직후 청을 타도하고자 군사를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하였다. 이후 국외에서 활동하면서, 1905년에는 혁명 세력을 통합한 중국 혁명 동맹회를 결성하고, 무장 봉기를 되풀이하였다.

1911년 10월 미국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던 중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곧바로 귀국하여, 임시 대통령(大總統)에 추대되어 이듬해 1월 1일 중화민국을 선포하였다. 신해혁명 이후 군인 정치가들이 정권을 독차지하자, 그는 광둥을 중심으로 국민당을 조직하여 반군벌·반제국주의 투쟁을 벌여 나갔다.

● 신해혁명 이후의 중국

45차시

신해혁명으로 민주 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중국의 앞날이 밝은 것은 아니었다. 청조는 사라졌지만, 이홍장에 이어 북양군을 장악한 위안스카이를 비롯한 강력한 군벌 세력들이 각지에 할거하고 있었다. 또한 중화민국의 수립이 군사력을 장악한 위안스카이와의 타협을 거쳐 이루어졌듯이 쑨원을 중심으로 한 혁명 세력의 역량도 한계가 있었다.

당시 혁명 세력은 민중의 힘을 끌어들이려 역량을 강화하여 군벌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룩함과 동시에 무력과 각종 불평등 조약을 바탕으로 중국을 침략하는 서양과 일본에 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위안스카이의 쿠데타로 다시 망명을 떠난 쑨원은 혁명을 완수하고자 민중의 역량과 결합하고 소련의 지원을 얻기 위해 공산당과 합작하는 노선을 선택하였다.



▲ 중화민국 임시 대통령에 취임한 위안스카이(가운데)(1912)

02

일본의 근대적 국가 체제 형성

학습 목표

- 일본이 미국과 조약을 맺어 개항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배경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 청 · 일 전쟁과 러 · 일 전쟁의 배경 및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46	<p>1.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쇄국 정책을 펼치던 에도 정부가 개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미국의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하였음을 설명한다. • 개항 이후 일본의 상황과 함께 막부 타도 운동으로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설명한다. • 메이지 유신의 내용을 살펴보고,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요인을 탐구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항 외교로 일본을 개항시킨 미군 제독은? 2. 메이지 유신으로 성립된 메이지 정부가 수도로 삼은 곳은?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p> <p>문답식</p>	<p>CD</p> <p>150쪽 지도</p> <p>152쪽 자료</p> <p>학습지</p>
47	<p>2. 일본의 제국주의화</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일본과 중국의 근대화 과정은 어떻게 다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근대화를 이룩한 후 대외 침략으로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을 설명한다. • 청 · 일 전쟁과 러 · 일 전쟁으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을 정리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학 농민 운동 시기에 일어났으며, 일본이 승리한 전쟁은? 2. 일본이 한반도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전쟁은?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p> <p>문답식</p>	<p>CD</p> <p>153쪽 자료</p> <p>154, 155쪽 지도</p> <p>학습지</p>

● 학습 내용 정리

1.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

(1) 일본의 문호 개방

- ① 배경: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
- ② 개항: 미·일 화친 조약(1854)
- ③ 미·일 수호 통상 조약(1858)
 - 내용: 개항장 증설, 관세 결정, 치외 법권 규정(불평등 조약)
 - 영향: 영국 등 서양 열강과 불평등 조약 체결

(2) 메이지 정부 수립

- ① 배경
 - 경제 혼란: 개항 이후 물가 상승, 외국 상품의 대량 유입 → 서민, 하급 무사 생활 곤란
 - 막부 권위 추락: 미국과 굴욕적 통상 조약 체결 → 막부에 대한 비판 고조

- ② 과정: 지방의 하급 무사 주도로 막부 타도, 천황 중심의 새 정부 수립(수도 에도를 도쿄로 개칭)

(3) 메이지 유신(1868)

- ① 목표: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 수립
- ② 개혁 방향
 - 봉건제 폐지, 지방 제도 정비 → 중앙 집권 체제 추구
 - 서양 기술 도입, 상공업 장려 → 근대 산업 육성
- ③ 내용: 신분제 개혁, 징병제 실시, 근대적 군대 조직, 토지와 조세 제도 개혁, 근대적 교육 제도 실시, 미국과 유럽에 유학생 및 사절단 파견
- ④ 결과: 입헌 군주제 헌법 제정(1889) → 천황제 국가 체제 수립
- ⑤ 한계: 국민의 기본권 제한

2. 일본의 제국주의화

(1) 일본의 영토 확장 정책

- ① 배경: 공업 발전을 통한 근대화 정책의 부작용(소작농·노동자 등 소외 계층 증가, 국내 시장이 협소하여 산업 성장에 제약 → 대외 침략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 ② 영토 확장 추진
 - 외교 관계 재조정: 국경을 확대하여 동아시아에서 청과 대등한 지위 확보
 - 대외 침략: 조선과 강화도 조약 체결, 류큐 왕국을 병합하여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

(2) 청·일 전쟁

- ① 전개
 - 성격: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주도권 쟁탈전
 - 전개: 조선에서 동학 농민 운동 발생 → 청과 일본의 군대 파견 → 일본의 공격으로 전쟁 발발(1894), 일본의 승리

- ② 결과
 -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1895): 청이 일본에 배상금 지불, 일본의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 획득 → 중국 진출의 발판
 - 일본의 세력 확대: 조선에 지배권 강화, 일본의 국제적 지위 격상

(3) 러·일 전쟁(1904)

- ① 러시아의 세력 확대
 - 삼국 간섭을 주도하여 랴오둥 반도에서 이권 획득
 - 의화단 운동을 공동 진압하고 만주에 군대 주둔
- ② 전개
 - 영·일 동맹으로 러시아의 남하 견제
 - 일본의 러시아 군함 기습 공격, 일본의 승리
- ③ 결과(포츠머스 조약 체결, 1905): 일본의 한반도 독점적 지배권 확보, 사할린 일부와 랴오둥 반도 확보 → 조선의 국권 강탈, 대륙 침략 기지화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50쪽

일본에서는 개항 이후 하급 무사들의 주도로 에도 막부가 타도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빠른 속도로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52쪽

1. 중국은 청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근대적 기술과 정치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고, 일본은 사람들의 생각과 제도에 이

르는 모든 것, 즉 체제를 바꿔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2. **예시 답안** 중국은 전통적인 왕조 질서를 고수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의회제에 기초한 정치 제도를 개혁하려 했기 때문에 개혁의 속도가 더디고 성과도 적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개항 이후 중앙 집권적인 메이지 정부를 세우고 입헌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가 체제를 근대화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53쪽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과 만주에서의 경제적 이권을 확립하였다. 이어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고 조선을 대륙 침략의 기지로 삼았다.

- (1) ○, (2) ○
- (1) 천황제, (2) 삼국 간섭

● 내용 더하기

● 일본의 개항과 근대적 개혁

46차시

에도 막부는 나가사키 항 이외의 항구를 폐쇄하는 쇄국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하였으나, 미국의 페리 제독의 포함 외교에 굴복하여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였다(1854). 그리고 다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 따라 일본은 가나가와 등 4개의 항구를 열고, 미국인의 개항장 거주와 치의 법권을 인정하였다. 에도와 오사카도 개방하여 미국인이 이곳에 머물면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세 자주권을 부정하는 불평등한 관세 규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세는 평균 20%, 수출세는 5%의 관세율이 정해졌다. 미국이 낮은 수출세로 값싼 생사를 비롯한 여러 물품을 많이 구입하자 일본의 물가가 폭등하고 막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개항 이후 에도 막부의 권위가 크게 추락하고 각계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외국 상품이 유입되어 경제 혼란이 극심해지자,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며 개항에 불만을 품은 하급 무사들이 막부 정권에 저항하였다. 이들은 그동안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던 천황의 권위를 높이고, 정치를 조정에 맡겨야 한다는 존왕(尊王) 사상을 내세우며 막부 타도 운동을 일으켰다.

결국 에도 막부는 막부 타도 운동에 굴복하여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환하였다. 이로서 약 700년간 이어지던 막부 정치가 끝나고, 메이지 정부가 성립하여 왕정이 복고되었다(1868).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에 착수하였다. 사민평등의 원칙을 세워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고 토지 제도를 개혁하였다. 그



▲ 대정봉환(大政奉還)

1867년 11월 9일 도쿠가와 막부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메이지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납하였다.

리고 서양 열강을 모범으로 하여 신식 교육 제도와 징병제를 실시하고, 산업 진흥과 기술 도입에 힘써 급속한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 메이지 유신

46차시

일본은 개항 이후 막부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이룩하는 변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를 메이지 유신이라 한다. 메이지 정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서양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한 국가 주도의 개혁을 전개해 나갔다. 메이지 유신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고, 정치적으로는 근대적 통일 국가 형성을 지향하였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국민의 평등을 규정하고 근대적 교육 제도를 확립하려 하였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천황의 절대성에 대한 관념이 강화되는 등 전체주의적인 면모를 지니게 되었고, 유럽에 대한 굴종적 태도에 비례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침략적, 제국주의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 천황제 국가의 수립, 대일본 제국 헌법과 교육 칙어

46차시

일본 제국 헌법(1889년)

제1장 천황

제1조 일본 제국은 만세 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 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皇男子孫)이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이며 통치권을 총괄하며,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 의회의 협조를 얻어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7조 천황은 제국 의회를 소집하고 그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1.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2.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제16조 천황은 대사,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1889년 일본 정부는 프로이센의 흄정 헌법을 모방하여, 총 7장 76개조의 대일본 제국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 헌법은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해 1946년 신헌법이 공포

될 때까지 일본 통치의 근간이 되었다. 이 헌법의 특징은 천황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주권은 국민이 아니라 천황에게 있었으며, 국민은 천황의 신민이 되어 천황의 통치를 돕는 존재일 뿐이었다.

교육 칙어(1890년 10월 30일)

짐이 생각하노니 우리 황실의 시조와 후대 조상들이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 오신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의 일이며, 거기에 덕(德)을 심으신 것이 깊고 두터워져 우리 신민(臣民)으로 하여금 충과 효를 능히 잘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대대로 아름다움을 이루어왔으니 이것이 우리 국체(國體)의 아주 뛰어남이며, 교육의 뿌리 또한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대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는 서로 우애가 있어야 하며, 부부는 서로 화목하고, 친구는 서로 신뢰를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은 공손하고 검소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박애를 베풀고, 배운 것을 연마하며 일을 익힘으로써 지혜와 능력을 계발하고 덕과 재능을 이루며, 나이가 공공의 이익을 넓혀 세상의 할 일을 개발해야 한다. 항상 나라의 헌법을 중히 하며 국법을 준수하고 위급할 때는 의로움과 용기로 봉사함으로써 하늘과 땅처럼 무궁한 황실의 안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짐에게 충성을 다하는 훌륭한 신민일 뿐만 아니라 그대 선조가 남긴 기풍을 잘 받드는 것이다. 이상은 고금을 통해 그릇됨이 없으며 국내외에 시행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짐은 그대 신민과 함께 잊지 않고 마음에 두며, 전부 하나가 되어 그 덕을 행할 것을 절실히 바란다.

헌법을 공포한 다음 해인 1890년에 메이지 정부는 천황의 말씀 즉, 교육 칙어를 반포하였다. 교육 칙어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국가관과 천황 주권을 선언하고, 천황의 신성성을 강조한 것으로 천황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임을 명기하였다. 일본은 교육 칙어를 반포하여 이를 학교에서 봉독하게 하였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전국의 소학교에서도 이를 암송하게 하였다.

● 근대 일본의 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인식

47차시

1. 요시다 쇼인(1830~1859), “일본을 지키기 위해선 조선을 차지해야”

지금 시급히 군사적인 장비를 정비하여 함선과 대포가 대충 갖추어지면, 마땅히 바로 예조를 개간하여 제후를 봉건하고, 또 그 사이를 틈타서 캄차카, 오후츠크를 탈취하고, 류큐를 타일려서 일본 천황에게 알현하도록 한다. 조선을 꾸짖어 옛

날처럼 인질을 바치고 조공을 하도록 하고, 북으로 만주 땅을 분할하고 남쪽으로는 타이완과 필리핀 제도를 손에 넣어 점점 진취의 위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 백성을 사랑하고 무사를 기르며 조심해서 변경을 지키면 나라를 잘 보전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에도 막부 말기의 하급 무사 출신으로 일찍부터 서양 사정에 정통하였다. 그는 당시를 ‘근년에 이르러 러시아와 미국이 맹렬하게 밀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막부 정치를 개혁하고 대외 팽창에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

2. 사이고 다카모리(1827~1877), “조선을 쳐들어가서 일본의 내란을 예방하자.”

…… (조선의) 가벼운 행동을 책망하고, 또 지금까지의 불손함을 고치도록 하고, (일본은) 조선과 친하게 지내자는 뜻을 전하는 사절단을 조선에 보낸다. 그러면 조선에서는 반드시 우리 사절단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죽일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왜 토벌해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야만 많은 사람이 조선을 쳐들어가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란을 바라는 마음을 밖으로 돌려 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대한 전략입니다. 일찍이 에도 막부가 조선을 침략하지 않고 안전만 꾀하다가 결국 내란으로 무너지고 만 사실을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사쓰마 번의 하급 무사 아들로 태어나 메이지 유신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육군 대장이 되었다. 그는 1873년 조선을 쳐들어가자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하였다.

3. 후쿠자와 유키치(1835~1901), “아시아 속의 유럽 국가가 되자.”

우리 일본은 아시아의 동쪽 변방에 있지만 그 국민의 정신은 이미 아시아의 고루함에서 벗어나 서양의 문명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불행인 것은 가까운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지나(支那)이고 또 하나는 조선(朝鮮)이다. ……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축으로 하여 주의(主義)를 내세워야 한다. 주의로 삼기 위해서는 오직 탈아(脫亞)라는 두 글자가 있으며, 서양과 진퇴를 같이하여 중국, 조선을 접수해야 한다. 서구화의 바람이 동양을 향해 불어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모든 국가는 서구 사회와 더불어 이 운동에 동참하여 문명의 열매를 맛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문명은 흥역과 같지만, 여러 이로운 점을 가져다 준다

는 점에서 홍역보다는 이롭다. 그러므로 국가는 문명에 거역할 수 없으며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문명과 과정에서 보수적인 정부는 걸림돌일 뿐이며 이를 뒤집어야만 일본에서 문명화를 이룰 수 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탈아(脫亞)’이다. ……

서구인들은 언제나 일본, 지나(支那), 조선(朝鮮)을 같은 문화를 가진 비슷한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일본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래서 오늘 방침을 세우는 데 우리나라는 인접국의 개명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흥하게 할 여유가 없다. 오히려 그 친구들을 벗어나 서양의 문명국과 친분을 함께하고 지나와 조선에 접하는 방법도 인접국이라서 특별하게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 서양인이 이들을 대하는 식을 그대로 따라서 처분해야 할 것이다. 악우(惡友)와 친하게 지내는 자는 똑같이 악우가 되어 버린다. 우리는 반드시 아시아 동방의 악우를 멀리해야 한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 계몽사상가로서, ‘일본의 루소’라 불리기도 한다. 그는 일찍부터 난학을 연구하였고, 막부 체제 시기에 세 번에 걸쳐 유럽을 여행하였으며, 적극적인 문명개화를 주장하여 김옥균 등 한국의 개화사상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의 독립을 유지하고, 일본도 열강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탈아론’에서 조선과 중국 같은 아시아의 나쁜 친구들을 멀리해야 한다며 일본의 제국주의적 대외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는 일본의 조선과 중국 침략을 ‘나쁜 친구들’을 문명개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논리로 합리화하였다.

❶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1895~1904)

47차시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선을 침략하려 하자, 이를 저지한 것은 북방의 강국 러시아였다.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삼국 간섭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선에서 아관 파천이 일어나고 친러 내각이 성립되면서 일본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서 러시아에 밀리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아관 파천으로 일본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었으나, 조선에 대해 소극적인 정책을

을 유지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한반도보다 만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베리아 철도가 동청 철도와 연결될 때까지 일본과 본격적인 대결을 회피하고 있었으며,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영국과 미국의 태도도 고려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러·일 간에는 몇 차례의 주요한 협상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1896년 5월 러시아와 일본은 베베르-고무라 각서를 작성하여 아관 파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일본군의 일부 철수 및 러시아 군대의 주둔을 인정하였다. 이후 6월에 맺어진 로마노프-야마카타 의정서는 조선의 독립과 보전을 약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을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공동 세력 범위(사실상 ‘공동 보호령’)로 인정한 비밀 협약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러시아 세력은 여전히 일본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1897년 러시아는 조선의 재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으며, 12월에는 랴오둥 지방으로 세력을 뻗었다. 그러자 열강이 이를 한만 동시에 진출이라고 비난하였고, 러시아가 이듬해 3월 이후에 만주 집중책으로 전환하면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로젠-니시 협정).

그 후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와 동청 철도를 연결하고, 뤼순에 군사 요새를 완성하였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태도를 바꾸어 한반도에도 군사 기지를 설치하려고 하였다. 1903년 용암포를 불법 점령하고 정식으로 조차를 요구하였으며, 부산 인근의 절영도를 조차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이 제물포항에 군함을 집중시키고, 일본이 대한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쟁의 분위기가 더욱 높아져 갔다. 러시아와 일본, 나아가 러시아-프랑스-독일 세력과 영국-미국-일본 세력 사이의 대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 러·일 전쟁 풍자화

일본이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으며 러시아에 도전하고 있다.

03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학습 목표

- 인도 민족 운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난 민족 운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48	<p>1. 인도의 민족 운동</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영국이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게 된 전투는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이 플라시 전투 이후 인도의 지배권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지도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 세포이 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결과와 의의를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 인도 국민 회의가 반영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계기를 파악하고, 반영 민족 운동의 내용을 탐구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병사들이 주도한 민족 운동은? 2. 1905년 영국이 발표한 것으로, 인도 국민 회의가 반영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된 계기는?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 발표식 탐구식</p> <p>문답식</p>	<p>CD</p> <p>156쪽 지도 PPT 158쪽 자료</p> <p>학습지</p>
49	<p>2.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제국주의 열강의 동남아시아 침략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국주의 열강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침략하여 원료 공급지로 삼았음을 파악한다. • 베트남 유신회,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동맹, 필리핀 연맹 등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 단체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 타이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 제국주의 침략 시기에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국가는?</p>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 자기 주도식 발표식</p> <p>문답식</p>	<p>CD</p> <p>PPT 160쪽 지도</p> <p>학습지</p>

● 학습 내용 정리

1. 인도의 민족 운동

(1) 영국의 인도 지배권 장악

① 영국의 인도 침략

- 무굴 제국의 쇠퇴: 18세기에 영역 축소 → 수도 델리와 주변 지역에서만 통치권 행사
- 플라시 전투(1757): 영국 동인도 회사의 무역 독점, 벵골 통치권 장악

② 인도의 식민지화: 19세기 중엽 인도의 대부분 장악 → 인도를 영국의 원료 공급지 및 상품 시장화

(2) 세포이의 항쟁

- ① 배경: 영국의 인도 전통문화 파괴 → 영국의 경제적 수탈로 어려움을 겪던 인도인의 불만 고조
- ② 전개: 영국 동인도 회사 고용 병사인 세포이의 반영 항쟁 → 전국적 확대 → 영국군의 무력 진압으로 실패
- ③ 의의: 인도인들의 반영 민족의식을 키우는 계기 마련

(3) 영국령 인도 제국 성립(1877): 동인도 회사 해체, 영국 국왕의 인도 직접 통치

(4) 인도 국민 회의

① 성립 배경: 인도의 민족 운동을 약화시키고 민족주의자를 회유하기 위해 영국이 결성 주도

② 활동

- 초기: 영국의 지배권 인정, 인도인의 권익 확보를 위한 타협적 활동
- 변화: 벵골 분할령 계기
- 벵골 분할령: 벵골 주를 동서로 분할 → 종교를 이용한 인도 사회 분열 의도
- 콜카타 대회 개최: 영국 상품 배척(보이콧), 국민 교육, 자치(스와라지), 국산품 애용(스와데시) 등 4대 강령 제시 → 반영 운동 전개
- 결과: 영국의 벵골 분할령 철회(1911)

2.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1)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 ① 동남아시아의 식민지화: 시암(타이)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식민지로 전락
- ② 경제적 침탈: 서양 열강의 원료 공급지로 전락, 대농장을 경영하여 특정 작물 재배
- ③ 동남아시아의 자각: 서양 기술·제도를 도입한 근대화 운동 추진, 반제국주의 운동 전개

(2) 베트남의 민족 운동

- ① 판보이쩌우: 베트남 유신회 조직(1904), 청년들의 일본 유학 권장, 중국 광둥에서 프랑스에 맞서 독립 투쟁 지도
- ② 교육 활동: 문맹 퇴치 운동, 근대 사상 보급 노력

(3) 인도네시아의 근대화 운동

- ① 이슬람 동맹의 활동: 지식인과 상인 주도, 외국 자본의 유입과 크리스티교 포교 반대, 민족 사업의 육성과 자치 요구

② 카르티나: 근대식 여학교 수립, 교육을 통한 민족적 각성과 여성 교육 보급에 노력

(4) 필리핀의 저항 운동

- ① 호세 리살: 에스파냐의 식민 통치 반대, 필리핀 연맹 조직 → 계몽 운동, 독립 운동 주도
- ② 무장 투쟁: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에서 독립을 약속받고 미국 지원 → 미국이 승리한 후 필리핀 식민지화 → 아길날도의 비밀 결사 조직

(5) 타이의 독립 유지

- ①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중 유일하게 독립 유지
- ② 독립 유지 배경
 - 지리적 이점: 영국과 프랑스 세력 사이에 놓인 완충 지대
 - 타이 정부의 노력: 근대적 개혁 추진, 열강에 외교적 양보
 - 라마 5세: 유럽의 문물과 제도 적극 수용, 외국과의 불평 등 조약 개정 등 국권 회복에 노력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56쪽

18세기 이후 인도인들은 각지에서 반영 항쟁을 일으켰다. 특히 1857년에 일어난 세포이의 항쟁은 인도 북부에서 시작되어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905년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한 이후에는 인도 국민 회의가 반영 운동을 주도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58쪽

1. • 서벵골-비하르 주 중심, 동벵골-아삼 주 중심

• 오늘날의 방글라데시

2. 영국 상품의 배척(보이콧), 자치(스와라지), 국산품 애용(스와데시), 국민 교육

생각 열기 ▶▶▶ 교과서 159쪽

당시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60쪽

1. ① 인도 국민 회의, ② 벵골 분할령

● 내용 더하기

● 세포이 항쟁의 성격

48차시

세포이 항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제기되어 왔다. 세포이 항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건의 본질을 세포이의 반란으로 파악하여 여기에 어떤 정치적 동기도 없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이 세포이만의 반란이 아니라 영국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직된 광범한 인도 국민의 봉기였다는 것이다.

세포이의 항쟁 당시 영국군 지휘관이었으며 나중에 인도 총독이 된 존 로렌스는 ‘1857년의 폭동’은 군대가 발단이 되었고 직접적 원인은 탄약통 사건이었을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세포이의 ‘반란’을 불만에 차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한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미리 계획된 음모는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벵골 출신의 저명인사인 미트라도 세포이 항쟁은 본질적으로 ‘군사적 반란’이었을 따름이지, ‘폭동’ 안에 대중적인 요인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였다.

대체로 19세기 후반까지 세포이 항쟁에 대한 영국인과 인도인 간의 관점은 거의 다르지 않았다. 즉 봉기는 원래 군사적이었으며, 정치적·사회적 불만이 팽배해진 시기에 다양한 이유로 세포이의 항쟁이 발발하였다. 불만을 품은 선동가들이 세포이 항쟁에 재빨리 가담하여 봉기를 자신들의 계획에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당시 영국령 인도 지역에 선동가들이 호소할 수 있는 단일한 국민적 대의(大義)는 없었다는 것이다.

20세기 초까지는 아무도 ‘1857년의 사건’을 위대한 국민 항쟁이나 독립 전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1909년 사바르카르가 “1857년의 인도 독립 전쟁”이란 제목의 책을 발간한 이후부터 세포이 항쟁을 국민 봉기로 보는 견해가 인도인 사이에 광범위한 동조를 얻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도 인도의 저명한 학자들 중 1857년의 사건에 참여했던 모든 인도인들이 영국인의 축출과 민족 독립의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뭉쳤으므로, 이것이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 봉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많은 인도인 학자들은 이 사건을 먼 후일의 독립 운동과 결부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폭동은 우타르프라데시 주(州)와 그 주변 지역에만 국한되었으므로, 이 운동이 인도적 혹은 민족적 성격을 지녔다고 규정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인도인들은 하나의 정치적·민족적 단위로서의 인도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들은 벵골 인, 마라타 인, 구자라트 인 등을 영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으로 생각하였다. ‘하나의 인도’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은 한, 국민 국가 인도의 자유라는 이념은 없었으며, 더욱이 그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 세포이 항쟁이 실패한 원인

48차시

세포이의 항쟁은 수많은 인도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세포이의 항쟁이 실패로 끝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세포이의 항쟁은 인도 북부에 한정된 사건이었다. 또 봉기가 고립적으로 일어나서 봉기 세력 간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인도에서도 벵골, 아프가니스탄, 신드 및 라지푸타나 등은 동요하지 않았으며, 영국 측이 우려했던 펀자브와 네팔 등은 오히려 봉기를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둘째, 락슈미바이 왕비나 나나 사히브 등을 빼고는 어떤 토착 세력 지도자들도 세포이 항쟁군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봉기 세력에 동조하였지만, 지배층들은 영국 측에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세포이의 항쟁을 지도하거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는 인물이 거의 없었다. 근대 교육을 받은 서구화된 지식층은 영국 편에 섰으며, 사회적 혼란이나 구질서(무굴 제국)의 회복을 바라지 않았다. 이에 반해 영국 측에는 유능한 장군들과 관리들이 있어 봉기를 성공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다.

넷째, 봉기 세력을 강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이상이 없었다. 많은 인도인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세포이의 항쟁이 확대되었으나, 이들은 뚜렷한 항쟁 목적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구질서의 회복이란 시대착오적인 구호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언어, 인종, 종교 등이 다양한 인도 사회에서 애국심이나 민족의식에 호소하는 것도 당시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영국군의 무자비한 진압이었다. 영국군은 총살, 교수형, 방화 등으로 반란군과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 대포로 처형되는 세포이 반군

러시아의 화가 바실리 베레시차긴이 1857년에 있었던 세포이 반군 처형 사건을 묘사한 그림이다(1884년 작품).

● 인도 국민 회의의 성립 배경

48차시

인도 국민 회의는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인도인들은 관리, 교사, 변호사, 언론인, 의사, 기사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1880년경 인도에는 영어 교육을 통하여 서구 문화에 친숙해진 사람들이 약 5만 명이나 되었다. 언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인도에서 이들은 영어를 매개로 하여 조국의 현실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인도인일지라도 영국 식민 체제에서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이룩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영어 교육을 받은 인도인들은 영국 통치자에게 협조하였으나, 1870년대 이후부터 영국의 식민 통치를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1860~70년대부터 여러 차례 대규모 기근이 일어나 농민의 생활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무거운 지대(地代)와 고리대의 횡포 등으로 산발적인 농민 폭동이 일어났다.

대중의 경제적 빈곤과 농민 폭동 등이 지식층의 불만과 함께 폭발하면 인도가 무정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인도 국민 회의의 창설이었다.

인도 국민 회의를 창설하는 데 직접적인 공헌을 한 인물은 인도인이 아니라 영국인 알렌 옥타비안 흠이었다. 그는 영국이 인도인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인도 문제 해결의 최선책이라고 보았다. 영국 정부가 의회 정치를 위한 훈련 도장으로서 국민 대표 기관을 수립하여 인도인들에게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인도인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흠은 국민 대표 기관이 여론을 합법적으로 대변하면 영국 지배에 저항하는 불순 세력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중 지도자들로 하여금 국민의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미리 막자는 의도였다. 흠은 듀퍼린(Dufferin) 총독의 동의를 얻어 인도의 지식층과 함께 인도 국민을 대표하는 조직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 국민 회의는 1885년 12월 28일 뭄바이의 고쿨다스 테즈팔 산스크리트 대학에서 그 첫 회합을 갖게 되었다. 결성 초기의 국민 회의는 영국 지배에 협조적이고 온건한 단체였다. 이는 국민 회의가 인도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영국인의 계획에 의해 성립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 국민 회의는 영어 교육을 받은 이른바 중간 계급의 활동 무대였다.

인도 국민 회의가 출범한 후 처음 한 세대 동안은 ‘온건파’가 지배하였다. 온건파는 영국의 점진적이고 합법적인 정치 전통을 찬양하고 폭력 혁명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대영 제국의 충실한 신민으로서 영국의 모범적인 대의 정치 제도를 배워 이를 인도에서 실현하려고 하였다. 초기 국민 회의의 대표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대상은 영국 정부가 아닌 인도를 통치하던 관료 체제였다.

국민 회의는 연말에 열리는 연례 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총독부에 건의하는 방법을 되풀이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국민 회의의 활동에 환멸을 느낀 일부 대표들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들을 ‘과격파’라고 부른다. 과격파는 영국인 통치자의 선심을 기대하지 말고 인도인의 요구를 결집하여 통치 세력에게 압력을 가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희망했던 바는 충성스런 신민으로서 대영 제국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하여 인도의 ‘완전 자치’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 커즌 총독의 벵골 주 분리 조치와 인도의 민족 운동

48차시

1905년 커즌 총독의 벵골 주 분리 조치는 인도인의 대규모 저항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벵골 주는 오늘날의 비하르, 오리사, 벵골 및 동벵골(방글라데시)을 포함한 지역으로 인도 제국에서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 곳이었다. 따라

서 지사(知事) 한 사람이 벵골 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광대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분리 문제가 자주 논의되어 왔다. 1903년 커즌 총독은 행정의 능률화와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벵골 주의 분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분리 계획안에 따라 인도는 비하르와 오리사를 포함하는 서벵골 주와 아삼을 포함하는 동벵골 주로 양분되었다.

벵골 분리 계획은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국민 회의를 비롯한 인도인, 특히 벵골 주민의 즉각적 반발을 가져왔다. 총독의 조치는 민족 분열을 획책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이유는 종교적으로는 대립하였을지라도 벵골 인들은 같은 인종으로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항상 일체감을 느껴 왔기 때문이다.

벵골 주의 힌두교도는 이 조치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벵골 주가 분리되기 이전에 주민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힌두교도였는데, 주가 분리되면서 서벵골에서 힌두교도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반면, 동벵골에서는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벵골의 힌두교도는 이슬람교도에 비해 소수로 전락한 데 대해 분노하였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벵골 분리의 진정한 목적이 종교적 대립을 조장하여 민족주의 감정이 가장 강렬한 벵골 주민의 단합을 저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벵골 분리 조치에 대한 국민 저항의 구체적인 표현은 ‘스와데시’(토산물 애용)와 보이콧(영국 상품 배척), 국민 교육 운동, ‘스와라지’(자치)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스와데시 운동과 보이콧 운동은 그 성격상 동시에 추진되었다. 영국 상품 배척 운동의 주요 목표는 거의 관세가 붙지 않은 채 대량으로 들어오는 맨체스터 면직물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었다. 맨체스터 면직물에 대한 배척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어 콜카타에 소재한 맨체스터 직물 점포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할 상태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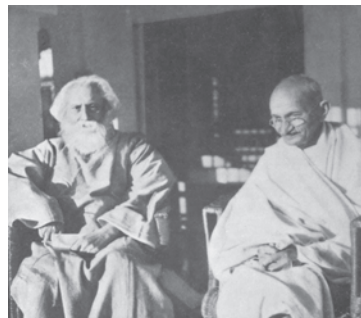
벵골 주민들은 특별한 애국적 열정을 가지고 스와데시 운동에 참여하였다. 스와데시 운동은 지식 계급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과 하층 계급까지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애국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요리사와 하인들은 집회를 갖고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교사와 학생들은 함께 신발을 벗고 등교하기도 하였으며, 외제 옷을 입고 교실에 나타날 수 없었다. 학생들은 외국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상점을 감시하였으며 고객과 상인들에게 외국 상품을 다루지 말도록 호소하였다.

스와데시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어 토산물의 수요가 급

격히 증가한 반면에 영국 상품의 판매량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처음에 벵골 지방에만 국한되었던 스와데시 운동은 곧 여러 지방으로 확산되어 1905년 말경에는 전 국민적인 성격을 띤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국민 교육 운동도 스와데시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학생들에게 관료적인 대학과 절연하고 시험을 거부하라고 외쳤으며, 몇몇 토후와 귀족들은 국민 교육의 대의를 위해 거액을 헌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힘을 얻어 국민 교육 위원회가 조직되고 인도인들에 의해 국민 대학의 설립되었는데, 벵골 국민 대학이 대표적이었다.

벵골 분리 조치에 대한 저항 운동에서 국민 회의 과격파의 활동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과격파와는 달리 온건파는 스와데시가 반영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며, 국민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았다. 스와라지 문제에 대해서도 온건파는 대영 제국 안에서의 자치로 해석하였고, 과격파는 제국 밖에서의 ‘완전 자치’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국민 회의의 온건파와 과격파는 1907년 스라트의 대회에서 온건파가 과격파를 축출하면서 분열되었다.



▲ 간디와 타고르(왼쪽)

타고르는 콜카타 근교에 산티니케탄(평화 학당)을 창설하여 교육에 헌신하였으며 벵골 분할 반대 투쟁 때에는 벵골 스와라지 운동의 이념적 지도자로서 독립 운동에도 힘을 쏟았다.

● 판보이쩌우

49차시

현재의 열강을 보면 우리와 동문(同文), 동종(同種)이 아니라면 어떤 나라도 우리를 원조하지 않을 것이다. …… 오직 일본만이 황인종인 데다가 선진국이다. 러시아를 이긴 이후로 날로 야심을 드러내고 있으나 우리가 일본에 가서 설득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원조할 것이다. 무기를 원조하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무기와 식량을 구매하는 일은 쉬울 것이다.

판보이쩌우는 베트남 유신회를 결성하고 베트남의 식민지화 과정과 식민 통치의 고통을 담은 “월남 망국사”를 저

술하여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그리고 일본을 배우자는 운동을 벌이면서 각계각층에서 자금을 모아 젊은이들을 도쿄에 유학시키는 동유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프랑스의 탄압으로 중국에 망명한 뒤 신해혁명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하여 독립 운동을 벌이면서 국내까지 조직을 확장하였다.

● 카르티니

49차시

자와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서민과 여성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서민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녀의 편지를 묶은 책 “어둠에서 빛으로”는 수많은 인도네시아 사람을 감동시켰다.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후유증으로 요절한 그녀의 꿈은 1913년 카르티니 학교 설립 운동으로 실현되었다.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인도네시아의 국모로 추앙받고 있다.



▲ 카르티니 초상화가 담긴 인도네시아의 우표

● 필리핀인들의 독립 투쟁

49차시

필리핀이라는 국명은 16세기 에스파냐의 침략 당시 왕위 계승자 펠리페(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필리핀에는 통일 국가가 없었으나, 1840년대부터 각지에서 독립 투쟁이 일어났다. 1890년대에는 민족 운동이 크게 고양되어, 의사이자 문학가인 호세 리살은 필리핀 연맹을, 보니파시오는 카티푸난(동맹)을 조직하여 에스파냐에 맞섰다. 호세 리살은 1896년 체포되어 총살되었지만 산속에 근거지를 마련하여 투쟁한 독립군은 1898년 독립을 선언하고 무장 투쟁을 계속하였다.

1898년 독립군은 미국·에스파냐 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에스파냐를 물리치고 마닐라를 함락하였다. 그 후 총선거를 실시하여 소집된 혁명 의회가 국가 건설 작업을 추진하던 시기에, 미국은 필리핀을 배제한 채 에스파냐와 조약을 맺고 필리핀의 지배권을 이양받았다. 이에 필리핀 인들은

미국에 맞서 독립 투쟁을 계속하였으나 3년에 걸친 항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 말로로스 의회(1898. 9. 15.)

필리핀 인들은 미국·에스파냐 전쟁 때 미국을 우방이라 여기고 지원하였으나, 미국은 에스파냐를 대신하여 필리핀을 지배하려 하였다. 이에 아기날도를 중심으로 한 독립 운동 지도자들은 1898년 6월 12일 필리핀 독립을 선포하고 혁명 정부를 구성하였다. 혁명 정부가 마닐라 북쪽 인근의 말로로스에 있었으므로 말로로스 공화국이라 한다. 그해 9월에 말로로스 의회가 개원하였으며, 헌법 제정에 착수하여 1899년 1월 21에 말로로스 헌법을 공포하였다.

● 타이의 독립 유지

49차시

동남아시아 각 지역이 유럽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타이는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타이는 지리적으로 서쪽의 미얀마를 차지한 영국과 동쪽의 인도차이나 연방을 차지한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이에 위치하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타이로 일종의 완충 지대로 여긴 것이 타이 독립 유지의 배경이었다. 또한 타이 왕과 관리들의 뛰어난 지도력도 타이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였다.

타이에서는 일찍부터 왕실을 중심으로 유럽 세력의 본질과 그 힘의 근원을 구성하고 있는 과학 기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라마 4세(재위 1851~1868)는 외국의 지배를 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국왕이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조언자를 통해 서양의 과학 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외교적으로는 유럽 열강에게 타협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 유럽 세력이 타이로 침략할 빌미를 차단하였다.

비록 타이가 국가를 보존하는 대가로 영토의 일부를 상실하고, 외교와 무역에서도 서양 열강에게 많은 양보를 하였지만, 타이의 지도자들은 유럽이라는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여 독립을 유지하고 근대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04

서아시아의 개혁 운동과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학습 목표

- 서아시아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의 사례를 말할 수 있다.
-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0	<p>1. 서아시아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1839년부터 오스만 제국이 추진한 근대화 운동은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만 제국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한 배경과 개혁 내용을 살펴본다. • 탄지마트와 청년 튀르크당의 개혁 내용을 조사 · 비교하여 그 성격을 분석하게 한다. • 와하브 운동과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 아랍 지역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게 한다. • 이란의 입헌 혁명 과정을 설명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스만 제국에서 무력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헌법과 의회를 부활시킨 단체는? 2. 유럽 세력의 침략에 맞서 이슬람 본래의 순수성을 되찾자고 주장한 운동은?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 탐구식 강의식</p> <p>문답식</p>	<p>CD</p> <p>PPT 161쪽 자료 163쪽 지도 163쪽 자료</p> <p>학습지</p>
51	<p>2.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의 근대화 개혁을 살펴보고, 이집트 민족 운동의 성격을 파악한다. • 수에즈 운하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이집트 근대화 정책의 문제점을 탐구하게 한다. •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반제국주의 운동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독립을 유지한 아프리카의 국가는?</p>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 탐구식 발표식</p> <p>문답식</p>	<p>CD</p> <p>PPT 165쪽 자료 역사 부도</p> <p>학습지</p>

● 학습 내용 정리

1. 서아시아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

(1) 오스만 제국의 개혁

- ① 개혁 배경: 18세기 이후 오스만 제국의 쇠퇴(영토 상실)
- ② 탄지마트
 - 내용: 근대식 군대 양성, 새 교육 제도 도입, 헌법 제정을 통한 입헌 정치 시도
 - 결과: 보수 세력의 반대와 유럽 열강의 간섭으로 실패

(2) 청년 튀르크당의 혁명

- ① 19세기 후반의 오스만 제국
 - 열강의 침입 → 오스만 제국 해체 시도
 - 술탄 압둘 하미드 2세: 전제 정치 강화, 근대화 추진 → 철도와 통신 시설 적극 확장
- ② 청년 튀르크당의 입헌 혁명
 - 내용: 청년 튀르크당 조직(청년 장교와 젊은 지식인 중심) → 무력 혁명(입헌 군주제 수립) → 법률·제도의 서구화, 여성의 지위 향상, 교육 개혁 등 추진
 - 결과와 한계: 제국주의의 침략 격화, 여러 민족의 독립 요구 → 청년 튀르크당의 독재,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 강조 → 오스만 제국의 쇠퇴

(3) 아랍 지역의 민족 운동

- ① 배경: 유럽 열강에 맞서 민족의식 자각
- ② 와하브 운동
 - 목적: 이슬람 본래의 순수성 회복(이븐 압둘 와하브 주도)
 - 확대: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정치 운동으로 발전 → 아랍인의 민족의식 고양
- ③ 아랍 문화 부흥 운동: 19세기 초, 시리아와 레바논 중심 → 아랍 민족주의 운동의 기반, 현대 아랍어 확립의 계기

(4) 이란의 입헌 혁명

- ① 이란의 근대화 운동
 - 열강의 침략: 러시아와 영국의 침입으로 많은 영토와 이권 상실
 - 카자르 왕조의 개혁: 재정 개혁, 학교 설립, 신문 창간 등 근대화 노력 → 실패
- ② 입헌 혁명
 - 전개: 민족 운동 발전(전제 정치 비판, 이권 침탈 저항) → 국민 의회 구성, 헌법 제정(1906)
 - 결과: 영국과 러시아의 무력간섭으로 좌절, 이란 영토의 분할

2.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1) 북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 ① 무함마드 알리
 - 근대화 추진: 근대식 군사 제도와 교육 제도 도입, 조세와 토지 제도 개혁, 각종 산업 육성
 - 성과: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광범위한 자치권 확보
- ② 열강의 간섭: 근대 시설(수에즈 운하, 철도, 전신 등)의 도입 과정에서 많은 채무 발생 → 영국과 프랑스의 내정 간섭 초래
- ③ 아라비 파샤의 항쟁
 - 내용: 민족 운동 전개, 입헌 정치 실시 등 근대 국가 수립

요구

- 결과: 영국의 탄압으로 실패 → 영국의 보호령으로 전락

(2) 아프리카 인의 저항

- ① 내용
 - 남아프리카: 19세기 중반, 줄루 왕국이 영국에 저항
 - 우간다: 19세기 말, 영국에 대항
 - 탕가니카: 20세기 초, 독일의 식민 지배에 저항
 - 에티오피아: 근대화 추진, 이탈리아 침략 격퇴 → 독립 쟁취
- ② 결과: 대부분 실패 → 민족의식 고양, 1920년대 이후 조직적인 민족 운동 전개에 토대 마련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61쪽

정부의 주도로 1839년 탄지마트를 추진하여 근대식 군대를 양성하고, 새로운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정치를 실시하려 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64쪽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서양 열강의 침략에 무력으로 저항하였

으나, 대부분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65쪽

예시 답안

1.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항로가 단축되어 유럽과 인도, 중국에 이르는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 외세에 의존하여 근대화를 추진한 결과 외세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1. (1) 탄지마트, (2) 와하브 운동
2. (1) ㉠, (2) ㉡, (3) ㉢

● 내용 더하기

● 탄지마트

50차시

19세기에 접어들어 오스만 제국은 유럽 세력의 침략을 자주 받았고, 그리스와 이집트가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하였다. 이처럼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압둘메시드 1세가 술탄으로 즉위하면서 탄지마트가 추진되었다. 탄지마트란 ‘개선, 재정비’란 뜻으로 네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첫째는 프랑스를 모범으로 삼아 중앙 집권제를 강화하여 모든 통치 지역과 사회생활 분야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행정 기구와 세금 제도를 개혁하였다.

둘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술탄의 백성은 인종, 종교 및 재능에 관계없이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인격을 존중받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탄지마트의 법률 개혁에는 여전히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분이 존재하였다.

셋째, 군 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혁하였다. 원래 술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군대의 지휘권을 각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지역군을 창설하였다. 또 이전에는 인도세를 내는 대신 군 입대가 금지되었던 비이슬람교도에게도 군 입대를 의무화하였다.

넷째, 교육 제도를 개혁하여 유럽식 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내각에는 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어 실업 학교를 많이 설립하였다.

탄지마트는 1876년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입헌 군주제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이 헌법은 재상 미드하트 파샤의 이름을 따서 미드하트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드하트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구절은 없었으며 이슬람은 여전히 공식 국교로 남아 있었다.

● 와하브 운동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탄생

50차시

1932년에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한 석유 대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생하였다. ‘사우드 가문의 아라비아’라는 뜻을 지닌 국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수립 때부터 지금까지 헌법이나 의회가 없는 군주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 나라의 기원은 1744년, 지금 국왕의 조상인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가 이븐 압둘 와하브란 종교 개혁가와 함께 와하브 왕국을 세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븐 압둘 와하브는 “무함마드 당시의 이슬람교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내걸고, 성자 숭배를 반대하고, 오스만 제국 술탄의 종교적 권위를 부정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븐 압둘 와하브의 주장은 아라비아의 최강자를 꿈꾸던 사우드 가문의 관심을 끌었고, 튀르크족의 지배를 받던 아라비아인들의 의식을 일깨웠다. 그리하여 아라비아 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두 차례에 걸쳐 와하브 왕국을 탄생시켰으며, 1891년 와하브 왕국이 무너진 뒤에도 종교적 결속을 유지하여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를 탄생시켰다.

● 이란의 입헌 혁명

50차시

담배 불매 운동 이후 이란에서는 개혁파와 보수파의 연합이 유지되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연합 세력은 아시아의 입헌 군주국이 유럽의 절대 군주국인 러시아를 무찌를 정도로 국력이 신장된 비결이 입헌 제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연합 세력은 제헌 의회의 선거와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06년 이란 국왕이 의회 소집에 동의하여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란은 입헌 군주국이 되었다.

1907년 영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3등분하여, 남부는 영국, 북부는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갔고 중부는 중립권이 되었다. 그 후 국왕 무함마드 알리 샤가 헌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해산하자, 이란의 혁명 세력은 혁명군을 구성하여 정부군을 공격하였다. 결국 국왕은 러시아로 망명하였고, 이란은 다시 입헌 군주국이 되었다.

이란은 의회 정치 체제를 지속하였으나,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 어려운 경제 사정,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의회 정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결국 러시아와 영국의 침략 정책으로 의회가 해산되면서 이란의 입헌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 무함마드 알리의 개혁

51차시

이집트의 총독 무함마드 알리는 오스만 제국이 세르비아 반란에 시달리는 틈을 타서 이집트 개혁에 착수하였다. 1811년 그는 술탄과 영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맘루크 지도자들을 카이로 성으로 초대하여 몰살시켜 버렸다. 이로써 13세기 이후 이집트 정치의 핵심 역할을 해 온 맘루크 세력이 근절되었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중국

이런 전쟁	• []: 불평등 조약, 문호 개방, 치외 법권과 최혜국 대우 인정 • 베이징 조약: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확충, 크리스마스 휴일, 연해주 상실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	<div> <div>개혁헌법 운동</div> <div>군대적 사회 개혁 운동</div> </div> <div> <div>영유권론</div> <div>군비 강화에 관한</div> </div> <div> <div>변법파당 운동</div> <div>입헌 군주제 추진</div> </div> <div> <div>의화단 운동</div> <div>반외세 운동</div> </div>

일본

〈개항〉	• 미·일 워싱턴 조약 • 미·일 수호 통상 조약	• 신분제 폐지, 징병제 실시, 근대적 교육 제도 도입	• 제국주의 국가로의 변화 • 배간: 국내 불만 세력 증가, 협소한 국내 시장, 자원과 자본 부족 • 양상: 조선 침략, 청·일 전쟁, 러·일 전쟁
------	--------------------------------	--------------------------------	--

인도, 동남아시아

〈인도〉	• 콜라시 전투: 영국이 인도 지배권을 장악하는 계기 • 세포이의 항쟁: 무굴 제국 멸망, 인도 제국의 성립 • []: 콜카타 대외 개화 → 완전 자치, 민족 교육, 국산품 애용 등 주장	〈동남아시아〉	• 베트남: 관보이(베트남)의 베트남 유신제, 청년의 일본 유학 권장 • 인도네시아: 이슬람 동맹 결성 • 필리핀: 필리핀 연맹, 아가노도의 비밀 결사 • 타이: 유일하게 독립 유지, 라마 5세의 근대 개혁
------	---	---------	--

서아시아, 아프리카

〈오스만 제국〉	• []: 헌법 제정을 통한 입헌 정치 시도 • 청년 튀르크당: 관료와 의외 부활, 국민적인 튀르크 민족주의	〈아랍 지역〉	• 와하브 운동: 아랍 인의 민족의식 고취 • 아랍 문화 부흥 운동: 현대 아랍 어 확립 계기	〈아프리카〉	• 이집트: 수에즈 운하 건설 → 영국의 보호령으로 전락 • 에티오피아: 이탈리아의 침략 격퇴
----------	--	---------	---	--------	---

상징적 변화

- 이 조약에 따라 통공을 영국에 넘겨주었다.
- 무장에서 벗어난 신식 군대의 완강 봉기를 계기로 촉발되었다.
- 1898년부터 전개되었으며, 봉건적 지배 체제를 폐지하고 중앙 집권적 체제를 수립하였다.
- 행공 문물명 발표 이후 만행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 오스만 제국이 근대화를 위하여 1839년부터 추진한 개혁이다.

과제 풀이

-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은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어 자원과 인력을 수탈하였다. 이들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아프리카 인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아프리카 인의 생활과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 아프리카의 광산 개발 현장



▲ 철도 건설에 동원된 아프리카 인



▲ 인도의 면직을 사들이는 영국인



▲ 아지를 따는 인도네시아 동양인과 그를 감독하는 네덜란드 인

제목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아시아·아프리카 인의 생활과 피해
대상 지역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의 _____ 지역
피해 시기	_____
피해 내용과 그들의 생활	_____

내용 확인하기

1 난징 조약

-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이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2 신해혁명

- 쑨원은 난징을 수도로 하는 중화민국을 수립하고 임시 대통통에 취임하였다.

3 베이징 유신

- 지방의 하급 무사들의 주도로 수립된 정부가 추진하였다.

4 인도 국민 회의

- 영국이 인도의 민족 운동을 약화하고 민족주의자들을 회유하고자 결성을 주도하였다.

5 탄지마트

- 근대식 군대를 양성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 정치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보수 세력의 반발과 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과제 풀이

지도 요령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서이므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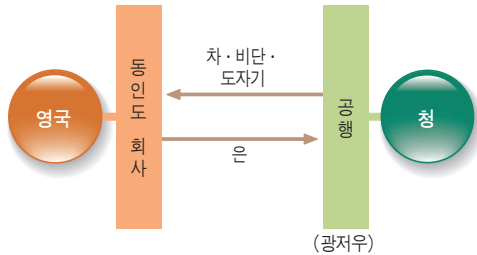
예시 답안

▷ 내가 쓰는 역사

- 대상 지역: 동남아시아 자와와 수마트라 섬
- 피해 시기: 19세기 중엽
- 피해 내용: 네덜란드 인들이 섬에서 재배한 설탕, 커피, 담배 등을 유럽으로 가져갔다. 우선 설탕, 커피, 담배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커피 원두, 담배 잎 등을 재배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강제 동원되거나 값싼 임금을 받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 또 원료로 설탕, 커피, 담배 등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이 들어서면서 많은 나무가 공장의 연료로 사용되어 삼림이 크게 훼손되고 대기 오염 등 자연환경의 파괴가 심각해졌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다음과 같은 무역 구조에서 많은 적자를 본 영국이 실시한 방안은?



- ① 중국산 차 수입을 금지하였다.
- ② 군사적 위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 ③ 중국에 인도산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하였다.
- ④ 영국산 면제품을 대량으로 중국에 판매하였다.
- ⑤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결하였다.

[2~4] 다음은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5개 항구를 개항하고 홍콩을 할양하였다.
 (나)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고 주장하였다.
 (다) 서양의 새로운 문물과 군사 기술 도입을 추진하였다.
 (라) 입헌 군주제 실시 등 정치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마) 청조 타도, 남녀평등, 토지의 균등 분배 등을 주장하였다.

02 위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① (가) - (나) - (라) - (다) - (마)
- ② (가) - (마) - (다) - (라) - (나)
- ③ (나) - (다) - (라) - (마) - (가)
- ④ (나) - (라) - (다) - (마) - (가)
- ⑤ (다) - (가) - (나) - (라) - (마)

03 중국이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후 이에 대한 비판으로 추진된 개혁과 관련된 것은?

- ① (다) ② (라) ③ (마)
- ④ (다), (라) ⑤ (라), (마)

04 각 사건의 명칭과 관련 인물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가) - 태평천국 운동, 홍수전
- ② (나) - 난징 조약, 임칙서
- ③ (다) - 양무운동, 이홍장
- ④ (라) - 의화단 운동, 서 태후
- ⑤ (마) - 변법자강 운동, Kangyuei

05 다음과 같은 근대화 방법을 제시했던 활동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 우리가 청을 타도하는 것은 만주인을 쫓아 낸다는 일면만 보면 민족적인 일이지만, 군주 정치를 타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거사로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의 목표는 새로운 공화 정부를 건립하는 것으로 서양의 열강 세력도 지지하는 바입니다…….”

- ① 민족주의 ② 민주주의
- ③ 민권주의 ④ 신해혁명
- ⑤ 중국 동맹회

06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추구한 개혁 내용이 아닌 것은?

개항 이후 생활이 어려워진 하급 무사들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통상 조약을 맺은 막부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였다. 마침내 이들이 주도하여 막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에도 막부는 사라지고 도쿄를 수도로 하는 새 정부가 탄생하였다.

- ① 헌법 제정
- ② 공화국 수립
- ③ 서양 문물 수용
- ④ 국민의 기본권 제한
- ⑤ 봉건적 지배 체제 폐지

07 다음은 영국의 인도 지배권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이다.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할 때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세포이 항쟁
- ② 플라시 전투
- ③ 인도 국민 회의 결성
- ④ 영국령 인도 제국 수립
- ⑤ 스와라지 · 스와데시 운동

08 다음 글의 빈칸 (가)에 해당하는 사실은?

초기에 인도 국민 회의는 영국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인도인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가) 을/를 계기로 콜카타 대회를 개최하면서 반영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 ① 소금 행진 ② 벵골 분할령
- ③ 세포이 항쟁 ④ 제1차 세계 대전
- ⑤ 스와라지 · 스와데시

[9~10]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09 위 지도의 A~E 국가를 식민 지배하였던 제국주의 열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A - 영국
- ② B - 프랑스
- ③ C - 에스파냐
- ④ D - 독립 유지
- ⑤ E - 네덜란드

10 다음과 같은 근대화 운동이 일어난 지역은?

20세기 초 지식인들과 상인들이 이슬람 동맹을 결성하여, 외국 자본 유입과 크리스티교 선교 활동에 반대하고, 민족 산업 육성과 자치를 요구하였다. 특히 근대식 여학교를 세워 교육을 통한 민족적 각성과 여성 교육의 보급에 힘썼다.

- ① A ② B ③ C
- ④ D ⑤ E

11 오스만 제국에서 추진한 다음 개혁의 명칭은?

- 근대식 군대 양성
- 신교육 제도 도입
- 입헌 정치 제도 도입
- 위로부터 추진한 근대화 정책

- ① 탄지마트 ② 입헌 혁명
- ③ 와하브 운동 ④ 메이지 유신
- ⑤ 아랍 문화 부흥 운동

1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나라는?

19세기 초 무함마드 알리는 근대식 군사 제도와 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조세와 토지 제도를 개혁하였으며, 각종 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근대 시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게 된 빚 때문에 결국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 ① 이란 ② 이라크
- ③ 이집트 ④ 시리아
- ⑤ 에티오피아

정답

-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② 06 ② 07 ③ 08 ② 09 ②
10 ④ 11 ① 12 ③

VI

현대 세계의 전개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인류 사회의 커다란 비극이었던 제1, 2차 세계 대전의 배경과 진행 과정 및 결과, 두 차례의 전쟁이 인류 사회에 미친 영향을 학습한다. 아울러 제국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아시아·아프리카의 반식민지 운동과 독립 과정을 파악한다. 이후 사회주의 정권의 해체와 자본주의 세계의 확대에 따른 국제 협조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현대 세계가 지닌 당면 과제를 인지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 미국 뉴욕의 빌딩 숲

01.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배경과 원인을 알아보고,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 과정을 토대로 전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러시아 혁명의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을 이해하고, 러시아 혁명이 세계에 끼친 영향을 알아본다.

0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에서는 베르사유 체제의 성격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민족주의의 발전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아프리카에서 활발해진 민족 운동의 성향을 파악한다.

03. 제2차 세계 대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는 대공황 발생과 극복 노력, 파시즘의 등장과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 및 전개 과정을 학습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발생한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 사례를 파악하여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협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인류의 노력을 탐구한다.

04. 전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전개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개편된 새로운 세계 질서의 내용을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냉전 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제3 세계의 탄생, 유럽 통합 운동의 전개 등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파악한다.

05. 현대 세계의 변화와 과제에서는 냉전 체제가 완화된 이후 사회주의 정권이 해체되고 자본주의 세계가 확대되는 과정을 학습한다. 나아가 이념을 넘어 세계화를 이룬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

2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 2차 세계 대전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 러시아 혁명의 원인과 과정을 알고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대공황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각국의 극복 노력을 구분할 수 있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 과정을 토대로 전쟁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파시즘의 출현 배경과 파시즘 체제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중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 사례를 통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를 알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지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52	01.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	1.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	3국 동맹, 3국 협상, 모로코 사건, 범슬라브주의, 범게르 만주의, 사라예보 사건, 무제한 잠수함 작전, 총력전
53		2. 러시아 혁명	‘피의 일요일’ 사건, 2월 혁명, 10월 혁명, 레닌, 볼셰비키, 신경제 정책,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코민테른
54	0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1. 베르사유 체제의 유럽	파리 강화 회의, 윌슨의 14개조, 국제 연맹, 군비 축소 회의, 부전 조약, 여성 참정권 운동
55		2.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3·1 운동, 5·4 운동, 제1차 국·공 합작, 간디, 네루, 호찌민, 수카르노, 무스타파 케말, 범아프리카주의
56	03. 제2차 세계 대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	1. 대공황의 발생과 파시즘의 출현	대공황, 뉴딜 정책, 블록 경제, 무솔리니, 히틀러
57		2.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 ~ 3.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국제 연합의 성립	방공 협정, 독·소 불가침 조약,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제2차 국·공 합작, 태평양 전쟁, 노르망디 상륙 작전, 원자 폭탄 투하, 대서양 헌장, 국제 연합(UN) 창설
58	04. 전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전개	1.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전개	트루먼 독트린, 북대서양 조약 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중화 인민 공화국, 6·25 전쟁, 베트남 전쟁
59		2. 아시아·아프리카의 독립 국가 탄생 ~ 3. 제3 세계의 성립과 유럽 통합 운동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일본국 헌법, 중동 분쟁, 아프리카의 해, 쿠바 혁명, 반동 회의, 비동맹국 회의, 유럽 경제 공동체(EEC),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 연합(EU)
60	05. 현대 세계의 변화와 과제	1. 사회주의 정권의 해체와 자본주의 세계의 확대 ~ 2.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	닉슨 독트린,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 동유럽 민주화 혁명, 독일의 통일, 텐안먼 사건, 세계 무역 기구(WTO), 핵 문제, 남북문제,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UNCTAD), 국제 분쟁, 환경 문제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제1, 2차 세계 대전 과정을 세세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전쟁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 결과의 흐름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전쟁의 참혹상을 통해 반전 의식과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반도는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으나 분단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여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차하순, “새로 쓴 서양사 총론”, 탐구당, 2005.
- 민석홍, “서양 문화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이강무,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서양편)”, 두리미디어, 2002.
- 세계사 신문 편찬 위원회 편, “세계사 신문 2·3”, 사계절, 1999.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로 보는 세계사”, 2012.
- 국방 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http://www.kida.re.kr/woww/update/eur-conf-map.htm#top/>

01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

학습 목표

- 제1차 세계 대전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전쟁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러시아 혁명의 원인과 과정을 알고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러시아 혁명이 세계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2	<p>1.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한 배경은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3국 동맹과 3국 협상이 성립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1차 세계 대전의 배경을 파악한다. • 모로코 사건,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충돌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제1차 세계 대전이 장기화된 배경을 이해하고,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한다. •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전쟁의 성격을 분석하게 한다. • 전쟁에 등장한 신무기와 전쟁의 참상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대립하여 유럽의 화약고라 불린 지역은? 2. 전후방 구분 없이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쟁 양상을 일컫는 용어는? <p>*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발표식</p> <p>강의식 자기 주도식 발표식</p> <p>문답식</p>	<p>CD</p> <p>PPT</p> <p>171쪽 지도</p> <p>173쪽 자료</p> <p>학습지</p>
53	<p>2. 러시아 혁명</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 농민의 빈곤,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차르의 전제 정치, 대외 전쟁의 패전 등이 러시아 혁명의 배경이 되었음을 설명한다. 	<p>문답식</p> <p>강의식</p>	<p>CD</p> <p>PPT</p>

- 러시아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과 사회주의 개혁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 러시아 혁명 이후에 나타난 경제 정책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여 그 특징을 비교한다.
- 레닌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를 흡수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을 결성하였음을 설명한다.
- 러시아 혁명이 세계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레닌이 추진한 정책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허용하여 소련 경제를 회복시키려 한 것은?
2. 러시아 혁명 직후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세계 여러 지역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지원한 단체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발표식	175쪽 지도
자기 주도식	
강의식	176쪽 자료
탐구식	
문답식	학습지

● 학습 내용 정리

1.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

(1) 제국주의의 국가 간의 대립

- ① 19세기 후반의 유럽: 제국주의 정책 추진, 이해관계에 따른 열강 간 대립과 동맹 추진
- ② 3국 동맹: 독일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결속(프랑스 고립 목적), 독일의 3B 정책 추진
- ③ 3국 협상: 영국 · 프랑스 · 러시아 연결, 영국의 3C 정책 추진

(2) 동맹국과 협상국 간의 충돌

- ① 모로코 사건
 - 과정: 프랑스의 모로코 식민지화 → 독일의 반대로 두 차례 분쟁 발생(1905, 1911)
 - 결과: 영국의 프랑스 지지로 독일 철수
- ② 발칸 분쟁
 - 원인: 다양한 민족과 종교 분포, 강대국 간 이해관계 대립
 - 민족주의의 대립: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와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의 범게르만주의 충돌 → 발칸 반도 국가 간 영토 분쟁 발생

(3)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

- ① 사라예보 사건(1914):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의 세력 확대 저지 → 세르비아계 청년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제1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
- ② 전쟁의 전개
 - 발단: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

- 세계 대전으로 확대: 러시아의 세르비아 지원 →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에 선전포고 →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

③ 독일의 양면 작전: 동 · 서부 전선 형성

- 서부 전선: 독일 대 프랑스 · 영국 → 양측의 세력 균형, 참호전을 전개하며 전선 고착화
- 동부 전선: 독일 · 오스트리아 대 러시아 → 결정적 승리 없는 독일의 공세 지속

④ 전쟁의 양상

- 총력전 · 장기전: 전쟁의 장기화 → 전후방 구별 없이 모든 인력과 자원 동원, 전쟁 참여 독려, 선전전 전개
- 신무기 등장: 비행기, 탱크, 독가스, 잠수함 등 → 대량 살상 초래

(4) 전쟁 국면의 전환과 종결

① 전쟁 국면의 전환

-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해상 봉쇄, 중립국 선박까지 무차별 공격 → 미국이 연합국으로서 참전
- 러시아의 전선 이탈: 10월 혁명 발생 →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 체결 → 동부 전선에서 이탈

② 전쟁의 종결

- 동맹국의 항복: 미국의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동맹국들이 차례로 항복
- 독일의 항복: 혁명으로 제정 붕괴 → 임시 정부의 휴전 조약 체결로 전쟁 종결(1918)

③ 미국과 일본: 전쟁 특수를 맞아 강대국으로 성장

2. 러시아 혁명

(1) 혁명의 배경

- ① 러시아의 근대화 지연: 황제의 전제 정치, 농민의 농노 상태 지속
- ② 사회의 변화
 - 국내 상황: 산업화 → 노동자 계급 성장, 사회주의 확산
 - 대외 상황: 러·일 전쟁의 패배 → 민중의 불만 폭발
- ③ ‘피의 일요일’ 사건(1905)
 - 과정: 차르 군대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위 군중에게 발포 → 시위 확산(입헌 정치 요구)
 - 결과: 황제의 헌법 제정과 의회(두마) 설치 약속 → 전제 정치 지속, 노동자·농민의 생활 개선 미흡

(2) 혁명의 전개

- ① 2월 혁명(1917. 2.)
 - 배경: 제1차 세계 대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 정부에 대한 불만 고조
 - 과정: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위(‘빵과 평화’ 요구) → 노동자와 병사들의 소비에트 결성
 - 결과: 제정 붕괴 → 임시 정부 수립

② 10월 혁명 (1917. 10.)

- 배경: 임시 정부의 개혁 지연,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계속
- 과정: 레닌 주도의 볼셰비키가 소비에트 무장봉기 주도 → 임시 정부 타도, 사회주의 정부 수립

(3)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결성

① 혁명 이후의 상황

- 볼셰비키의 정권 장악: 일당 독재 선언,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 체결 →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이탈
- 사회주의 개혁 추진: 토지 분배, 주요 시설 국유화
- 내전 승리: 자본가·지주 등 구세력 진압, 열강들의 간섭 배제 → 전시 공산주의 정책 실시

② 신경제 정책(NEP) 실시(1921):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경제 회복 도모

③ 소련 성립: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을 흡수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결성(1922)

④ 스탈린의 통치

- 산업 구조 개편: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연속 추진 → 공업 생산 급증, 농업의 집단화
- 독재 체제 강화: 수많은 사람 숙청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70쪽

제1차 세계 대전이다.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운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으로 발칸의 긴장이 고조되던 중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피살된 사라예보 사건은 제1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73쪽

- 전후방을 구별하지 않는 총력전으로 모든 자원이 동원되고, 참호전이 새로운 전술로 등장하였으며, 각종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었다.
- 예시 답안**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관총, 탱크, 비행기, 잠수함, 독가스 등 각종 신무기가 출현하여 인명을 대량 살상하였다. 또 전쟁이 총력전 양상을 띠면서 장기화하여 인적·물적으로 극심한 소모전이 전개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74쪽

경찰과 군대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76쪽

- 예시 답안** ① 3국 협상 - 3국 동맹
② 프랑스 - 독일
③ 범게르만주의 - 범슬라브주의
④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세르비아
- 예시 답안** 제1차 세계 대전에서는 신무기가 등장하여 대량 살상이 이루어졌으며, 참호전이 전개되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역량이 총동원된 총력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 내용 더하기

● 3국 협상의 체결 배경

52차시

1900년에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는 영국뿐이었다. 영국은 최초의 산업 국가였으며 전 세계의 1/4에 해당하는 지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이였다. 한편 독일은 뒤늦게 통일 국가를 이룩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영국을 빠르게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인구는 5,700만 명으로 3,700만 명의 영국 인구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석탄, 철광석, 강철 생산량에서도 미국과 더불어 이미 영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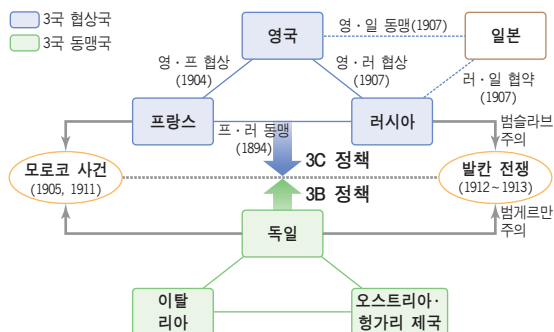
생산량을 증가하였으며, 전기, 석유, 유기 화학 산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혁명을 선도하고 있었다. 이에 대다수 독일인들은 독일이 머지않아 열강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성장은 특히 프랑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 주었다. 당시 프랑스 국민의 대부분은 소농민이었고, 인구도 약 3,600만 명 정도에서 정체하였으며 국론은 분열되어 있었다. 많은 인구를 보유한 독일의 급성장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는 동맹국을 찾게 되었으며, 1900년에 이미 인구가 1억 3,300만에 이른 러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패한 러시아는 근대적 군사 강국으로 발전하기에는 많이 낙후되어 있었으나, 프랑스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군대와 경제를 개혁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독일은 러시아의 이와 같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독일은 영국과의 일전에 대비하여 해군력을 적극 증강시키고 있었다. 1906년에 급진적인 국내 개혁안을 내세우며 정권을 잡은 영국의 자유당은 영국이 독일과 해군 군비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쟁 관계에 있던 프랑스나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두 나라와 협정을 맺었다.

3국 협상은 정식 군사 동맹보다는 훨씬 미약한 것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이와 같은 영국의 외교 노선을 세계열강의 위치로 올라서려는 독일의 노력을 봉쇄하려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1914년까지 독일과 영국 사이의 상호 불신과 반목은 점점 깊어져 갔다.



▲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

● 발칸의 위기

52차시

발칸 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와해의 조짐을 보이자 그 지역에 대한 패권을 놓고 다투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러시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발칸

반도에서는 18세기 이후부터 서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새로운 국가들이 성립되어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세르비아 등이 독립하였다.

1890년대 후반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불안정한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903년부터 그 균형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그해에 빈을 추종하는 세르비아 왕조가 민족주의 정권에 의해 잔인하게 교체되었는데, 새로 들어선 민족주의 정권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반대하는 노선을 취하였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경 근처의 슬라브 인들을 해방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지역이었으나, 1879년부터 오스트리아의 관할 지역이 되었다가 1908년에는 전격적으로 오스트리아에 통합되었다. 이 지역의 갑작스러운 통합은 국제적 위기를 초래하여, 결국 1912~1913년에 걸친 발칸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발칸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의 세력을 발칸 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발칸 전쟁의 결과 세르비아의 영토와 군사력은 두 배로 늘어났으며 그와 함께 세르비아의 야망도 커졌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의 세력 확장이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르비아 자체를 제거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던 1914년 6월 세르비아 군부의 사주를 받은 세르비아계 청년이 보스니아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였다.

● 사라예보 사건

52차시

1914년 6월 28일 육군 대연습을 시찰하러 온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된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제1차 세계 대전 발발의 도화선이 되었다. 범인은 오스트리아 국적의 세르비아계 학생으로 세르비아 비밀 결사 ‘검은 손’의 일원이었다.

당시 게르만 인의 오스트리아와 마자르 인의 헝가리로 구성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여기에 슬라브 인의 제3의 준독립 지역을 만들어 대제국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계 슬라브 인들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된다. 황태자 부부 암살은 이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실행된 것이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암살의 배후에 세르비아 정부가 개입되었다고 확신하고 세르비아에 11개의 요구 조건이 담긴 엄중한 최후통첩을 급송하였다.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의 요구 조건 중 1가지만 거부하고 5가지를 무조건 수락하였지만, 오스트리아는 이를 거절의 뜻으로 간주하고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였다. 이로써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다.

● 술리펜 계획

52차시

독일은 20세기 초부터 알프레트 폰 술리펜(Alfred Graf von Schlieffen) 장군이 고안한 2개의 전선을 형성하는 전쟁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전쟁 초기에 러시아와 대치하는 동부 전선에서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면서, 서쪽에서는 중립국인 벨기에를 통한 대대적인 포위 공격으로 프랑스를 격파한다는 것이다. 술리펜 계획은 프랑스에 대한 도발적인 공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 의해서도 중립성이 보장되어 온 벨기에를 공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베를린의 지배층은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술리펜 계획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프랑스 군대는 독일의 초기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보고 후퇴하였으나 마른에서 반격을 시작하였다. 이때 독일군은 전선이 위험할 정도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퇴하여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양쪽 모두 기선 제압에 실패함에 따라 그해 말에는 양 진영 모두 길게 참호를 쌓기 시작하였고, 그 선에서 이후 4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하였다.

●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미국의 참전

52차시

제1차 세계 대전은 모든 인력과 물자가 투입되는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각국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특히 영국보다 해군력이 뒤쳐졌던 독일은 영국의 해상 봉쇄로 국외에서 물자 공급이 끊겨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영국의 통상 파괴 전략을 폈다. 이러한 전략은 막바지에 더욱 강화되어 상대국 선박뿐 아니라 모든 선박의 통행을 봉쇄하고 격침시키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확대되었다. 독일은 자신이 정한 봉쇄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무제한으로 포격을 가하였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미국의 참전을 불러왔다. 미국은 전쟁 기간 동안 중립을 지키면서 협상국과 동맹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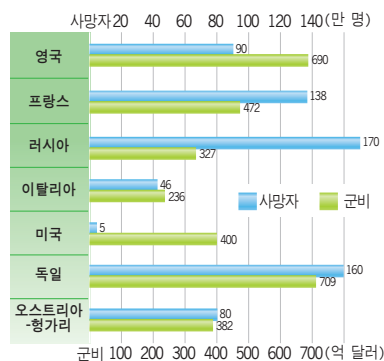
모두에게 무기와 물자를 팔아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의 통상 파괴 전략과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후 미국 배 5척이 독일에 의해 격침되자 미국의 여론은 참전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가 전쟁에서 발을 빼면서 유리한 기회를 잡은 듯 했던 독일은 미국의 참전으로 패배의 길로 들어섰다.



▲ 1915년 독일에 의해 침몰된 영국 상선 루시타니아호 소식을 알리는 신문
루시타니아호는 민간 상선이었지만 전쟁 상대국인 영국 소속이었고 군수 물자를 싣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도 변명의 여지는 있었지만, 익사한 승객 1,200명 중 119명이 미국인이었으므로 미국의 여론을 악화시켰다. 독일은 1917년부터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돌입하여 중립국 선박도 무조건 격침시켰다.

● 제1차 세계 대전의 특징

52차시



▲ 제1차 세계 대전의 피해

20세기의 전쟁은 전선의 병사만이 아니라 후방의 시민들까지 동원된 총력전으로 전개되었다. 교전국 정부는 포스터, 전단, 신문 광고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전쟁 지지와 봉사를 요구하는 선전을 끊임없이 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무, 즉 자유, 재산 그리고 생명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0세기의 전쟁은 전방과 후방의 개념도 없애 버렸다.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참여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국민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쟁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군수품을 계속 생산해야 했기 때문에 여성

은 공장 등에서 남성을 대신하여 작업을 해야만 했다. 싸움터에서만 전투가 벌어지는 제한전의 시대는 지나가고 총력전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제1차 세계 대전에는 다양한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하였다. 장거리포, 기관총, 수류탄, 전차, 독가스, 전투기와 폭격기, 잠수함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전사자와 전상자 숫자를 현저하게 증가시켰다.

● 피의 일요일 사건

53차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일본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동안 전쟁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참아야 했던 노동자, 빈민 등의 불만이 커져 갔다. 그렇지만 차르가 지배하는 제정 러시아에서는 민중의 불만을 표출할 대표 기관이나 의회가 없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와 최저 임금제 등 여러 가지 경제적·정치적 요구를 적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차르가 머무는 겨울 궁전을 향해 행진을 하기로 하였다.

1905년 1월 22일 눈 내린 이른 아침, 시내 각 지구에서 모여든 14만 명의 노동자들은 십자가와 차르의 초상을 들고 겨울 궁전을 향해 행진하였다. 황제는 마침 겨울 궁전에 없었고 그들을 맞은 것은 무자비한 경찰과 군대였다. 궁전을 지키는 수비대는 이 평화적 행진을 향하여 발포하기 시작했고, 광장에 쌓인 눈은 피로 물들었다. 사망자 500~600명, 부상자 수천 명을 낸 이 사건은 차르에 대한 노동자의 소박한 믿음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이후 러시아 혁명의 발단이 되었다.

이 사건 후 수도의 노동자들은 곧 총파업에 들어갔고, 그것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후 니콜라이 2세는 10월 선언을 발표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시민적 자유 보장 및 선거를 통한 제헌 의회 창설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1906년 5월 최초로 간접 선거를 거쳐 민선 의회인 두마(Duma)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런 개혁 조치는 곧 무효화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인들은 다시 전쟁에 강제 동원되었다.

● 2월 혁명

53차시

러시아의 2월 혁명은 파업과 함께 시작되었다. 도시에서는 식량 배급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나누어 줄 식량이 바닥나면서 폭동이 일어났다. 1917년 2월 23일 ‘국제 여성의 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빵

을 달라고 외치자 굶주린 노동자, 농민, 소시민들이 합세하였다. 시위 군중은 붉은 깃발을 들고 “차르를 타도하라.”, “전쟁을 반대한다.”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수일간 시가지를 누볐다. 차르 체제는 폭동 진압을 명령하였다. 일부 군인들의 발포로 다수 시민이 사망하였으나, 대다수 군인들은 폭동의 진압을 거부했으며 점차 시위대에 가세하는 군인의 수가 늘어났다. 그리하여 12일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반란군과 시위대가 완전히 장악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봉기 이후 여러 지역에서 노동자·병사 대표 소비에트가 결성되었다. ‘소비에트 집행 위원회’는 “차르 체제를 철저히 파괴하고 보통·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헌법 제정 의회를 소집하기 위해 투쟁하자.”고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공업 지역의 소비에트는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였으며, 경찰을 내쫓고 기업의 보안과 혁명의 수호를 위해 적위대를 창설하였다. 또한 차르 정부의 판사를 파면하고 새로운 인민 재판사를 선출하였으며 노동자에게 가혹하게 대했던 공장 관리자들을 추방하고 ‘노동자 관리’를 실시하였다.

노동자·병사 대표 소비에트가 결성되면서 부르주아 자유주의자인 르보프를 수반으로 하는 임시 정부가 조직되었다. 임시 정부는 곧 임시 위원회를 선출하고 시내의 질서 확립을 위임하였다. 한편 니콜라이 2세는 동생 미하일에게 제위를 양위하나 그가 사양하면서 “임시 정부가 두마의 주도하에 탄생하였으니 제헌 의회가 구성되어 인민의 의사를 발표할 때까지 완전한 권력이 부여된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300년간 지속되었던 로마노프 왕조는 붕괴하고 러시아 공화국 임시 정부가 형식상 정당한 계승자로 출범하였다.

● 임시 정부의 개혁과 한계

53차시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한 이후 임시 정부와 노동자·병사 대표 소비에트라는 이중 권력이 탄생하였다. 당시 소비에트는 1905년 혁명으로 탄압을 받아 활동이 어렵게 된 볼셰비키 지도자들 대신에 멘셰비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르주아에게 권력을 양도하였고, 영국·프랑스·미국 등 협상국들도 러시아 혁명이 자국 노동 운동에 영향을 주고 러시아가 전쟁에 이탈하여 독일이 승리할 것을 우려하여 임시 정부를 지지하였다. 임시 정부는 정치범들을 대거 석방하고 신앙·집회·결사·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사형 제도와 군사 법정을 폐지하고 민족과 계급의 차

별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임시 정부는 전쟁을 계속하고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전쟁을 계속하려는 임시 정부의 태도는 군인들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민중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전쟁 중지, 평화와 빵 그리고 토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볼셰비키의 대중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 10월 혁명

53차시

스위스에 망명 중이던 레닌은 1917년 2월 혁명 직후 귀국하였고 4월에 볼셰비키 중앙 위원회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임무에 관하여’라는 보고를 하였는데, 이것이 ‘4월 테제’이다. 그 내용은 “현 시기는 전쟁 포기, 평화·자유·빵·토지와 같은 근본 문제의 해결을 내세우면서,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직접 쟁취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었다.

부르주아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개혁을 실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던 멘셰비키는 물론 볼셰비키 안에서도 이 주장은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그러나 임시 정부의 거듭된 실책으로 소비에트 내에서 레닌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4월 테제’는 볼셰비키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되었다.

9월을 넘기면서 볼셰비키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크게 확대되었다. 레닌은 선거를 통해 볼셰비키가 형식적 다수를 획득할 때까지 임시 정부의 제한 의회를 유지하는 대신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 정권 수립을 시도하였다.

10월 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병사 소비에트 산하 무장 조직이 봉기를 일으켰다. 그리고 거의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임시 정부 대다수 각료들을 체포하고 시내 중심지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다음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소비에트 대표자 회의에서 400여 지방 소비에트 대표자들은 러시아의 소비에트 공화국 전환, 전쟁 중단, 토지 개혁 실시 등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을 이끌 노동자·농민 정부(인민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노동 정부는 11명의 인민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레닌이 의장을 맡았다.

● 10월 혁명 이후의 러시아

53차시

1917년 10월 혁명 이후부터 1918년 상반기까지 소비에트 체제는 큰 도전을 받지 않았다. 이 시기에 지주 보유지가 농민들에게 완전히 무상으로 분배되었다. 그 결과 농민은 해묵은 소망을 성취하였고, 볼셰비키는 농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지주 귀족은 농촌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도시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혁명 초기에 볼셰비키는 기간산업 중 일부만 국유화하고, 나머지는 위로부터 ‘국민 경제 최고 회의’의 통제와 아래로부터 노동 계급의 압력을 통해 국가의 통제를 받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 내에서 기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원료와 연료의 부족으로 조업이 단축되었으며,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전쟁이 끝나자 전시 체제로 편성되었던 산업은 거의 마비되었다.

이러한 산업 해체 과정에서 직장을 잃거나 잃을 위험에 부딪힌 노동자들은 전 산업의 국유화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18년 6월에는 모든 기간산업이 국유화되었다. 또한 모든 신분이 해체되었고, 교회는 국가에서 분리되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였다. 옛 군대는 해산되고, 각종 사법 기구는 혁명 법정으로 대체되었으며, 국기는 붉은 빛 바탕의 ‘낫과 망치’로 대체되었다.

● 혁명 이후 러시아의 과제

53차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된 요인은 농민 문제, 노동자 문제, 민족 문제로 요약된다. 그리고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러시아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는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공업을 국유화하여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을 청산하고, 토지를 무상 분배하여 농민의 해묵은 소망을 풀어 주었다. 그리고 선언적으로라도 각 민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여러 문제를 일차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무장봉기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다른 정치 세력의 진정한 동의와 협력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건설의 주역이라고 할 인민은 차르 전제 정치의 오랜 억압과 착취에 시달려 온 데다 3년 여에 걸친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또한 소비에트 체제의 출범을 자본주의적 세계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소비에트 체제의 건설에 협력은커녕 끊임없이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과 수호는 신생 소비에트 러시아의 양대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과 그 내용을 왜곡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러시아가 독일과 강화한 이유

53차시

러시아 혁명 초기에 볼셰비키 체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독일과의 강화였다. 애초에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러시아 단독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은 물론 체제 수호조차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10월 혁명의 성공으로 전 유럽에 노동 계급의 혁명이 파급될 것이며, 이는 러시아 혁명의 성공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빗나간 예상이었다. 유럽에서 혁명은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독일의 경우처럼 실패로 끝났다. 연합국은 러시아의 강화 제의를 무시했고, 독일은 러시아의 불안한 국내 사정을 빌미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 내려고 하였다. 모든 면에서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었던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신생 러시아의 죽음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어떤 조건이든 독일과 강화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볼셰비키는 1918년 3월 3일에 체결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강화를 성취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산업 중심지와 곡창 지대를 독일에게 양보함으로써, 유일하게 볼셰비키 정부에 입각했던 좌파 사회혁명당의 사퇴를 초래하였고, 볼셰비키 내에서도 트로츠키와 부하린 등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 신경제 정책(NEP)

53차시

1921년 3월부터 시행된 신경제 정책(NEP)은 노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 아래 점차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부문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운용되던 전시 공산주의가 시장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허용하는 혼합 경제로 전환되었다.

농업 부문에서 곡물 공출은 고정 세금으로 대체되었고, 사적 소매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어 농민은 잉여 곡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공업 부문에서는 국유화되었던 많은 중소기업이 매각 혹은 대여되었고, 대기업은 공공 소유를 유지하되 생산·가격·임금의 결정은 시장 원리에 따르도록 되었다.

신경제 정책이 시행되자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정치가 안정되고 농업 생산이 급속히 회복되었으며 1928년까지 농민들의 생활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었다. 공업 생산

도 내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 스탈린 체제의 성립과 사회주의 공업화

53차시

레닌이 죽은 뒤 트로츠키와 스탈린 간에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트로츠키는 신경제 정책을 부르주아와 부농층의 발달을 허용하는 것이라 하여 적극 반대하였고, 부농의 폐지와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혁명이 영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세계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스탈린은 신경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과 트로츠키의 ‘영구 혁명론’에 대응하여 ‘일국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다. 즉 먼저 러시아 자체의 사회주의 건설에 몰두하고 이후 세계 혁명을 계획하자고 하였다.

결과는 스탈린의 승리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곧바로 트로츠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급속한 공업화와 강제적 농업 집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이 계획은 자본주의 국가와 교역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개발 전략을 주장하는 볼셰비키에 대한 숙청, 국가 정책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계급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되었다. 스탈린은 국내의 반대자를 제거하면서 실질적 독재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굳혀 나갔다.

또한 ‘계급으로서의 부농의 전멸’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전국에 걸쳐 농장과 토지를 통합하여 집단 농장을 만들었다. 이 같은 강압 정책으로 1940년까지 모든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를 당 중앙이 조절하였다. 그리고 전국 농촌을 99% 집단화시켜 대규모 기계화 농장으로 바꾸어 농업 생산량을 3배 증가시켰다. 싼값으로 강제 징발한 농산물을 수출하여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였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노동자로 만들어 공업화를 급속히 촉진시켰다. 그리하여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두 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이 성공리에 완수되면서 소련은 급속히 공업 국가로 재편되었다. 공업 생산이 농업을 상회하였으며, 공업 생산량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를 앞질러 세계 2위의 공업국으로 발돋움하였다.

0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학습 목표

-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 과정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 전후의 평화 수립 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전후 아시아·아프리카에서 민족 운동이 활발해진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전후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족 운동의 예를 들고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4	<p>1. 베르사유 체제의 유럽</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제1차 세계 대전 후 파리에서 회의가 열린 이유는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대전 이후 유럽에 형성된 베르사유 체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한다. • 국제 사회가 세계 평화를 수립하고자 노력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개된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지니는 한계를 토론하게 한다. • 전후 유럽 민주주의의 발전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월슨의 제창과 베르사유 조약의 규약에 따라 창설된 국제기구? 2.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조약은?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 발표식 토론식 발표식</p> <p>문답식</p>	<p>CD</p> <p>177쪽 지도 인터넷, PPT 178쪽 삽화</p> <p>학습지</p>
55	<p>2.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 운동</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 아시아·아프리카에서 민족 운동이 활발해진 배경을 설명한다. • 국·공 합작과 대립의 측면을 중심으로 중국의 정치 체제 변화의 과정을 설명한다. • 전후 아시아에서 전개된 각국의 민족 운동을 정리하여 그 의의를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도 독립 운동 지도자로서, 완전한 독립을 요구했던 인물은? 2. 술탄제를 폐지하고 튀르크 인 중심의 터키 공화국을 세운 인물은?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 발표식</p> <p>문답식</p>	<p>CD</p> <p>PPT 180쪽 지도 181쪽 자료</p> <p>학습지</p>

● 학습 내용 정리

1. 베르사유 체제의 유럽

(1) 파리 강화 회의

- ① 월슨의 14개조: 강화 원칙으로 채택
 - 내용: 민족 자결주의, 비밀 외교 폐지, 군비 축소, 국제 연맹 창설 등
 - 결과: 동유럽 국가들의 독립, 패전국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약 체결
- ② 베르사유 조약: 승전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 → 베르사유 체제 수립

(2) 전후의 유럽 질서 변화

- ① 독일
 - 국외 식민지와 알자스 · 로렌 지방 상실
 - 군비 대폭 제한, 막대한 배상금 지불
 - 독일 국민의 불만 심화
- ② 동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지배에서 독립(핀란드, 발트 3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3)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 ① 국제 연맹
 - 창설 목적: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침략 방지 및 군비 축소
 - 한계: 미국 · 소련 등 강대국 불참, 침략 행위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 부재
- ② 워싱턴 군비 축소 회의: 각국 군함의 보유 비율 제한 → 열강의 이해관계 충돌로 중단
- ③ 부전 조약: 미국과 프랑스 체결, 국제 분쟁의 무력 해결 금지, 여러 나라 호응 → 전쟁 막을 강제력 부재

(4) 전후 유럽의 민주주의 발전

- ① 각국의 정치 발전
 - 독일, 오스트리아: 제정 붕괴, 공화국 수립(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선진적인 민주 헌법 제정)
 - 동유럽: 신생국의 민주적 헌법 채택
- ② 민주주의의 발달: 여성의 참정권 확대(미국 · 영국 등), 보통 선거 실시

2. 아시아 ·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1) 반제국주의 운동

- ① 3 · 1 운동(1919): 만세 시위 전개,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 운동으로서 전 세계에 독립 의지 선언
- ② 아시아 각국의 민족 운동: 중국의 5 · 4 운동, 인도 반영 운동,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

(2) 5 · 4 운동(1919)

- ① 배경
 - 신문화 운동의 영향으로 근대 의식 확산
 - 일본의 21개조 이권에 대한 중국의 철폐 요구 좌절
- ② 전개
 - 과정: 베이징의 대학생 중심으로 21개조 철폐, 외세 배척, 친일 관료 처단, 군벌 타도 등을 요구하는 시위 → 전국적인 민족 운동으로 발전
 - 결과: 군벌 정부의 친일 관료 파면, 베르사유 조약 조인 거부

(3)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

- ① 쑨원: 국민당 정부 수립(광둥)
- ② 사회주의 지식인: 중국 공산당 결성
- ③ 제1차 국 · 공 합작: 군벌 정부 타도 목적, 국민 혁명군 육성
- ④ 장제스
 - 북벌 단행, 상하이 점령 → 공산당과 결별
 - 새로운 국민당 정부 수립 → 군벌 정부 붕괴 → 공산당 압박
- ⑤ 마오쩌둥: 대장정 단행 → 옌안으로 이동

(4) 인도의 비폭력 · 불복종 운동

- ① 인도의 민족 운동: 제1차 세계 대전 후 반영 운동 확산
 - 간디: 인도 국민 회의 중심으로 완전 자치 요구, 비폭력 · 불복종 운동 전개
 - 네루: 완전한 독립 추구
- ② 반영 운동의 결과: 각 주별로 자치권 획득(군사권 · 외교권 제외) → 완전 독립을 요구하는 반영 운동 지속

(5)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 ① 베트남: 프랑스에 대항 → 호찌민의 주도로 인도차이나 공산당 조직
- ②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에 대항 →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국민당 결성
- ③ 시암: 입헌 군주국 수립(타이로 국호 개칭)

(6)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

- ① 오스만 제국: 무스타파 케말이 터키 공화국 수립(1923), 술탄제 폐지, 여성 참정권 인정, 로마 문자 사용
- ② 서아시아 지역
 -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의 독립
 - 팔레스타인, 시리아: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

(7)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운동

- ① 이집트: 와프드당의 민족 운동 → 독립 달성(1922)
- ② 범아프리카주의
 - 아프리카 인의 단결과 평등 강조
 - 아프리카 지식인 참여 → 자치 요구 주장 확산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77쪽

베르사유 조약

생각 열기 ▶▶▶ 교과서 179쪽

5·4 운동

탐구 활동 ▶▶▶ 교과서 181쪽

예시 답안

영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아랍 인과 유대 인의 협력을 얻어 내고자 이중적인 독립 약속을 하였으나, 프랑스와는 이 지역을 공동 관리하기로 약속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82쪽

- (1) 베르사유, (2) 국제 연맹, (3) 바이마르 공화국
- 5·4 운동
- (1) ㉞, (2) ㉟, (3) ㊦, (4) ㊧
- 아시아·아프리카를 식민지로 통치하던 나라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민족 운동은 반제국주의 성향을 띠 수밖에 없었다.

내용 더하기

● 월슨의 민족 자결주의

54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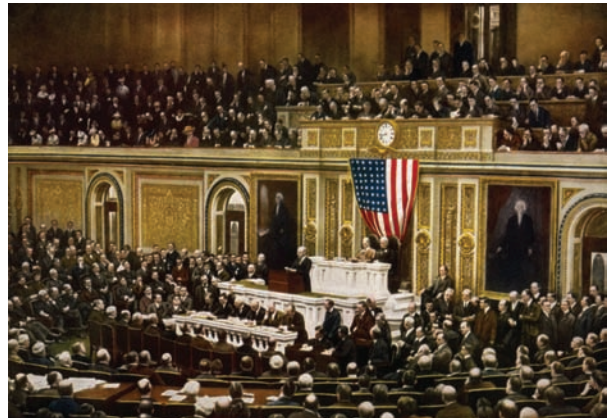
세계 모든 민족은 모두 동반자이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다른 민족에게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정의는 없을 것임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에 대한 구상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구상인 것이다.

- 공개적으로 체결된 강화 협약 이외에는 어떠한 비밀의 국제적 양해도 있을 수 없으며, 외교는 항상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각국의 전쟁 비용을 국내 안전에 필요한 최저선까지 축소하기 위해 적당한 보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식민지의 요구에 대한 자유롭고 편견 없는 절대 공평한 조정을 위해 식민지 주권과 같은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는 해당 식민지 주민의 이해가 그 지배권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가지는 정부의 정당한 요구와 대등한 비중을 가진다는 원칙이 엄수되어야 한다.
- 우리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의 민족들의 국제적 지위가 보전되고 보장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는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자결권을 부여하고 다르다넬스 해협 통행을 자유화한다.
- 분명히 폴란드 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독립된 폴란드 국가를 수립해야 하며, 폴란드에게는 바다로 향하는 자유롭고 안전한 출구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 그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독립과 영토 보전은 국제협정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한다.
- 강대국과 약소국을 막론하고, 동등한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협약에 따라 일반적인 연합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1918년 1월 8일 연설에서 제1차 세계 대전 종식과 전후 질서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른바 윌슨의 14개조 원칙이다. 이 원칙에는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식민지 처리와 국가 간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때 제시된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나라의 3·1 운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의회에서 제1차 세계 참전에 관해 연설하는 윌슨(1917.3.)

● 파리 강화 회의와 베르사유 조약

54차시

1918년 12월 5일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 윌슨이 탄 배 ‘조지 워싱턴호’는 앞으로 비행기의 호위를 받고 뒤로는 전함의 엄호를 받으며 21발의 축포가 울리는 가운데 뉴욕을 출발하였다. 그 배에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온갖 청원과 요구가 담긴 큰 서류 상자가 실려 있었다. 12월 14일 파리에 도착한 윌슨은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그 환영은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전쟁을 끝나게 한 강대국이었고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한 이상주의자였지만, 전쟁의 당사자였

던 영국과 프랑스는 결코 자신들의 권리와 식민지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18년 1월 윌슨 대통령은 비밀 외교의 폐지, 해양의 자유, 군비 축소, 국제 연맹의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안하여 전후 세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승전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주장했기 때문에 윌슨의 14개조는 국제 연맹의 창립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현되지 못하였다.

전쟁의 뒤처리를 마무리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1919년 1월 18일 전승국 2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패전국은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독일은 제시된 내용에 대한 논평조차 할 수 없었다. 승전국이라 하더라도 약소국가들은 이 회의에서 제외되었다. 그리하여 실제로 강화 내용을 결정한 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였다. 회의 결과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졌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었다.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포기해야 하였고, 철광석의 90%를 생산하는 알자스·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반환하였으며, 석탄의 보고인 자르 지방도 국제 연맹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독일은 또한 인구의 약 10%와 영토의 13%를 잃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으며 육군 10만 명과 군함 10만 톤으로 군비도 제한되었다. 패전국에 대한 이런 철저한 보복은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독일의 배상금 문제

54차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 수립과 경제 부흥에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배상 문제였다. 베르사유 체제의 최종 결정에 따라 독일은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패전의 혼란과 경제 침체에 허덕이는 독일의 형편으로는 전혀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프랑스는 루르 지방을 점령하였고, 독일 경제는 파탄 직전에 몰리게 되었다.

독일 경제의 파탄은 유럽 경제의 혼란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영국, 프랑스 등 승전국도 대부분 미국에 빚을 진 채무국이었기 때문에, 독일에게서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미국에 진 부채를 갚기 어려웠다.

1924년 미국은 ‘도스 안’을 제시하여 2억 달러의 차관으로 독일의 마르크화를 우선 안정시키고, 앞으로 5년간의 배상액을 잠정적으로 정하였다. 마르크화가 안정되면서 독

일 경제도 부흥할 기미를 보였으나 배상금은 여전히 큰 부담이었다. 1929년 미국은 다시 ‘영 안’으로 독일의 배상금 총액을 4분의 1로 감소하고 지불 연한도 59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대공황이 발생하여 배상금 지불이 불가능해지자, 미국의 후버 대통령은 1년간의 상환 정지를 통고하였다. 1932년 관계국들은 로잔 회의에서 배상금을 44분의 1로 감소하고,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지불을 유예하기로 하였는데, 히틀러의 정권 장악과 더불어 배상 문제는 실질적으로 소멸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전쟁 부채 문제도 흐지부지되었다.



▲ 독일의 5000만 마르크 지폐

독일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극심한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1923년 발행된 이 지폐의 액면가는 5000만 마르크지만 실질 가치로 따지면 미국의 1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만약 1914년이라면 미국의 1200만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을 것이다. 당시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폐는 발행된 지 몇 주만 지나면 아무 가치 없는 종이쪽이 되고 하였다.

● 워싱턴 군비 축소 회의

54차시

1. 해군 군비 제한 조약: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의 주력 함대 보유 톤 수 비율을 5:5:3:1.75:1.75로 정함.
2. 일본의 중국 진출 저지 9개국 조약 체결 곧, 21개조 요구 폐기
3. 영·일 동맹 파기와 태평양의 현상 유지 보장 4개국 조약 (영·미·일·프): 해군의 군비 제한에 대해서는 이후 1930년 4월 런던 조약으로 영국, 미국, 일본 3개국이 일정한 비율로 주력함,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을 감축하도록 결정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군비 축소를 위한 회의가 워싱턴, 제네바, 런던 등에서 열렸는데, 그중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이 워싱턴 회의였다. 워싱턴 회의는 해군의 군비 확장

경쟁을 막기 위해 미국 대통령 하딩의 제창으로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는 전차도 사용되었지만 가장 큰 비용이 든 것은 군함 건조였다. 비록 독일이 잠수함으로 해상을 위협했지만 함대를 이용하여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군비 제한의 1차 대상이 된 것은 해군이었다. 워싱턴 회의는 특히 팽창하고 있던 일본의 군비를 제한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일본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은 독일에게 타격을 주려는 영국이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 틈을 노려 중국에 발판을 굳히려 했기 때문에 전쟁 범위를 해상에 국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은 거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 승전국의 정치적 이익과 중립국의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챙겼다. 그것은 일본이 전후 협상에서 요구한 21개조에서 드러나는데, 이것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5·4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었고,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었다. 미국은 전쟁이 종결됨에 따라 영국이 일본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졌고, 일본의 중국 진출 동맹자였던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중국에서 혁명적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외교적으로 일본을 압박하였다.

● 바이마르 헌법(1919.7.)

54차시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2조 국회 의원은 비례 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된다.
제41조 대통령은 전 독일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제159조 노동 조건 및 경제 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의 자유는 모든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이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협정과 조치는 위법이다.
제165조 노동자 및 고용인은 임금 및 노동 조건에 관한 규정과 생산력의 모든 경제적 발전에 관하여 기업가와 대등한 권리를 갖고 함께 협력할 것을 요청받는다.

1919년 독일 공화국에서 처음 열린 국회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발표하였다. 이 헌법은 주권 재민, 남녀 보통 선거, 노동권의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다.

● 5·4 운동

55차시

지금 일본은 칭다오를 삼키고 산둥에서의 모든 권리를 관리하는 데 성공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산둥을 잃는 것은 중국이 망하는 것이다.

조선은 독립을 꾀해 “독립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전국의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밖으로는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우고 안으로는 국가의 적을 제거하자. 중국이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이번 일에 달려 있다. 중국의 영토는 정복될지언정 넘겨 줄 수 없다. 중국 국민은 죽을지언정 머리를 숙일 수 없다.

- 전체 학생 천안문 선언(1919)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은 일본이 제출한 ‘대중국 21개조 요구’의 취소와 산둥 반도의 이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열강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베이징 대학생들은 산둥 반도의 반환과 대중국 21개조 철폐, 군벌 타도, 반일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반봉건·반군벌·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5·4 운동 기념 부조(중국 베이징)

●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55차시

쑨원이 이끄는 중국 혁명 동맹회는 삼민주의(민족 독립, 민권 신장, 민생 안정)를 내걸고 중화민국을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다(1912). 그러나 각지에서 군벌 세력이 발호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계속되는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쑨원은 중화민국의 총통 자리도 제국주의 열강의 지원을 받는 군벌 위안스카이에게 곧 넘겨주어야 했다.

그 후 쑨원은 중국 혁명 동맹회를 국민당으로 발전시켜 위안스카이에 대항하였으나 1913년 선거 후 당은 해산되었고 쑨원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919년 5·4 운동이 일어나자 쑨원은 국민당을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발전시켜 ‘중국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쑨원이 이끄는 중국 국민당은 군벌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공산당과도 손을 잡는다는 방침을 세웠다(제1차 국·공 합작, 1924). 그러나 1925년 쑨원이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국민당을 장악한 장제스는 반공 쿠데타를 일으켜 난징 정부를 세우고 우한에 자리 잡은 공산당에 대한 토벌에 나섰다(1927).

중국 공산당은 5·4 운동의 영향을 받아 1921년 결성되었으며, 베이징 대학 학장이었던 천두슈 등이 조직 결성을 주도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제1차 국·공 합작에 따라 국민당과 함께 반군벌 투쟁에 나서며 당세를 확장시켜 나갔으나, 장제스의 쿠데타와 공산당 토벌 작전으로 큰 위기를 겪었다. 몇 차례의 정규전에서 대패한 공산당은 대장정이라 불리는 퇴각 과정(1934~1936)에서 마오쩌둥이 당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항일을 위해 복상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추구하는 노선을 채택하였으며 농민을 중시하였다.

한편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면서 공산당 토벌에만 열중하는 장제스의 국민당에 대해 민중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안(西安)에서 북동군 총사령관이었던 장쉐량이 부하들의 설득을 받아들여 장제스를 감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시안 사변, 1936). 그는 장제스에게 내전을 중지하고 공산당과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 사건으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다시 한 번 항일을 위해 손을 잡는 제2차 국·공 합작을 이루어 냈다.

● 인도 민족 운동과 간디

55차시

“자신들의 양심을 갉아먹는 위선 행위를 단념하는 것이 백인들에겐 너무도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백인은 이제 모든 인간들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왔다. 백인들은 정녕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가 남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할 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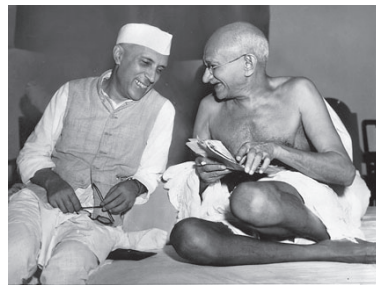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인도인들이 전쟁 수행에 협력해 준다면 전쟁 후에 자치를 보장한다고 약속하였다. 인도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영국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전쟁 후 영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전시와 같은 통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 민족 운동을 이끌던 간디는 사티아그라하(압박에 대한 투쟁,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간디는 인도 여러 곳을 순회하며 영국 산 면제품을 쓰지 말자는 수방(手紡: charkha) 운동을 장려하였다. 수방 운동은 영국산 직물의 침투를 막고 자급자

족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직물을 스스로 짜서 입자는 운동이다.

1919년 인도 국민 회의에서는 간디의 주장에 따라 영국에 대한 비협력 운동 방침이 채택되어 납세 거부, 취업 거부, 상품 불매 등을 통한 비폭력 저항이 실시되었다.

이 운동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도 각지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자 1922년 간디의 호소로 운동은 잠시 중지되었다. 그동안 간디는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으며, 1924년부터 1년간 인도 국민 회의파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수방 운동을 전개하며 전국을 순례하였다.

61세가 된 간디는 1930년 3월에 사티아그라하 운동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소금세 신설 반대 운동을 벌였다. 영국은 소금을 독점하고 무거운 세금을 매겨 팔고 있었다. 간디는 이에 항의해 해변으로 가 불법으로 소금을 채취하고 ‘소금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이 행진에 수백만 명의 군중이 뒤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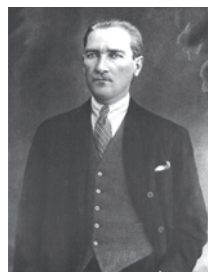
▲ 간디와 네루

간디(1869~1948)는 하급 관리 집안 출신으로 영국에 유학하여 변호사가 되었으며, 제1차 세계 대전까지 남아프리카에서 인종 차별 반대 투쟁에 힘썼다. 네루(1889~1964)는 변호사 집안 출신으로 영국에서 유학하던 중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인도의 독립 운동에 참가하여 강경한 노선을 걸었다.

● 터키 공화국

55차시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오스만 제국은 비튀르크인의 거주 지역을 모두 상실하고, 협상국 측의 재정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에 무스타파 케말은 튀르크 국민당을 결성하고,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그는 서양 열강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술



탄 제도를 폐지하여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 무스타파 케말

정교 분리, 여성의 지위 향상, 근대적 교육 제도 실시 등을 추진하여 터키의 근대화에 이바지하였다.

03

제2차 세계 대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

학습 목표

- 대공황의 발생 원인과 각국의 극복 노력을 이해할 수 있다.
- 파시즘의 출현 배경과 파시즘 체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 원인과 전개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국제 연합이 성립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전쟁 중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의 사례를 통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6	<p>1. 대공황의 발생과 파시즘의 출현</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공황 시기의 상황을 관련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 각국의 대공황 극복 노력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서 파시즘이 등장한 배경과 그 특징을 파악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29년 미국에서 전 세계로 파급되어 장기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은? 2. 많은 식민지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가 자국과 식민지를 하나로 묶은 것은?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 발표식 탐구식</p> <p>문답식</p>	<p>CD</p> <p>CD PPT 184쪽 자료</p> <p>학습지</p>
57	<p>2.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 ~ 3.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국제 연합의 성립</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독일은 왜 게르니카를 무차별 폭격하였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지도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 과정을 설명하고, 전쟁의 참상과 폐해에 대해 탐구하게 한다.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 사회가 노력한 점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고 동남아시아를 침공하면서 일어난 전쟁은? 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설된 국제 평화 기구는?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 탐구식 발표식</p> <p>문답식</p>	<p>CD</p> <p>186쪽 지도 189쪽 자료 인터넷</p> <p>학습지</p>

● 학습 내용 정리

1. 대공황의 발생과 파시즘의 출현

(1) 대공황(1929)

- ① 배경: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경기 과열
- ② 발생: 미국의 주가 대폭락 → 기업과 은행 도산, 실업자 증가, 농산물 가격 폭등
- ③ 확산: 세계 여러 나라에 파급 → 장기간 심각한 타격

(2) 각국의 대공황 극복 정책

- ①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 정부의 경제 개입: 생산 조절,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
 - 복지 정책 추진: 노동자의 권익 보호, 사회 보장 제도 실시

- ② 영국, 프랑스: 본국과 식민지를 묶는 배타적인 경제 구역(블록) 형성

- ③ 독일, 이탈리아, 일본: 침략 정책 확대

(3) 파시즘의 확산

- ① 등장 배경: 민주주의 발전과 노동 운동 활성화에 대한 반발
- ② 특징: 국가 최우선주의, 반민주주의 · 반공주의, 일당 독재 체제, 군국주의, 대외 침략 확대
- ③ 파시즘 국가: 이탈리아(무솔리니), 독일(히틀러의 나치당), 일본(군국주의)

2.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

(1) 파시즘 국가들의 결속 강화

- ① 파시즘 세력의 확산: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독일의 재군비 선언 → 인민 전선 운동의 대항
- ② 파시즘 국가의 결속: 에스파냐 내전(1936)으로 파시즘 체제 수립 → 독일 · 이탈리아 동맹 → 독일 · 일본 · 이탈리아의 방공 협정 체결(1937)

(2) 제2차 세계 대전

- ①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
 - 독일의 침략 확대: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 전쟁 발발: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 체결 → 독일의 폴란드 침공(1939)

② 제2차 세계 대전의 전개

- 파시즘 세력의 전쟁 확대: 독일과 이탈리아의 협동 작전 전개, 독일의 유럽 대륙 장악 → 소련 침공(1941)
- 연합국의 저항: 영국의 항전,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운동 전개

(3) 전쟁의 확대

- ① 일본의 침략 전쟁: 중국 침략(중 · 일 전쟁, 1937),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점령
- ② 태평양 전쟁
 - 원인: 일본의 침략 확대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압력
 - 전개: 일본의 미국 진주만 기습 공격(1941) →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 세계로 전쟁 확대

3.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국제 연합의 성립

(1)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

- ① 연합국의 반격: 미국 · 영국 연합군의 이탈리아 상륙 → 무솔리니 정권 붕괴(1943)
- ② 노르망디 상륙 작전: 파리 해방, 베를린 공격 → 독일 항복(1945. 5.)
- ③ 전쟁 종결: 미군의 일본 본토 폭격, 원자 폭탄 투하 → 일본 항복(1945. 8.)

(2) 전후 문제 처리

- ① 연합국 주둔: 미국 · 영국 · 프랑스 · 소련의 독일 점령, 미국의 일본 점령
- ② 패전국 처리: 전범 처단(국제 재판소 설치), 파시즘 체제 해체 → 강화 회의 개최

(3) 국제 연합의 창설

- ① 국제회의 개최
 - 대서양 헌장(1941): 미국의 루스벨트와 영국 처칠 회담, 전후 평화 수립 원칙 발표
 - 카이로 회담: 전후 일본 처리 문제 협의, 최초로 한국의 독립 약속
 - 알타 회담: 전후 독일 처리 문제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법에 합의
- ② 국제 연합(UN)
 - 창설(1945. 12.):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 중심으로 창설, 강대국 참여
 - 역할: 침략 행위에 대한 무력 제재(유엔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83쪽

대공황(경제 대공황, 세계 공황)

탐구 활동 ▶▶▶ 교과서 184쪽

1. ‘국가 최우선, 반민주 · 반공’, 군국주의, 일당 독재 체제, 국가나 민족을 앞세우는 전체주의 정책, 개인의 자유 제한, 대외 침략 등

2. **예시 답안** 파시즘 체제는 주로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대외 침략으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불만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을 절대시하는 상징 조작 체계를 교묘히 이용하고, 인종적 순수성이나 과거의 위대한 역사를 강조하여 비뚤어진 애국심을 고양하려고 하였다. 또한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의 비판 의식을 약화시키고 국가와 지도자에 충성하는 국민 감성을 고양하려 하였다. 독일 나치당의 경우 유대인을 비롯한 소수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인종 청소도 서슴치 않는 등 비인간적이고 극단적인 광기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85쪽

인간을 파괴하는 파시즘의 무모한 폭력을 고발하고 이를 비판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87쪽

독일과 소련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88쪽

- (1) ○, (2) ○
- (1) ㉠, (2) ㉡, (3) ㉢
- ㉠ - ㉡ - ㉢ - ㉣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깊이 있는 역사 ▶▶ 교과서 189쪽

예시 답안

- 독일: 유대인 학살, 수용소의 인체 실험 등
• 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난징 대학살, 마닐라 대학살, 731부대의 생체 실험, 세균전 등(위키 리걸 <http://ko.legalwika.com>,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의 '전쟁 범죄' 항목 참조)
-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전쟁 범죄 사실을 밝히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과는 물론 실질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전쟁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밝혀진 사실도 인정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자로 처벌 받은 인물들까지 야스쿠니 신사에서 애국자로 존송하고 있다.

● 내용 더하기

● '검은 목요일'

56차시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자본주의는 크게 심각한 불황을 겪지 않고 1929년을 맞이하였다. 전쟁은 옛이야기가

되었고, 세상은 '영원한 번영'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았다. 특히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은 미국 경제는 그 번영의 정점에 올라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나날이 오르기만 하는 주식 가격에 모아졌다. 매주 15달러씩 저축해서 그것을 주식에 투자하면 5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계산법이 시중에 떠돌았으며, 주식 투자로 벼락부자가 된 구두담이나 간호사의 성공담이 사람들을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 증권 거래소에서 종이쪽지를 사고파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었기에, 투기 열풍은 1929년 10월 24일 뉴욕의 월스트리트 증권 거래소에서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을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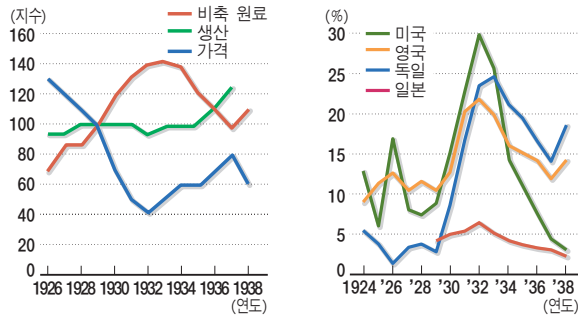
이날 월스트리트의 증권 거래소는 주식 가격이 내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사로잡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쏟아낸 매물로 넘쳐났다. 주가는 즉시 수직으로 곤두박질쳤고, 투자자들은 자기의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어제까지 주식을 사지 못해 안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을 팔지 못해 아우성을 쳤다. 이날의 주가 폭락으로 파산한 투자자들 가운데 11명이 자살하였고, 투자 신탁 회사의 큰손들이 연일 대책 회의를 열어 필사적인 매입 작전을 전개하면서 사태는 약간 진정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닷새 뒤 화요일에 두 번째 폭락이 이어졌다. 단 하루 사이에 주가가 40% 넘게 떨어지면서 파동은 계속되었다. 11월의 주가는 9월의 절반을 밑돌았고 해가 바뀌자 8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갔다. 곧이어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등 전 세계의 증권 거래소도 주식 폭락 사태를 맞았다.

사람들은 자기의 귀중한 재산이 증권 거래소 게시판 위에서 솜사탕처럼 녹아 없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하지만 주가 폭락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니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이 맨 먼저 파산하였다. 가진 주식을 다 팔아도 은행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집과 땅을 빼앗겼다. 그러나 은행도 안전하지 않았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들이 부도를 내기 시작하자 예금주들은 은행 앞에서 장사진을 쳤다. 은행마다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밀려들었으나, 이 돈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된 상태였으므로 은행의 현금 잔고는 금방 바닥이 났다. 미국에서만 5천 개의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하였다.

재산과 예금 구좌를 날려 버린 사람들은 소비를 줄였다. 기업들은 물건을 팔 수 없게 되자 생산을 감축하고 종업원

을 해고하였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빈곤이 확산되면서 상품 판매는 더욱 어려워졌고, 기업은 생산을 또다시 감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자금난에 빠진 수만 개의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대공황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 1926~38년의 상품 생산
1930년대 전반에 비축 원료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생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과잉은 대공황을 불러왔고,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은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 주요 국가의 실업률
미국 실업률은 1932년 25%에 달했다. 독일은 1932년 30%에 달했다. 일본은 1932년 15%에 달했다.

● 뉴딜 정책

56차시

농업 조정법 (A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생산을 제한하여 생산과 소비의 균형 유지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불하여 가격 회복 추구
산업 부흥법 (NI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 금지 국민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경제 회복 추구
와그너 법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 인정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뉴딜 정책을 실시하였다. 뉴딜 정책은 ‘정치는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수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금융과 산업 및 물가 등 시장 경제의 전면에 걸쳐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으로 생산을 증대하고, 테네시 강 계곡 개발 공사 등으로 고용 증대를 꾀하였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선린 외교 정책을 펴 교역을 촉진하였다.



▲ 테네시 강 개발 공사 현장
테네시 강에 26개의 대형 댐을 건설하여 홍수 방지·전력 개발·공업 유치·관개·휴양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이탈리아의 파시즘

56차시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 대전 때 협상국에 가담하여 승전국이 되었다. 그러나 전후에 아드리아 해 영토를 획득하지 못해 베르사유 체제에 큰 불만을 가졌다. 또한 제1차 세계 대전 중 불어난 외채와 전후 실업자 문제로 사회와 경제가 극도로 혼란해졌다. 특히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고 공산주의 세력이 급격히 성장하자 위기감을 느낀 자본가와 지주, 군인들은 무솔리니가 주도하는 파시스트당에 집결하였다.

무솔리니는 1919년 제대 군인, 부유층, 우익 학생들을 규합하여 이탈리아 파쇼 전투단을 조직하고, 이듬해에는 ‘검은 셔츠단(Black Shirts)’을 결성하여 노동자, 농민 단체가 주도하는 파업 투쟁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동에 지주, 산업 자본가, 실업자나 불우한 노동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군인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1921년 이후 파시스트들의 테러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1922년 10월까지 120개의 농민 조합이 습격당해 파괴되었고, 243개의 사회당 지부가 공격받았다. 또한 노동자 회관과 소비조합 500여 개가 파괴되었으며, 사회당 자치 단체 900여 개가 해산되었다. 무솔리니가 집권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파시스트당을 제외한 정당은 이탈리아에서 사라졌다.

● 독일의 파시즘

56차시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의 여파로 독일의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 자본으로 지탱되던 독일 경제는 미국의 급격한 자본 회수로 붕괴되어, 1932년에는 노동자의 40%가 실업자로 전락하였다.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아 실업자가 증가하고, 계급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치당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1932년 나치당은 제1당이 되었고, 이듬해 내각 구성권을 장악하였으며, 다른 정당을 해산한 다음 일당 독재 체제를 형성하였다. 1933년 1월 제1당의 지도자 히틀러는 제3당으로 부상한 공산당의 추이에 불안감을 느낀 보수 세력과 자본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상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이른바 의사당 방화 사건을 조작하여 공산당과 노동조합을 탄압하였으며, 7월에는 나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나치당원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였다. 1934년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죽자 히틀러는 대통령의 지위를 겸하였다. 9월에는 국회 의사당

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국기가 사라지고 나치당의 갈고리 십자가 깃발이 걸렸다. 히틀러는 새로 형성된 질서를 제3 제국이라 불렀다.

● 히틀러의 대외 인식

56차시

…… 나는 이 나라(오스트리아)의 수도에 여러 인종이 혼재하고 있는 모습에 혐오감을 느꼈다. 체코 인, 폴란드 인, 헝가리 인, 루테니아(러시아) 인, 세르비아 인, 크로아티아 인 그리고 어디서나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유대 인, 그 많은 유대인들에 나는 질려 버렸다.

지금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피로 얼룩진 범죄자들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들은 시대를 잘 타고 나 권력을 잡았을 뿐, 인간쓰레기들이며 이 위대한 국가를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인텔리들에게 피의 살육을 자행한 자들이다.

수백만의 고급 문화인들이 별 볼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편인데, 반원숭이 아프리카 인들을 교육시켜 변호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범죄 행위이다. …… 가장 큰 축복을 받고 태어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텐토트 인과 줄루 카피르 인을 가르쳐 전문 직업인으로 키우겠다는 발상은 위대한 창조주의 의지에도 반하는 죄악인 것이다.

인종적으로 프랑스는 유럽의 토양에서 자라난 아프리카 국가라고 불려야 할 만큼 너무 심하게 흑인화하였다. 오늘날 프랑스의 식민 정책은 과거 독일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300년이 흐른다면, 프랑크족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은 유럽-아프리카 물라도 국가에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분명하다. 그들은 독일에 불세비키 혁명을 일으켜 인텔리들을 몰아내고 독일 노동자들을 유대 금융가들에 속박시켜 착취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정지 작업일 뿐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일은 이 투쟁에 있어 주축이었다. 만약 우리 국민과 국가가 피해 굶주리고 탐욕스러운 유대인 압제자가 다스리는 국가에 희생된다면, 전 세계가 이 괴물의 뜻에 걸려들 것이다. 만약 독일이 이 투쟁에서 살아남는다면, 전 세계를 위해 이 엄청난 위협 세력을 꺾는 것이 될 것이다.

유대인은 언제나 여러 국가에서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각 국가의 현실과 정서에 맞게 효과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술을 사용할 것이다. 오랜 전쟁으로 피로 얼룩진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모폴리탄, 평화주의 이데올로기 등을 강조하면서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국가 그리고 또 한 국가를 폐허로 만들어, 그 토대 위에 영원 불멸의 유대인 제국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 히틀러, “나의 투쟁”

공황 극복에 대한 독일인들의 기대감 덕분에 43세의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잡은 히틀러는 1933년부터 ‘경제 4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그 핵심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물가를 규제하고, 대대적인 공공사업과 군비를 확충하며, 수출입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나치는 ‘전체’를 강조했지만 ‘전체’가 모두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다. 민족이나 국가의 단결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적’이 필요했다. 사람들의 막연한 불만과 분노를 이용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단순화시켜, 그 불만과 분노를 해소할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 파시스트의 술책이었다.

가장 먼저 그 희생양이 된 것은 사회주의자들이었고 그 다음으로 소수자들(정신 질환자, 부랑자, 장애인, 동성애자 등), 그리고 유대인, 나중에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자들까지 타도 대상이 되었다.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던 많은 자산은 고스란히 나치당의 차지가 되었다.

● 에스파냐 내전과 반파쇼 투쟁

57차시

파시즘은 이탈리아나 독일과 같은 몇몇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계급 갈등이 심해지면서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파시스트 정부가 수립되었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파시스트의 세력이 크게 성장하였다.

1931년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행한 프랑스에서는 보수 세력과 혁신 세력의 다툼으로 정국이 불안정하였다. 1936년 2월 19일 에스파냐 제2 공화국에 인민 전선 정부가 성립되었다. 좌익의 인민 전선 정부는 정교(政敎) 분리, 농지 개혁 등의 정책을 내걸어 중산 계급과 노동자·농민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교회와 대지주·대자본가의 지지를 얻은 군부·왕당파·우익 정당 진영이 프랑코 장군의 지휘하에 모로코 주둔군을 선두로 하여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프랑코군을 계속 원조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불간섭을 내세워 공화국에 대한 무기수출을 거부하였다. 소련은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항하여 공화국에 무기를 제공하였고, 코민테른은 국제 의용군을 보내 공화국을 도왔다. 그러나 1939년 1월 26일 바르셀로

나가 프랑코군에게 점령되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2월 27일 프랑코 정권을 승인하였다. 3월 23일 마드리드에서 프랑코 군과의 화평을 요구하는 반공 쿠데타가 일어나고, 28일 프랑코군이 마드리드에 입성하면서 내란은 끝이 났다. 이로써 에스파냐에 프랑코 체제가 성립하였다.

● 피카소의 게르니카

57차시



1937년 에스파냐의 소도시 게르니카는 나치 독일 공군기들에 의해 3시간 동안 무려 32톤의 폭탄 세례를 받았다. 독일 공군기들은 피신하는 주민들까지 기관총으로 공격하였고, 게르니카는 폐허로 변하였다.

당시 프랑스에 있던 피카소는 조국에서 벌어진 학살 행위를 고발하고자 2개월 만에 ‘게르니카’를 그려 그해 파리 국제 전시회에 공개하였다. 게르니카는 학정에 대한 저항과 화해의 상징이 되었고, 침묵하던 세계의 지식인들이 직접 에스파냐로 달려가 충을 듣게 만들었다.

그림에는 말을 탄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짓밟는 모습이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말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의미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을 탄 사람은 한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한 눈은 옆을 보고 있다.

처음에 세계는 공습을 주도한 히틀러 정권만을 비난하였다. 이에 피카소는 게르니카 공습이 실제로는 에스파냐 군부의 사주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기 위해 엇갈린 시선을 가진 인물을 그려 넣었다. 이것은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때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있다는 피카소의 생각을 웅변하는 것이다.

● 히틀러의 소련 침공 이유

57차시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역사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소련이 동남부 유럽에 대한 기존의 이해관계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나라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소련은 독일이 전시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석유와 식량을 독일에게 충실히 보내 주고 있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영국과 장기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히틀러는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데 더 이상 소련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 소련 침공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또 다른 이들은 히틀러가 스탈린이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오판하여 소련을 침공하였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히틀러가 소련을 무너뜨리고 그 영토를 제3 제국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는 주장도 있다. 도네츠크 지역의 산업 자원과 캅카스 지역의 유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서부의 드넓은 옥수수 지대를 확보하면 독일이 자급자족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서유럽 도시 문화의 영향으로 퇴락한 독일 인종을 다시금 우수한 인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개최된 회담

57차시

● 대서양 헌장(1941)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스벨트가 대서양의 함상 회담에서 전쟁 처리의 원칙과 평화 수립의 이념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토의 불확대, 민족 자결, 군비 축소, 평화 유지를 위한 기구 설립 등이다.

● 카이로 회담(1943)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만나 태평양 전쟁 후 일본의 처리에 관해 협의하였다. 이때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하였으며,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였다.

● 알타 회담(1945. 2.)

소련의 알타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모여 전쟁 후의 국제 연합 문제, 독일 문제 등을 결정하였으며, 소련의 대일 참전에 관한 비밀 협정도 체결하였다.

● 포츠담 회담(1945. 7.)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가 만나 알타 협정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본의 항복 권고와 전후 일본의 처리에 관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거부하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고, 소련도 참전하게 되었다.

04

전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전개

학습 목표

-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한국과 독일이 분단되고 열전이 전개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 1945년 이후 아시아·아프리카의 독립 국가 탄생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제3 세계의 결속 과정과 활동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 유럽 통합 운동의 전개 과정을 현재 상황과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8	<p>1.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전개</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제2차 세계 대전 때 같은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왜 갈라서게 되었을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전의 의미와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 유럽에서 냉전 체제의 양 진영이 대립한 양상을 도표로 작성하여 파악하게 한다. • 냉전 체제 속에서 진행된 열전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p>[정리]</p> <p>* 형성 평가 실시</p> <p>1. 1947년 미국이 유럽의 공산화를 막고자 발표한 선언은?</p> <p>2.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맞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결성한 조직은?</p> <p>*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p>	<p>문답식</p> <p>강의식</p> <p>탐구식</p> <p>발표식</p> <p>문답식</p>	<p>CD</p> <p>PPT</p> <p>191쪽 자료</p> <p>192쪽 자료</p> <p>학습지</p>
59	<p>2. 아시아 · 아프리카의 독립 국가 탄생 ~ 3. 제3 세계의 성립과 유럽 통합 운동</p> <p>[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p> <p>* 진단 평가 실시: 1970년대 후반에 국제 연합의 회원국이 크게 증가하게 된 배경은 무엇 일까?</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정치 · 사회적 변화와 패전국 일본에서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아시아 ·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과 분쟁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서 일어난 변화를 설명한다. • 아시아 · 아프리카 신생국들의 결속 배경과 과정을 파악하게 한다. • 유럽 통합 운동의 전개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그 특징을 탐구하게 한다. 	<p>문답식</p> <p>강의식</p> <p>발표식</p> <p>강의식</p> <p>탐구식</p>	<p>CD</p> <p>PPT</p> <p>194쪽 지도</p> <p>196쪽 자료</p> <p>197쪽 지도</p>

- * 형성 평가 실시: 아프리카 신생국이 대거 독립한 1960년을 일컫는 용어는?
-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 학습 내용 정리

1.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전개

(1) 냉전 체제의 형성

- ① 냉전의 의미: 자본주의 진영(미국)과 사회주의 진영(소련) 대립, 긴장 상태 유지
- ② 냉전의 전개
 - 소련의 세력 확장: 동유럽에 사회주의 정부 수립 → 서유럽 진출 시도, 코민포름 조직
 - 미국의 대응: 트루먼 독트린 발표(1947), 마셜 계획 추진 (서유럽에 대한 경제 원조 강화)

(2) 냉전 체제의 심화

- ① 냉전 체제의 긴장 고조
 - 한국 분단: 대한민국(자본주의)과 북한(사회주의)
 - 독일 분단: 서독(자본주의)과 동독(사회주의)

- ② 집단 안전 보장 기구 결성: 북대서양 조약 기구(미국 중심), 바르샤바 조약기구(소련 중심)

③ 냉전 체제의 대립 구도

자본주의(자유주의) 진영	공산주의(사회주의) 진영
미국과 서유럽	소련과 동유럽
트루먼 독트린	사회주의 정부 지원
마셜 계획	코민포름(공산당 정보국)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바르샤바 조약기구(WTO)

(3) 아시아의 열전

- ① 중국: 국 · 공 내전 → 공산당 승리(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국민당 정부 타이완으로 이동
- ② 한국과 베트남: 남북 대립 → 전쟁 발발

2. 아시아 · 아프리카의 독립 국가 탄생

(1) 중국의 변화

- ① 사회주의 정책: 토지 개혁, 산업의 국유화 실시, 대약진 운동 추진(1958) → 실패
- ② 문화 대혁명
 - 배경: 덩샤오핑 등 민생 회복을 주장하는 실용주의 세력 대두 → 마오쩌둥의 탄압
 - 내용: 기존의 가치 부정, 반대 세력 공격 → 사회 전반 침체

(2) 일본의 변화

- ① 정치 개혁: 전후 평화 헌법 제정, 민주 사회 개혁 추진 → 자위대 설치,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로 주권 회복
- ② 경제 발전: 6 · 25 전쟁 등을 계기로 경제 부흥

(3)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독립

- ① 인도: 독립 후 종교 갈등 → 인도(힌두교), 파키스탄(이슬람교), 스리랑카(불교)로 분열

② 동남아시아

- 독립 달성: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 타이: 군사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 장악

(4) 이스라엘의 건국과 서아시아의 분쟁

- ① 이스라엘 건국: 주변 아랍 국가의 반발 → 중동 분쟁
- ② 중동 분쟁: 이스라엘 승리 → 아랍 인의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결성, 항쟁

(5) 아프리카 지역의 독립

- ① 이집트: 나세르 집권, 수에즈 운하 국유화 선언
- ② '아프리카의 해(1960)': 아프리카 17개국 독립 달성

(6) 라틴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의 변화

- ① 라틴아메리카: 정치 불안 → 사회주의 정부 수립(쿠바, 칠레, 니카라과 등) →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진행
- ②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독립

3. 제3 세계의 성립과 유럽 통합 운동

(1) 제3 세계의 성립

- ① 제3 세계의 형성
 - 배경: 냉전 체제의 대립 심화, 신흥 독립국들의 독자 노선 모색
 - 평화 5원칙(1954): 중국과 인도 합의, 제3 세계 성립의 기초 마련

② 아시아 · 아프리카 회의(반동 회의, 1955)

- 원칙: 세계 평화, 반식민주의, 상호 연대 원칙에 합의 → 비동맹 중립 선언(제3 세계 성립)
- 성장: 비동맹국 회의로 확대, 국제 사회에서 발언권 강화

(2) 유럽 통합 운동

- ① 배경: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체제 → 서유럽 국가들의 영향력 약화

② 과정

- 유럽 경제 공동체(EEC, 1957): 서독, 프랑스 등 6개국이 공동 시장 건설을 목표로 창설
- 유럽 공동체(EC): 영국, 에스파냐 등 12개국 가입 → 미국과 소련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탈피

• 유럽 연합(EU, 1993)

- 마스트리히트 조약(1991): 유럽의 단일 시장화, 정치·경제·통화의 통합에 합의
- 활동: 단일 통화(유로) 발행, 유럽 연합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통합 노력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90쪽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고자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고 마셜 계획을 추진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91쪽

1. **예시 답안** 소련이 동유럽을 공산화하여 ‘철의 장막’을 치고 서유럽까지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하려 하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으로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려 하였다. 이에 소련은 코민포름을 조직하여 공산 국가의 단합을 강화하였다. 동서 대립이 심화되면서 한국과 독일이 분단되었고, 양 진영은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WTO)를 결성하여 집단 방어 체제를 구축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93쪽

주로 서양 열강의 식민지였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생각 열기 ▶▶▶ 교과서 196쪽

제3 세계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97쪽

1. (1) ○, (2) ○, (3) ×
2. (1) 한국, 독일, 베트남
(2) 한국, 베트남
3. ㉠ - ㉡ - ㉢
4. (1) ㉠, (2) ㉡, (3) ㉢, (4) ㉣

내용 더하기

냉전

58차시

냉전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란 의미로, 열전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냉전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평론가 리프먼(Walter Lippmann)이 저술한 ‘냉전 The Cold War(1947)’이라는 논문에서 비롯되었고, 미국의 재정 전문가이며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버나드 바루크(Bernard Mannes Baruch)가 1947년 의회 토론에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냉전을 상징하는 도시, 베를린

58차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4개국에 의해 공동 점령되어 있었다. 4개국은 독일에 수립할 국가 형태와 전쟁 배상 등의 문제에서 전부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었다. 1948년 미국·영국·프랑스의 점령 지구가 단일한 행정 당국의 통치로 통합되자 소련은 서부 독일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였고, 이에 맞서 서방은 공중으로 물자를 운송하였다. 1949년 5월 12일까지 380대의 비행기가 150만 톤에 달하는 물자를 수송했던 이 사태는 소련이 봉쇄를 풀면서 해결되었다. 이후에도 베를린은 소련과 서방의 대립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었고, 1961년에는 동독 지역 사람들이 서방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벽이 세워지면서 베를린은 동서로 분리되었다.

냉전 시대의 분단국가들

58차시

냉전 시기에 네 국가가 분단되었고, 그 가운데 두 국가는 오랜 기간 동쪽끼리 서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 대한민국과 북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가, 냉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남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되고, 북쪽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 정부가 수립되어 가장 먼저 분단국가가 되었다(1948). 특히 1950년부터 3년 동안 수백만 명이 희생되는 6·25 전쟁이 일어나 우리 민족은 냉전 질서의 최대 희생자가 되었다.

• 서독과 동독

패전 후, 미국·영국·프랑스와 소련이 나누어 점령했던 독일은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소련 점령지역과 다른 연합군 점령 지역에 별도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다. 수도 베를린도 동서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쌓은 장벽은 냉전의 상징물이 되었다.

• 중화 인민 공화국과 타이완

일본과의 전쟁 기간 중에 다시 손을 잡았던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일본이 패망한 뒤, 또다시 분열하여 내전을 치렀다. 처음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이 우세하였으나, 마오쩌둥이 이끈 공산당이 농촌을 근거지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여 결국 승리를 거두고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대륙에서 밀려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에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여 중국이 분열되었다(1949).

•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게 점령당했던 베트남은 일본이 패망하자 공산주의 지도자 호찌민의 주도로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프랑스와 미국의 잇단 개입으로 남북이 분단되었다(1954). 베트남은 이후 미국과 10여 년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등 온전한 독립을 달성하는데 20여 년이 더 걸렸다.

● 팔레스타인 문제

59차시

제2차 세계 대전 후 중동 지역 최대의 문제는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대립 항쟁이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 영국은 유대인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시오니즘(Zionism) 운동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아랍인들에게도 아랍 국가 건설을 약속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1947년에 국제 연합은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아랍 양국으로 분할하는 안을 결의하였고, 다음 해 이스라엘 공화국이 건국되었다. 유대인은 2천 년 만에 ‘약속의 땅’에 정착한 셈이었지만 아랍 인들로서는 수세기 동안 반목해온 이교도들에게 성지를 빼앗긴 셈이었다. 그 뒤 아랍 인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땅을 되찾기 위해 4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을 벌였다.

수십 년 동안 분쟁을 겪은 두 민족은 1990년대부터 평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크리스티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세 종교의 공동 성지인 동예루살렘 문제로 현재까지 유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반동 회의와 제3 세계의 대두

59차시

1955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와 섬의 반둥에서 열린 국제회의다. 이 회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국 대표단이 참가하여 ‘AA(아시아·아프리카)회의’라고도 하는데,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의 발기로 이루어졌다. 아시아·아프리카의 단결, 냉전 속의 중립, 식민주의 종식을 주장하여 제3 세계의 대두를 극적으로 보여 준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평화 10원칙이 채택되었는데, 기본적인 인권과 국제 연합 헌장 존중, 주권과 영토 보전, 인종 및 국가 사이의 평등, 내정 불간섭,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군사 동맹 불참, 상호 불가침, 평화적 방법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 상호 협력의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 유럽의 통합

59차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이 등장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떨어진 유럽은 국가 간의 통합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1957년에 프랑스를 비롯한 6개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EEC)를 결성하여 상호 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 후 정치와 군사 면에서 통합을 추구하는 유럽 공동체(EC)로 발전하여 회원국 간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공동의 농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EC는 EU(European Union, 유럽 연합)으로 공식 명칭을 바꾸었다. 유럽 연합(EU)은 ‘유럽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유럽 중앙은행 설립과 단일 화폐 사용, 공동 방위 및 외교 정책 등을 추구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당시 12개국으로 출범하였으나, 그 후 회원국이 꾸준히 늘어 현재 30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 유럽 연합기

청색은 서방 세계의 파란 하늘을 나타내며, 별은 유럽의 시민을 의미한다. 별의 개수는 완전함과 완벽함을 상징하는 12개로 고정되었다.

학습 목표

- 냉전 완화와 사회주의 정권의 해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주의 정권이 해체된 후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를 알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60	1. 사회주의 정권의 해체와 자본주의 세계의 확대 ~ 2.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소련이 개혁 · 개방 정책을 펴고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답식	CD
	[전개] •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영향력 약화와 새로운 세력의 부상으로 냉전 체제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동서 진영이 화해와 평화 공존을 추진하면서 냉전 체제가 해체되어 갔음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 대중 민주주의 발달의 배경과 사례를 정리하고,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확대한 사회 복지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자기 주도식	
	• 소련의 개혁 · 개방 정책, 동유럽 여러 나라의 자유화 운동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200쪽 지도
	• 핵무기, 환경 문제, 종교 문제, 민족 갈등 등 현대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사하여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203쪽 지도
	• 남북문제가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찾아보도록 한다.	자기 주도식	202쪽 그림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엘친이 소련을 해체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결성한 것은? 2. 자유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자 1995년에 창설된 국제기구?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 학습 내용 정리

1. 사회주의 정권의 해체와 자본주의 세계의 확대

(1) 냉전의 완화

- ① 배경: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 약화, 유럽 통합 운동의 진행, 제3세계의 세력 확대
- ② 계기: 닉슨 독트린 발표(1969) → 긴장 완화, 양 진영 간의 평화 공존과 경쟁

(2) 자본주의 세계의 성장

- ①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체결 → 국제 무역 확대,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 부흥, 신흥 공업국 성장
- ② 자본주의 경제 규모의 확대: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 육성, 신흥 공업국의 경제 성장 지속

(3) 대중 사회, 복지 사회의 등장

- ① 배경: 대중 소비 체제 형성,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 고조
- ② 대중 민주주의: 대중 매체로 여론 형성, 대중이 사회 주도
- ③ 사회 복지 정책 강화: 최저 임금제, 실업자 구제 수단 지급, 다양한 복지 정책 실시 등

(4)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 해체

- ① 배경: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 표출

- ②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 시장 경제 도입, 사회 민주화, 동유럽 내정 불간섭 선언 → 동유럽 자유화 운동

(5) 동유럽의 자유주의 운동

- 사회주의 정권 붕괴: 폴란드 자유 노조의 바웬사 대통령 취임 →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 혁명
- 독일 통일(1990): 동유럽 민주화 혁명(1989) → 베를린 장벽 붕괴 → 통일

- ④ 소련의 해체: 소련 내 여러 공화국 독립 → 독립 국가 연합 결성(1991)

(5)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대

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 시장 경제 도입: 덩샤오핑의 경제 특구 설치(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 홍콩과 마카오 회복
- 톈안먼 사건(1989): 민주화 운동의 진통

② 쿠바, 북한: 부분적인 개방 정책 실시

(6) 새로운 경제 질서의 대두

- ① 배경: 국제 무역 불균형 심화 → 무역 체제 변경

- ② 자유 무역 질서 확립: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무역 자유화 확대 → 세계 무역 기구(WTO) 창설(1995)

2.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

(1) 핵 문제

- ① 핵무기 확산: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 ② 원전 사고: 체르노빌(소련), 후쿠시마(일본)

(2) 남북문제

- ① 남북문제의 의미: 선진국(북반구)과 개발 도상국(주로 남반구) 간의 경제 격차로 발생하는 국제 문제
- ② 해결 노력: 국제 비동맹국 회의의 제안으로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UNCTAD) 설립 → 세계화 진행으로 남북 격차와 남남 격차가 확대되어 문제 심화

(3) 세계 여러 지역의 분쟁

- ① 특징: 냉전 종식으로 이념 대립에 따른 분쟁 소멸, 종교나 민족 문제에 따른 국지적 갈등과 전쟁 지속

- ② 옛 사회주의권의 민족 분쟁: 체첸(러시아), 보스니아와 코소보(옛 유고슬라비아)

(4) 아프리카의 종족·국경 문제

- 갈등: 종족 분쟁, 인종 청소
-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등의 노력 → 인종 차별 정책 폐지, 평화적 공동체 추구

- ④ 영토 분쟁: 아랍 세력(이슬람교)과 이스라엘(크리스티교)의 대립

(4) 환경 문제

- ① 원인: 인구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 등
- ②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 오존층 감소, 대기와 하천 오염 등
- ③ 해결 노력: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총회 등 →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98쪽

동유럽 민주화 혁명이 진행되고, 소련이 해체되는 등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01쪽

1.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지속되었고, 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소득 수준이 낙후하였다.
2. 민주주의 실시와 시장 경제 도입을 추구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02쪽

핵 위협 등으로 인한 지구(인간 세계)의 멸망 시각을 표시하고 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03쪽

1. (1) ×, (2) ×
2. **예시 답안**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 오존층 감소, 대기 오염, 하천 오염, 자원 고갈 등을 들 수 있다.

● 내용 더하기

● 베를린 장벽

60차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에 항복한 독일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에게 분할 점령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방 연합군이 진주한 서베를린과 소련이 진주한 동베를린이 점차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1961년 동독 정부는 동·서베를린 사이에 40km가 넘는 두꺼운 콘크리트 담장을 쌓았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후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방문객들만이 브란덴부르크 문을 통해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동유럽에서 자유화 운동이 거세어지면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었고, 이듬해인 1990년 독일이 통일되었다. 냉전의 상징물이던 베를린 장벽은 브란덴부르크 문을 중심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개혁·개방 정책

60차시

1982년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가 사망한 이후 소련에서는 당과 관료 체제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1985년에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소련 개혁의 연장선에서, 당과 국가 기구를 엄정하게 비판하고, 그 전제로서 언론의 자유,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방(글라스노스트)을 제창하였다.

당의 지도부는 새로운 당 간부를 육성하고 국민의 참여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정제되어 있던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동안 누적된 모순들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혁신을 위한 대개혁(페레스트로이카)이 전면에 부상하였다.

그러나 ‘개방’은 당과 국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권위를 하락시켰으며, ‘개혁’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개혁 방향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소련은 스스로 추진했던 개혁이 실현되기도 전에 체제가 소멸되는 운명을 맞

게 되었다.

개혁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련 지도부는 군축 회담의 추진,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등 이전과는 다른 외교 정책을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서방의 선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막대한 경비를 요구하는 군수 산업의 비중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서방의 비난을 받고 있던 인권 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소련은 1987년 미국의 입장을 거의 수용하여 중거리 핵 전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은 동유럽의 변혁이 이루어진 1989년 5월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 종료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12월 미·소 정상은 지중해의 몰타 섬에서 정상 회담을 하고 냉전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 텐안먼 사건

60차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지 10년이 되어 갈 무렵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적 퇴조와 몰락에도 중국식 사회주의가 이룩한 성과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적지 않은 부작용도 따라 그 시정을 위한 제도 개선, 즉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변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 학생과 시민들의 참여는 덩샤오핑의 정치 리더십이 한계를 드러낸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덩샤오핑은 생산력이 발전하면 정치도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현실은 생산력의 발전이 오히려 시민운동을 성장시켜 정치의 불안정이 조성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 논리로 정치 문제를 극복하려던 덩샤오핑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의 불균형으로 한계를 드러내면서 1986년 지식인의 민주화 요구 시위와 1989년 6월 4일의 텐안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텐안먼 사건이 일어난 1989년은 5·4 운동 70주년이자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40주년이며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지 10년째로 접어드는 시점이었다. 당 총서기 자오쯔양은 개혁 정책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자 리핑은 정치 개혁의 속도를 완만하게 하자는 건의를 했으며, 원로들은 책임을 물러 당 총서기를 사퇴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긴장 상황에서 1986년 12월 대규모 학생 시위로 실각했던 후야오방이 1989년 4월 15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이를 계기를 민주화 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

• 전개: ① → ② →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 미국의 참전 → 독일 항복

• 특징: 장기전(독일, 총력전, 선전전, 신무기의 등장) → 대량 살상

• 2회 혁명(1917년 3월 15일) → 10월 혁명(사회주의 정부 수립)

• 경제 정책: 전사 공산주의 정책에 따른 국내 경제 위축 → ③ 추진

진후의 세계

베르사유 체제의 유입

• 평화 수립 운동: ④ 창설, 군비 축소 회의, 부전 조약 체결

• 민주주의의 발전: 보통 선거 실시, 여성의 참정권 운동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 아시아: 한국의 3·1 운동, 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방정 운동

• 아프리카: 이집트 독립, 남아프리카주의 확산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

〈대공황 발생〉

• 미국의 경제, 양국과 프랑스의 경제 불

• 특징: 미국의 3·1 운동, 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방정 운동

• 파시즘 출현

〈제2차 세계 대전〉

• 발발: 파시즘 국가들의 결속 → 독일의 폴란드 침공

• 전개: 독일의 소련 침공, 일본의 태평양 전쟁

〈국제 연합 창설〉

• 대서양 헌장, 강화 회의와 전쟁 재판

• 국제 연합 창설: 강대국 참여, 유엔군 결성

진후 새로운 세계 질서

〈냉전의 형성과 전개〉

•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립

• 전개: 한국-독일의 분단, 일본 전개

〈아시아-아프리카의 독립〉

• 아시아: 중국의 공산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할

• 아프리카: 1960년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독립

〈제3 세계의 유입 운동〉

• 제3 세계의 성립: 비동맹 중립 노선 추구

• 유럽 통합 운동: 유럽 경제 공동체 → 유럽 연합

현대 세계

〈사회주의 정권의 해체〉

•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 동유럽의 민주화 혁명, 독일 통일

〈자본주의 세계의 확대〉

• 신흥 공업국의 성장, 세계 무역 기구(WTO) 창설, 중국의 개방 정책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

• 핵 무기의 위협, 인종·종교 문제 등에 따른 지역 분쟁, 환경 문제

사건인 정리

①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제1차 세계 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② 공산화 정책을 완행하여 중소 규모의 농업, 상업, 공업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③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창설한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미국이 제안하였다.

④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정부가 경제 활동을 통제하였다.

⑤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경제 격차에 따른 국제 문제를 가리킨다.

과제 풀이

-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비정부 기구(NGO)의 활동을 조사하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우리)의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자.



▲ 세계적 환경 보호 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의 반핵 운동



▲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호하는 국제 연합 아동 기금(UNICEF)

과제 작성 요령

- ①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비정부 기구(NGO)의 활동을 조사하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우리)의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자.
- ② 선택한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는다.
- ③ 이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비정부 기구의 주요 활동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 ④ 이 과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한 가지씩 적는다.
- ⑤ 당면 과제나 비정부 기구의 활동과 관련된 사진 등을 덧붙여 작성하면 더욱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작성 양식

순서	당면 과제	선정 이유	비정부 기구의 주요 활동	내(우리)의 실천 방안
1				
2				
3				

내용 확인하기

1 사라예보 사건

- ✚ 세르비아계 청년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이다.

2 신경제 정책

- ✚ 레닌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3 국제 연맹

- ✚ 미국, 소련 등 강대국이 불참하였으며,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4 뉴딜 정책

- ✚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하였으며, 정부가 농업과 공업의 생산을 조절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시하였다.

5 남북문제

- ✚ 비동맹국 회의의 제안으로 설립된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UNCTAD)가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과제 풀이하기

지도 요령

문제 선정과 조사 활동이 필요한 탐구 과제이므로 개인보다는 모둠 단위로 활동하도록 지도한다. 모둠에서 당면 과제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개인별로 조사한 후 모둠원이 함께 토론하고 정리하여 양식을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예시 답안 | 국경 없는 의사회

당면 과제	차별받거나 소외된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
선정 이유	사회적, 경제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의사들임에도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
주요 활동	주요 분쟁 지역, 자연재해나 인재 발생 지역,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의료 시설 낙후 지역을 방문하여 이념과 인종, 종교의 벽을 넘어 긴급 구호 활동 전개
우리의 실천 방안	아프리카 신생아를 위한 모자 뜨기 캠페인에 참가하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 실천

대단원 짚고 가기

01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공황 ② 3국 동맹
- ③ 모로코 사건 ④ 사라예보 사건
- ⑤ 범게르만주의

02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실은?

- 2월 혁명과 10월 혁명
- 소비에트 정부 수립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① 제국주의의 확산
- ② 사회주의 정부 수립
- ③ 자유 민주주의의 확산
- ④ 민족주의 운동의 확대
- ⑤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

03 다음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으로 옳은 것은?

1929년 10월 28일, 뉴욕 주식 시장에 대폭락이 일어나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불안에 빠지게 되었다. 1932년까지 미국과 유럽의 공업 생산은 50%, 무역은 60%, 국민 소득도 50% 감소하였고, 실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거리에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넘치고 약간의 음식을 제공하는 구호소 앞에는 연일 긴 행렬이 이어졌다.

- ① 영국-정부 주도로 생산량 조절, 실업자 구제
- ② 미국-정부 개입을 없애고 자유 경제 체제 실시
- ③ 독일-대규모 토목 공사, 폭넓은 복지 정책 추진
- ④ 일본-보호 관세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 실시
- ⑤ 프랑스-식민지와 배타적인 경제 구역(블록) 형성

04 다음 글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은(는) 처음에 ‘국가 최우선, 반민주·반공’을 내세운 무솔리니의 군국주의 정치 운동을 의미하였다. 이들은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하여 교육과 언론을 장악하고, 국가나 민족을 앞세우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정치 이념을 ()(이)라고 한다.

- ① 나치즘 ② 파시즘
- ③ 군국주의 ④ 사회주의
- ⑤ 인종주의

05 다음 <보기>의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 (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투하
- (나) 독일의 폴란드 공격
- (다) 독일 공군의 프랑스, 영국 공습
- (라) 일본의 진주만 기습
- (마) 노르망디 상륙 작전

- ① (가) - (나) - (라) - (다) - (마)
- ② (가) - (라) - (나) - (마) - (다)
- ③ (나) - (라) - (다) - (마) - (가)
- ④ (나) - (다) - (라) - (마) - (가)
- ⑤ (다) - (가) - (나) - (라) - (마)

06 인도의 민족 운동가인 A와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A - 완전한 독립 요구
- B - 국민 회의를 중심으로 완전 자치 요구

- | <u>A</u> | <u>B</u> |
|----------|----------|
| ① 간디 | 네루 |
| ② 간디 | 타고르 |
| ③ 네루 | 간디 |
| ④ 네루 | 타고르 |
| ⑤ 간디 | 압둘 칼람 |

07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950년대에 들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두 진영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새로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기 위한 원칙을 선언하였다.

- ① 세계 평화 ② 상호 연대
- ③ 반식민주의 ④ 비동맹 중립
- ⑤ 민족 자결주의

08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된 배경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1차 대전] | [2차 대전] |
|---|------------|------------|
| ① | 진주만 공습 | 무제한 잠수함 작전 |
| ② | 진주만 공습 | 러시아 혁명 |
| ③ | 러시아 혁명 | 베를린 봉쇄 |
| ④ | 무제한 잠수함 작전 | 진주만 공습 |
| ⑤ | 무제한 잠수함 작전 | 러시아 혁명 |

09 다음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을 비교한 표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구분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①	배경	제국주의	전체주의
②	전쟁 시작	사라예보 사건	폴란드 침공
③	국제기구 설립	국제 연맹	국제 연합
④	전후의 세계	냉전 체제	베르사유 체제
⑤	영향	아시아·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운동 전개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 탄생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한 (A)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B) 진영의 대립으로 (C) 체제가 성립되었다.

10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A - 민족주의
- ② A - 자본주의
- ③ B - 자본주의
- ④ B - 사회주의
- ⑤ C - 열전

11 윗글의 A 진영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

- ① 코민포름
- ② 마셜 계획
- ③ 트루먼 독트린
- ④ 바르샤바 조약기구
- ⑤ 북대서양 조약 기구

12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대 세계의 문제는?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술과 자본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복지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가들은 선진국들에게 공업 원료와 농산물을 공급하며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 ① 남북문제 ② 지역 분쟁
- ③ 환경 문제 ④ 동서 문제
- ⑤ 경제 분쟁

정답

- 01 ① 02 ② 03 ⑤ 04 ② 05 ④ 06 ③ 07 ⑤ 08 ④ 09 ④
10 ③ 11 ①, ④ 12 ①

